

2021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공동학술대회

# 동유라시아 문명 · 문화 교류의 역동성

■ 일시: 2021년 5월 28일(금) ~ 29일(토) 13:00~17:00

■ 장소: ZOOM(ID: 869 0545 2131 / 암호: 784048)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당진시(유네스코선정 올해의 인물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2021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공동학술대회

# 동유라시아 문명 · 문화 교류의 역동성

■ 일시: 2021년 5월 28일(금) ~ 29일(토) 13:00~17:00

■ 장소: ZOOM(ID: 869 0545 2131 / 암호: 784048)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당진시(유네스코선정 올해의 인물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 이 행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NRF-2018S1A6A6062488)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1054082)



**공동학술대회 1일차 일정\_2021년 5월 28일(금)**

**- 제1주제: 동유라시아 문명 문화 교류의 연구 현황과 과제 -**

**개회식** 사회 | 김장구(동국대)

**13:00~13:20** 접수

**13:20~13:25** 개회사 | 서인범(동국대 문화학술원장/HK+사업단 단장)

**13:25~13:30** 인사말 | 안외순(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장/인문도시사업단 단장)

**1부 발표**

사회 | 김장구(동국대)

**13:30~13:50** 【기초발표】

물품을 통해 보는 전근대 동유라시아 세계

발표 | 노대환(동국대/HK+사업단 부단장)

**13:50~14:10** 【제1발표】

세계의 물품문화학 연구 동향과 디지털시대의 과제

발표 | 김성규(동국대)

**2부 발표**

사회 | 임경준(동국대)

**14:10~14:30** 【제2발표】

근세 한일관계 물품교류 연구 현황과 전망

발표 | 이승민(동국대)

**14:30~14:50** 【제3발표】

종교사에 있어서 물질문화 연구의 가치와 전망

발표 | 박연주(동국대)

**14:50~15:10** 【제4발표】

유럽의 디지털 역사학

발표 | 최원재(동국대)

**15:10~15:20** 휴식

**15:20~17:00** 【종합토론】

좌장 | 안외순(한서대 인문도시사업단 단장)

심지원(동국대), 장순순(전주대), 장현근(용인대), 유인태(성균관대)

공동학술대회 2일차 일정\_2021년 5월 29일(토)  
 - 제2주제: 동유라시아 물품 교류의 모빌리티 -

1부 발표

사회 | 김택경(동국대)

13:30~14:10 【기조발표】

西漢敦煌郡의設置

발표 | 郑炳林(兰州大学 敦煌学研究所 所長)

14:10~14:30 【제1발표】

고고학으로 본 유라시아 문명교류사

발표 | 박천수(경북대)

14:30~14:50 【제2발표】

8-10세기 동유라시아 모피 교역

발표 | 윤재운(대구대)

2부 발표

사회 | 김병모(동국대)

14:50~15:10 【제3발표】

용의 침방울: 근세 동아시아 용연향의 박물학

발표 | 김문기(부경대)

15:10~15:30 【제4발표】

고대 동아시아 불교 물품의 교류

발표 | 강희정(서강대)

15:30~15:50 【제5발표】

옛 이야기에 나타난 인도네시아 상인들의 교역활동과 문화

발표 | 권혁래(용인대)

15:50~16:00 휴식

16:00~17:00 【종합토론】

좌장 | 서인범(동국대 HK+사업단 단장)  
 안덕임(한서대), 이승호(동국대), 김현선(동국대),  
 박재복(경동대), 김예겸(부산외대)

17:00

폐회사 | 서인범(동국대 문화학술원장/HK+사업단 단장)

# 목 차

## - 1일차 -

【기조발표】 노대환(동국대/HK <sup>+</sup> 사업단 부단장) 물품을 통해 보는 전근대 동유라시아 세계 .....	9
【제1발표】 김성규(동국대) 세계의 물품문화학 연구 동향과 디지털시대의 과제 .....	25
【제2발표】 이승민(동국대) 근세 한일관계 물품교류 연구 현황과 전망 .....	35
【제3발표】 박연주(동국대) 종교사에 있어서 물질문화 연구의 가치와 전망 .....	69
【제4발표】 최원재(동국대) 유럽의 디지털 역사학 .....	81
【종합토론】 토론문	
제1발표 토론문 심지원(동국대) .....	99
제2발표 토론문 장순순(전주대) .....	103
제3발표 토론문 장현근(용인대) .....	107
제4발표 토론문 류인태(성균관대) .....	113





**【기조발표】**

**물품을 통해 보는 전근대 동유라시아 세계**

**노대환(동국대학교)**



# 동유라시아 세계 물품의 문명·문화사

노대환(동국대 사학과)

# 물품과 역사



구석기 시대 스페인 찌르개  
(문경, 단양, 일본 오이타현)



평양 낙랑고분 석암리 9호분 출토  
황금 허리띠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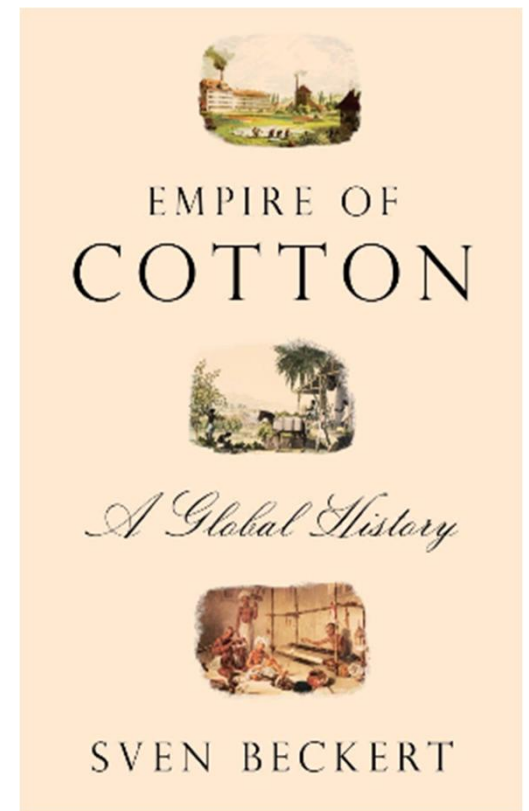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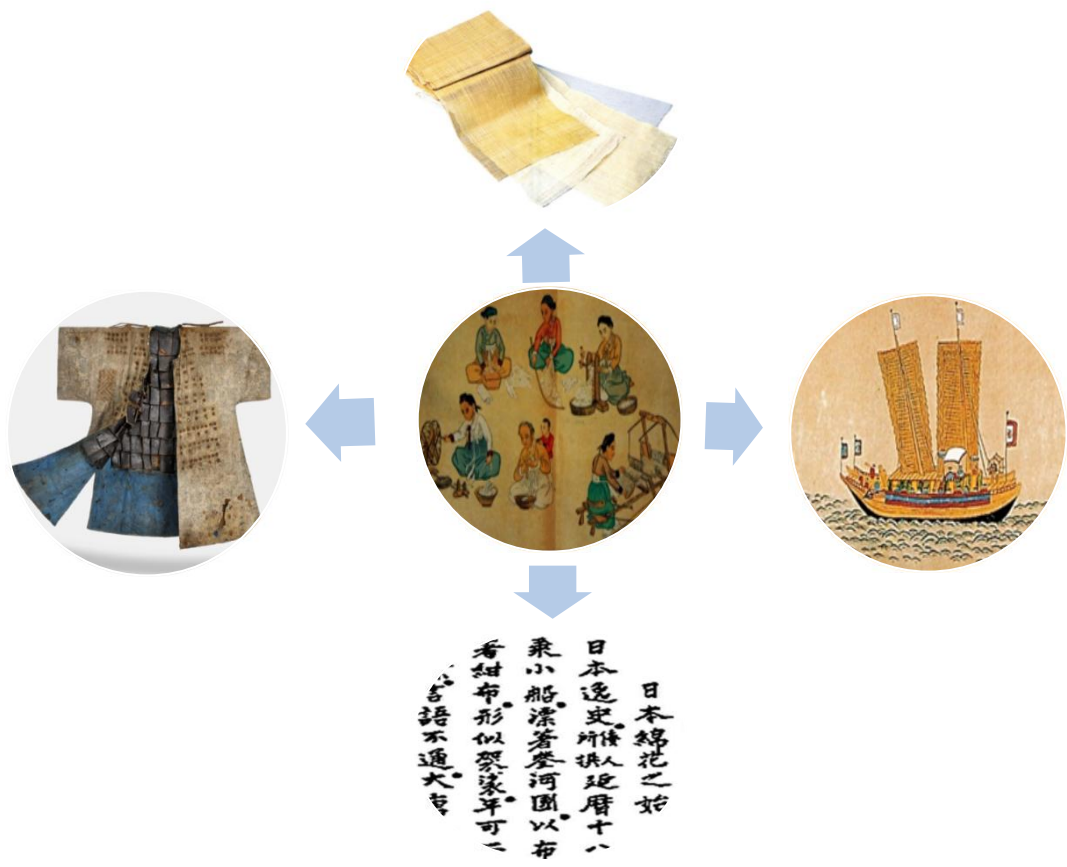


카라샤르 황금 허리띠 장식  
(신장위구르 박물관 소장)



# 물품과 삶

- 면화의 예 -



# 물품과 삶

- 귀걸이 풍습의 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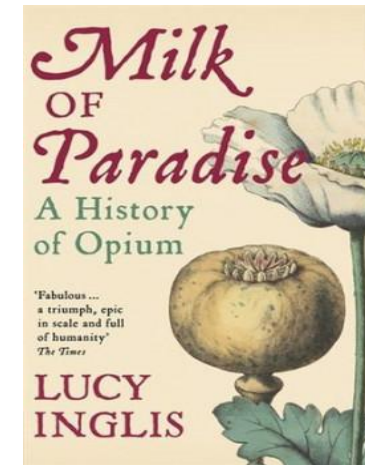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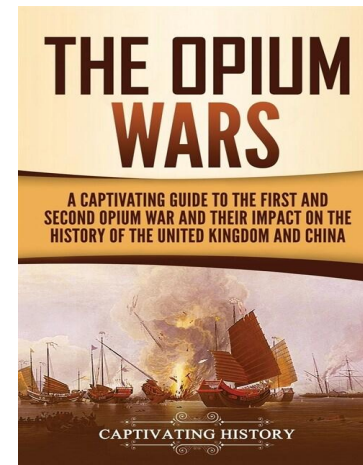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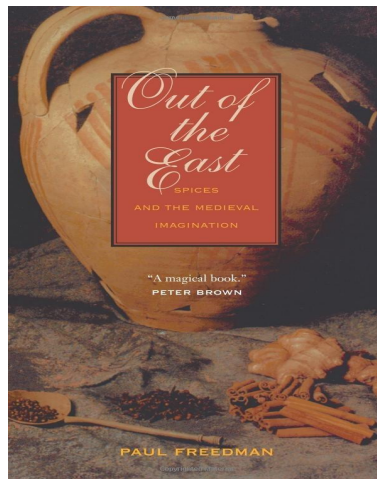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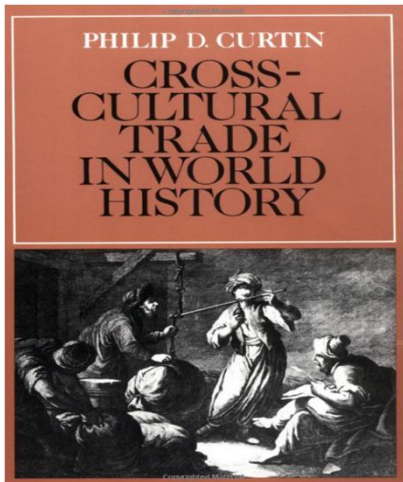
唐閻立本王會圖



元 武宗

- "신체(身體)와 발부(髮膚)는 부모에게 물 받는 것이니 감히 훼손(毀傷)하지 않는 것이 효(孝)의 시초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내아들이 귀를 뚫고 귀고리를 달아 중국 사람에게 조소(嘲笑)를 받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이후로는 오랑캐의 풍속을 일절 고치도록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 [선조실록] 선조 5년 9월 28일 -
- 금상(今上 선조) 초년에 오랑캐 풍속을 고쳐야 한다는 명이 있었다. 그래서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아이를 낳아도 아무도 귀를 뚫지 않았는데, 계집아이만은 혹 모양을 내려고 그대로 귀걸이를 하는 일도 있다. - 윤국형, [聞韶漫錄]-

# 무역사에서 물품사로



## 중요성

'동유라시아 지역사·해역사'의 새로운 시각 제시  
동유라시아 물품의 집대성과 문명·문화의 복잡성 연구  
'생산의 경제사'에서 '소비의 문화사'로 관점 전환



# 무엇을 다룰 것인가?

## 경제사

은, 동, 해삼(화폐) 등  
교역 물품

## 생활사

복식류, 음식류(대구,  
문어, 전복), 향신료, 장  
신구 등 생활 물품

## 종교사

불교용품, 자단목,  
대장경 등 종교 물품

## 미술사

불상, 자개, 도자기 등  
미술 물품

## 무기사

수우각, 염초, 유황 등  
전쟁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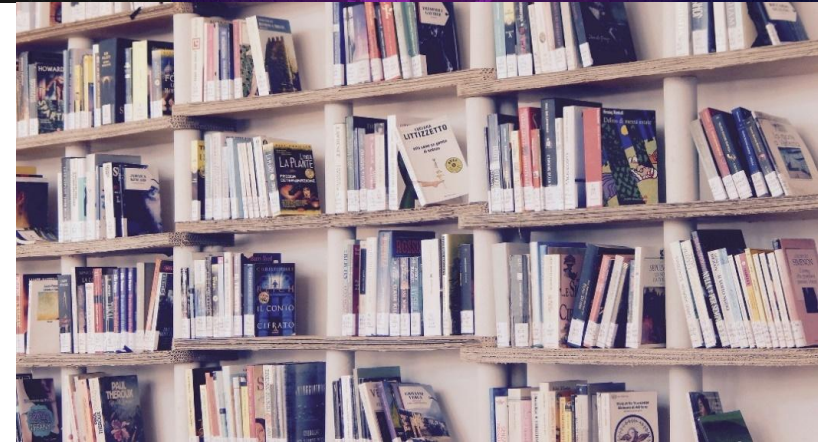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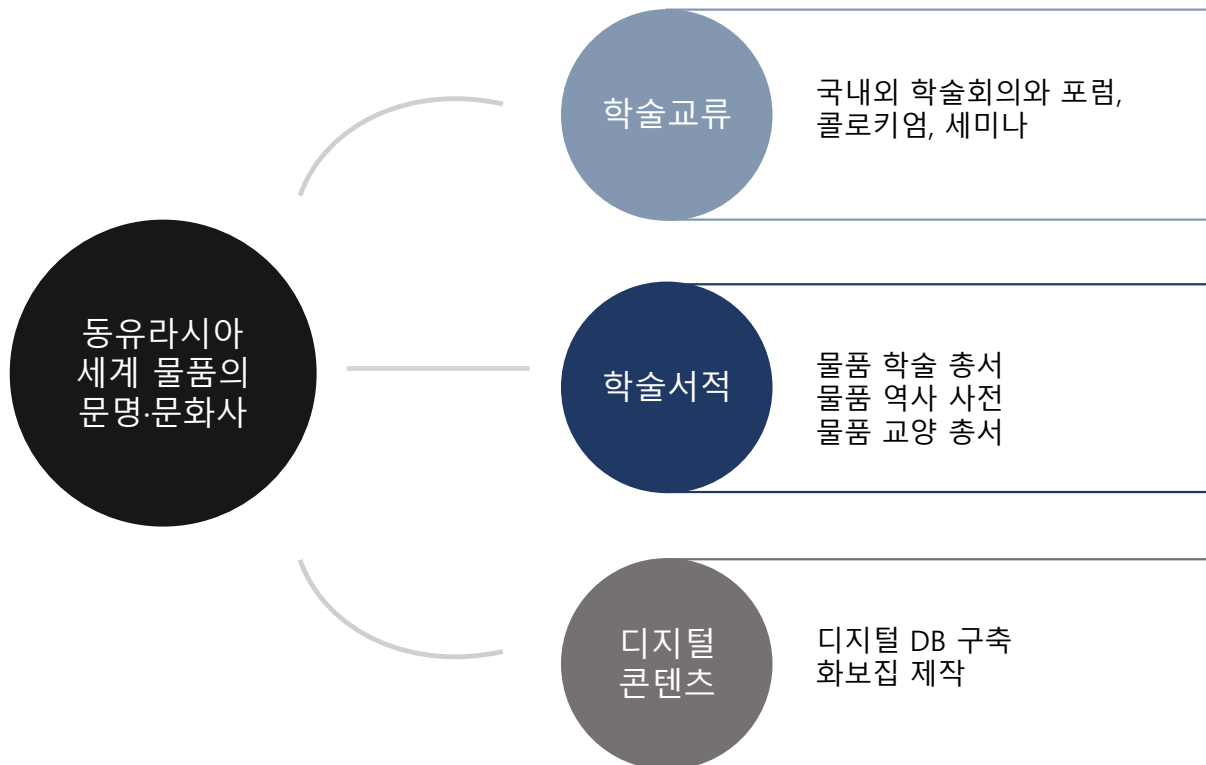
## 생태환경사

담비, 호랑이, 표범, 해달  
등 모피 물품

## 의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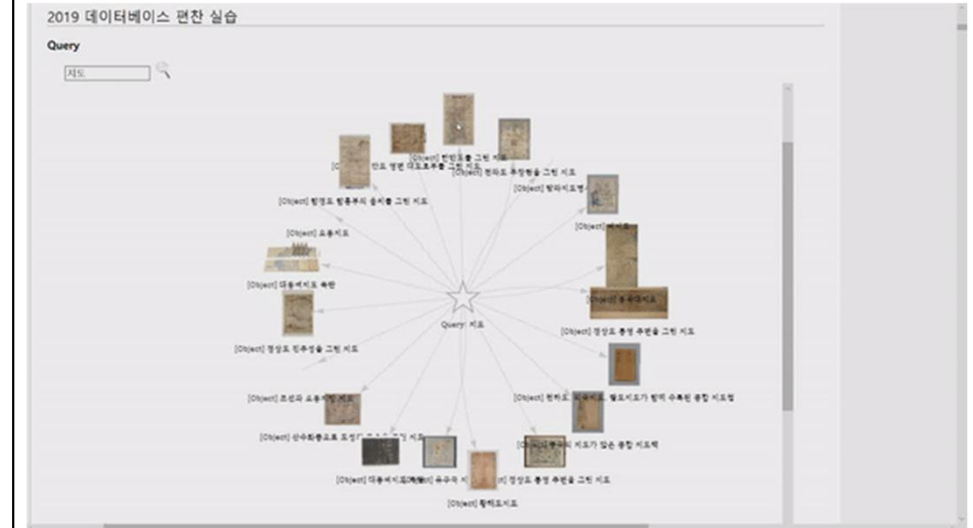
소합원, 인삼, 청심환  
등 약재 물품

# 학술 사업 총괄



# 물품자료 DB 구축(Wiki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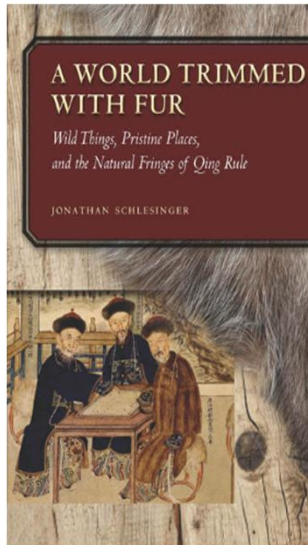
품목	담배	분류	기호품	
원산지	남아메리카	사용지	한반도(조선)	
수용 시점	1618년(光海君 10)	수용 경로	일본(倭寇)-중국(西草)	
생산 방식	자유 경작	유통 경로	-	
소비 계층	양반·중인·상민 / 성인			
관련 사료	출전	『경도잡지(京都雜誌)』 卷1, 풍속(風俗)·차와 담배(茶烟)		
	찬자	유득공	시기	1800년 전후
	원문	關西之三登成川等地產金絲烟俗稱西草甚珍之朝士必有烟盒鐵鑪銀銅梅竹紫鹿皮綬并烟盃携在馬後 卑賤在尊貴之前不敢吸烟朝士出街辭徐舍烟者甚嚴		
	해석	평안도 삼등(三登), 성천(成川) 등지에서는 금사연(金絲烟)이란 담배가 생산된다. 속칭 서초(西草)라고 하는데, 맛이 매우 좋다. 벼슬한 자들은 반드시 담배합을 지참하는데, 죄로 주조한 것이 고 은등으로 매화와 대나무를 새겼으며 자색 녹피로 끈을 달아 재떨이와 함께 말 뒤에 달았다.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 앞에서 감히 담배를 피우지 못했고, 관직자가 길을 가기 위해 벽제(僻徐)를 할 때, 담배 피우는 자가 있으면 엄히 다스렸다.		
	출전	『경도잡지(京都雜誌)』 권1, 풍속(風俗)·가도(呵導)		
	찬자	유득공	시기	1800년 전후
원문	幸待從呵導擊捷渾激各殊有犯前導或騎馬舍烟棹扶不坐者並抄路傍舍拿治			
해석	재상이나 시종신하의 행차를 알리는 가도(呵導) 소리는 웅장하고 맑고 거세가 각기 다르다. 그 앞을 지나거나 말을 타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혹은 소매를 저으며 풀어앉아있지 않은 자는, 우선 길가 잡초를 잡아 기둥으로다가 치기한다.			



# 물품 총서 간행



물품 번역총서



물품 학술총서



- 재미있는 물품 이야기
- 시대사 속 물품이야기
- 물품으로 읽는 역사 시리즈

물품 교양총서

# 물품 역사 사전 간행



## 물품 역사 사전 구상안

『경상도지리지』

한자	慶尙道地理志
영어음역	Gyeongsang-do Jiriji
영어의미역	Geography of Gyeongsang-do
분야	역사/전통 시대, 문화유산/기록 유산, 지리/인문 지리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윤용출

**[상세정보]** [더보기](#)

**[정의]**  
1425년 경상도 관찰사 하연(河演) 등이 편찬한 경상도의 지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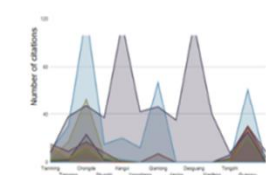
# 물품 화보집 출간



# 동유라시아 물품학의 정립과 비전

⊙ 동유라시아 물품학의 정립

⊙ 세계 물품의 문명·문화사를 포괄하는  
거점 연구사업단



↑

사료연구와  
빅데이터 구축

↑

문명·문화사  
테마 연구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멀티미디어  
플랫폼 구축



여 백



**【제1발표】**

**세계의 물품문화학 연구 동향과 디지털 시대의 과제**

김성규(동국대학교)



# 세계의 물품문화학 연구 동향과 디지털 시대의 과제

김성규(동국대학교)

- I. '물품문화학'이란 무엇인가
- II. 물품문화학의 다섯 갈래
- III. 디지털 시대와 물품문화학

## I. '물품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이 정의한 '호모 파베르'(Homo Faber)는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을 정의하는 여러 개념들 중에서도 특히 '도구를 제작하고 다룰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 최초의 현생 인류가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인간은 도구를 활용해 스스로의 운명과 자신을 둘러싼 척박한 환경을 개척해나갔다. 다른 종에 비해 부족한 신체적 능력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성을 활용하여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가공하고 변형한 도구의 활용은 가혹한 자연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처럼 자연 상태의 것을 인간의 지성과 힘으로서 가공하거나 변형하여 만들어 낸 모든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 현재의 우리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를 테면, '물품'(物品)이나 '물질'(物質), '상품'(賞品), '사물'(事物) 등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할 수 있겠다.

'Material Culture Studies'(이하 MCS)는 바로 그 물품이나 물질, 상품, 사물 등이 인간과 관계하면서 형성한 모든 삶의 양식과 지식, 문화적 현상, 자연의 변화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아직 한국 학계에서는 MCS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학술적 명칭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고 있다. MCS 중 'Studies'를 제외한 'Material Culture'에 대한 번역으로서는 '물질문화'(物質文化)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술적 의미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일부 인터넷 사전에서 '재료문화학' 등이 MCS를 단순하게 직역한 용어로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물질문화나 재료문화학 등은 앞서 언급한 MCS의 학술문화적 의미를 완전히 담지는 못한다. 그렇기에 우선 MCS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학술적 용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MCS에 대한 학술적 의미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품

문화학(物品文化學)을 선택하려 한다. 그 이유는 ‘물품’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물’(物)은 인간 고유의 감각을 통해 인지하는 실재적 모든 사물이나 감각하지 못하더라도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품’(品)이 어떤 물건의 상태나 성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물품은 인간에게 대상으로서 존재하여 인간과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받거나 끼치는 고유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인간이 지금까지 이룩해온 문화는 바로 이러한 물품과는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물품의 관계를 이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현재 MCS를 연구하는 세계 여러 학자들이 물품이나 물질, 상품, 사물 등을 지칭하는 학술적 개념으로서 ‘object’를 도입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물품문화학의 계보와 진보』(*Lineages and Advancements in Material Culture Studies*)의 집필에 참여한 티모시 캐롤(Timothy Carrol)과 안토니아 월포드(Antonia Walford) 등에 의하면, 1990년대에 이르러 MCS는 본격적으로 하나의 학문적 분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object’를 비롯한 ‘artefact’와 ‘thing’, ‘stuff’, ‘substance’, ‘material’ 등과 같은 여러 용어들이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학자들 간에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었기에, 용어의 통일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캐롤과 월포드 등은 ‘object’가 이와 같은 여러 용어들 중 물품문화학을 연구하는 학술 용어로서 가장 적합한 이유를 가장 적합한 이유를 찰스 퍼스(Charles Peirce)의 ‘대상체’(object)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퍼스는 ‘표상체’(representation)와 ‘대상체’, ‘해석체’(interpretation)의 삼원적 관계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기호학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다. 이 중 대상체는 표상체를 통해 지칭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는 대상인 동시에 해석체를 통해 추론하고 의미를 구현하게 되는 ‘실재적 무엇’이다. 실재의 대상체가 있어야 그것을 부르거나 표현하려는 표상체가 생성될 수 있으며, 그것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인 해석체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은 하나의 순수한 실재인 대상체를 지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표상체를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체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물품의 의미처럼 ‘인간에게 대상으로서 존재하여 인간과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받거나 끼치는 고유의 성질을 지닌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필자는 향후 MCS를 지칭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용어로서 ‘물품문화학’이, ‘object’에 가장 가까운 우리 표현으로서는 ‘물품’이 더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현대의 물품문화학은 우리 인간의 주변에 대상으로서 실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관점으로 연구와 분석의 대상과 범주를 확장시켰다. 그리고 물품문화학은 물품과 인간이 어떤 방식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지와 그로 인해 인간의 문화는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다섯 가지로 세부 연구 영역을 분류하고 있다. ‘자아와 인간성’(self and personhood)과 ‘시간성’(temporality), ‘규모와 위상’(scales and topology), ‘재현’(representation), ‘정치성과 참여’(politics and

participation)가 바로 그 다섯 가지 세부 연구 영역이며, 영역들 사이의 가로지르기를 통해 교차와 비교, 융합 등 다각적인 연구 또한 가능하다.

## II. 물품문화학의 다섯 갈래

물품문화학의 다섯 갈래 중 ‘자아와 정체성’은 물품이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어떻게 인간의 자아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원시 시대의 인간과 석기 시대, 철기 시대,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인간은 논리의 구조와 사고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시대를 가름하는 기술의 발달 정도와 그로 인해 생산되는 물품이 각각의 시대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 용적이나 신체의 구성 등과 같은 생물학적 구조는 원시 시대와 현 시대를 비교한다하더라도 아주 큰 차이는 찾을 수 없을지 모르나, 인간 주변을 구성하는 환경을 놓고 보면 두 시대는 매우 큰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는 분명 인간 주변을 둘러싼 물품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움막집을 짓고 돌팔매질을 하는 인간과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컴퓨터를 쓰는 인간은 전혀 다른 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 둘의 극명한 차이는 고유의 인간 신체가 아닌 물품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전에 없던 혁신적이고 새로운 물품의 등장은 인간과 사회를 크게 바꾸기도 한다. ‘산업 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라 불릴 정도의 큰 변혁이 일어났던 시기를 주목해보면 특정 물품이 인간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알 수 있다. 1차 산업 혁명은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발명한 ‘증기 기관’의 등장과 함께 일어난 ‘증기 혁명’이며, 2차 산업 혁명은 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가 발명한 ‘전자기 유도 장치’로 촉발된 ‘전기 혁명’이다. 3차 산업 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을 통해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시작된 ‘인터넷 혁명’이었으며, 4차 산업 혁명은 지적인 활동과 사고가 가능한 물품인 ‘인공지능’을 만들고자하는 ‘인공지능 혁명’이다.

매 산업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산업 혁명시기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물품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 놓기에 충분했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아에 대한 관념과 인간성을 형성하도록 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에 등장하는 물품들은 자아와 인간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공 지능뿐만 아니라 인공 장기, 인공 신체(의족, 의수, 의안 등)의 등장으로 인간은 이미 ‘인공 물품’(artificial material)과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포스트휴먼’(posthuman)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물품은 언제나 인간의 신체 밖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포스트휴먼은 ‘인공 물품과 결합한 인간’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제시하며, 인간이 궁극적으로는 유한한 신체에서 벗어나 모든 신체를 인공 물품으로 대체한 반영구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준다. 물품문화학에서 자아와 인간성 연구 영역은 4차 산업 혁명이 불러올 미래 사회를 연구하고 그 사회에서 새롭게 정립 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는 선도적인 연구 분위기를 구축하고 있다.

물품문화학의 또 다른 연구 분야인 ‘시간성’은 특정 물품이 지닌 ‘과거’(past)와 ‘현재’(present), ‘미래’(future)의 선형적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물품 안에 내재해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 분야이다. 물품문화학의 시간성은 ‘물품지향’(object orientation)적 관점을 취하는데, 인간 중심적 사고와 인지에서 벗어나고 물품으로 인해 문화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연구한다. 어느 특정한 물품이 인간으로 하여금 또 다른 물품의 등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은 인간의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이 물품의 시간성이 지닌 대표적인 관점이다. 이밖에도 특정 지역에서만 등장하는 특정 물품들이 그 지역 인간 사회가 지닌 독특한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물품이 인간에게 끼친 영향력을 더 크게 평가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기존의 물품이 새로운 물품의 출현을 야기하는 연쇄적 창발의 효과에 주목하며, 지역별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물품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는 관점이 된다.

물품의 ‘규모와 위상’ 역시 시간성 연구 분야처럼 물품지향적 관점을 취하며, 인간이 ‘공간’(space)을 인지하는 데에 물품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연구 분야이다. 물품문화학의 규모와 위상 연구 분야에서 물품은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되는데, 인간이 만든 크고 작은 건축물과 자동차, 배 등의 탈 것 등 인위적 물품뿐만 아니라 산과 나무, 강, 바다 등 인간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대상으로서 물품의 영역은 확대된다. 수잔 쿠클러(Susanne Küchler)는 ‘연속된 무언가’(something in sequence)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은 비로소 선대의 인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후대의 인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위의 <그림 1 ~ 3>은 순서대로 서울시 강남 지역의 19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과 들, 논, 밭, 비포장 길 등으로 구성된 <그림 1>의 강남의 모습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그림 2>의 강남, 그리고 초고층 빌딩과 대로, 무수한 자동차 등으로 구성된 <그림 3>의 강남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다. 각 시대별로 강남의 모습을 기억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의 기억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

으며, 그 이유는 바로 강남이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물품들 때문이다. 공간에 대한 기억과 인지의 차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사유하게 하는 ‘역사성’(historicity)을 모색하게 하며, 인간의 삶과 문화의 변화에 대한 철학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은 물품문화학 중 ‘표상’의 영역이다. 물품문화학에서 말하는 표상은 물품이 지니는 상징성과 지식, 미학, 종교성 등으로서 물품에 내재돼있지만, 실재하지 않아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으로서는 감지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비실재적인 것이다. 어떤 물품은 때로는 종교성이나 신화적 상징, 사회적 함의 등의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하는데, 이는 그 물품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과는 전혀 무관할 때가 있다. 단군 신화에서 마늘과 쑥이 식물이나 식량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인간에의 조건으로 묘사되거나 서구권에서 사과가 과일의 의미를 넘어 질투와 원죄, 과학혁명 등을 의미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 특정 물품은 추상적 의미를 표상하는 기능을 한다.

현대 물품문화학에서 표상에 대한 연구는 지식 또한 물품으로 여긴다. 한나 녹스(Hannah Knox)는 ‘지식 그 자체로서의 물품’(knowledge is itself an object)이라는 말하며, 두 가지 지식이 곧 물품이 되는 관점을 제시했다. 하나는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는 그야말로 지식의 집합으로서의 물품인 책이나 문서, 나아가 디지털 저장 매체 등의 실질적으로 지식을 저장하는 물품이다. 또 다른 지식으로서의 물품은 가상 세계 속에 구현된 물품이다. 녹스는 디지털 세계에 구현된 데이터로서의 물품 역시 물품문화학이 논의해야 할 범주에 포함시킨다. 무한히 펼쳐진 가상의 세계 속에 구현된 무수한 물품들, 특히 현실의 부나 물품과도 교환할 수 있는 가상의 디지털 물품의 효용 가치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에 대한 연구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가상화폐가 현실 화폐와 교환 가치를 획득하거나 가상에서만 존재하는 각종 물품을 거래하는 등 현 시대는 소위 ‘디지털 플랫폼 경제’(digital platform economy)라는 경제적 관념이 자리 잡은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에 지식과 정보를 그 자체로서 물품으로 여기고 가상의 데이터로서의 물품이 지닌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 영향 등을 연구하는 것은 물품문화학의 새로운 연구 영역 확장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물품이 지닌 정치적 성격과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정치성과 참여’에 대해 보도록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Politics*)에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다.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은 정치적 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물품문화학의 정치성과 참여 연구는 인간 사회가 규합되거나 분열되는 상황에서 물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특정 물품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밝히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캠던(Camden, South Carolina)의 지역 신문인 『캠던 저널』(*The Camden Journal*)에서 1890년 10월 2일에 발간한 기사에 포함된 삽화로서, 서로 다른 형태의 모자를 통해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그림 5>

「모자 이야기」(“Story of the Hat”)라는 기사에 실린 위의 두 그림 중 <그림 4>는 17세기 중반부터 영국에서 유행하던 ‘퀘이커 모자’(quaker hat)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퀘이커 모자는 ‘크라운’(crown)<sup>1)</sup>이 낮고 챙이 넓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5>는 ‘비버 모자’(beaver hat)인데, 챙이 좁고 크라운이 높게 솟아있어 퀘이커 모자와는 정반대의 모양새를 갖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인들이 퀘이커 모자나 비버 모자를 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영국인들 사이에서 퀘이커 모자가 크게 유행했는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돌연 퀘이커 모자가 홀대 당하고 비버 모자를 쓰는 영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바로 나폴레옹 1세(Napoleon I)가 황제에 즉위하고 유럽 전역을 공포에 빠뜨린 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었다. 영국인들은 나폴레옹 1세가 쓴 모자와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모자를 씌으로써 반발심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림 6>

<그림 7>

1) 모자의 중심부 기둥으로서 머리가 들어가도록 패인 부분



사실 나폴레옹이 즐겨 쓰던 모자는 ‘콕트 모자’(cocked hat)라고 하는데, 퀘이커 모자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위의 <그림 6>에서 보이는 것처럼 긴 챙을 갖고 있지만 퀘이커 모자처럼 타원형이 아니기에, 쓰는 방식에 따라 앞뒤로 길거나 좌우로 긴 형태의 챙이 도드라지도록 쓸 수 있다. <그림 7>은 나폴레옹 1세를 묘사한 그림들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Bonaparte, Calm on a Fiery Steed, Crossing the Alps”)인데, 콕트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나폴레옹 1세를 그린 작품들 속에서 그는 콕트 모자를 쓰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영국인들에게 나폴레옹 1세가 황제에 즉위한 프랑스는 상당한 위협이었고 그와는 반대되는 ‘극단적으로 다른 무언가’(something radically different)가 필요했다고 「모자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다. 즉, 영국인들은 나폴레옹 1세와 프랑스에게 적대심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챙이 매우 짧고 크라운이 높은 비버 모자를 썼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물품문화학은 물품이 인간의 자아와 정체성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다양한 영향과 효용에 대해 다룰 뿐만 아니라, 물품 그 자체가 형성하는 문화적 양상, 정치적 성격 등에 다루는 등 인간과 물품이 관계하며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디지털 생태가 형성된 현 시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다.

### Ⅲ. 디지털 시대와 물품문화학

물품문화학이 디지털 시대의 기술과 만났을 때 지니게 될 목적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존’과 ‘구현’, ‘체험’이 바로 그것들이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모든 자료가 반영구적으로 불멸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디지털 불멸성’(digital immortality)이나 ‘가상 불멸성’(virtual immortality)이라 부른다. 물품문화학에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인간의 주변에 실재하는 모든 물품뿐만 아니라 비실재하는 지식과 같은 것들까지도 물품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 디지털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한다면, 실재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치환하여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형태로 보존된 물품은 손상이나 마모, 변형 등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 있다. 저장 매체나 클라우드가 손상되지 않는 한 물품은 영구적으로 원형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현’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것과 디지털 데이터로서 보존된 물품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일컫는다. 무수한 물품들이 문자나 도상 등의 기록으로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기록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통해 현존하지 않는 과거의 물품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래의 물품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한데, 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품의 성질을 상상하고 구현하는 것 또한 ‘미래성을 지닌 물품의 현재적 구현’이 되기 때문이다.

‘체험’은 디지털 세계에 구현된 물품을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것을 말한다. 현재 디지털 세계에 구현된 물품에 대한 시청각적 체험은 거의 현실과 동등한 수준으로 가능<sup>2)</sup>하며, 촉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말하는 ‘햅틱 인터페이스’(haptic interface) 기술 역시 VR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sup>3)</sup>. 다양한 물품의 고유 속성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가 직접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역시 물품문화학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인 것이다.

물품문화학은 디지털 기술과의 만남을 통해 ‘보존’과 ‘구현’, ‘체험’이라는 실용 학문의 성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롭게 정립될 인간과 물품 간 새로운 관계성에 대한 연구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물품문화학의 주요 다섯 갈래 중에서도 ‘자아와 정체성’과 ‘재현’ 등의 연구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등장하는 물품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 눈 여겨봐야 할 것들은 디지털 기술을 탑재한 물품이 인간의 신체와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 세계의 디지털 물품이 재화 가치를 획득하고 현실의 재화와 교환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물품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에 대한 개발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다. 미국 국방성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는 인간의 두뇌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초소형 칩셋을 개발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공포를 제어하거나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퇴역 군인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성공했고 이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인공장기나 의족, 의수 등이 병든 인간의 신체 기관을 대체하는 일은 이미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생물학적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모든 기관을 반영구적 기계로 대체하여 죽음마저 극복하려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sup>4)</sup>.

전근대 사회에서는 물품이 인간 고유의 신체 외부에서 존재하고 기능했었지만, 현대와 미래 사회에서 물품은 인간과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또한 물품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 가상현실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현실과 교환 가능한 정도의 물적 가치를 획득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격변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물품문화학은 인류학과 고고학, 역사학, 문학, 문화학 등의 전통의 인문학 연구 영역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과학과 기술공학 등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학문적 팽창과 융복합을 꾀하고 있다. 물품문화학의 적극적인 통섭과 변화를 향한 움직임으로

2)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싸이아크(CyArk)를 꼽을 수 있다.

3) 김성규. 「물품의 데이터베이스와 VR 콘텐츠」. 『동국사학』. 68호 참조.

4) 김성규. 「인공물품과 결합하는 인간으로서 포스트휴먼」. 『문화와 융합』. 42권 8호 참조.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 그리고 우리 곁에 매 순간 존재해왔던 물품 간의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미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계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 백

**【제2발표】**

**근세 한일관계 관련 물품교류 연구 현황과 과제**

**이승민(동국대학교)**



# 근세 한일관계 관련 물품교류 연구 현황과 과제

이승민(동국대학교)

- 1. 머리말
- 2. 교류 형태별 물품교류 연구 현황
- 3. 주요 물품별 교류 연구 현황
- 4. 맺음말

## 1. 머리말

전근대 시기 물품교류는 주로 외교를 통해서 주고받는 예물과 교역을 통한 교류품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물 교환은 개인의 관계를 지속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정보·지식·제도·사상의 교류와 같은 부수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진다. 국가 간에 주고받는 외교 선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물 교환 체제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과 손실을 가져다주는데도 외교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정치적·문화적으로 얻는 부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예나 지금이나 물품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유통·소비되면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전통시대 물품은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사회적 측면, 상업이윤 창출 수단이라는 경제적 측면, 조공·책봉 관계의 실천이라는 외교적 측면, 집권자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정치적 측면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에 관한 연구는 물품 자체에 관한 가치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내포된 다양하고 복잡한 역사성을 밝혀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도 역사적으로도 긴밀한 외교 관계와 교역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물품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 양국의 관계는 1609년(광해군 1) 己酉約條 체결 이후 정상화되었다. 이후 일본 막부로부터 대조선 외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쓰시마를 통한 對막부정책이라는 간접통교체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막부와 쓰시마에 각각 通信使와 問慰行을, 쓰시마에서는 倭館으로 年例送使와 각종 명목의 差倭를 파견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1) 정성일, 「외교 선물 교환과 사회 풍속」,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 두산동아, 2007, 38쪽.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조·일 양국 관계를 밝히기 위한 외교체제나 무역제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무역을 비롯하여 표류민을 주제로 한 통교시스템, 접촉과 교류를 통한 상호인식, 양국 교류의 중심 장소였던 왜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일무역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무역형태, 무역 관련 약조 및 제도, 현황, 무역상인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의 대일무역 연구에서는 무역의 방식이나 현황 등을 주제로 하면서 물품을 전면에 내세운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새로운 주제와 사료 등이 연구에 이용되면서 개별 물품을 소재로 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도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대상시기를 근세(조선후기, 일본 에도시대)로 한정하여 주로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물품교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한다.

## 2. 교류 형태별 물품교류 연구 현황

### 1) 외교 사행을 통한 물품 교류

조선 국왕 명의로 일본 막부 쇼군에게 보낸 공식 외교사절인 통신사는 흔히 善隣友好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통신사는 일본 막부 쇼군의 습직을 축하하는 사절로 조선 국왕의 國書를 전달하고 禮物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며, 사행을 통하여 양국 사이의 중요한 외교현안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물품들이 오고가기도 했다.

예단이란 다른 나라와 외교를 펼칠 때 의례적으로 교환하는 외교적 선물, 즉 예물을 말하는 것으로 예단을 주고받는 것은 근대 이전 외교의 관행이었다. 통신사 예물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김덕진·변광석·이훈·정성일·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의 협동연구로서, 이들은 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준 예단을 통하여 조일외교의 성격과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통신사외교에 투입된 예단은 방대한 규모여서 그것은 양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의 재정을 가장 압박하는 예물은 인삼과 비단이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줄곧 제공된 물품으로 백면주·백저포·인삼·채화석·청밀·청서피·표피·호피·흑마포 등이 있었고, 반면 일본 수요에 맞춰 불경·서적·악기가 사라지고 능자·단자·색사·유자 등의 비단류와 색필·황모필·진묵·화연 등의 문방구류가 새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또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여 빈번하게 제공된 물품으로 조선전기에는 백면주·백저포·채화석·표피·호피 순에서 후기에는 백저포·호피·백면주·진묵·황모필 순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렇게 특정 물품이 새롭게 선정되거나 전과 달리 빈번하게 제공되었던 것은 통신사가 증급한 예단이 외교적 기능과 함께 문화적·경제적 기능을 꾸준히 겸비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투입 경비 면에서 가장 비중 있는 물품은 인삼·표피·호피·채화석·백저포 순에서 인삼·대단자·표피·마·색사 순으로 변화였고, 최대 규모의 예물이었



던 인삼은 조달 방법이 무상 공납제에서 유상 구매로 바뀌어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되었고, 조선후기에 새로 등장한 단자 또한 고가의 중국 수입품으로 역시 재정압박의 요인이어서 모두 개혁의 대상이 되고, 결국 예단이 가져온 재정 압박은 곧 통신사 외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불러오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sup>2)</sup> 외교 예물의 종류와 그 변화를 통하여 통신사로 대표되는 조일외교의 변화상을 살펴본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로 통신사 외에 문위행도 있었는데, 문위행은 예조참의 명의로 쓰시마도주에게 파견한 사행이었다. 통신사가 막부와의 우호관계 수립 및 그 유지를 위한 사절이었다면, 문위행은 양국 통교의 실무자인 쓰시마도주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파견되었다. 문위행 역시 조선의 공식 외교사절이었기 때문에 예단을 지참했고 예단을 받은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증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문위행이 쓰시마에 가서 어떤 예단을 건넸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윤유숙은 쓰시마번이 문위행으로 건너간 도해역관들에게 예단 외에 물품을 건넨 사례가 있음을 들면서, 공식적인 통교 시스템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역관에 대한 쓰시마번의 경제적인 원조’에 관해 지적하였다.<sup>3)</sup>

## 2) 왜관 내 일본사절에 대한 접대와 물품 교류

조선후기에 일본에서 왜관으로 도항하는 일본사절에는 연례송사와 차왜가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양국 간의 통교가 기유약조의 체결에 따라 쓰시마도주의 歲遣船 20척, 쓰시마 受職人船 5척, 受圖書船 5척에 매년 1회씩의 통교를 허용하였다. 이들의 목적은 물론 무역이었지만 규정상 세건선마다 사신이 동승하여 외교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연 1회로 한정했기 때문에 연례송사라고 한다. 차왜는 조선후기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현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쓰시마에서 수시로 파견한 임시사절을 말한다.

연례송사와 차왜에게는 조선 정부에서 일정한 물품을 지급했는데, 이승민은 연례송사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구청과 쓰시마 측 불시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역인 구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연례송사에게 지급되는 회사 및 구청품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다.<sup>4)</sup>

일본사절 접대 및 물품 등에 관하여 가장 왕성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는 심민정이다. 심민정은 임진왜란 이후 변화된 조일관계 속에서 중요한 교류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일본 사신의 재편 과정과 이들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인식을 살펴보고, 또한 실제로 이들을 어떻게 접대하였는지를 접대 인원과 물품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양국 문화 교류적 측면을 사신에 대한 음식접대라는 측면을 통하여 주로 고찰하였는데, 필자의 연구 관심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도 그와 관련된 다

2) 김덕진·변광석·이훈·정성일·池內敏, 「외교와 경제 : 조선후기 통신사외교와 경제시스템 -通信使 禮單을 통해서 본 朝日外交의 특징과 그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26, 한일관계사학회, 2007.

3) 윤유숙, 「조선후기 문위행(問慰行)의 사행 활동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58, 2017.

4)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貿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양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sup>5)</sup>

### 3) 무역을 통한 물품 교류<sup>6)</sup>

1609년(광해군 1) 己酉約條 체결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역이 행해졌는데, 조일무역은 연례송사 세견선을 기본으로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대일교역은 진상 및 회사, 구청, 공·사무역의 5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진상은 조선 왜관에 정기적으로 도항하는 쓰시마 연례송사가 肅拜禮를 행한 후 조선국왕에 대해 물품을 바치는 행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선정부에서 정해진 종류와 양의 물품을 연례송사에게 지급해주는 것이다. 쓰시마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선박은 모두 사절이 동승한 使送船이기 때문에 왜관에 입항하고 출항할 때까지 다양한 외교의례가 거행되었다. 우선 왜관에 들어오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참석하는 茶禮儀가 베풀어지는데, 이때 쓰시마번주가 조선 예조참의에게 보내는 書契가 제출되었다. 서계에는 쓰시마번주가 조선국왕에게 바치는 물품목록인 別幅이 달려 있었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헌의식이 행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進上이다. 『春官志』에 따르면 ‘진상이란 것은 후추·백반·단목·화연갑·동반·금병풍·구리거울 등이다. 서계 안에 별폭을 마름질해 넣고 진상물품을 나열해서 적기 때문에 別幅進上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sup>7)</sup> 회사는 진상에 대해 조선정부로부터 사급받는 것으로, 주로 인삼·호피·표피·백면주·흑면주·매·돛자리·붓·먹 등의 물품이었다.<sup>8)</sup> 이와 같이 진상 및 회사는 상호간에 교환하는 물품의 품목과 수량이 정해져 있었지만, 순수한 무역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며 외교의례에 부수해서 양국 간에 각기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일종의 외교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진상·회사 및 구청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관련 개설적인 연구 등에서 교역의 한 종류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오고간 물품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만 이승민은 구무에 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시도한 연구에서 구청과 구무를 구분하면서 세견선과 특송선 등 연례송사에게 지급된 구청품을 품목별·수량별로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였고, 구청을 연례송사에게 의례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연례송사 회사별폭의 품목 및 수량을 역시 표로 제시하여 회사

5) 심민정, 「18세기 倭館에서의 倭使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 『역사와 경계』 66, 부산경남사학회, 2008 ; 「조선 후기 倭館을 중심으로 한 倭人 해산물 조달」,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자료집』, 2011 ; 「조선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양상」, 부경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조선 후기 日本使臣 접대절차와 양상」, 『한일관계사연구』 50, 한일관계사학회, 2015 ; 「조선 후기 일본사신 접대를 통해 본 朝日관계 -差倭제도과 접대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 부산경남사학회, 2015 ; 「두모포왜관시기 差倭 接待例 변화와 정비 -『接倭式例』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4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 「두모포왜관 시기와 초량왜관 시기 연례송사 접대 비교 연구 -『接倭式例』(1659)와 『嶺南接倭式例改臚錄』(1732)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5, 한일관계사학회, 2019.

6) 무역의 종류나 형태를 몇 가지로 보는지, 진상·회사 및 구청을 공무역 안에 포함시키느냐에 연구자별로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진상·회사 및 구청, 공무역을 국가 대 국가의 공적인 왕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무역’, 무역 상대자가 상인 대 상인일 경우 ‘사무역’으로 나누기로 한다.

7) 『春官志』 권3, 年例送使.

8) 『春官志』 권3, 年例送使.

나 구청은 거래나 교역의 의미보다는 조선의 입장에서 내려주는 賜給 혹은 施惠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sup>9)</sup>

대일무역 혹은 물품교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된 것은 공·사무역 분야이다. 왜관을 거점으로 하는 조일무역의 실태에 관해서는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10)</sup> 한국에서는 김동철과 정성일의 연구가 주목된다. 김동철은 특히 왜관 내 개시대청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역 종사자인 동래상인의 실체와 성격에 주목하여, 『東萊府商賈案』·『東萊武任商賈案』 등을 분석하여 각 武廳의 首任職 武任들이 왜관의 대일 사무역을 담당했던 동래상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형태의 분류가 일본 사료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보고 사무역에 대해서는 밀무역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조선 사료에 따라 開市貿易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인삼 수출을 통하여 개시무역의 실태와 성격을 검토하였다.<sup>11)</sup>

정성일은 조선사료 뿐 아니라 쓰시마증가문서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무역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무역에서 사용된 明文, 거래물품, 상인의 규모와 활동, 무역액, 무역에 사용되는 화폐의 유통, 대일무역의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17세기 말 막부의 元祿銀 유통에 따른 무역에서의 交易銀 교섭과정, 조선에서도 공목·공작미·예단삼을 銅錢과 上銀으로 결제해 줌으로써 조선의 금납화와 더불어 朝鮮銀이 왜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새롭게 밝히기도 했다.<sup>12)</sup>

- 
- 9)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貿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 10)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11) 김동철, 「조선후기 水牛角 무역과 弓角契賣人」, 『한국문화연구』 4, 부산대학교 한문문화연구소, 1991 ; 「19세기 牛皮貿易과 東萊商人」, 『한국문화연구』 6, 부산대학교 한문문화연구소, 1993 ; 『東萊府商賈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東萊商人」, 『한일관계사연구』 창간호, 한일관계사학회, 1993 ; 「17·18세기 대일 公貿易에서의 公作米 문제」, 『항도부산』 1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4 ; 「17세기 일본과의 交易·交易品에 관한 연구 -密貿易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조선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 『민족문화』 21, 1998 ; 「조선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被執蔘」, 『한국민족문화』 13, 민족문화추진회, 1999 ; 김동철, 「17~19세기 부산 왜관의 開示와 朝市」,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2012 ; 김동철, 「17~18세기 조일무역에서 '私貿易 斷絶論'과 '나가사키[長崎] 直交易論'에 대한 研究史 검토」, 『지역과 역사』 31, 부경역사연구소, 2012 ;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 상인의 구성과 활동」, 『역사와 세계』 46, 효원사학회, 2014 ; 「조선후기 동래지역의 유통기구와 상품」, 『역사와 경계』 97, 부산경남사학회, 2015 ; 「왜관 무역과 동래상인」, 『초량왜관 -교린의 시선으로 허하다-」,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54집, 부산박물관, 2017.
- 12) 정성일, 「조선후기 對日貿易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1790~1870년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 「易地聘禮 실시 전후 對日貿易의 동향」, 『경제사학』 15, 경제사학회, 1991 ; 「明治維新 직전 朝日貿易의 존재형태 -1867년의 公貿易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4, 전남대학교 기업경제연구소, 1991 ; 「조선산 人蔘 종자와 일본의 人蔘 수입 대체」, 『춘계 박광순박사화갑기념 경제학논총』, 춘계박광순박사화갑기념논문문집간행위원회, 1993 ; 「19세기 초 조선산 栽培蔘의 대일수출 교섭 -禮單蔘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43, 국사편찬위원회, 1993 ; 「丁卯胡亂과 조선의 무역정책 -1629년 日本國王使의 上京과 관련하여-」, 『사학연구』 49, 한국사학회, 1995 ; 「朝日貿易을 이끈 조선 人蔘과 일본 銀」,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한일관계사학회 편, 1998 ; 「조선후기 對日貿易에 참가한 商賈都中の 규모와 활동(1844~49)」, 『한일관계사연구』 8, 한일관계사학회, 1998 ; 「韓·日 私貿易 논쟁」, 『경제사학』 27, 경제사학회, 1999 ; 「朝·日間 公貿易 -書契別幅(1614~99)의 분석-」, 『사학연구』 58·59, 한국사학회, 1999 ; 「조선후기 朝日貿易의 규모 -日·蘭무역과의 비교-」, 『2002년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History -역사 속의 한국과 세계-」, 역사학회·세계사학회, 2002 ; 「朝鮮의 銅錢과 日本의 銀貨 -貨幣의 유통을 통해 본

김영록은 대일 공무역품에 대한 주요 지급수단의 하나였던 公木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후기 대일공무역의 재원은 조선의 농민경제를 기반으로 마련되었고, 이 재원은 목면·쌀·동전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고 하면서 쌀과 목면은 상품적 성격과 화폐적 성격을 동시에 띠면서 주요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대일공무역의 지급수단으로 조선의 租稅, 화폐수단이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조선 경제와의 유기성을 지적하였다.<sup>13)</sup> 또한 그는 1678년(숙종 4) 조선에서 상평통보가 발행되면서 주전사업에서 선행되어야 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銅 무역에 관하여 시기별 동 확보책과 국내 주전사업의 흐름을 연계시켜 파악하였다. 즉 조선후기 화폐의 주원료이자 대일무역의 주요물품이었던 동을 중심으로 조선정부의 주전정책의 방향과 원료확보책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재정 및 경제정책의 운용과 대외무역 동향의 상관관계를 살핀 연구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김경란은 19세기 東萊府 書契所에서 공무역 결제액을 회계한 『東萊府書契所會計外都錄』의 분석을 통해 당시 대일 공무역의 규모 및 추이를 구명하는 동시에, 당시 대일 공무역품 중에서 가장 경제적 효용성이 높았던 물품인 倭銅에 주목하여 그 경제적 효용성이 대일 공무역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왜동이 공무역의 운영형태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조선후기 대일 공무역은 일차적으로 외교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5)</sup>

동남아시아와 조선·중국·일본 삼국의 무역·통교관계를 시야에 넣고 그 이동과 소비의 양상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서 주목된다. 윤유숙은 쓰시마증가문서 중 「水牛角一件 日帳寫」, 「看品之內水牛角相滯候事」, 「看品銅角一件」 등 수우각 교역에 관련된 사료와 수우각 외에도 후추·명반·소목 등의 동남아시아산 물품 교역을 진행하면서, 중국-조선-일본-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교역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동남아시아산 물품의 이동과 조선과 일본의 교역에서 해당 물품들이 일본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던 상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수우각·후추·소목의 경우 조일무역이 재개된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약 1세기 동안 일본과 조선을 거쳐 세폐의 명목으로 중국으로도 유입되어 있음을 밝혔고, 약 1세기 동안 동남아시아를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쓰시마→조선 왜관→중국 북경으로 연결되는 물품의 이동로가 성립되었음을 밝혀 주목된다.<sup>16)</sup>

15~17세기 韓日關係-, 『한일관계사연구』 20, 한일관계사학회, 2004 ; 정성일, 「조선과 일본의 銀 유통 교섭」,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 「19세기 대일공무역 결제수단의 변경과 금납화 -1841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 「1872~75년 조·일 무역 통계」, 『한일관계사연구』 46, 한일관계사학회, 2013 ; 「1860년대 對日貿易과 公木·公作米」, 『한일관계사연구』 54, 한일관계사학회, 2016 ; 「왜관의 일기로 본 조·일 간 무역(1721~23년)」, 『한일관계사연구』 57, 한일관계사학회, 2017.

13) 김영록,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公木」,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14) 김영록, 「17~18세기 대일銅무역과 정부의 주전사업」, 『지역과 역사』 43, 부경역사연구소, 2018.

15) 김경란, 「19세기 對日 公貿易의 추이와 倭銅의 운용」, 『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16) 윤유숙, 「조선후기 조선·일본의 동남아시아 산물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한편 정식무역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피하여 몰래 행해진 밀무역에 관해 다룬 연구들도 있다. 김동철은 밀무역을 국가의 상업세 수입 누수나 치안 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면서, 밀무역 품목, 倭債 등의 채무관계, 밀무역 통제책 등을 중심으로 17세기 밀무역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개시무역과 밀무역의 상관관계를 추적하였다.<sup>17)</sup> 또한 그는 17세기 硫黃 밀무역 사건을 사례로 하여 왜관 업무의 최전선에 있던 동래부 小通事를 밀무역의 주체로 주목하면서, 소통사의 밀무역 활동과 쓰시마의 경제적 유착을 상호간의 공생을 위한 구조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8)</sup>

윤유숙은 硫黃과 銃劍과 같은 무기류 밀무역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17세기 말까지의 밀무역 사례를 바탕으로 조선 人蔘과 일본 銀이 주요 거래품목이었으며 쓰시마번은 물론 조선도 밀무역 가담자에 대하여 癸亥約條의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sup>19)</sup> 또한 문위행 사행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하나로 밀무역을 지적하면서 여러 사례를 통하여 도해역관의 허가 내지는 협조 없이 밀무역이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집단 밀무역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sup>20)</sup> 물론 문위행이 쓰시마에서 행했던 여러 유형의 경제행위는 그 배경이나 공인된 무역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의 발굴과 검토가 필요함을 동시에 지적하였다.

양흥숙은 조선 측 기록을 바탕으로 왜관무역의 주체로 훈도·별차 등의 왜학역관에 주목하여 특권상인으로서 군수물품의 수입과 사무역 물품 수출, 그리고 밀무역 등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17~19세기 대일무역상인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한편, 국내 상업자본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을 조선의 경제구조 속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sup>21)</sup>

한편 구무와 관련해서도 최근 많은 물품교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무는 조선과 쓰시마로 연결되는 특수한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물품교역의 한 형태로, 막부로부터 대조선외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쓰시마가 자국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조선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역을 말한다. 구무와 관련된 주요 사료인 『倭人求請臚錄』이 국역되어 나오면서 관련 연구들이 등장하여 주제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인구청등록』은 1637년(인조 15)부터 1724년(경종 4)까지 쓰시마에서 요청한 각종 구무 사례에 대하여 동래부사와 경상감사 등이 올린 狀啓, 이에 대한 禮曹와 戶曹 및 備邊司의 回答을 예조 전객사에서 등록해서 작성한 것으로, 동래부의 쓰시마 구무 사실 및 減定 협상 보고, 예조 및 비변사에서 의 논의과정과 처리지침, 구무품의 各道 및 해당관아에 대한 조치와 分定 내용, 구무를 둘러싼 조선 정부와 쓰시마 측의 인식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

17) 김동철, 「17세기 일본과의 交易·交易品에 관한 연구 -密貿易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18) 김동철, 「17~19세기 東萊府 小通事의 編制와 對日活動」, 『지역과 역사』 17, 부경역사연구소, 2005.

19) 윤유숙, 「17세기 朝日間 日本製 武器類의 교역과 밀매」, 『史叢』 67, 역사학연구회, 2008 ; 「조선후기의 왜관과 밀무역」, 『한일관계 속의 왜관』, 경인문화사, 2012.

20) 윤유숙, 「조선 후기 문위행(問慰行)의 사행 활동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58, 2017.

21) 양흥숙,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 5, 부경역사연구소, 1999.

는 사료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구무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를 통한 양국 교섭 관계의 실상은 어떠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왜인구청등록』은 1990년대 초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영인되어 나왔는데, 구무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그와 관련하여 자료 개괄 및 소개의 차원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 구청의 관행과 그에 관한 결제방식을 고찰한 정경주의 논문이다.<sup>22)</sup>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구청은 실제로는 구청이 아니라 구무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또한 쓰시마의 교역 요청에 대한 조선의 결제방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구무의 실제 운용 실태나 이와 관련된 조일무역의 상황, 그리고 교섭 당사자인 쓰시마 및 조선의 입장이나 인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구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물품 교류는 조선 국내경제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물품을 직접 조달하고 공급해야 하는 조선 내의 상황 등에 대해서는 미처 언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2004~2008년에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 의하여 『왜인구청등록』이 完譯되었는데, 김동철은 그 解題에서 구청과 구무에 대해 언급된 것이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쓰시마의 요청·요구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보다는 조선이 어떠한 형태로 물품을 지급했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無償의 구청은 ‘좁은 의미의 구청’으로 회사에 가깝고, 有償의 구청은 구무라고 규정하면서 ‘넓은 의미의 구청’으로 공무역의 성격에 가깝다고 했다.<sup>23)</sup> 구청과 구무를 구분해서 소개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구청과 구무 두 개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구청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말았다. 조선후기 당시 구청이 구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청과 구무는 유·무상의 차이나 물품의 종류, 처리방식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다른 형태의 무역이었다. 이에 이승민은 구청과 구무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구무에 대한 개념정립을 시도하는 한편, 17세기 구무 현황의 대략적인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sup>24)</sup>

또한 최근 들어서는 매·말·서적·약재·도자기·황모필 등의 특정 물품을 통해 구무의 실태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했다.<sup>25)</sup> 또한 기존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조선의 구무, 즉 조선에서 쓰시마 측에 요청한 물품을 『分類紀事大綱』을 통해 분석한 김강일의 연구도 등장하기도 했다.<sup>26)</sup> 조선후기 조일무역에서 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 그리고 구무의 전반적인 실태나 특징 등에 대해서는 이승민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기유약조 체결을 전후하여 조일무역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구무가 어떻게

22) 정경주, 「仁祖-肅宗朝의 倭人 求請慣行과 決濟方式-조선후기 대일무역 사례 소개-」, 『무역평론』 창간호, 경성대학교 무역연구소, 1994.

23) 김동철, 「解題」, 『(國譯)倭人求請臚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2008.

24)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貿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25)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26) 김강일, 「倭館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對日 求請物品-「朝鮮より所望物集書」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4, 일본사학회, 2011.

시행되고 운영되었는지, 시기별·물품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공·사무역과 구무와의 비교를 통하여 조일무역에서 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그리고 동아시아 무역상에서 차지하는 구무의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도 등장하였다.<sup>27)</sup> 이러한 구무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조일무역의 구체적인 실태와 운용상황, 나아가 양국 외교관계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 주요 물품별 교류 연구 현황

조선과 일본 사이에 오고갔던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힘들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물품교류사 연구를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주요 물품별로 분류하여 각 물품의 간단한 특징을 언급하고 그에 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sup>28)</sup>

#### 1) 약재류

약재는 일본이 조선에 무역을 요청하는 중요한 품목 중의 하나였다. 사무역과 구무를 통해서도 수많은 약재가 거래되고 있었는데, 1603년 쓰시마 측의 첫 약재 구무요청 사례가 있는 후 1630년대부터는 약재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쇄국정책과 그에 따른 朱印船貿易의 정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1635년 주인선무역이 정지되면서 일본은 동남아를 통한 약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막부에서 직접 쓰시마번주를 불러 조선으로부터 약재류를 비롯해 생사와 견직물 등을 차질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무역과 구무를 통하여 약재류 교역은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특히 구무를 통해서만 구하기 힘든 이식용 약재의 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약재류 교역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물품으로 人蔘을 들 수 있다. 근세 대일무역 관련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인삼이었는데, 오성과 정성일은 1710년대부터의 청나라 인삼 수입, 1720~30년대의 일본 국내산 인삼재배에 따른 수입 대체 성공, 1740년대부터의 아메리카 인삼 수입, 18세기 중반 이후 국내 자연삼 절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1750년대를 기점으로 18세기 중반 이후의 인삼 수출은 크게 줄어들고, 일본 국내에서 인삼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대일무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던 인삼은 더 이상 대일무역의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29)</sup> 또한 인삼 관련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조선 측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품목

27) 이승민, 「조선후기 求貿의 전개과정과 성격」,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조선후기 求貿를 통해서 본 조·일간 물품교역의 현황과 특징」, 『동국사학』 67,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9 ; 「조선후기 求貿의 시행과 운영절차」, 『한국학논총』 5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28) 물품은 『왜인구청등록』을 토대로 교역 빈도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물론 동 사료가 쓰시마가 조선에 '구무'를 통하여 요청한 물품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물품의 종류는 구무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거래된 물품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29) 오성, 「조선후기 '蔘商'에 대한 一考察 -私商의 擡頭와 관련하여-」, 『한국학보』 17, 일지사, 1979 ; 정성일, 「조선산 인삼 종자와 일본의 인삼 수입대체」, 『춘계 박광순박사 화갑기념 경제학논총』, 1993.

인 인삼과 상인이라는 하는 거래주체를 검토대상으로 조선사회의 경제사라는 관점에서 김병하·오성·정성일·차수정 등에 의하여 형태적인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sup>30)</sup> 이후에는 쓰시마종가문서를 분석하여 왜관을 매개로 이루어진 여러 형태의 무역을 비롯하여 거래품목·수량·과정·규정·추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 연구의 중심에 정성일의 인삼 연구를 들 수 있다.<sup>31)</sup>

인삼 관련 연구 외에 구무를 통하여 거래된 약재류 교역 관련 연구도 있어서 주목된다. 김경미는 『왜인가구청등록』을 주된 자료로 하여 일본의 약재 구무 요청을 통하여 일본 내 조선 약재의 수요 증가 및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구무 양상의 변화를 약용으로 조제된 일반 약재의 요청과 이식용 약재의 요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17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일반 약재의 요청 빈도는 줄어드는 데 반해, 사무역으로 구하기 힘든 虎骨·虎舌·虎膽·虎肉·虎眼·虎肝 등 호랑이 관련 약재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32)</sup>

## 2) 동물류

조선후기 대일교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물품으로 말이나 매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류를 들 수 있다. 말이나 매는 일반무역에서는 취급되지 않았고, 통신사행이 가져가는 예단품이나 연례송사에게 지급되는 회사·구청품 외에는 구무를 통해서만 거래되었다. 이러한 동물류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의 조·일무역 연구에서 관심 밖에 있었던 구무에 대한 연구들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류 교역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연구로 17~18세기 대일외교에서 사용되는 매를 주제로 하여 매의 수요와 공급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교류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의 대일교역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매 교역의 실상을 부각시킨 김경미의 논문을 들 수 있다.<sup>33)</sup> 다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매의 조달과 그에 따른 폐해, 매의 수송과 매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이해관계 등에 관한 언급은 소략하여 매 교역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승민 역시 매와 말을 주제로 『왜인가구청등록』과 쓰시마종가문서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말과 매와 같은 동물류는 일반 무역품과는 달리 일본에서 요청한 구무의 형식으로만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쓰시마를 통제하고 막부와의 교린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조선 정부가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동물류

30) 김병하, 「17·8세기의 銀蔘問題 -對日 人蔘貿易을 중심으로-」, 『경희대 정경논집』 8, 1972 ; 오성, 「조선후기 ‘蔘商’에 대한 一考察 -私商의 擡頭와 관련하여-」, 『한국학보』 17, 일지사, 1979 ; 박광순·정성일, 「조선후기 대일사무역의 시장과 상품구조 -17세기 초~18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경영논총』 11,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86 ; 차수정, 「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過程: 18世紀初 蔘商의 成長과 그 영향을 中心으로」, 『북악사론』 1, 국민대 국사학과, 1989.

31) 정성일, 「19세기 초 조선산 栽培蔘의 대일수출 교섭 -禮單蔘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43, 국사편찬위원회, 1993 ; 「朝日貿易을 이끈 조선 人蔘과 일본 銀」,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한일관계사학회 편, 1998.

32) 김경미, 「17~18세기 日本의 朝鮮 藥材 求請」, 『대구사학』 119, 대구사학회, 2015.

33) 김경미, 「17~18세기 對日 외교·교역과 매」, 『역사와 세계』 34, 효원사학회, 2008.



교역은 경제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강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선으로부터 수입된 매를 이용해 쓰시마번은 쇼군과 막부의 고위직, 유력 다이묘 등에게 진상하면서 쓰시마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논증은 일본의 근세 봉건제 시스템 속에서 珍獸의 진상과 현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구조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34)</sup>

오사와 겐이치(大沢研一)는 조선 매가 일본 국내에서 다이묘들에게 들어온 경로를 통신사 및 쓰시마번 오사카 구라야시키에서의 매매라는 두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통신사를 통해 들어온 조선 매는 무가사회의 질서 유지에 이용된 것 외에도 외교권을 장악한 쇼군의 권위를 다이묘에게 알리는 상징적 존재로 기능한 한편, 쇼군의 매 분사를 기대할 수 없는 다이묘들이 자력으로 조선 매를 구입한 실태를 분석하면서 다이묘들이 우수한 조선 매를 입수하려고 노력한 배경에는 조선 매가 대한 높은 평가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sup>35)</sup>

한편, 구무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던 동물류에는 말과 매 외에도 피꼬리·노루·야학·까치·다람쥐·토끼·오리·나귀·원앙·고슴도치·비둘기·제비·메추라기·담비·기러기 등이 있었는데, 쓰시마번주가 쇼군에게 헌납하기 위해서나 막부 유력층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류에 관한 연구는 말이나 매에 비하여 정치·외교적으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인지 관련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논문에서 쇼군 등의 조선 동식물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에 기인하여 이러한 동물류를 요청해왔을 것이라고 하면서, 『왜인구청등록』에 등장하는 관련 기사가 일부 인용되고 있는 정도이거나,<sup>36)</sup>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에 의해 명령·실시된 대규모의 왜관조사와 관련한 연구에서 일부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다.<sup>37)</sup>

### 3) 음식류

과실류는 연례송사의 회사·구청품으로도 지급되고 있었고, 쓰시마에서 구무로 요청해온 물품 중에는 과실류와 어패류와 같이 음식물 종류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과실류의 종류는 청밀·녹말·율무·들기름·호두·개암나무열매·대추·잣·밤·곶감 등이었고, 어패류는 대구어·잉어·문어·붕어·자안패 등이었다. 이러한 음식류는 일본사신에 대한 연향접대용으로도 사용되었고, 또한 하루하루 지급했던 日供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구무의 방식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져서 쓰시마 내에서 일상생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과 쓰시마번주가 에도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쓰시마 측에서 요청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심민정은

34)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와의 말[馬] 교역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 「조선후기 일본과의 매[鷹] 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35) 大沢研一, 「朝鮮鷹の受容と日本の武家社會」, 『조선통신사연구』 25, 조선통신사학회, 2018

36) 이승민, 「조선후기 求賢의 전개과정과 성격」,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37) 田代和生, 『江戸時代朝鮮藥材調査の研究』,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9.

왜인 접대라는 측면에서 조선 측 접대 주체, 배치, 연향 의례에 제공된 음식과 음악 등에 대해 개괄적인 검토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음식물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sup>38)</sup> 또한 바다라는 공간을 끼고 있는 조선과 일본 별개 국가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음식과 그것의 조달이라는 측면에 관심을 두고, 그중에서도 특히 해산물의 조달 양상을 살핀 연구가 있는데,<sup>39)</sup> 여기에서는 『왜인구청등록』의 기록을 근거로 쓰시마에서 요청한 해산물의 종류를 언급하고, 『嶺南接倭式例改臚錄』에 나타난 특송사의 연향에 소요되는 식재료들을 취합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송사가 머무르는 동안 들어가는 해산물의 양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으며, 게다가 일본인들의 식성도 가능할 수 있는데 닭이나 꿩·돼지 등 육류의 소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데 비해 생선 등의 해산물 수요는 몇 배나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심민정은 각종 문헌 접대기록 뿐 아니라 왜관의 구조나 연향의례 모습 등이 그려진 倭館圖 등을 활용하여 2000년대 들어 새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로 왜관에 파견된 쓰시마 연례 송사와 각종 차왜의 접대와 관련된 의례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왜관도와 같은 각종 그림 등을 활용한 연구는 문헌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일본에서 전래된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진 고구마에 관련된 연구도 있어서 흥미를 끈다.<sup>40)</sup> 특히 정성일은 18세기 중엽 통신사와 표류민을 중심으로 고구마가 한반도 중에서도 제주 지역에 전해진 초기 역사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제주 지역의 고구마 전래가 1763~1764년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 정사 趙曦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었다는 사실, 1764년 조엄이 쓰시마에서 만난 조선인들이 쓰시마에 표류하여 머물고 있던 제주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등을 밝혔는데, 조엄에 의한 고구마 전래는 이미 기존 연구에 의해 잘 알려진 것이지만 제주 지역과의 연관성은 새로 자료를 발굴하여 처음으로 밝힌 것이었다.<sup>41)</sup>

38) 심민정, 「18세기 倭館에서의 倭使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 『역사와 경계』 66, 부산경남사학회, 2008.

39) 심민정, 「조선 후기 倭館을 중심으로 한 倭人 해산물 조달」,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자료집』, 2011 ; 심민정, 「조선 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양상」, 부경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조선 후기 日本使臣 접대절차와 양상」, 『한일관계사연구』 50, 한일관계사학회, 2015 ; 「조선 후기 일본사신 접대를 통해 본 朝日관계 -差倭제도와 접대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 부산경남사학회, 2015 ; 「두모포왜관시기 差倭 接待例 변화와 정비 -『接倭式例』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4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 「두모포왜관 시기와 초량왜관 시기 연례송사 접대 비교 연구 -『接倭式例』(1659)와 『嶺南接倭式例改臚錄』(1732)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5, 한일관계사학회, 2019 ; 『朝鮮漂流日記』(1819)에 나타난 표류왜인 호송과 접대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40) 김재승, 「고구마의 朝鮮 傳來」, 『동서사학』 8, 한국동서사학회, 2001 ; 염정섭, 「조선 후기 고구마의 도입과 재배법의 정리 과정」, 『한국사연구』 134, 한국사연구회, 2006 ; 오인택, 「조선후기의 고구마 전래와 정착 과정」, 『역사와 경계』 97, 부산경남사학회, 2015.

41) 정성일, 「조엄(趙曦)과 일본 표류 제주인을 통한 제주 지역의 고구마 전래」, 『조선통신사연구』 23, 조선통신사학회, 2017.

#### 4) 문방구류 및 서적류

각종 문방구류에 관해서도 관련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문방구류 중 대일교역에서 가장 많은 교역량을 보이는 것은 붓이고 특히 黃毛筆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모필에 관한 연구는 전통공예 혹은 미술사 분야에서 한국 전통 붓의 종류와 제작기법과 관련해서 해당 연구 안에서 다루는 붓의 종류의 하나로서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역사학 분야에서도 황모필이라는 단일 물품을 대상으로 그 생산이나 유통에 대해서 다룬 것은 없고, 조선시대 대중국·일본 사행에서 상대국가에 제공되는 예단품의 일부로서 수량 정도가 간단하게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황모필이 조선 내에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승민은 우수한 품질의 문방구류는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국가 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예단품과 교역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역사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황모필의 생산과 유통을 일본과의 교역과 관련하여 다룬 논문을 발표하였다.<sup>42)</sup>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황모필이 일본으로 건너간 방식을 통신사와 문위행이 가져가는 예단품의 하나로서 지급되는 방법, 쓰시마 연례송사에게 지급되는 회사 및 구청품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방법, 셋째 각종 명목의 차왜에게 회사별폭으로 지급되는 방법, 그리고 넷째 쓰시마에서 구무의 명목으로 어느 특정 물품을 요청해오면 조선에서 심의한 후 교역이 이루어지는 방법의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주로 『增正交隣志』에 의거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황모필 가격과 관련해서 조선전기에는 질 좋은 황모는 차츰 여진인들에게 구입했다고 볼 수 있고 조선후기에는 중국에서 수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후기 일본으로 건너간 황모필은 '중국에서의 원모 수입→조선에서의 황모필 제작→중국·일본으로의 수출'로 이어진, 즉 원료수입과 가공 후 재수출이라는 고부가가치 가공무역품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대일 사무역에서 거래되고 있던 황모필 교역의 양상, 혹은 중국으로 건너간 황모필 전래 양상 등을 더불어 살펴보면,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기록도구로서 황모필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서적교류와 관련해서는 이준걸의 선행적인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관련된 각종 典籍을 찾아 내용의 서지적 사항과 외형상의 물리적인 변화 및 소장과정의 변천내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전적의 전파는 전쟁이라고 하는 무력의 수단으로 약탈당하는 데서 시작하였으며 조선 전적 전파에 영향을 받아 일본의 출판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록으로 '조선관계 일본자료목록'과 일본에 소장되어 있거나 출판된 조선본 일람표 등을 제시하여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sup>43)</sup>

한편 통신사행과 관련하여 근세 한일서적 교류와 유통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진재교는 『漂海錄』과 『藝苑卮言』, 『倭韓三才圖會』를 예로 들어 동아시아 각국의 서적

42) 이승민, 「조선산 黃毛筆의 생산과 일본과의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43) 이준걸, 『조선시대 일본과 서적교류 연구』, 흥익재, 1986.

이 일국의 시공간을 넘어 삼국에 널리 유통된 실상을 확인하고, 그 서적으로부터 당시에 획득한 지식과 정보의 내용을 살피고, 조선후기 학자들은 사행을 통하여 다른 문화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새로운 지식을 유통시킴으로써 사유를 전환시키는 데도 일조하였다고 보았다.<sup>44)</sup>

김경숙은 18세기 통신사 사행록을 중심으로 왜관과 사신 왕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적교류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일본으로 유출된 조선 서적은 초기에는 조선의 일본 관련 서적이 유출되고 일본에서 간행·유통되다가 일본에서 조선 성리학에 관심을 두어 관련 서적을 많이 반입하였고, 점차 조선의 생활과 지리·병제와 외교·역사·법제·의학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서적을 구입하여 조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일본 서적의 조선으로의 유입을 살피면서 조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세했던 일본 출판문화의 우수성은 언급하며 조선 지식인 또한 일본 서적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서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조선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45)</sup>

구지현은 17세기의 필담창화집을 대상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의 문사들이 언급한 구체적인 서적의 목록과 이에 대한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과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 지식의 유통이 이루어진 방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sup>46)</sup> 그는 현재 남아있는 필담집을 통하여 서적 교환의 모습을 확인하였는데, 지식 정보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일본 문사들은 조선 간행 희귀본을, 조선 문사들은 조선에서 구하기 힘든 중국본을 구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적의 증여도 발생하였다는 것과, 서적을 둘러싼 필담의 양상을 통하여 양국 문사가 교류할 수 있는 활발한 밑바탕이 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한일 서적교류와 관련하여 왕성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자로 이유리를 들 수 있다. 그는 『왜인구청등록』에 나타난 일본의 서적 구무 요청에 대하여 전체적인 전개양상과 조선의 대응, 교역 서적의 성격과 이후 일본 내에서의 전래 경로를 고찰하면서, 일본에서 요청한 서적은 유학서를 비롯하여 의서·역사서·시문집류 등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출판경향과도 부합하다는 점, 그리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서적들은 쓰시마 내 宗家文庫를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인했고 이후 여러 경로를 거쳐 현재 일본과 한국에 퍼져 있음을 확인하면서, 일본의 출판문화 발달에는 그 저변에 조선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sup>47)</sup> 그는 이후에도 성리학서를 통하여 17세기 일본에서 일어난 학술 및 출판문화의 경향 변화 속에서 조선본의 영향과 수용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유통되고 있었던 중국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조선본이 가지는 동아시아 서적교류사적 성격과 의미에 대하여

44)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壬辰倭亂 이후의 인적 교류와 서적의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45) 김경숙, 「조선후기 한일서적교류 고찰 -18세기 통신사 사행록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3, 한중인문학회, 2008.

46) 구지현, 「17세기 통신사 필담에 나타난 한일간 서적 교류의 모습」, 『한국한문학회연구』 47, 한국한문학회, 2011

47) 이유리, 「『倭人求講臚錄』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37, 한국서지학회, 2011.

고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sup>48)</sup>

### 5) 피물 및 직물류

일본 사회에서 모피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위 명품이었고 고가의 제품으로 막부 사회와 다이묘 등 일본 상류층 武家에서 진귀하게 여기는 상품으로, 피물의 종류마다 선호도가 달라지기도 했다. 통신사가 준비하는 공·사예단 및 조선정부가 쓰시마 연례송사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 및 구청 안에도 호피와 표피 같은 피물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쓰시마에서는 호피·표피 외에도 貂皮·羊皮·靑黍皮·熊皮·山鼠皮·黃獮皮 등 다양한 종류의 피물을 구무를 통하여 교역을 요청해오기도 했다.

피물류 교역을 전론으로 내세운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 무역사 연구를 조일무역의 변화상과 개항 후 무역과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19세기 전반기 중요한 사무역 수출품이었던 牛皮를 소재한 한 김동철의 연구, 외교와 무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물품으로서 모피류 교역 전반을 고찰한 하여주의 연구와, 한·중·일을 시야에 놓고 초피 교역의 양상과 변화, 특징과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 한성주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동철은 일본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우피무역 연구가 쓰시마증가문서를 기본자료로 이용하면서 조일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경제사나 사회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면서, 국내의 유통구조나 상인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세기 우피무역의 실태를 국내 우피 유통구조와 관련하여 파악하면서 왜관에서 대일 우피무역을 담당한 동래상인의 실체, 특히 都中을 형성하고 있던 都中商賈의 구체적 실상을 통해 동래상인의 성격을 구명하려 하였다.<sup>49)</sup> 김동철은 우피 연구 뿐 아니라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사무역 종사자인 동래상인의 실체와 성격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 바 있다.

하여주는 대일 외교품이자 무역품으로 조선이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피물을 들면서, 조선과 일본의 피물 수요와 공급, 대일외교 및 공무역으로 건너간 피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18세기 이후 피물 구무가 단절된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sup>50)</sup> 이를 통하여 조선후기 한일관계에서 피물에 대한 양국의 인식 및 활용, 피물이 가지는 외교 및 무역품으로서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한성주는 근세 한·중·일의 초피 무역에 대하여 조선을 중심으로 조선과 중국, 조선과 여진, 조선과 일본으로 구분하여 초피 교역의 양상과 변화, 특징과 영향을 살펴보

48)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性理學書의 서지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9 ; 「17세기 일본에서의 『聖學十圖』 수용 양상 연구」, 『서지학연구』 84, 한국서지학회, 2020 ;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연구」, 『한국학』 162,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49) 김동철, 「19세기 牛皮貿易과 東萊商人」, 『한국문화연구』 6,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50) 하여주, 「조선후기 대일관계 속의 皮物」,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았다. 그에 따르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피물류에는 호피·표피·초피가 있었는데, 이때 초피는 여진 지역에서 생산된 초피가 대부분이었고 이를 통하여 북방산물인 중국 만주산 초피가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초피가 전근대 한국·중국·만주·일본 지역을 연결시키는 국제적 물품 중 하나였음에도 국제교역사적인 입장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후에도 초피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주 지역의 대표 산물인 초피가 조선을 통해 일본으로 전파되는 양상과 과정 및 국제적 유통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매진하면서,<sup>51)</sup> 단일국가와의 교역에서 벗어난 동아시아 초피 교역의 실상과 사회·경제적인 변화상, 그리고 전근대 동아시아의 경제적 양상과 흐름이 끼친 세계사적 영향에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한일관계에서의 피물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희귀성, 미적 가치, 권위의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호피와 표피를 주제로 이것들이 주변 인근 왕조, 즉 명·청, 에도 막부, 류큐 왕국 등에 유통·소비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조선의 시점에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체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연구도 있어서 주목된다.<sup>52)</sup>

한편 식물류와 관련해서는 역사학계에서는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데, 식물류는 사행의 예단 뿐 아니라 연례송사 및 차왜의 회사·구청품과 표류민에게 지급되는 물품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성일은 조선사료와 일본사료에서 주요품목의 가격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별쪽에 실린 주요품목의 특징과 무역액을 일부 분석한 바 있다.<sup>53)</sup> 별쪽에 등장하는 주요품목 12가지 중 식물류는 백면주·백목면·백저포·흑마포 4가지인데, 각종 물품은 대체로 조선 기층민들이 공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품질하락의 가능성은 존재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식물류의 품질에 대하여 조선 조정은 물론 이들 물품을 예물로 받아가던 외국 사신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식학 전공자인 이자연은 조선사절과 일본사신 간의 정치적·문화적 교류가 빈번했던 점에 주목하여 15~16세기 양국 간의 교역품 중 식물류에 주목하여 조선전기의 직물문화와 조일관계에서의 복식문화의 일면을 밝히고자 했다. 당시 직물은 대일 교역품 중 교역량이 가장 많았던 품목이었고, 당시 중요한 의복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었으며, 관리들의 祿俸·賞賜, 농민들의 租稅用 등의 화폐적 기능을 하는 교환수단으로도 널리 사용되어 조선사회 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sup>54)</sup>

51) 한성주, 「근세 한·중·일의 貂皮 무역에 대한 시론적 검토」, 『인문과학연구』 5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 「조선과 여진의 貂皮 교역 성행과 그 영향」, 『만주연구』 25, 만주학회, 2018 ; 「조선과 명의 貂皮 교역 연구」, 『강원사학』 32, 강원사학회, 2019.

52) 서인범, 「朝鮮 虎皮와 豹皮의 생산·유통」, 『명청사연구』 50, 명청사학회, 2018.

53)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54) 이자연, 「朝鮮의 使節과 日本使臣 間의 交易品을 통하여 본 朝鮮 前期의 織物文化」, 『복식문화연구』 제11권 제6호, 복식문화학회, 2003.

## 6) 도자류

근세 대일무역에서 도자류는 오직 구무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쓰시마를 통해 조선 도자를 교역해 가거나 혹은 흙과 땀감을 비롯한 각종 물품 및 陶工 등을 요청해 직접 왜관 안에 건설된 倭館窯에서 직접 자신들이 원하는 도자를 제작해가기도 했다. 도자교역과 관련해서는 역사학계보다는 주로 미술사 분야에서 먼저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주로 임진왜란 당시 납치된 조선 사기장에 대한 관심으로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sup>55)</sup> 임진왜란을 전후해서는 동래부 혹은 부산 왜관 안팎에서 일본 측의 주문으로 제작된 茶碗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56)</sup> 한편 대일 도자교역과 관련하여 조선 내에서 교역 도자를 제작한 왜관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주목된다. 왜관요와 관련해서는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의 연구와 이즈미 쇼이치(澄泉一)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고,<sup>57)</sup> 최근에는 한국학계에서도 관련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상인은 왜란 이후 쓰시마번이 일본 다도계에서 명품으로 인정받아 고가로 매매되었던 조선 도자기 사발을 독점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대조선 통상외교 내용을 연대별로 정리하였다.<sup>58)</sup> 이승민은 조선후기 대일무역에서 도자류는 오직 구무를 통해서만 교류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쓰시마를 통하여 조선 도자를 교역해가거나 혹은 흙과 땀감을 비롯한 각종 물품 및 도공 등을 요청하여 직접 왜관요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도자를 제작해 갔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빈번한 사기변조 및 과도한 물품의 요청, 잘못된 양식의 서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폐단 등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면서, 조선후기 대일 도자교역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쓰시마가 막부 유력층에 진상하기 위한 용도로 혹은 별도로 막부 측의 지시를 받아 조선에 사기 변조를 요청해왔는데, 왜관을 통해 도자가 교역되거나 왜관요를 만들어서 조선에서 직접 도자를 제작해 갔다는 것은 동시기 대일 교역품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조선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조선에서 만들어져 완전한 형태를 지닌 것이었다. 그에 비해 도자의 경우에는 쓰시마에서 견본을 직접 가져와 제작에 필요한 조선 흙과 땀감 등의 물품,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인력 등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서 가져가

55) 피랍 사기장에 관한 연구 성과는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56) 한일관계사학회 편, 『한·일 도자문화의 교류양상』, 경인문화사, 2005 ; 한국미술사학회 편, 『조선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7 ; 기타야마 마비(片山まび), 「임진왜란 이후 일본 주문 茶碗에 대한 고찰 -吳器茶碗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 미술사연구회, 2010 ; 방병선,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 연구」, 『미술사학연구』 232, 한국미술사학회, 2001 ; 변광석, 「임진왜란 직후 기장지역의 상황과 피로인 사기장」,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성현주, 「기장지역 도자기의 제작기법과 도자사적 성격」,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이종봉,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57)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東京:彩壺會, 1930 ; 澄泉一, 『釜山窯の史的研究』, 關西大學出版部, 1986.

58) 권상인, 「倭館窯에 관한 小考」, 『차문화·산업학』 32, 국제차문화학회, 2016.

는 등, 대일교역에서 좀처럼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지적한 점은 주목된다.<sup>59)</sup>

대일 도자교역에 필요한 도자를 제작했던 왜관요와 관련해서는 미술사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는 부산 초량왜관에 설치되었던 왜관요에서 수습된 출토유물 184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김현지와 권주영은 출토유물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도자기와 요도구에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고 당시 조선의 가마토와 비교를 통하여 도자기술과 요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sup>60)</sup> 특히 권주영은 쓰시마증문서 내 「御詔物控」과 「御注文摺」에 수록된 도자기 견본과 출토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다기가 주문되고 생산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허현정은 왜관요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도자 제작에 필요한 인원과 각종 원료 수급, 도자기 생산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왜관요 운영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sup>61)</sup>

## 7) 회화류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 경향으로 기존의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시도<sup>62)</sup> 등을 기반으로, 양국 간 회화 교류와 유통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동철은 18세기 말 동래부의 武任이면서 지방화원이었던 卞璞의 그림이 왜관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up>63)</sup> 박성희는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에 걸쳐 일본 측 수요에 부응하여 虎圖와 鷹圖가 제작되어 수출되었음을 검토하면서 특히 이러한 대일 수출용 회화를 제작한 화가들이 동래부에서 활동한 지방화가들이었음을 지적하였다.<sup>64)</sup> 이현주는 동래부 무임이었던 지방화원 李時訥이 1838년 전후 구무로 수출한 竹虎圖·松虎圖·鷹圖를 분석하여 이는 일본인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었음을 밝히고, 더 나아가 동래 지역 화원들의 화풍을 분석하여 전적으로 일본 취향을 반영한 왜관 수출용 회화만을 제작하는 직업화가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검토하였다.<sup>65)</sup> 동래부 지방화원들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림을 제작한 연구들은 중앙의 외교 시스템과는 별도로 왜관을 매개로 하는 소비·유통 구조가 존재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9) 이승민, 「조선후기 대일 도자교역 실태와 그 의미」, 『조선후기미술사학보』 81, 조선시대미술학회, 2017.

60) 김현지, 「조선후기 釜山 新館窯 연구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신관요 수습유물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권주영, 「부산 초량왜관요 출토유물 연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61) 허현정, 「조선후기 倭館窯의 運營 研究」,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 「조선후기 왜관요의 자원 수급」, 『항도부산』 39,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9.

62) 홍선표, 「조선후기 韓·日間 畫蹟의 교류」, 『미술사연구』 11, 미술사연구회, 1997 ; 한국미술사학회 편, 『조선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7.

63) 김동철, 「왜관도倭館圖를 그린 변박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19, 한일관계사학회, 2003.

64) 박성희, 「朝鮮 後期 對日交易用 繪畫 研究 -東萊 倭館 輸出畫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18·19세기 동래 왜관 수출화의 제작과 유통 -虎圖와 鷹圖를 중심으로-」, 『미술사논총』 31, 한국미술연구소, 2010.

65) 이현주, 「동래부 화원 李時訥 연구」, 『역사와 경계』 76, 부산경남사학회, 2010 ; 「조선후기 동래지역 화원 활동과 회화적 특성」, 『역사와 경계』 83, 부산경남사학회, 2012.



동래부 지방화원의 활동과는 달리 조선후기 통신사를 수행한 화원들이 남긴 회화자료를 통하여 양국 문화교류의 일면을 살핀 황은영의 연구도 있다.<sup>66)</sup>

#### 4.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근세 한일관계 관련 물품교류 연구 현황을 교류 형태와 주요 물품별로 나누어 개관해 보았다.<sup>67)</sup>

그동안의 물품교류 관련 연구는 사행과 공·사무역 등을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개별 물품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자료 면에서 보면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 사료인 『왜인구청등록』과 일본 사료인 쓰시마증가문서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물품교류와 관련해서도 보다 실증적인 연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특히 수량적인 추이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개별물품을 소재로 보다 다양한 주제로 확대되어 관점이 다양화될 수 있는 측면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왜인구청등록』에는 수백여 가지의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어서,<sup>68)</sup> 앞으로 보다 다양한 물품교류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동 자료는 이미 역사학계 뿐 아니라 미술사학계와 같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쓰시마증가문서, 특히 『分類紀事大綱』에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무역을 비롯하여 왜관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등이 주제별·시대별로 총망라되어 있고 구무에 관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물품을 통한 양국 교류의 모습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 사료군 안에는 조선 사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내용이 소략한 것들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쓰시마의 상황 혹은 물품교류를 둘러싼 양국의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쓰시마증가문서의 경우 일본초서인 쿠즈시지(崩字)와 난해한 문체인 소로분(候文)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해독상의 어려움이 따르기는 한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료들에 대한 탈초 작업을 진행하여 자료집으로도 간행하고 있고 『藥材質定記事』와 같은 일부 자료는 국역자료집으로도 간행되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여 대일무역 및 물품교류 연구를 실증적으로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물품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또한 필요하다. 물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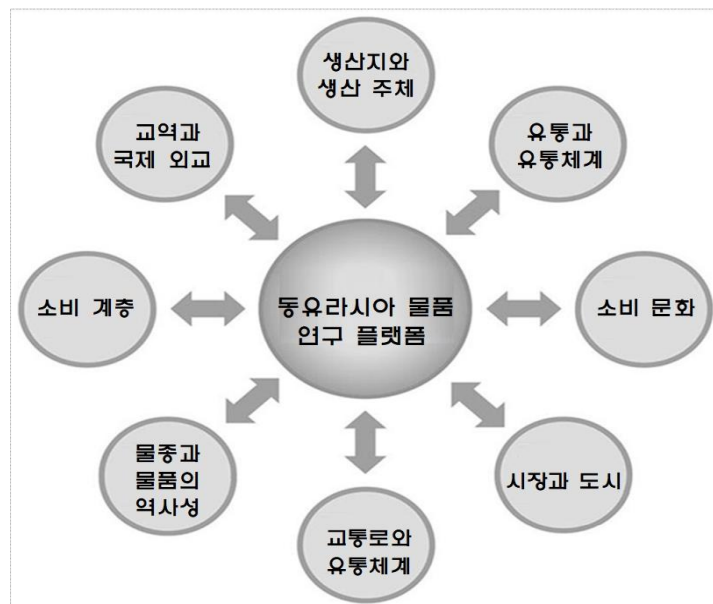
66) 황은영, 「조선후기 通信使 繪畫資料를 통해 본 朝·日 文化交流 연구」,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 「1763년 계미통신사 조엄의 사행과정과 문화교류 연구」, 『인문과학연구』 6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 「18세기 중반 이후 통신사행 회화 자료의 특성」,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67) 가능한 모든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정리 과정에서 빠진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리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온 물품들과 일본 측 연구 성과는 반영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다.

68) 이승민, 「조선후기 求貿의 전개과정과 성격」,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103쪽의 물품표 참고.

토와 해당 물품이 지니는 시대적 가치 및 역사성, 각 물품이 가지는 지역성과 국제성, 전통사회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던 물품의 생산과 소비처, 유통과 교역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교역 네트워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주로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진 물품교류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였지만, 사실 물품은 사실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귀속하기는 어렵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생활과 상호 교류에 쓰인 도구의 총체가 바로 물품으로, 물품에 내재한 특징과 역사성에 따라 다양한 학문분과 간의 연구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주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물품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종합’과 ‘융합’을 통하여 폭넓은 학제적 융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이라는 단일지역에서 탈피하여 한·중·일과 더 나아가서는 동유라시아 차원에서 생산·교역·유통·소비되었던 물품 자체에 대한 분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유통되고 소비된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한 단순한 생산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생산되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교역·유통되고 어느 지역의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되었는지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국대학교 HK플러스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유라시아 물품 연구 플랫폼>

## 【물품교류 관련 연구 논저 목록】

### 1.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편,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 두산동아, 2007
- 김강일, 『조선후기 왜관의 운영실태 연구』, 경인문화사, 2020
- 김경숙, 『일본으로 간 조선의 선비들 -조선통신사의 일상생활과 문화교류-』, 이순, 2012
- 김병하, 『李朝前記 對日貿易 研究』, 한국연구원, 1969
- 김옥근, 『釜山經濟史』, 부산상공회의소, 1989
- 尾道博, 『近世日朝流通史の研究』, 五絃舎, 2013
- 민덕기,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2007
- 박평식, 『朝鮮前期 對外貿易과 貨幣 研究』, 지식산업사, 2018
- 방병선,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 北島万次·손승철·橋本雄 외, 『한일 교류와 상극의 역사』, 경인문화사, 2010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2006
- 손승철·김강일 편역, 佐伯弘次 著, 『조선 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경인문화사, 2010
- 오 성, 『朝鮮後期 商業史研究』, 한국연구원, 2000
- 이근우·이영·김동철, 『전근대한일관계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 이준걸, 『조선시대 일본과 서적교류 연구』, 흥익재, 1986
- 이현종, 『朝鮮前期對日交渉史』, 한국연구원, 1961
- 이 훈, 『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19
- 임동권, 『통신사와 문화전파』, 민속원, 2004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田代和生, 『江戸時代朝鮮藥材調査の研究』,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9
- 田代和生 著·정성일 譯, 『倭館-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 田代和生, 『日朝交易と對馬藩』, 創文社, 2007
- 田中健夫, 『對外關係と文化交流』, 思文閣, 1982
-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東京:彩壺會, 1930
- 澄泉一, 『釜山窯の史的研究』, 關西大學出版部, 1986
- 하우봉, 『조선시대 해양국가와의 교류사』, 경인문화사, 2014
- 한국미술사학회 편, 『조선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7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한일관계사학회 편, 『한·일 도자문화의 교류양상』, 경인문화사, 2005

- 한일관계사학회 편,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근세편), 경인문화사, 2006
- 한일관계사학회 편, 『조선시대의 한국과 일본』, 경인문화사, 2013
-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일관계 속의 왜관』, 경인문화사, 2012
- 허남린 편, 『조선시대 속의 일본』, 경인문화사, 2013

## 2. 논문

- 권내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조선의 은 유통」, 『역사학보』 221, 역사학회, 2014
- 권내현, 「17~18세기 조선의 화폐 유통과 은」,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 권상인, 「倭館窯에 관한 小考」, 『차문화·산업학』 32, 국제차문화학회, 2016
- 권주영, 「부산 초량왜관요 출토유물 연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 구지현, 「權佾 撰 『詩人要考集』의 일본 전래와 간행의 의미」, 『영주어문학』 18, 영주어문학회, 2009
- 구지현, 「17세기 통신사 필담에 나타난 한일간 서적 교류의 모습」, 『한국한문학연구』 47, 한국한문학회, 2011
- 구태훈, 「일본에서 꽃핀 조선의 도자기 문화 -임진왜란 당시 납치된 조선인 도공 이야기-」, 『역사비평』 85, 역사문제연구소, 2008
- 기타야마 마비(片山まび), 「임진왜란 이후 일본 주문 茶碗에 대한 고찰 -吳器茶碗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 미술사연구회, 2010
- 김강일, 「倭館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對日 求請物品-「朝鮮より所望物集書」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4, 일본사학회, 2011
- 김강일, 「撤供撤市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53, 한일관계사학회, 2016
- 김경란, 「조선후기 동래부의 공작미(公作米) 운영실태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9
- 김경란, 「19세기 對日 公貿易의 추이와 倭銅의 운용」, 『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 김경미, 「17~8세기 대일외교·교역과 매」, 『역사와 세계』 34, 효원사학회, 2008
- 김경미, 「17~18세기 日本의 朝鮮 藥材 求請」, 『대구사학』 119, 대구사학회, 2015
- 김경숙, 「조선후기 한일서적교류 고찰 -18세기 통신사 사행록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3, 한중인문학회, 2008
- 김덕진·변광석·이훈·정성일·池內敏, 「외교와 경제 : 조선후기 통신사외교와 경제시스템 -通信使 禮單을 통해서 본 朝日外交의 특징과 그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26, 한일관계사학회, 2007

- 김동진, 「병자호란 전후 무역 발생과 농우 재분배 정책」, 『역사와 담론』 65, 호서사 학회, 2013
- 김동진, 「16세기 삼남의 虎豹皮 除役과 防納의 위상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6-2, 역사문화학회 2013
- 김동철, 「조선후기 水牛角 무역과 弓角契貢人」, 『한국문화연구』 4, 부산대학교 한문문화연구소, 1991
- 김동철, 「19세기 牛皮貿易과 東萊商人」, 『한국문화연구』 6,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 김동철, 「『東萊府商賈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東萊商人」, 『한일관계사연구』 창간호, 한일관계사학회, 1993
- 김동철, 「17·18세기 대일 公貿易에서의 公作米 문제」, 『항도부산』 10, 부산광역시 사편찬위원회, 1994
- 김동철, 「17세기 일본과의 交易·交易品에 관한 연구 -密貿易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 김동철, 「조선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 『민족문화』 21, 1998
- 김동철, 「조선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被執蔘」, 『한국민족문화』 13, 민족문화추진회, 1999
- 김동철, 「왜관도倭館圖를 그린 변박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19, 한일관계사학회, 2003
- 김동철, 「解題」, 『(國譯)倭人求請臚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2008
- 김동철, 「17~19세기 東萊府 小通事의 編制와 對日活動」, 『지역과 역사』 17, 부경역사연구소, 2005
- 김동철, 「17~19세기 부산 왜관의 開示와 朝市」,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2012
- 김동철, 「17~18세기 조일무역에서 ‘私貿易 斷絶論’과 ‘나가사키[長崎] 直交易論’에 대한 研究史 검토」, 『지역과 역사』 31, 부경역사연구소, 2012
- 김동철,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 상인의 구성과 활동」, 『역사와 세계』 46, 효원사학회, 2014
- 김동철, 「조선후기 동래지역의 유통기구와 상품」, 『역사와 경계』 97, 부산경남사학회, 2015
- 김동철, 「왜관 무역과 동래상인」, 『초량왜관 -교린의 시선으로 허하다-』,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54집, 부산박물관, 2017
- 김두중, 「韓國印本の 中國 및 日本과의 交流」, 『民族文化論叢』 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 김병하, 「이조전기에 있어서의 대일남해물산무역(상)」, 『경제학연구』 13-1, 한국경제학회, 1965
- 김병하, 「이조전기에 있어서의 대일남해물산무역(중)」, 『경제학연구』 14-1, 한국경

- 제학회, 1966
- 김병하, 「이조전기에 있어서의 대일남해물산무역(하)」, 『경제학연구』 15-1, 한국경제학회, 1967
- 김병하, 「17·8세기의 銀蔘問題 -對日 人蔘貿易을 중심으로-」, 『경희대 정경논집』 8, 1972
- 김성진, 「부산 왜관과 한일간 문화교류」, 『한국문학논총』 22, 한국문학회, 1998
- 김순남, 「16세기 조선과 野人 사이의 모피 교역의 전개」, 『한국사연구』 152, 한국사연구회, 2011
- 김양수, 「조선후기 譯官의 중개무역과 倭館維持費」, 『역사와 실학』 32(下) 大湖 李隆助教授 停年紀念號, 역사실학회, 2007
- 김영록,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公木」,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 김영록, 「17~18세기 대일무역 收稅와 동래부 재정」, 『민족문화연구』 6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 김영록, 「17~18세기 대일銅무역과 정부의 주전사업」, 『지역과 역사』 43, 부경역사연구소, 2018
- 김재승, 「고구마의 朝鮮 傳來」, 『동서사학』 8, 한국동서사학회, 2001
- 김태훈, 「17~19세기 한·일간 역사 지식 유통과 역사 서술 -에도시대 일본의 한국 고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89, 호서사학회, 2019
- 김현지, 「조선후기 釜山 新館窯 연구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신관요 수습유물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大沢研一, 「朝鮮鷹の受容と日本の武家社會」, 『조선통신사연구』 25, 조선통신사학회, 2018
- 藤本幸夫, 「對馬島宗氏文庫所藏 韓國本과 林氏에 對하여」, 『民族文化論叢』 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 藤本幸夫, 「일본소재 한국고문헌에 대한 조사와 그 서지학적 연구」, 『민족문화』 31, 한국고전번역원, 2008
- 藤本幸夫, 「일본에 있는 韓國本과 그 特徵에 대해서」, 『民族文化論叢』 1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藤本幸夫, 「日本の 現存 朝鮮本에 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1983
- 류종현, 「일본 淸見寺 소장 通信使의 遺墨 조사 보고」,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 민덕기, 「조선후기 對日 通信使行이 기대한 반대급부 -일본에서 받은 私禮單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 박성희, 「朝鮮 後期 對日交易用 繪畫 研究 -東萊 倭館 輸出畫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성희, 「18·19세기 동래 왜관 수출화의 제작과 유통 -虎圖와 鷹圖를 중심으로-」, 『미술사논총』 31, 한국미술연구소, 2010
- 박평식, 「朝鮮前期의 人蔘政策과 人蔘流通」, 『한국사연구』 143, 한국사연구회, 2008
- 박평식, 「16세기 對日貿易의 展開와 葛藤」, 『역사학보』 238, 역사학회, 2018
- 방병선,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 연구」, 『미술사학연구』 232, 한국미술사학회, 2001
- 방병선, 「조선 도자의 일본 전파와 이삼평」, 『백제문화』 3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3
- 변광석, 「임진왜란 직후 기장지역의 상황과 피로인 사기장」,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夫馬進, 「朝鮮通信使と日本の書籍」, 『규장각』 2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 山本進, 「朝鮮後期 銀 流通」, 『명청사연구』 39, 명청사학회, 2013
- 서인범, 「朝鮮 虎皮와 豹皮의 생산·유통」, 『명청사연구』 50, 명청사학회, 2018
- 서한석, 「朝鮮秘傳 干牛丸을 통해 본 조일의학교류의 일면」, 『한문학보』 24, 우리한문학회, 2011
- 성현주, 「기장지역 도자기의 제작기법과 도자사적 성격」,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須田牧子, 「15세기 일본의 朝鮮佛具 수입과 그 의의 -大內氏의 大藏經 수입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0, 한일관계사학회, 2004
- 신동규, 「지역과 경계를 넘나드는 일본사 -일본 전근대사 연구의 최근 동향-」, 『역사학보』 223, 역사학회, 2014
- 심민정, 「18세기 倭館에서의 倭使 접대음식 준비와 양상」, 『역사와 경계』 66, 부산경남사학회, 2008
- 심민정, 「조선 후기 倭館을 중심으로 한 倭人 해산물 조달」,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자료집』, 2011
- 심민정, 「조선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양상」, 부경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심민정, 「조선 후기 日本使臣 접대절차와 양상」, 『한일관계사연구』 50, 한일관계사학회, 2015
- 심민정, 「조선 후기 일본사신 접대를 통해 본 朝日관계 -差倭제도와 접대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 부산경남사학회, 2015
- 심민정, 「두모포왜관시기 差倭 接待例 변화와 정비 -『接倭式例』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4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 심민정, 「두모포왜관 시기와 초량왜관 시기 연례송사 접대 비교 연구 -『接倭式例』(1659)와 『嶺南接倭式例改臚錄』(1732)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5,

- 한일관계사학회, 2019
- 심민정, 「『朝鮮漂流日記』(1819)에 나타난 표류왜인 호송과 접대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 신양선, 「15세기 조선시대 서적수입정책」, 『역사와 실학』 12, 역사실학회, 1999
- 양정필, 「17~18세기 전반 인삼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탐라문화』 5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 양흥숙,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 5, 부경역사연구소, 1999
- 양흥숙, 「朝鮮後期 對日 接慰官의 파견과 역할」, 『부대사학』 24,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0
- 양흥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 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양흥숙, 「조선의 對日關係와 동래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 염정섭, 「조선 후기 고구마의 도입과 재배법의 정리 과정」, 『한국사연구』 134, 한국사연구회, 2006
- 오 성, 「朝鮮後期 ‘蔘商’에 대한 一考察 -私商의 擡頭와 관련하여-」, 『한국학보』 17, 일지사, 1979
- 오 성, 「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와 參商의 活動」, 『세종사학』 1, 세종대 사학회, 1992
- 오용섭, 「倭楮의 傳來와 抄造」, 『서지학연구』 10, 서지학회, 1994
- 오인택, 「조선후기의 고구마 전래와 정착 과정」, 『역사와 경계』 97, 부산경남사학회, 2015
- 유승주, 「17世紀 私貿易에 관한 一考察 -朝·淸·日 間의 焰硝·硫黃貿易을 中心으로-」, 『흥대논총』 10, 흥익대학교, 1978
- 유채연, 「『海行記』를 통해서 본 1734년 문위행」, 『한일관계사연구』 58, 한일관계사학회, 2017
- 윤유숙, 「조선후기 한일통교관계와 ‘己巳約條’(1809년)」, 『일본역사연구』 24, 일본사학회, 2006
- 윤유숙, 「17세기 朝日間 日本製 武器類의 교역과 밀매」, 『史叢』 67, 역사학연구회, 2008
- 윤유숙, 「조선후기 문위행(問慰行)의 사행 활동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58, 한일관계사학회, 2017
- 윤유숙, 「조선후기 조선·일본의 동남아시아 산물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 이상규, 「17세기 전반 왜학역관 康遇聖의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 이성만, 「壬亂後の朝日兩國の交渉に關する研究 -朝鮮と對馬藩の貿易關係を中心に-」, 『일본학보』 14, 한국일본학회, 1985
- 이승민, 「조선후기 대일무역상의 폐해와 己巳約條(1809)의 체결」, 『한일관계사연구』 22, 한일관계사학회, 2005
-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貿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와의 말[馬] 교역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 이승민, 「조선후기 일본과의 매[鷹] 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 이승민, 「조선후기 대일 도자교역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81, 조선시대사학회, 2017
- 이승민, 「조선후기 求貿의 전개과정과 성격」,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승민, 「조선산 黃毛筆의 생산과 일본과의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 이승민, 「조선후기 求貿의 시행과 운영절차」, 『한국학논총』 5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 이유리, 「『倭人求請臚錄』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37, 한국서지학회, 2011
-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性理學書의 서지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유리, 「17세기 일본에서의 『聖學十圖』 수용 양상 연구」, 『서지학연구』 84, 한국서지학회, 2020
-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연구」, 『한국학』 162,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 이정수,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부대사학』 22, 부산대학교 사학회, 1998
- 이종봉,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이자연, 「朝鮮의 使節과 日本使臣 間의 交易品을 통하여 본 朝鮮 前期의 織物文化」, 『복식문화연구』 제11권 제6호, 복식문화학회, 2003
- 이현창, 「조선시대 銀 유통과 소비문화」, 『명청사연구』 36, 명청사학회, 2011
- 이현종, 「서울 中心의 朝鮮 初期 對倭貿易考」(上)·(中)·(下), 『향토서울』 13·14·1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2
- 이현주, 「동래부 화원 李時訥 연구」, 『역사와 경계』 76, 부산경남사학회, 2010
- 이현주, 「조선후기 동래지역 화원 활동과 회화적 특성」, 『역사와 경계』 83, 부산경

- 남사학회, 2012
- 이 훈, 「전근대 한일교류사 자료로서의 대마도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 이 훈, 「18세기 중엽 일본 표선에 대한 雜物(五日糧) 지급과 조·일 교섭 왜곡」, 『한일관계사연구』 9, 한일관계사학회, 1998
- 이 훈, 「조선후기 대일외교창구 관련 「실무문서」의 수량과 수록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4, 한일관계사학회, 2009
- 이 훈, 「비용으로 본 交隣儀禮」, 『한일관계사연구』 38, 한일관계사학회, 2011
- 이 훈, 「왜관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54, 한일관계사학회, 2016
- 임경택, 「물건[物]을 통해 본 한국과 일본의 민속문화비교」, 『한일관계사연구』 18, 한일관계사학회, 2003
- 임채명, 「朝日 詩文에 나타난 通信使行團의 馬上才 공연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31, 근역한문학회, 2010
- 장순순, 「조선시대 쓰시마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1,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장순순, 「한일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본 조선후기 倭館 -일본산 담배 및 담뱃대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39,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0
- 田代和生, 「對馬藩의 조선쌀 수입과 倭館升」, 『한일문화교류사』, 민문고, 1991
- 정경주, 「仁祖-肅宗朝의 倭人 求請慣行과 決濟方式 -조선후기 대일무역 사례 소개-」, 『무역평론』 창간호, 경성대학교 무역연구소, 1994
- 정성일, 「조선후기 對日貿易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1790~1870년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 정성일, 「易地聘禮 실시 전후 對日貿易의 동향」, 『경제사학』 15, 경제사학회, 1991
- 정성일, 「明治維新 직전 朝日貿易의 존재형태 -1867년의 公貿易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4, 전남대학교 기업경제연구소, 1991
- 정성일, 「조선산 人蔘 종자와 일본의 人蔘 수입 대체」, 『춘계박광순박사화갑기념 경제학논총』, 춘계박광순박사화갑기념논문문집간행위원회, 1993
- 정성일, 「19세기 초 조선산 栽培蔘의 대일수출 교섭 -禮單蔘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43, 국사편찬위원회, 1993
- 정성일, 「1861~62년 對馬藩의 密貿易事件 처리과정」, 『한일관계사연구』 2, 한일관계사학회, 1994
- 정성일, 「丁卯胡亂과 조선의 무역정책 -1629년 日本國王使의 上京과 관련하여-」, 『사학연구』 49, 한국사학회, 1995
- 정성일, 「朝日貿易을 이끈 조선 人蔘과 일본 銀」,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한일관계사학회 편, 1998
- 정성일, 「조선후기 對日貿易에 참가한 商賈都中の 규모와 활동(1844~49)」, 『한일관계사연구』 8, 한일관계사학회, 1998

- 정성일, 「韓·日 私貿易 논쟁」, 『경제사학』 27, 경제사학회, 1999
- 정성일, 「朝·日間 公貿易 -書契別幅(1614~99)의 분석-」, 『사학연구』 58·59, 한국사학회, 1999
- 정성일, 「조선후기 朝日貿易의 규모 -日·蘭무역과의 비교-」, 『2002년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History -역사 속의 한국과 세계-』, 역사학회·세계사학회, 2002
- 정성일, 「朝鮮의 銅錢과 日本의 銀貨 -貨幣의 유통을 통해 본 15~17세기 韓日關係-」, 『한일관계사연구』 20, 한일관계사학회, 2004
- 정성일, 「조선의 기근과 일본쌀 수입 시도(1814~15년)」, 『한국민족문화』 31,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 정성일, 「조선과 일본의 銀 유통 교섭」,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 정성일, 「19세기 대일공무역 결제수단의 변경과 금납화 -1841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 정성일, 「1872~75년 조·일 무역 통계」, 『한일관계사연구』 46, 한일관계사학회, 2013
- 정성일, 「朝鮮의 對日關係와 巨濟 사람들 -1830~80년대 巨濟府 舊助羅里[項里] 주민의 대마도 난파선 구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 정성일, 「倭館 開市 때 제공된 日本料理 기록의 비교(1705년, 1864년)」, 『한일관계사연구』 52, 한일관계사학회, 2015
- 정성일, 「1860년대 對日貿易과 公木·公作米」, 『한일관계사연구』 54, 한일관계사학회, 2016
- 정성일, 「상평통보를 소지한 조선의 표류민과 대마도(1693-1862)」, 『역사와 경계』, 101, 부산경남사학회, 2016
- 정성일, 「왜관의 일기로 본 조·일 간 무역(1721~23년)」, 『한일관계사연구』 57, 한일관계사학회, 2017
- 정성일, 「조엄(趙暉)과 일본 표류 제주인을 통한 제주 지역의 고구마 전래」, 『조선통신사연구』 23, 조선통신사학회, 2017
- 정성일, 「19세기 중엽 조선 역관의 무역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60, 한일관계사학회, 2018
- 정성일, 「통신사를 통해 본 물적 교류 -신미 통신사(1811년)의 예물 교환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36,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 정성일, 「通信使船 船員의 船上生活와 治療 -1719년 大坂 尻無川の 사례-」, 『한일관계사연구』 62, 한일관계사학회, 2018
- 정성일, 「왜관 『관수일기』의 학술적 가치」, 『열상고전연구』 63, 열상고전연구회, 2018

- 정성일, 「왜관의 연료 조달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마찰(1609~1876)」, 『한일관계사연구』 66, 한일관계사학회, 2019
- 정은주,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 교류」, 『동아시아문화연구』 60,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 정지연, 「朝鮮前期 對日 私貿易 研究」,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 池内敏, 「繪畫とモノ」, 『日本人の朝鮮觀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2017
-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임진왜란 이후의 인적교류와 서적의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41, 한국한문학회, 2008
- 차수정, 「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過程; 18世紀初 蔘商의 成長과 그 影響을 中心으로」, 『북악사론』 1, 국민대 국사학과, 1989
- 하여주, 「조선후기 대일관계 속의 皮物」,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 하우봉, 「壬辰倭亂 後 朝·日間の 文物交流」, 『일본학』,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1
- 하우봉, 「통신사행 문화교류의 새 양상 -1763년 계미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9, 한일관계사학회, 2018
- 한문종, 「조선후기 日本에 관한 著述의 조사연구 -對日關係 臚錄類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 국사편찬위원회, 1999
- 한문종, 「조선전기 일본의 大藏經 求講과 한일간의 文化交流」, 『한일관계사연구』 17, 한일관계사학회, 2002
- 한문종, 「『海東諸國紀』의 倭人接待規定과 朝日關係」, 『한일관계사연구』 34, 한일관계사학회, 2009
- 한문종, 「조선전기 倭使의 宴享接待와 女樂」,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 한문종, 「고려후기·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60, 한일관계사학회, 2018
- 한성주, 「근세 한·중·일의 貂皮 무역에 대한 시론적 검토」, 『인문과학연구』 5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 한성주, 「조선과 여진의 貂皮 교역 성행과 그 영향」, 『만주연구』 25, 만주학회, 2018
- 한성주, 「조선과 명의 貂皮 교역 연구」, 『강원사학』 32, 강원사학회, 2019
- 허현정, 「조선후기 倭館窯의 運營 研究」,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 허현정, 「조선후기 왜관요의 자원 수급」, 『항도부산』 39,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9
- 홍선표, 「조선후기 韓·日間 畫蹟의 교류」, 『미술사연구』 11, 미술사연구회, 1997

- 홍성덕, 「17세기 조·일 外交使行 연구」,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홍성덕,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醫員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32, 한일관계사학회, 2009
- 홍성덕,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쓰시마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 41, 동북아역사재단, 2013
- 황은영, 「조선후기 通信使 繪畫資料를 통해 본 朝·日 文化交流 연구」,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황은영, 「1763년 계미통신사 조엄의 사행과정과 문화교류 연구」, 『인문과학연구』 6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 황은영, 「18세기 중반 이후 통신사행 회화 자료의 특성」,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여 백

**【제3발표】**

**종교학에 있어서 물질문화 연구의 가치와 전망**  
**-불교적 물질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박연주(동국대학교)**





# 종교학에 있어서 물질문화 연구의 가치와 전망 - 불교적 물질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1)

박연주(동국대학교)

## 종교연구에 있어서의 물질문화

인간의 물질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인류학의 하위 분야로서 시작되었고, 주지하듯이 이후 고고학이나 박물관학은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 연구의 유구한 전통을 통틀어 물질문화(material culture)에 대한 연구성과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sup>2)</sup> 여전히 물질은 좀 더 고차원적인 인간의 문화, 다시 말해 ‘정신적’인 두뇌활동이 만들어낸 위대한 이념이나 정치·사회·경제 제도의 반영, 혹은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오랜 현실이었다. 1920년대에 Johan Huizinga가 예술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세 프랑스와 네덜란드인들의 정신문화를 고찰하는 선구적 업적을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오랫동안 종교연구에 있어서는 물질문화가 진지한 연구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학계에 만연해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16세기 유럽에서의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의 구습에 대한 비판과 저항과정에서 형성된, 종교에 있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억압과 물질문화를 폄하하는 전통에 기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종교는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신(spirit)과 물질(matter)을 이분법으로 가르는 서양철학의 이원론적 사유방식 또한 그러한 종교학계의 물질연구에 대한 편견 내지는 경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어떤 종교의 특성이 그 종교를 연구·분석하는 학술적 태도에도 분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간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Emile Durkheim이나 Max Weber, Mircea Eliade와 같은 기라성같은 종교학자들 사이에도 뿌리를 내린 종교학계의 오랜 고정관념은 정신-물질의 이분법에 기반한 ‘성(聖)’과 ‘속(俗)’의 이원론이었다.

그렇다면 불교와 불교학계의 상황은 어떠할까? 종교를 연구하는 전문분야 안에서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불교는 소위 그 ‘포용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이 잘 알

1) 이 발표문은 주로 『東方學』 제44집 (2021.2)에 실린 발표자의 최근 논문, 「일본 불교 물질문화의 정신적 배경- 불교의 물질관과 중세 일본 불교의 물질을 둘러싼 담론」의 전반부 내용을 발췌·참조한 토대 위에 추가적인 논의를 전개한 구성임을 밝혀둔다.

2) 이하 서구의 물질문화연구를 둘러싼 역사에 대해서는 John Kieschnick, *The Impact of Buddhism on Chinese Material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Introduction”과 Amiria Henare et.al., *Thinking through Things: Theorising Artefacts Ethnographically* (London: Routledge, 2007) 참조.

려져 있는데다가 여러 면에서 서양의 이원론적인 사고와 대조되는 사유의 기반을 가진 동아시아의 정신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에, 얼핏 생각하면 불교는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하여 제법 수용적이고 긍정적이었을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포용성에 앞서 불교는 그 어떤 종교 못지않게 정신성이라고 할지, ‘영성(spirituality)’이 중시되는 종교라 할 수 있다. 불교의 근본적이고 핵심적 교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집착을 끊을 것을 강조하며, 따라서 인간적 욕망, 특히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육체적,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는 힘든 수행이 요구되는 종교가 불교인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근본정신이 이를 연구하는 태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듯, 지금까지 불교 전반 및 지역 불교를 연구해온 절대 다수의 학자들은 경전과 주석서 등 텍스트를 중심으로 불교를 연구해왔고, 물질문화를 소홀히 취급한 것-적어도 단행본 규모로 출간된, 물질문화를 전적으로 다룬 전문연구가 거의 없는 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여타 종교 연구에서의 사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중국불교학자인 John Kieschnick이 불교가 중국의 물질문명과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 저서를 펴낸 이후 유럽과 미국의 불교학계를 중심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불교적 물질문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불교 연구의 대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해석학이며 그 외에 불교를 둘러싼 정치사나 경제사, 사회사 연구분야에서도 물질문화를 중심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는 경우가 드물다. 여전히 물질성을 철학적인 탐구와는 관련이 없고 대중적인 멘탈리티, 혹은 미신의 범주로까지 치부해버리는 경향을 감지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일본 불교의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서를 저술한 Fabio Rambelli가 평한 대로, 말하자면 ‘불교는 물질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다’는 생각이 예나 지금이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그것이 승려이든 학자이든-사이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불교는 실상 어느 나라에서든지 화려하기 그지없는 물질문화를 꽃피운 데다가 불교 이전부터 기존의 문화로 자리 잡아 왔던 토착적인 신앙과 풍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또한 융·복합적인 물질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문화의 모순적인 실제 면모를 이해하고,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물질문화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음미하기 위해 먼저 불교의 물질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태도에 대한 문제를 간략히 살펴본 후, 최근의 불교 물질문화 연구들을 통해 주목되는 물질과 종교성, 인간의 관계, 또한 그 속에서 발견되는 물질문화 연구의 가치와 방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물질에 대한 불교의 기본적 인식과 태도

3) Fabio Rambelli, *Buddhist Materiality: A Cultural History of Objects in Japanese Buddh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p.66.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불교는 근본적인 교학과 교리의 관점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 결코 관용적인 종교가 아니다. 불교의 핵심교의인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사성제(四聖諦)나 삼법인(三法印)<sup>4)</sup>이 분명히 천명하고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존재이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재가 아닌 허상이므로 그것들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끊어야만 한다는 것이 불교적 구원론의 출발점이다. 불교적 이원론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할 이러한 대전제 아래 원시불교는 각종 경전과 계율, 논서들을 통해 물질세계로부터의 연을 끊고 정신적 초월과 해탈을 성취할 것을 강조했다. 출가한 승려들에게는 물론이요, 일반 대중에게도 재물과 여자(육체적 욕망)는 집착을 낳게 하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주요 악으로 설파되었다.

초기 경전 중 하나인 『장아함경(長阿含經; Skt. Dīrghāgama)』에서부터도 잘 묘사되어 있듯이,<sup>5)</sup> 애당초 석가모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극치의 쾌락과 호사스러움의 유혹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진정한 해탈을 얻은 최고의 본보기로 그 존재의 미가 시작되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삶에 대한 갖가지 조명을 한 텍스트들을 통해 우리가 거듭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가 만약 왕자의 신분 그대로 궁전에 머물렀더라면 절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메시지이다.<sup>6)</sup>

초기 불교 경전들에는 부자들의 물질에 대한 관심과 승려들의 정신적인 구도(求道)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승려로서 지켜 마땅한 의무와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기도 한데, 그런 경전 속에서 부처는 승려란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상인이나 무사 등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응당 진리를 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7)</sup> 물질세계는 덧없는 환상이며, 무엇보다도 물질의 소유와 그에 대한 욕망은 나쁜 업(業)을 쌓게 하여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끝없이 고통스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은 불교 관련 텍스트들 안에 차고 넘친다. 즉, 물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불교의 실천윤리적 관념인 업이나 윤회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승가의 계율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부정과 비판적 의식이 매우 잘 투영된 채 형성되었고, 따라서 승려들의 소유물은 개인이 다 짊어질 수 있는 규모의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가령 바리때와 같은 공양그릇, 신발, 반질고리—로만 한정되었다. 또한 승려는 돈을 만져서도 안 되었으며 지극히 수수한 옷을 걸치는 것만이 허락되었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경전이나 교리의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 불교의 실제 모습, 다시 말해 불교의 실천과 수행, 의례, 또 이들을 둘러싼 관습 등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사방

4) 일체개고(一切皆苦),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를 가리키는 말로써 사성제에서 설해진 불교의 근본적 교의를 기치로 나타낸 것.

5) 『장아함경』, T.1.1, 1-10쪽.

6) Kieschnick, 앞의 책, 2쪽.

7) Kieschnick, 위의 책, 2-3쪽.

8) Kieschnick, 위의 책, 4쪽.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개의 대승불교 승려들은 기본적으로 사분율(四分律)을 따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범망경(梵網經)』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계율을 수립하고 지키는 등 각 문화나 종파마다 다르다.

에 온통 물질적인 것들 투성이인 것이 또한 불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고고학적인 조사에서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중국에서도 불교 사원은 그들이 소유한 재화에 의존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며 승려들 또한 실제로는 경전이나 도상들에서부터 노예와 토지에 이르기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대지가 드넓은 중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청렴’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각자 달랐기 때문에 계율이나 규율 또한 그 지역에 맞게 변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승가의 규율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제법 커지는 것을 용인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설령 승가의 규율이 강화된 곳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승려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승가나 사원의 소유와 물질적 부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었다.<sup>9)</sup>

이렇게 보면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본래의 정신을 망각하고 타락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며 사실상 인도와 서역의 불교에 비해 중국의 불교가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데다 교의조차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많은 변용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물질성이 좀 더 두드러지는 점들을 두고 중국에서 불교가 ‘퇴보’했다고 하는 불교학자들의 비판도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적어도 물질적인 문화를 둘러싼 실상에 있어서는 중국 불교가 더 타락한 것도, 인도 불교가 더 청렴한 것도 아니었다. 중국에서 발전한 불교적 물질문화—개별적 물품들과 물질에 대한 인식과 태도까지도 포함하는—는 사실 거개 인도에서 전해져 왔다.<sup>10)</sup> 무엇보다도 인도에서나 중국에서나 사원의 경제적 운영에서 중요했던 것이 불교 신도들의 공양(供養) 물품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 불교적 윤리의 수행을 위한 신자들의 헌납이라는 실천이야말로 물질에 대한 불교의 이중적이고도 양가적 태도를 빚어내는 요인 중 하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초기 불교의 경전들은 물질에 대해 악업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경계했지만, 바로 그 같은 ‘업’의 교의를 토대로 물질의 소유와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또한 공양을 통한 ‘공덕(功德; Skt. puṇya)’과 선업 쌓기라는 불교 윤리의 또 다른 논리였던 것이다. 이는 지극히 미묘한 문제이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타협적 종교 윤리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 뒤집어 생각하자면 출가해서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연마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재가 신자들에게 마련된 구원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누구나 만물의 공성(空性)과 물질적인 것의 임시방편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임시방편이었다. 사람들은 더 위대한 선(善)을 위해, 부처님과 진리를 위해, 공덕을 쌓기 위해 임시방편의 물품 공양을 계속했고 이러한 임시방편의 구실은 점점 더 많은 재물을 헌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마저 흐리게 했다.<sup>11)</sup>

게다가 이러한 공양이 결국 불법의 융성과 전파를 도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에는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경전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

9) Kieschnick, 위의 책, 5-13쪽

10) Kieschnick, 위의 책, 23쪽

11) Kieschnick, 앞의 책, 6-7쪽, Rambelli, 앞의 책, 68쪽.

다. 『법화경(法華經)』과 같은 경전에서는 서품(序品)에서부터 석가모니가 신실한 자들을 향해 탐에 금, 은, 수정 등의 보석들을 공양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sup>12)</sup> Kieschnick에 따르면 음식, 옷, 돈 등과는 달리 이러한 장식물들은 승가나 사원의 재정운영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경배하는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되지 않았다고 한다.<sup>13)</sup> 부처님과 부처님 나라를 경배하는데 이러한 보석류 장식물은 매우 중요했는데, 『화엄경(華嚴經)』에도 상세히 묘사가 잘 되어있는 부처와 불국토의 온갖 귀한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장엄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찬과 경배의 대상이었다. 이는 물론 대승경전에서 쓰이는 ‘방편(方便; Skt.upāya)’의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주목할 점은 그러한 물질 공양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행해졌을 뿐 아니라 또 그러한 공양을 하는 신도들은, 계율을 잘 지킨 자들과 함께 물질적 부로써 보답받는다는 설교의 논리였다.<sup>14)</sup>

물질적인 것에 대한 불교의 양가적 태도는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불교의 근본 교의에 근거하여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경계하는 내용은 비단 불교 학승들에 의한 텍스트에서 뿐 아니라 일반 민중의 교화를 위한 불교설화에서도 빈번히 발견되는 주제이다.<sup>15)</sup> 그런 한편 공양과 보시를 위한 물질의 사용과 그 권장 또한 중국의 경우에서도 본 바와 유사하다. Rambelli는 이를 두고 승려들의 정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신도들의 물질적 보답을 시스템으로 하는 ‘성스러운 불교 경제(sacred Buddhist economy)’라고 명명한다.<sup>16)</sup> 그리고 역시 이 불교 경제 시스템에는 공덕이라고 하는 불교의 실천적 개념이 그 핵심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현세이익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일본 불교에 있어서 물질은 사람들을 심오한 차원의 정신성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종교를 홍보하는 수단 즉, 방편으로서 인정되곤 했는데, 그 반면 물질이 방편으로 이용되더라도 사람들은 곧 물질 그 자체에 집착하고 불법의 배움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역시 함께 존재했다는 것이다.<sup>17)</sup>

물질에 대한 이러한 양가적 인식은 종파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가령 예배나 의례시 종교적 물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측과 그런 사용이 불교의 타락을 가리킨다고 보는 종파나 계파 간의 논쟁이나 긴장관계 또한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일본 불교의 역사를 통틀어 계속해서 존재했다. 가령 천태나 진언종(眞言宗)에 의해 물질과 그 사용이 긍정되었더라도 곧 또 선종(禪宗)에 의해 부정되는 것을 보게 되며 심지어 성상파괴적이기까지 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다.<sup>18)</sup> 그러나 일본

12)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T.262.9., 8c-9a.

13) Kieschnick, 앞의 책, 7쪽.

14) Kieschnick, 앞의 책, 7쪽.

15) 승려 교카이가 찬술한 『日本靈異記』(약 787-824)나 헤이안 말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설화를 비롯한 각종 설화와 민담을 모은 『今昔物語集』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된 대표적인 텍스트들이다.

16) Rambelli, 앞의 책. ‘성스러운 불교 경제’라는 용어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상세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실린 부분을 보려면 이 책의 제2장 참조.

17) Rambelli, 위의 책, 66-67쪽.

18) Rambelli, 위의 책, 68쪽.

에서는 중세시기 불교를 둘러싼 몇 가지 특수한 종교문화적 요소들의 영향으로 인해 불교의 물질관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전개되었고 결과적으로 현대까지도 이어진, 불교에 관련된 다양한 물품의 발전을 보게 되어 그 물질성이 현저히 눈에 띄는 특유의 불교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듯 중국을 거쳐 동아시아로 퍼져나간 불교의 물질에 대한 태도는 많은 면에서 양가적이고 모순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태도의 공존 원인이 중국이라는 환경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주지하듯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공자나 장자를 위시하여 발전한 대표적인 중국 사상에서도 청빈은 중요한 이상이었기 때문이다.<sup>19)</sup>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에서 발전한 불교문화를 보더라도 이들 나라에서의 불교가 물질적인 것에 비관용적이었다고 결코 볼 수 없을 정도로, 불교는 어디에서나 화려한 물질의 위용이 돋보이는 문화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양가성, 서로 대립적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인간세상의 본질적 속성 때문인 것이 아닌가 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귀가 맞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등장하기 시작한, 중국과 일본 불교 연구자들에 의한 물질문화 연구성과 중에서 주요 연구사례 몇 가지는 종교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정신성과 물질성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나름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주목할 만한 최근의 불교 물질문화 연구

다양한 종교용품을 포함하여 형성된 인간의 종교적 물질문화는 사실 미술사학의 분야에서 종종 다뤄온 연구영역이었고, 불교적 물질문화의 연구 또한 지금까지 불교미술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이니만큼 그 연구성과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글머리에서 지적한 대로 불교 연구의 주제로서, 불교라는 종교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주요한 관점으로서 물질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매우 드문 가운데, Gregory Schopen은 인도 불교 유적과 유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초기 대승불교의 세속적 성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불교 물질문화 연구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할 수 있다. 이후 그의 접근방식에 영향을 받은 여러 학자들의 인도 불교 물질문화 연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앞서도 언급한 John Kieschnick의 *The Impact of Buddhism on Chinese Material Culture* (2003년)는 중국 불교의 물질문화를 다룬 선구적 연구사례가 되었다. 사리, 염주, 가사(袈裟)를 비롯한 다양한 성물들을 둘러싼

19) Kieschnick, 앞의 책, 9쪽.

20) 이에 대해서 정리한 최근의 논문 주경미, 「불교미술과 물질문화: 물질성, 신성성, 의례」, 『미술사와 시각문화』 7권 (2008)을 참조하기 바람

의례와 그 제작, 소비, 유통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통해 이러한 불교 물품들이 중국의 물질문화에 끼친 막강한 영향을 논의한 이 연구에서, 그는 물질문화의 양상 변화 뿐 아니라 신비한 힘과 신성성을 지녔다고 믿어진 각종 물건들을 귀중히 다루는 정신문화가 불교의 전파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인간의 전통적 사유나 행동양식과 어떤 식의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주목하고 그 양상을 면밀히 고찰한다. 무엇보다 종교적 윤리의 실천이 구체적인 물건의 생산 및 소비와 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불교 물질문화의 특성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것, 또한 그럼으로써 불교의 실재상, 그 실천적인 면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Kieschnick의 연구는 그 가치가 돋보인다.

역시 2000년대 들어 출판된 Brian Ruppert의 연구는 일본에 전해진 부처의 사리를 둘러싼 중세 초기 일본의 문화를 다각도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이다. 특히 사리를 중심으로 부처에 관련된 성물의 숭배, 유통과 전파, 수집, 심지어 절도 등의 다양한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역학관계를 토대로 하여 일어나고 또 그런 관계를 파생시키거나 혹은 전복시키는지를 면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성물에는 언제나 ‘narrative,’ 즉 ‘서사’가 붙어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증폭되며 재생산된다는, 다시 말해 물건 그 자체보다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이 물질을 둘러싼 모든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종교적 물질문화의 본질적 속성을 분명히 짚어낸다. 성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계 속의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행동 양식,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제도, 의례, 관습 등의 총체적 문화를 고찰한 Ruppert의 연구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연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이러한 연구성과 위에 Fabio Rambelli의 *Buddhist Materiality: A Cultural History of Objects in Japanese Buddhism* (2007년)은 가장 최근의 연구라는 점에서, 또 일본 불교에 있어서 물질문화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불교적 물질성의 본질을 읽어내려 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Kieschnick의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다뤄졌던 불교의 근본적 물질관과 그 인식의 변천을, 초기 불교 경전에 나타난 물질관에서부터 일본 불교에 있어 각 종파의 발전과 더불어 성숙한 교학의 해석을 통해 매우 자세히 고찰한다. 특히 ‘신불습합(神佛習合)’이라는 중세 일본의 지배적 종교문화상의 특징이 가져온 불교의 물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와 그에 수반한 물질문화의 변형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더구나 이러한 일본 종교문화의 특성이 물질에 신성성을 더욱 가미하고 무엇보다도 특정한 물품들을 매개로 다른 종교나 신앙 간의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고 그에 대한 서사와 담론이 형성되는 일본 종교의 문화적 특질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앞선 연구에서도 다룬 각종 성물들 뿐 아니라 그것을 제작하는 도구와 노동 작업 등의 ‘물성’과 그것이 매개하는 성과 속, 순간과 절대, 인간과 신의 관계 등을 기호학적 시각에서 풀어내며, 결국 다양한 종교 용품을 비롯한 물질은 불교의 철학과 교리를 상징하고 전파하는 주요 수단일 뿐 아니라 의미와 질서를 추구하는 인간의 근본적 욕망을 반영하고 그 욕망을 재생산하는 인간 사회의 구조 자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인간이 사용하고 필

요로 하는 물질이란 단지 그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용도로만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이다. 종교의 물질문화를 살피는 과정은 자연스레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해답을 구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불교 물질문화 연구의 가치와 방향성

인도에서 발원하여 아시아 전체에 전파되었던 불교는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에 도래한 이래 소위 ‘동아시아’라 통칭되는 이들 나라들이 공유한 수많은 문화코드들 중 중추적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이는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며 이러한 공통된 문화적 요소에서 빠질 수 없는 ‘한자(漢子)’ 사용과 함께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불교는 동아시아를 다른 문화권과 ‘가시적’으로 식별가능하게 만드는 독특한 물질문화를 형성·발전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불교사원들, 그 안의 법당이나 암자와 같은 건물들과 탑, 불상, 불화, 불단, 그리고 각양각색의 불구(佛具)들은 성스런 가람 안, 승가의 현실을 넘어 속세 일반 민중의 삶의 양식에까지 두루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물상들은 다른 불교문화권—가령 스리랑카나 태국과 같은—의 그것들과도 형태상으로는나 그런 사물들을 둘러싼 종교적 행위의 양식상으로는나 뚜렷이 구별되는 동아시아 불교 특유의 물질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만큼이나 ‘불교’라고 하는 종교, 철학, 윤리, 제도, 관습, 문화는 물질적인 것과 다양한 측면에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물론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그 양태와 관련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 사회의 제 종교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사실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불교적 물질문화의 변영 속에서 제작되고 개발되고 유통된 물건들의 성격으로서, 인간이 사용해온 수많은 종류의 물건들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에게 있어 의미있는, 인간만이 만들고 향유해온 특별한 물질의 ‘가치’를 가장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는 특성을 가진 것이 불교와 관련된 사물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지금 시대의 물질문화, 나아가 우리가 아주 가까운 미래상으로 그리는 시대의 인간의 소비문화와 그 핵심적 사고체계를 이룰 물질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불교의 물질문화라고 사료된다. 요컨대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통찰한대로 현대사회에서의 ‘기호의 소비’가<sup>21)</sup> 현대 인간의 물질, 특히 ‘상품’에 대한 가치관이 투영된 소비문화의 속성을 대변하고 있음을 이해할 때, 이런 물질관이야말로 불교적 진리와 이를 둘러싼 온갖 상징과 표상, 그것들의 변천과 역사, 또 그 모든 것들이 ‘서사’를 이루어 각각 물품별로 그 의미와 가치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불교적 물질문화의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가치

21) 장 보드리야르 저,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2015.



와 물질의 합일(合一)이 구현된 진정한 ‘명품’의 원형(archetype)이 바로 불교문화 속에서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명품이란 단순히 값이 비싼 상품이 아닌, 살아 숨쉬는 ‘스토리’와 그 자체로서 희소성과 가치가 충분한, 마치 마력과도 같은 매력과 힘을 지닌 ‘것(thing)’이다.

‘한낱’ 물질에 이렇듯 대단한 위력이 결부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불교는 단지 그러한 마력과 가치에 대한 경배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은 어디에 연원하는 것인지 등, 사물 전반에 내재한 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발전시키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 중세 불교의 학술문화에서 이러한 물질의 본질성에 관한 담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일본 고유의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지극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바로 그러한 관계를 교학적 관점과 이론을 통하여 해석하는 중세 일본의 불교-특히 천태(天台)-의 다원주의적인 해석학적 전통 속에서 진행되고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전통적인 동아시아 불교의 포용성을 반영한 양가적 내지는 다소 긍정적인 물질관조차 뛰어넘는, 철학적으로도 혁신적인 발전으로서 물질과 정신, 현상과 실재의 상즉적(相卽的) 불이성(不二性)의 진리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 가시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은 일본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 전반에 걸친 물질문화의 비약적 발전이었으며 이는 또한 다른 나라의 불교와도 구별되는 일본 불교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질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물질이 정신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 몸에 두 가지 요소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문화가 지니는 진실이다. 기호학자 Ferruccio Rossi-Landi가 지적했듯, 도구와 물품은 사람이 동물적 본성을 극복하고 인간이 되는 ‘인간화 과정(process of humanization)’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룬다.<sup>22)</sup> 특히 앞서 살펴봤듯이 Rambelli를 비롯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인간 사회 물질의 성격이 일상적 용품에 한정되지 않고 종교 물품에 적용될 뿐 아니라, 종교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물질이야말로 물질과 정신이 어떻게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인간화 과정의 정수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적 물질문화가 함의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상호관련성과 그 작용은 결국 각각의 물품을 둘러싼 종교성의 핵심을 담은 서사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 ‘의미있고’ ‘스토리가 있는’ 물품은 넘치도록 많다. 그러나 언어, 민족, 인종, 풍습에 구애됨 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갈망하게 만들고, 일체화되기까지 하려는 욕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의미와 막강한 서사를 갖춘 물품은 종교 물품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불교를 위시한 종교문화 속의 다양한 물품들은 가치 ‘초국제적(transnational)’ 상품의 원형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물품 하나에 관련된 온갖 종류의 과정들, 곧 물건의 실제 제작과 소비, 유통, 이를 둘러싼 인간의 사회적 관계 등이 모조리 부각되며 그

---

22) Ferruccio Rossi-Landi, *Language as Work and Trade: A Semiotic Homology for Linguistics and Economics*. South Hadley, MA: Bergin and Garvey, 1983.

과정들 또한 신성시되는 불교 물품들을 둘러싼 문화를 보며 음미할 만한 점은, 이러한 과정들이 은폐되고 소외되는 ‘물신화(物神化)’를 상품의 속명이자 본질이라고 규정한 마르크스의 시각에 역행하는, 진정 글로벌한 상품의 현재이자 미래를 불교의 물질문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결국 종교적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는 종교라는 것의 정체성, 또 이와 밀접히 연관된 인간의 정신성·영성의 이해를 넓고 깊게 하는 데 있어 그 의미와 역할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인간의 물품 생산과 소비 및 유통의 과정, 또한 이를 둘러싸고 발전하는 물질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문화의 미래적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탐구영역이라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진행과 성과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Deal, William and Brian Ruppert, *A Cultural History of Japanese Buddhism*, Malden: Wiley-Blackwell, 2015.

Henare, Amiria. et.al., *Thinking through Things: Theorising Artefacts Ethnographically*, London: Routledge, 2007.

Kieschnick, John, *The Impact of Buddhism on Chinese Material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Rossi-Landi, Ferruccio, *Language as Work and Trade: A Semiotic Homology for Linguistics and Economics*. South Hadley, MA: Bergin and Garvey, 1983.

Rambelli, Fabio, *Buddhist Materiality: A Cultural History of Objects in Japanese Buddh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Ruppert, Brian, *Jewel in the Ashes: Buddha Relics and Power in Early Medieval Japa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0.

Schopen, Gregory, *Bones, Stones, and Buddhist Monks: Collected Papers on Archeology, Epigraphy, and Texts of Monastic Buddhism in India*,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末木文美士, 『日本仏教思想史論考』, 大蔵出版, 1993.

多田厚隆, 大久保良順, 田村芳朗, 浅井円道 校注, 『天台本覚論』, 岩波書店, 1973.

장 보드리야르 저,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2015.

주경미, 「불교미술과 물질문화: 물질성, 신성성, 의례」, 『미술사와 시각문화』 7권, 2008.

**【제4발표】**

## 유럽의 디지털 역사학

최원재(동국대학교)



# 유럽의 디지털 역사학

최원재(동국대학교)

1. 서론
2. 유럽에서의 디지털 인문학
3. 디지털 역사학
  - 3.1 역사학 내에서 특이점 찾기
  - 3.2 역사학 밖에서 연관점 잇기
  - 3.3 교육에 이용하기
4. 기타 최근 프로젝트
5. 결론

## 1. 서론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방법이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유럽에서의 디지털 인문학은 문학 분야와 역사학계를 필두로 점차 확산되었다. 유럽은 시공간적으로 공통되는 커다란 학문적 소스를 매개로 학문적 진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인문학이 맺어온 결과와 그 연구 집단의 분포를 유럽 속 국가별로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유럽의 국가 집단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인문학이 이들 유럽 국가 집단에 끼치는 영향을 살피고 디지털 인문학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 연구 힘을 파악하여 오늘날 역사학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학문의 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유럽의 디지털 역사학은 역사가 꽤 되었다. 그리고 이미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다. 이번 발표에서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2. 유럽에서의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의 시작을 연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이탈리아 예수회의 로베르토 부사(Roberto Busa) 신부다. 그로부터 인문전산학(Humanities Computing)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8년 부사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중세 저자들의 라틴어 저작물을 IBM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라틴어 전문 색인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편찬

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디지털인문학회연합(ADHO)은 로베르토 부사상을 제정했다.



Roberto Busa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1960, 70년대부터 많은 양의 사료들이 디지털화되었고,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에서도 언어학과 문학에서부터 점차 역사, 예술사, 음악, 필사본 연구 등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의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History (76%) and Literature (59%) are (perhaps unsurprisingly) heavy users of digital collections as data but a broad spectrum of other research areas are also evident. 1973년에는 문학언어컴퓨팅협회(ALLC)가 설립되었는데 지금의 디지털인문학유럽협회의(EADH) 전신이다.

DOMAIN	LIBRARIES WHICH IDENTIFIED RESEARCHERS FROM THIS DOMAIN AMONG THEIR USERS	
	Percentage	Number
History	76%	41
Literature	59%	32
Media Studies	44%	24
Linguistics	41%	22
Modern Languages	32%	17
History of Science	32%	17
Classical Languages	30%	16
Theology	24%	13
Computer Science	24%	13
Philosophy	19%	10
Other STEM Sciences	9%	5
Other	22%	12

출처: LIBER DH Survey

유럽의 디지털 인문학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infrastructure)은 CLARIN과 DARIAH다. 그리고 europeana가 그 대열에 합류했다. 가장 최근 시작한 프로젝트는 Operas다.



### 3. 디지털 역사학

유럽의 디지털 인문학은 역사학의 콘텐츠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디지털 인문학에서 역사학이 차지하는 자리의 확고부동함은 단지 유럽에서의 일만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디지털 역사학에 대한 정의를 내놓은지 오래다. 디지털 역사학이라는 분야를 공식적으로 명명한 학술 기관이 점점 많아졌다. 영국의 IHR(Institute of History Research)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인문학의 한 분과로 디지털 역사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역사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디지털 인문학의 특징들을 찾기 위해 유럽 내 국가별 프로젝트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방법은 서론에서 말한 바처럼 큰 의미가 없다. 하나의 프로젝트에도 유럽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그 공간 또한 국경선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젝트의 주제 역시 역사학으로만 한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고대, 중세에 쓰인 글들은 역사학계에서도 문학계에서도 연구되는 사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인문학에서 수행하는 대개의 프로젝트는 대개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은 다름 아닌 역사적 삽화, 그림, 사진으로 대부분 구성된다. 간혹 역사적 음성 기록물이나 오래전에 채집된 식물도 사용된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실재감을 부여받고 사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최근 활발히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대학과 기타 유럽 대학, 연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한 디지털 역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에서의 역사 디지털 역사 프로젝트들은 다음의 세 가지의 주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1 역사학 내에서 특이점 찾기

우선 디지털 역사 프로젝트는 주요 유적, 유물에 대한 아날로그 기록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단순히 기록의 디지털화에서 그치지 않고 개별적 유물 안 (혹은 유물 간) 기록에서 연관되는 사항들 중에서 (마치 추적하듯이) 특이점을 찾는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캠브리지 대학의 Casebooks다. 일종의 고증 단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을 밝혀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의 Spaces of HOPE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다'고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프로젝트다.

역사와 미술사, 역사와 문학사를 잇는 프로젝트에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유럽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시작했을 무렵 선보였던 형태의 디지털 역사학에서 많이 나타난다. 영국의 IHR은 역사학 안에서 이런 종류의 디지털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필사본을 이용한 연구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DM2E다. 오스트리아의 Das travel!digital-Projekt 역시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의 맨체스터 대학교의 프로젝트를 보자. 편지 속에 나타난 내용을 뜯어보는 연구다.

## Letters of Mary Hamilton and George, Prince of Wales

Follow us on Twitter!

My Tweets

To view a letter, click a reference ID in the first column of the (long!) table below. You can then move directly to the next one without returning to this table. [\[Internet Explorer not recommended\]](#)



The text displayed by default is 'diplomatic' [faithful to the original]. Click the 'normalised' tab if you prefer to read the correspondence in modern spelling and without the distraction of formatting, editorial footnotes or later annotations. [See an overview of our editorial practices here.](#)

Most browsers can also display an image PDF of the original letter, provided to us by courtesy of the Royal Archives - [see the terms of use here](#). Individual PDFs can be downloaded from [this section of the Georgian Papers Online catalogue](#).

Show  entries

Filter table by (part of) name, date or ID

Letter ID	Date	From	To
<a href="#">GEO/ADD/3/82/1</a>	1779-04-05	George, Prince of Wales	Mary Hamilton

### Recent Posts

This is not a love story: Mary Hamilton and George IV  
03/03/2021

The Ins and Outs of Letters  
15/0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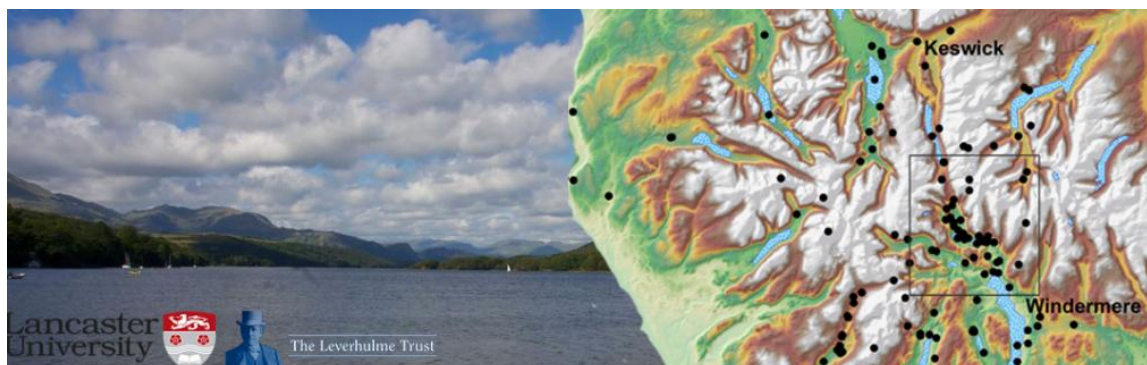
It's the thought that counts: gifts and the epistolary imagination in the Hamilton Archive  
18/12/2020

'You may depend upon it I will be more attentive to my manner of writing': Variation

연애편지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새롭게 발견된 편지의 내용이 연구 초점이다. 오른쪽 위에 쓰여 있듯이 "This is not a love letter!" 기존의 생각을 뒤엎는 해석들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취리히 대학의 영문과 학생들이 맨체스터 대학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 XML 주석달기 실습에 참여했다. 이 연구와 관련된 논문이다.

### 3. 2 역사학 밖에서 연관점 잇기

두번째 특징은 역사학과 다른 학문 혹은 사건, 정신 간의 접합점을 찾아 연결하여 모종의 소통점을 찾는다는 데에 있다. 학문적으로는 지리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역사 프로젝트에 지도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랭카스터 대학의 프로젝트를 보자.





아래 독일 헤르더 연구소의 Historical-Topographical Atlas of Silesian Towns 역시 역사학과 지리학이 연결된 프로젝트다.



엑서터 대학교의 Poly Olbio 프로젝트는 역사와 지리가 흥미롭게 연결된 콘텐츠를 보여준다.






디지털 역사 프로젝트는 비단 학문적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회의 이슈, 역사의 문제적 흐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연결망 구축을 지향한다. 2010년 시작해서 2019년에 종결된 프로젝트인 EHRI는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유럽 국가 간의 연결망을 만들었다.

## Archival Institutions

Search Archival Institutions... Advanced query tips

DISPLAYING ITEMS 1 TO 20 OF 2,200

Relevance ID/Code Name Recently Updated Detail

-  **The Agency of Archives of the Republic of Turkmenistan**  
Turkmenistan Aggabat Updated 2 years ago
-  **Agudath Israel of America Archives**  
United States 84 William St., New York, New York Updated 3 years ago
-  **Aktives Museum Spiegelgasse für Deutsch-Jüdische Geschichte in Wiesbaden e.V.**  
Aktives Museum in Wiesbaden / Spiegelgasse Active Museum of German-Jewish History in Wiesbaden

**Filter Results**

DATA AVAILABILITY

Archival Descriptions (760)

**COUNTRY**

- Germany (368)
- Austria (216)
- Netherlands (161)
- France (126)
- Belgium (122)
- Poland (109)
- Czech Republic (96)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의 Linguistic DNA of Modern Western Thought 프로젝트는 1500년대부터 1800년대에 이르는 시간 속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의 흐름을 분석했다.



### 3. 3. 교육에 이용하기

디지털 역사학은 단순히 '역사를 가르치는 데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한다'는 관점(캠브리지 대학의 Visions of plague 프로젝트처럼)을 뛰어넘어 역사를 재료삼아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디지털 리터러시+데이터 리터러시)을 가르치는 학문적 위치를 갖는다. 디지털 역사학은 디지털 기술로 역사적 사건(사물)의 재현을 발생시키는 시청각적,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 맞는 학문을 역사로 트레이닝하는 위상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쌓은 노하우와 데이터가 전달하는 프로젝트의 정신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EHRI의 ehri online course in holocaust studies와 Call for Papers for a Workshop on "Archives, Power, and Truth Telling: Catholic Archives and Holocaust Memory"가 그 좋은 예이다.

최근 유럽의 역사 프로젝트에서 눈에 띄는 점은 VR, AR을 이용한 프로젝트의 진행

과 구현이다. 역사 자료를 영상으로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식의 방법은 도태되어가고 있다. 이 자리를 3D 기술과 AR기술이 채워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역사학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르치면서 제작 과정에서 메이커 (maker) 교육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즉, 프로젝트 수행자는 직접 역사 데이터를 다루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교육적 영향의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프로젝트가 또다른 관점을 불러일으켜 생각의 차이를 비집고 들어가 사고의 선순환을 일으킨다. 프로젝트 결과물에 창작자와 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단순히 영상으로만 내용이 전달되는 일방향적 다큐멘터리식 전개방식과는 차별되는 디지털 역사학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Covid-19 사태 이후 디지털 역사학 등의 디지털 인문학은 이렇게 오프라인 방식에서 통용되던 시청각 교육적 요소에서 탈피하여 온라인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이때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이 직접 디지털 기술을 구사해서 역사 자료를 재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사례는 Viaggio al 221B Baker Street con la Realtà Aumentata e Virtuale를 들 수 있다. Digitale Erfahrungen und Strategien in der Kunstgeschichte nach einem Jahr Corona-Pandemie에서도 디지털 역사학이 당면한 시기적 고민을 엿볼 수 있다.

**Mostra Concorso "Il viaggio"**  
 Concorso Miur  
 Il Biennale dei Licei Artistici Italiani

*"L'unico vero viaggio (...) sarebbe non andare verso nuovi paesaggi, ma avere altri occhi, vedere l'universo con gli occhi di un altro, di cento altri, vedere i cento universi che ciascuno vede, che ciascuno è." Marcel Proust*

**Viaggio al 221B Baker Street**

Vogliamo raccontare il viaggio dell'iconico personaggio Sherlock Holmes tra letteratura, cinema, televisione, fumetto e ora realtà aumentata. Con gli occhi di Sherlock e Watson, possiamo avventurarci nelle strade della Londra Ottocentesca fino al 221B Baker Street, nel suo celebre studio, disegnato dall'illustratore Russell Stutler, che ha fatto collimare nel suo lavoro le differenti descrizioni delle stanze presenti nei vari romanzi di Doyle.

Abbiamo ricostruito la casa del famoso investigatore inglese in 3D utilizzando SketchUp, un programma open source per le ricostruzioni tridimensionali ed elaborazioni di rendering. Successivamente sono state create le "scene" che hanno permesso di montare un video, grazie al quale è possibile vedere l'interno dello studio del celebre Sherlock. Il progetto esportato nell'applicazione Kubity permette inoltre di visualizzare il modello in 3D in un tablet o nello smartphone che può essere collegato ad un cardboard o visore 3D per avere un'esperienza immersiva.

**Che cos'è Kubity?**

Kubity è un'applicazione per smartphone e tablet che permette di visualizzare i modelli 3D su dispositivo, semplicemente inquadrando il QRcode con smartphone e tablet o con link per PC.

Inserendo il telefono all'interno del Cardboard o visore 3D si possono esplorare i modelli in scala reale, per un'esperienza completa.

LAC Liceo Artistico e Musicale Cagliari "Foiso Fois" Per sapere di più sul progetto clicca!

Clicca qui per collegarti ai siti!

엑서터 대학(Exeter University) 또한 Covid-19 시기에 적합한 학문의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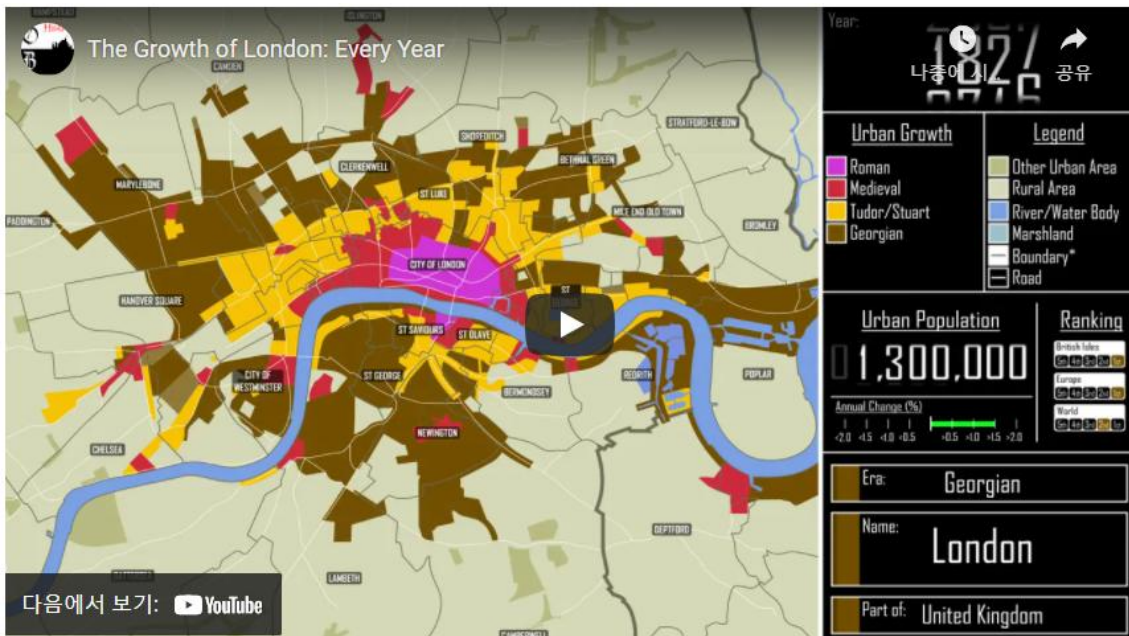
에딘버그 대학은 대대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데이터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데이터 교육을 게임에 접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사료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수반된다. 결과적으로 역사를 매개로 창작자와 사용자가 디지털이라는 통로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로가 넓어질수록 역사적 사료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를 넓혀주는 촉매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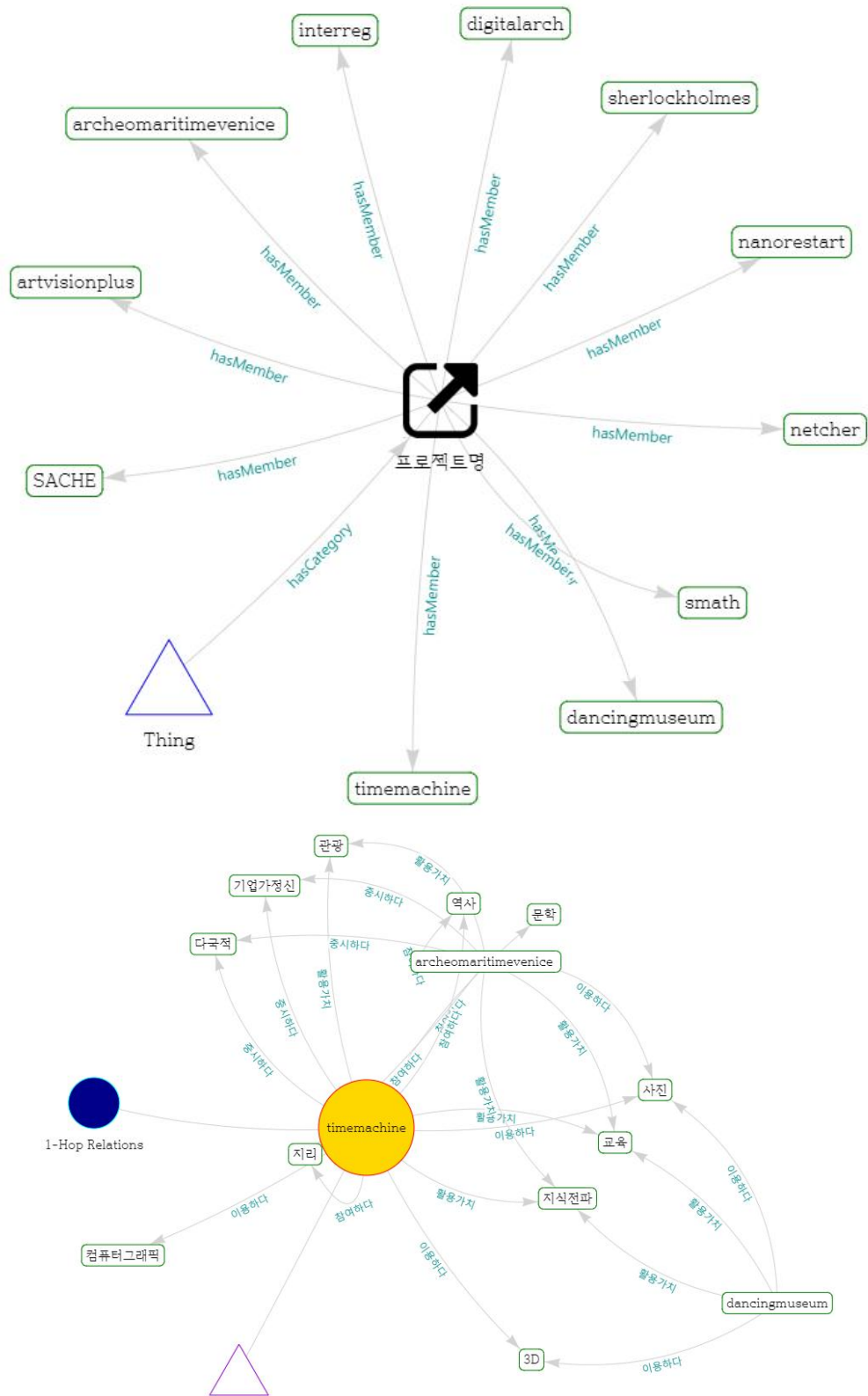
2013년 제작된 *pudding lane: recreating seventeenth-century london*도 이처럼 역사적 유적을 이용한 '만들기' 대회가 새로운 생각의 결과를 낳게 한 디지털 역사학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런 식의 3D 영상 제작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게다가 보여주는 내용과 구성이 더 탄탄해졌다.



더 나아가 이런 식의 전개도 보여진다.



### 3. 4 기타 최근 프로젝트



#### 4. 결론

일부이지만 유럽의 디지털 역사학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1)역사학 내에서의 특이점 찾기, (2)역사학 밖에서 연결점 잇기, (3)교육(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유럽의 디지털 역사학이 수행한 세계적(확장적), 집단적(협업적), 참여적(민주적), 교육적(개발적) 프로젝트들은 결과를 보여주기에 앞서 결과를 함께 만들기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디지털 역사학은 수행자에게 관찰자 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이끌어 가는 힘을 제공한다. 동시에 유럽 학술 기관들이 추구하는 디지털 역사학은 학자와 학자 아닌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서로의 기억과 창작이 맞물리는 교류의 장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EHRI의 홀로코스트 프로젝트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어떤 면에서 디지털 역사학은 재미(의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내러티브의 (생성) 과정이다. 디지털의 힘을 빌어 수행하는 이런 식의 역사학 탐구 방법에 힘입어 프로젝트 참여자는 속도감있고 균형감있게 자신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역사를 보고 느끼는 맥락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우려했던 디지털 인문학의 결과물이 2차원적 맥락만을 보여준다는 한계점이 그사이 발달한 컴퓨터 기술로 3차원적 맥락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상적 역사 연구에서 실재적 역사 연구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사료'만'에서 사료 주변부'까지'로 확대되는 지금의 역사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 역사학보다는 히스토리 디지털제이션 페다고지(history digitisation pedagogy)을 지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트레이닝(단기간 교육과정, 워크숍)을 함께 운영하는 이유다. 여기서 고민할 내용이 발생한다. 디지털 역사학은 새로운 도구관인가? 새로운 연구관인가? 디지털 역사학은 별도의 학문 분야일 수 있는가? 기존의 역사학에 포괄된 하나의 방법론이어야 하는가? 지금 유럽의 디지털 역사학 프로젝트들이 내놓는 결과는 새로운 연구관으로서 역사학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 역사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디지털 역사학은 인터넷 제국주의의 소지가 있다', '디지털화된 사료가 과잉 조명되지 않는지 우려된다', '역사학 공부방법이 꼼꼼히 읽기에서 일화적 읽기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 역사학자는 프로그래머여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훨씬 우선한다.

여 백



# 종합토론

## 토론문

- 1일차 -

### ■ 좌장

안외순(한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단장)

### ■ 토론

제1발표 토론자: 심지원(동국대학교)

제2발표 토론자: 장순순(전주대학교)

제3발표 토론자: 장현근(용인대학교)

제4발표 토론자: 류인태(성균관대학교)



**【제1토론】**

**<세계의 물품문화학 연구 동향과 디지털 시대의 과제> 토론문**

심지원(동국대학교)



## <세계의 물품문화학 연구 동향과 디지털 시대의 과제> 토론문

심지원(동국대학교)

오늘 학술대회에서 김성규 선생님의 글에 대하여 저의 부족한 생각을 공유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얻어갑니다.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서 물품문화학의 개념과 물품문화학의 다섯 연구 영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물품문화학의 의미를 보존, 구현, 체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1990년대에 이르러 하나의 학문적 분과로 자리 잡은 ‘물품문화학’이라는 낯선 학문 분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과 인간이 어떤 방식을 통해 상호작용하는지, 그로 인해 인간의 문화는 어떻게 창출되는지 등의 문제와,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등장하는 물품과 인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떠올리게도 하였고, 인간의 시선에서 물품을 다루기보다 물품의 시선에서 인간을 다루는 물품문화학이 포스트휴먼의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인 인간 향상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생리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보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생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여성의 선택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여성이 생리대를 사용하고 버리는 행위와 여성이 생리컵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리혈(정혈)을 직접 버리는 행위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리에 대한 논의가 젠더 영역의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생리대와 생리컵이라는 물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물품문화학의 논의로 확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피부 밖에 있던 물품들이 인간의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몸속에 삽입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로봇팔과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몸과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몸과 떨어져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발표문에 나오는 예시처럼, 모자의 모양을 바꾸어 정치적 성향을 표시하기도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과거의 서울은 현재와는 다릅니다. 모 세탁기 광고의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아’라는 말처럼,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르고 낯선 물품들이 등장합니다. 물품과 대화가 통하기도 하고, 때론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물품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원래 도구로 사용되던 물품은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고 보다는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연결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슬픔의 감정보다는 불편함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로봇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장례식을 치르거나 로봇개를 발로 차는 행위를 보고 로봇을 학대한다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사람은 의족을 짐칸에 실어야 한다는 항공사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의족을 착용한 사람은 의족

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항공사 직원은 장애인과 의족이 단지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인간이 물품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러한 물품이 인간의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인간이 물품과 가볍게 연결되기도 하고, 두터운 관계를 맺기도 하는, 즉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도 가벼운 연결과 두터운 관계의 혼란이 공존하는 기술 시대에 물품을 대하는 태도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대한 연구도 물품문화학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토론을 위한 질의나 부연은 다른 현학들의 도움을 빌어보기로 하며, 모자란 사족을 접어봅니다.

**【제2토론】**

이승민, 「근세 한일관계 관련 물품 교류 연구현황과 과제」 토론문

장순순(전주대학교)





# 이승민, 「근세 한일관계 관련 물품 교류 연구현황과 과제」 토론문

장순순(전주대학교)

## ○ 논문의 의의

임진왜란 이후 한일관계 연구를 연구사 정리한 논고는 한일관계 전반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통신사와 왜관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요 분석 대상이 되었고, 물품교류 내지 무역을 별도의 주제로 한 연구사 검토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 발표는 학술적으로 의미가 크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동아시아 물품 교류의 역사 및 한일관계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 질문 및 논의 사항

### 1. 본 연구의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 머리말에서 대상 시기를 근세(조선후기, 일본 에도시기)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개항 이전까지를 조선후기라고 하지 않고 '근세'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는가? 또한 분석 대상 연구 성과를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한정할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의 연구는 포함되어 있고- 한일간의 물품 교류 연구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검토 시기의 확대와 양국의 연구성과가 함께 검토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 2. '교류'의 범주에 대해서

- 본 발표는 한일간의 물품의 교류를 주제로 한 기존의 성과를 검토한 것이다. 본 발표에서 '교류'가 서로 주고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일 간 물품의 교류는 조선과 일본 간에 주고 받은 물품의 '교류'이어야 할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조선에서 일본에 건너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 예로 통신사행 등을 통해서 일본의 유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유교 경서의 주해 등 다수의 일본 서적들이 다수 조선에 전해졌고, 당시 진보적인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던 실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읽혔던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일본에서 조선에 전해진 물품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뤄졌

다고 생각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일본에서 조선에 온 물품에 관한 검토가 대단히 적은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 3. 연구사 정리에 관한 의견

- 발표자는 한일간의 물품 교류를 교류 형태별 물품 교류와 주요 물품별 교류로 나눠 연구현황을 정리하였다. 발표자는 한일간의 교류의 중심이 양국 간에 이뤄진 외교 행위와 무역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위와 같은 틀로 연구사를 정리한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연구 방향 및 연구주제의 시대적 흐름 내지 추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 연구 동향을 시기별로, 주제별로 분류해서 수량적인 수치를 내고 도표 등으로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4.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 향후 과제에 대한 전망은 본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별도의 장이 아닌 맺음말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감이 있다. 더욱이 발표자는 한일관계에서 물품 및 무역을 주제로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자 중의 1인이다. 따라서 별도의 장을 두고 평소에 발표자가 생각하고 있던 한계 및 과제에 대해 과감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학계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일례로 한일 양국 간에 주고받았던 물품들이 물품에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 조일 양국의 국내에 미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영향 등에 관한 연구로의 확장 등도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발표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발표자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

**【제3토론】**

불교에서 물질은 業이면서 功德인가?

- 박연주 교수의 「종교학에 있어서 물질문화 연구의 가치와 전망-불교적 물질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를 읽고

장현근(용인대학교)



## 불교에서 물질은 業이면서 功德인가?

- 박연주 교수의 「종교학에 있어서 물질문화 연구의 가치와 전망—불교적 물질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를 읽고

장현근(용인대학교)

평자는 불교와 물질문화 두 방면 모두에 연구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얇은 지식으로 심오한 글에 누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저 논문을 면밀히 읽고 난 느낌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할까 합니다. 발표자가 이 글을 본인의 기 발표논문인 「일본 불교 물질문화의 정신적 배경: 불교의 물질관과 중세 일본 불교의 물질을 둘러싼 담론」(『동방학』 44집, 2021)의 전반부분을 발췌하여 추가논의를 덧붙인 것이라고 하여,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논평문은 두 논문에 대한 얘기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스탠포드 종교학과 존 키시닉Kieschnick과 UC산타바바라 종교학과 파비오 람벨리Rambelli의 연구를 기본 바탕으로 삼아 “물질은 業이면서 한편으로 공덕이다” “물질에 대한 연구는 곧 인간에 대한 연구이다” 등 인상 깊은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키시닉의 책은 중국에서도 『佛教對中國物質文化的影響』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2015년 출판(中西書局)되었으며, Sarah E. Fraser 등이 엮은 ‘사원의 재부와 세속 공양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인 『佛教物質文化』(上海書畫出版社, 2003)와 더불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종교는 정신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물질문화 언급이 극히 적으며, 심지어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영성을 강조하고 물질적 욕망을 배척해온 불교의 경우, 발표자의 얘기처럼 “불교 연구의 대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해석학”이어서 물질문화 관련 연구를 위한 자료도 선행연구도 지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딛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불교가 물질에 대해 업이자 공덕이라는 양가적 태도를 갖는 것은 대립적이고 모순된 인간의 근본적 속성 때문이라는 발표자의 접근방법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외한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종교에서의 물질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잘 읽히는 글입니다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하여 물질문화의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불교사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십상이고, 일반적으로는 승려생활 정도에 관심을 두는 글은 접하기 쉬우나 불교의 물질(?)이라고 하면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material culture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고, 이 논문에선 그 물질의 범주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불교에서의 물질문화는 사원 또는 불교의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규정하고 글을 전개한다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크겠습니다. 비근한 일상의 음식이나 청소용구는 아닐 터이고 사원의 법기, 사찰

의 각종 문물, 불교예술, 승려의 복식, 아니면 그 어떤 상징적인 聖物을 불교의 물질문화 범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같은 맥락에서 Rambelli를 인용한 ‘성스러운 불교 경제(sacred Buddhist economy)’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승려들도 돈을 벌어서 경제생활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얘기는 아닐 텐데, ‘승려들의 정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신도들의 물질적 보답을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승려 개인의 사유를 뜻하는 것인지 사원 전체의 재부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차원의 얘기인지 분명하게 명시한다면 “물질이란 단지 그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용도로만 파악될 수 없”으며, “불교적 윤리의 수행을 위한 신자들의 헌납이라는 실천이야말로 물질에 대한 불교의 이중적이고도 양가적 태도를 빚어내는 요인 중 하나”라는 발표자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평자가 느끼기에 발표자께서 불교의 물질문화를 통해 불교의 본질과 물질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물질에 강한 서사나 스토리를 입혀 진정한 ‘명품’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의 합일’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예시를 덧붙이면 훨씬 명료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논문에선 일본 카마쿠라막부 시기 末法사상의 유행으로 물질관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헤이안 시대 밀교의 色心不二에 따라 사물을 이용하여 수행하면서 종교물품의 번성하였고, 중세에 모든 물질에 힘과 의미가 존재한다는 천태종과 진언종의 草木成佛론이 유행하면서 어떤 물질도 배척하지 않는 일본의 독특한 불교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던 것처럼, 聖物이든 服飾이든 寶塔이든 구체적인 예를 들고 강한 스토리를 입힌 서사를 등장시킨다면 논지를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중국불교의 경우, 승려 개인의 소유에 대해선 엄격하지만 사원의 재부에 대해선 관용적이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지역의 광대함으로 얘기하였는데, 좀 더 분명한 증거와 구체적인 주장들을 예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불교가 실용성이 강하고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많은 변용을 하였으며 물질성이 두드러져 ‘퇴보’했다는 불교학자의 비판도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누구의 주장인지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자께서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인도나 중국이나 같다고 하려면 증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타협적 종교윤리의 실천’이란 말은 무슨 함의를 지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질문화 연구의 가치와 전망’을 제목으로 삼은 것 때문에 문외한으로서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개 덧붙이고 싶습니다. 물질을 통한 불법의 구현을 긍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말씀일까요? 종교물품에는 힘과 의미가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종교윤리에 합치하는 것일까요? “소유를 갈망하게 만들고, 일체화되기까지 하려는 욕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의미와 막강한 서사를 갖춘 물품은 종교물품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서사만 갖춘다면 어떤 물질이 사회적 통념에 어느 정도 어긋난 것이라

도 배척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발표자께서는 불교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인 듯합니다. 기존 논문의 결론처럼 개별적인 서사가 담기고, 가치가 돋보이고, 불교 물질문화를 대표하는 불교 물품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는 작업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어찌면 眞觀선사의 말대로 ‘我即同心位, 一切處自在’가 잘 스며든 莊嚴具足の 진정 글로벌한 상품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 백



**【제4토론】**

디지털 환경에서의 역사학: 역사학의 ‘확장’에서 역사학의 ‘재정의’로  
최원재 선생님의 「유럽의 디지털 역사학」(2부-제4발표)에 대한 토론문

류인태(성균관대학교)



## 디지털 환경에서의 역사학: 역사학의 ‘확장’에서 역사학의 ‘재정의’로 최원재 선생님의 「유럽의 디지털 역사학」(2부-제4발표)에 대한 토론문

류인태(성균관대학교)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상황과 별개로 국내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및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연구자의 숫자도 극소수이며 그들이 갖춘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거나 해외의 프로젝트를 직간접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학술 프로그램 또한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외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및 교육 사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낯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내의 환경을 바탕으로 연구·교육 사례를 온전히 비교하고, 그 의미를 고찰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연구는 더욱더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따라가야 할’ 선행적 성격의 학술로써가 아니라 ‘대응해야 할’ 비판적 맥락의 학술로써,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연구 및 교육 사례 검토는 현 시점의 학술 환경에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전개되어 온 디지털 역사학의 흐름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역사학보』 240집에 일련의 논문들<sup>1)</sup>이 발표되고, 이어서 2019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및 교육 현황을 정리·발표함<sup>2)</sup>에 따라 그에 대한 기본 정보가 국내 학계에 이미 소개된 상황입니다. 본 토론자 또한 평소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외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및 교육 동향을 꾸준히 응시하던 가운데, 당시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이루어져 온 디지털 역사학의 맥락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니다.

이번 최원재 선생님의 발표문은 기본적으로 앞서의 여러 연구 결과물을 잇는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 발표문의 서론에서 ‘유럽은 시공간적으로 공통되는 커다란 학문적 소스를 매개로 학문적 진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인문학이 맺어온 결과와 그 연구 집단의 분포를 유럽 속 국가별로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 각국의 디지털 인문학을 조망한

1) 문수현, 「독일의 디지털 역사학 현황」, 『역사학보』 240, 역사학회, 2018, 1-33쪽; 권윤경, 「새로운 문필공화국을 향하여 -18세기 프랑스사 연구와 디지털인문학의 사례들」, 『역사학보』 240, 역사학회, 2018, 35-74쪽; 박은재, 「영국 디지털 역사학의 발전과 현황」, 『역사학보』 240, 역사학회, 2018, 75-88쪽; 이주영, 「미국에서의 디지털 역사학 발전 과정과 최근의 경향」 240, 역사학회, 2018, 99-126쪽.

2) 조준희 외 4인, 「21세기의 인문학 교육을 위하여: 서양 각국의 디지털인문학 교육 현황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여러 선행 연구를 참고할 때, 말씀하신 논조의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여쭙보는 것으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과 ‘데이터’라는 다소 인문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기술적 요소에 대한 접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에,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고 데이터 리터러시를 통해 조합 가능한 여러 다채로운 맥락들이 기존의 인문학 연구 및 교육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는 양상을 낳고 있습니다. 발표문을 통해 정리하신 ‘①역사학 내에서의 특이점 찾기, ②역사학 밖에서 연결점 잇기, ③교육적 활용’과 같은 디지털 역사학의 세 가지 특징은 아마도 그러한 지점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컴퓨터과학 영역의 비약적인 발달이 인문사회 방면의 문제의식과 결합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기존 학술의 확장’으로서만이 아니라 향후 ‘기존 학술의 재정의’로서 수용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소통과 협업, 내러티브로서의 역사학 전개, 이론을 넘어 실습으로서의 역사 이해, 연구와 교육의 경계 무화’ 등 발표문의 결론에서 제시하신 여러 지점들이 기존 역사학을 재정의하는 것으로서의 디지털 역사학을 가리키는 실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추후 디지털 역사학이 역사학을 ‘재정의’함으로써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자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면 기존 학술분과 체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 보는 것으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디지털 역사학 조류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국내 역사학계의 입장에서, 유럽과는 다른 국내 인문사회 방면의 학술환경을 고려할 때 어떠한 점을 주로 유의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인문사회 학술 환경에서 두드러지는 강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강점을 디지털 역사학을 추동하는 요소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 보는 것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평소 지니고 있던 문제의식을 다시금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지만 앞서 드린 세 가지 질문으로 토론자의 책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목 차

## - 2일차 -

<b>【기조발표】 郑炳林(兰州大学 敦煌学研究所 所長)</b> 西漢敦煌郡的設置 .....	119
<b>【제1발표】 박천수(경북대)</b> 고고학으로 본 유라시아 문명교류사 .....	131
<b>【제2발표】 윤재운(대구대)</b> 8-10세기 동유라시아 모피 무역 .....	183
<b>【제3발표】 김문기(부경대)</b> 용의 침방울: 근세 동아시아 용연향의 박물학 .....	209
<b>【제4발표】 강희정(서강대)</b> 고대 동아시아 불교 물품의 교류 .....	311
<b>【제5발표】 권혁래(용인대)</b> 옛 이야기에 나타난 인도네시아 상인들의 교역활동과 문화 .....	323
<b>【종합토론】 토론문</b>	
제1발표 토론문	
안덕임(한서대) .....	343
제2발표 토론문	
이승호(동국대) .....	347
제3발표 토론문	
김현선(동국대) .....	351
제4발표 토론문	
박재복(경동대) .....	357
제5발표 토론문	
김예겸(부산외대) .....	361



**【기조발표】**

## 西汉敦煌郡的设置和敦煌城的修筑

郑炳林(兰州大学 敦煌学研究所 所長)





## 西汉敦煌郡的设置和敦煌城的修筑

郑炳林(兰州大学 敦煌学研究所 所长)

西汉武帝派遣霍去病出兵河西击败匈奴，元狩二年（前121）匈奴浑邪王杀休屠王以四万人投降汉朝，西汉武帝为了打开西域交通道路加强与西域诸国交流设置了敦煌郡，关于敦煌郡的设置时间，《汉书·地理志》和《汉书·武帝纪》、敦煌文献记载皆不同。敦煌在先秦时期生活的居民主要是大月氏和乌孙人，秦汉之际他们在匈奴人的打击之下西迁，这里成为匈奴右部的管辖范围，大月氏和乌孙人都是行国，随畜牧移徙<sup>1)</sup>，虽然他们在敦煌可能留有村庄聚落，但是他们在敦煌修建城池可能性不大，因此敦煌修建城池的年代就是西汉置敦煌郡的年代。敦煌写本P.2631《吐蕃敦煌二都督三部落使建伽蓝功德记》记载敦煌行政建制的历史追述到陶唐时期：“厥今陶唐古堞，瑞应多奇；塞出流沙，人居善业。官僚沐大臣之庇，百姓承向化之风。永固桑田，长承世嗣。然覆载之恩既重，舟楫之泽殊深。遍沐稗□，蠲赋斯及。”<sup>2)</sup>敦煌城是陶唐时期的古堞，后来修建延伸出流沙的塞垣，就是说敦煌城的修建由来已久，这个追述实际上记载的是先秦时期敦煌居民分布情况根据这个记载敦煌建城时间由来已久，但是这个记载有很大的虚冒的成分，可信程度不高。敦煌地理文书P.2691《沙州城土境》、S.5693《瓜沙两郡史事编年并序》和P.3721《瓜沙两郡史事编年并序》等都记载敦煌城修建于元鼎六年，是否可以确定敦煌郡的设置年代就在元鼎六年。汉武帝命赵破奴主持敦煌的置郡和敦煌城的修筑，赵破奴在置敦煌郡时不仅修筑了敦煌城，而且围绕着敦煌郡城修筑了一系列防御体系。我们主要从敦煌郡城的修筑和敦煌郡防御体系两个方面加以论述

### 一、西汉从票侯赵破奴与敦煌河西的取得

赵破奴，《史记》都没有为其立传，《汉书》没有为其单独立传，而是在《汉书·卫青霍去病传》附有《赵破奴传》，简略记载了赵破奴的生平事迹。根据《汉书·卫青霍去病传》附《赵破奴传》记载：

赵破奴，太原人。尝亡入匈奴，已而归汉，为骠骑将军司马。出北地，封从票侯，坐酎金失侯。后一岁，为匈河将军，攻胡至匈河水，无功。后一岁，击虏楼兰王，后为浞野侯。后六岁，以浞稽将军将二万骑击匈奴左王。左王与战，兵八万骑围破奴，破奴

1) 《史记·大宛列传》记载大月氏：“行国也，随畜牧移徙，与匈奴同俗。”《汉书·西域传》记载乌孙：“不作田树，随畜逐水草，同匈奴同俗。”

2) 《敦煌碑铭赞辑释（增订本）》，上海古籍出版社，2019年，第139页。

为虏所得，遂没其军。居匈奴中十岁，复与其太子安国亡入汉。后坐巫蛊，族。<sup>3)</sup>

从这段记载中我们得知，曾经逃往到匈奴生活了很长时间，汉武帝时期归汉，为骠骑将军霍去病司马，因功被封为从票侯；后因酎金失侯，又为匈河将军出兵征匈奴至匈奴河水，不见匈奴，无功而返；率军出征楼兰虏其王，因功封为浞野侯；以浚稽将军出兵征匈奴，兵败被俘，十余岁后逃归汉朝。没有记载赵破奴置敦煌郡修筑敦煌城的过程，很可能赵破奴置敦煌郡功绩相对于征伐匈奴、楼兰等是不足道的，因此史籍缺载。

汉武帝元狩二年夏霍去病出北地征伐河西的匈奴，见载于《史记·匈奴列传》《史记·卫将军骠骑列传》《汉书·武帝纪》《汉书·匈奴传》《汉书·卫青霍去病传》等，唯《汉书·卫青去病传》记载霍去病出陇西、北地二千里，过居延，攻祁连山，捕虏甚众，赵破奴以骠骑将军司马身份参加这次战争，并因功被封从票侯：

票骑将军涉钧者，济居延，遂臻小月氏，攻祁连山，扬武纛得，得单于单桓、酋涂

王，及相国、都尉以众降下者二千五百人，可谓能舍服知成而止矣。捷首虏三万二百，

获五王，王母、单于阏氏、王子五十九人，相国、将军、当户、都尉六十三人，师大率

减什三，益封去病五千四百户。赐校尉从至小月氏者爵左庶长。鹰击司马破奴再从票骑

将军斩遼濮王，捕稽且王，右千骑将[得]王、王母各一人，王子以下四十一人，捕虏三千三百三十人，前行捕虏千四百人，封破奴为从票侯。校尉高不识为宜冠侯。校尉仆多

有功，封为輝渠侯。<sup>4)</sup>

霍去病所率领的军队在这次战争中除了霍去病之外，只有三人被封为侯，赵破奴在这次战争中起的作用很大，功绩卓著，除此可能与赵破奴熟悉行军路线沿途的水草等情报，使霍去病的大军一路顺利，出北地二千里经居延，从北地北行千余里到匈奴河水，南下居延到祁连山即一千余里，这次实际上是进行了一次战略大迂回包围，将匈奴后方驱赶到右部河西的浑邪王休屠王领地剿灭。这次对匈奴的征伐行军路线，实际上开辟了汉武帝今后很长一段时间征伐匈奴的一条新的路线，就是居延海道。

汉武帝元鼎五年（前112）赵破奴因坐酎金失侯。根据《汉书·武帝纪》记载元鼎六年“九月，列侯坐献黄金酎祭祀宗庙不如法夺爵者百六人，丞相赵周下狱死。”颜师古注引臣瓚曰：“《食货志》南越反时卜式上书愿死之。天子下诏褒扬，布告天下，天下莫应。列侯以百数，莫求从军。至酎饮酒，少府省金，而列侯坐酎金失侯者百余人。而表云赵周坐为丞相知列侯酎金轻下狱自杀。然则知其轻不纠擿之也。”<sup>5)</sup>但是《汉书·百官公卿表》下记载元鼎五年：“九月辛巳，丞相周下狱死。”<sup>6)</sup>《百官公卿表》记载的时间比《武帝纪》记载的

3) 《汉书》卷55《卫青霍去病传》，第2493页。

4) 《汉书》卷55《卫青霍去病传》，第2480-2481页。

5) 《汉书》卷6《武帝纪》，第187页。

6) 《汉书》卷19下《百官公卿表七下》，第779-780页。

时间早一年，正好可以同《卫青霍去病传》记载赵破奴生平事迹顺序对应上来。

武帝元鼎六年初命赵破奴为匈河将军征匈奴，至匈奴河水，不见匈奴一人，无功而返。这件事《史记》《汉书》有多处记载。《史记·匈奴列传》记载：

乌维单于立三年，汉已灭南越，遣故太仆贺将万五千骑出九原二千余里，至浮苴井而还，不见匈奴一人。汉又遣故从票侯赵破奴万余骑出令居数千里，至匈河水而还，

一不见匈奴一人。<sup>7)</sup>

匈河水，即匈奴河水，《史记索隐》引臣瓚曰：“水名，去令居千里。”<sup>8)</sup>《汉书·匈奴传》记载与之完全相同<sup>9)</sup>。从匈奴浑邪王投降汉朝汉派遣霍去病绝幕击匈奴于阾颜山、狼居胥山，临瀚海，匈奴远遁，不肯为寇于汉边，幕南无王庭。汉武帝命赵破奴为匈河将军出兵匈奴河水，实际上是主动出击寻找匈奴决战。从这些记载看，匈奴已经迁徙到杭爱山以西的地方，所以后期李陵、李广利从居延海攻击匈奴就是基于这个原因。赵破奴封爵还是从票侯，应当还没有坐酎金失侯。记载赵破奴出兵匈奴河水还记载于《汉书·武帝纪》元鼎六年秋：

又遣浮沮将军公孙贺出九原，匈河将军赵破奴出令居，皆二千余里，不见虏而还。<sup>10)</sup>

颜师古注引臣瓚曰：“浮沮，井名，在匈奴中，去九原二千里，见汉舆地图。”“匈河，水名，在匈奴中，去令居千里，见《匈奴传》。”无论是浮沮井还是匈奴河水，都在杭爱山南部，居延海正北。此后赵破奴应当坐镇河西，是河西地区的最高军事长官，虽然史籍没有记载，设置敦煌郡很可能就是赵破奴上书建议的。

从元鼎六年到元封元年间赵破奴一直驻守河西，直到元封元年汉武帝派遣赵破奴攻击楼兰虏楼兰王，因功被封为浞野侯。《史记·大宛列传》记载：

而楼兰、姑师小国耳，当空道，攻劫汉使王恢等尤甚。而匈奴奇兵时时遮击汉使西

国者。使者争徧言外国灾害，皆有城邑，兵弱易击。于是天子以故遣从票侯赵破奴将属

国骑及郡兵数万，至匈河水，欲以击胡，胡皆去。其明年，击姑师，破奴与轻骑七百余

先至，虏楼兰王，遂破姑师。因举兵以困乌孙、大宛之属。还，封破奴为浞野侯。<sup>11)</sup>

从这个记载得知，汉武帝派遣赵破奴击楼兰虏楼兰王的时间是元封元年。此后赵破奴一直驻守敦煌，直到太初二年秋“遣浚稽将军赵破奴二万骑出朔方击匈奴，不还。”颜师古注引汉应劭曰：“浚稽山在武威塞北，匈奴常所以为障蔽。”<sup>12)</sup>赵破奴离开河西敦煌的

7) 《史记》卷110《匈奴列传》，第2912页。

8) 同上。

9) 《汉书》卷94上《匈奴传上》，第3771页。

10) 《汉书》卷6《武帝纪》，第189页。

11) 《史记》卷123《大宛列传》，第3171-3172页。

12) 《汉书》卷6《武帝纪》，第201页。

时间应当是太初二年春天。赵破奴出兵浚稽山击匈奴被俘，还见载于《史记·匈奴列传》：

其明年春，汉使浞野侯破奴将二万余骑出朔方西北二千余里，期至浚稽山而还。

浞野侯既至期而还，左大都尉欲发而觉，单于诛之，发左方兵击浞野侯，浞野侯行捕首虏得数千人。还，未至受降城四百里，匈奴兵八万骑围之。浞野侯夜自出求水，匈奴间捕，生得浞野侯。因急击其军。……军遂没于匈奴。<sup>13)</sup>

《汉书·匈奴传》记载与之相同：

其明年春，汉使浞野侯破奴将二万余骑出朔方北二千余里，期至浚稽山而还。浞野

侯既至期而，左大都尉欲发而觉，单于诛之，发兵击浞野侯。浞野侯行捕首虏得数千人。

还，未至受降城四百里，匈奴八万骑围之。浞野侯夜出自求水，匈奴生得浞野侯，因急

击其军。军吏畏亡将而诛，莫相劝而归，军遂没于匈奴。<sup>14)</sup>

赵破奴于太初五年“其明年，浞野侯破奴得亡归汉。”<sup>15)</sup>从这些记载我们的得知，赵破奴于太初二年出兵至浚稽山迎接匈奴左大都尉投降失败被俘，太初五年即逃归汉朝，并没有在匈奴停留多长时间。

巫蛊案件主要发生汉武帝征和元年，《汉书·武帝纪》记载征和元年：“冬十一月，发三辅骑士大搜上林，闭长安城门索，十一月乃解。巫蛊起。”征和二年四月“闰月，诸邑公主、阳石公主皆坐巫蛊死。”“秋七月，按道侯韩说、使者江充等掘蛊太子宫。壬午，太子与皇后谋斩充，以节发兵与丞相刘屈氂大战长安城，死者万人。庚寅，太子亡，皇后自杀。初置城门屯兵，更节加黄旄，御史大夫暴胜之、司直田仁坐失纵，胜之自杀，仁要斩。八月辛亥，太子自杀于湖。”<sup>16)</sup>巫蛊事件牵连到很多官员，重要的人犯被杀，连累者被贬谪到敦煌，我们推测赵破奴的部分家族很可能被贬谪到敦煌，因此敦煌文献记载到赵破奴修筑敦煌城很可能与他们家族移民有很大关系。

我们从赵破奴在河西地区驻军停留的时间看，他是元鼎六年秋天攻击匈奴于匈奴河水，不见匈奴一人无功而返回河西，到第二年出兵击楼兰、姑师，虏楼兰王，直到太初二年春才离开，这个阶段赵破奴是河西敦煌的最高军事长官，主要驻守敦煌，元封元年出兵攻打楼兰，汉武帝命令他带领的数万部队主要是河西诸属国的骑兵和河西四郡的郡兵。因此主持修筑敦煌郡城和置敦煌郡只有他才有这样权力进行这一工作，敦煌文献记载赵破奴主持敦煌郡城的修筑，应当有其根据。赵破奴是参与对河西地区匈奴右方浑邪王休屠王战争，浑邪王杀休屠王投降汉朝，很可能赵破奴也参与迎接浑邪王部众投降事宜，河西地区的军事部署应当是在他指挥下进行的，元鼎六年秋赵破奴从令居塞出兵

13) 《史记》卷110《匈奴列传》，第2915页。

14) 《汉书》卷94上《匈奴传上》，第3775页。

15) 《汉书》卷94上《匈奴传上》，第3777页。

16) 《汉书》卷6《武帝纪》，第208-209页。

至匈奴河水，应当也是率领西汉政府在河西地区的驻军，就是说从元狩二年浑邪王投降汉朝之后，赵破奴一直驻守河西地区。元鼎六年出令居塞经武威塞至匈奴河水，了解匈奴远遁不敢寇边的情况，他才可能建议汉武帝置敦煌郡，开始经营西域。

## 二、西汉武帝置敦煌郡与敦煌郡城修筑

汉武帝打败匈奴占取河西地区，最初并没有考虑移民实边设置郡县进行直接管辖，张骞建议将原来居住在河西地区而被匈奴赶到西域地区的乌孙人迁徙到河西地区，恢复冒顿单于击败大月氏之前河西的格局，实现断匈奴之右臂目的。根据《史记·大宛列传》记载，乌孙与匈奴有杀父之仇，控弦数万，习功战，“今单于新困于汉，而故浑邪地空无人。蛮夷俗贪汉财物，今诚以此时而厚币赂乌孙，招以益东，居故浑邪之地，与汉结昆弟，其势恋汉，听则是断匈奴右臂也。既连乌孙，自其西大夏之属皆可招来而为外臣。”张骞出使乌孙，并对乌孙王承诺“乌孙能东居浑邪地，则汉遣翁主为莫夫人。”但是乌孙国王老远汉，“其大臣皆畏胡，不欲移徙，王不能制。骞不得其要领。”<sup>17)</sup>张骞将乌孙移徙到浑邪王故地的目的没有达到，迫使汉朝政府开始移民实边，进行直接管辖。敦煌郡就是在这种背景之下设置的。

汉敦煌郡是分酒泉郡设置的，至于敦煌郡的设置时间，由于《汉书》《史记》等记载的矛盾，故学术界有多种说法<sup>18)</sup>，总之最早设置年代元鼎六年（前111），最晚为后元年间（前88-87）。首先是《汉书·地理志》敦煌郡记载：

敦煌郡，武帝后元年分酒泉置，正西关外有白龙堆沙，有蒲昌海。<sup>19)</sup>

后元（前88-87）是汉武帝死亡前最后使用的年号，前后只使用了两年。元狩二年夏（前121）霍去病出居延征匈奴，同年秋浑邪王杀休屠王投降汉朝，要等到三十年后的后元年间才置敦煌郡，就显得太晚。根据《汉书·韦贤传》记载：汉武帝“北攘匈奴，降昆邪十万之众，置五属国，起朔方，以夺其肥饶之地；东伐朝鲜，起玄菟、乐浪，以断匈奴之左臂；西伐大宛，并三十六国，结乌孙，起敦煌、酒泉、张掖，以鬲婼羌，裂匈奴之右臂。”<sup>20)</sup>似乎敦煌郡设置时间是在东伐朝鲜置朝鲜四郡之后。又据《汉书·西域传》记载：“其后骠骑将军击破匈奴右地，降浑邪、休屠王，遂空其地，始筑令居以西，初置酒泉郡，后稍发徙民充实之，分置武威、张掖、敦煌，列四郡，据两关焉。”<sup>21)</sup>从这个记载

17) 《史记》卷123《匈奴列传》，第3168页。

18) 参张维华《河西四郡建置年代考疑》（《汉史论集》，齐鲁书社，1980年，第309-328页）；劳干《居延汉简考释·释文之部》（台北史语所，1986年，第25-26页）；张春树《汉代河西四郡的建置年代与开拓过程的推测：兼论汉初向西扩张的原始与发展》（《汉代边疆史论集》，台北食货出版社，1977年，第77-91页）；王宗维《汉代河西四郡始设年代问题》（《西北史地》，1986第3期第88-98页）；周振鹤《西汉政区地理》（人民出版社，1987年，第168页）；李并成《河西走廊历史地理》（甘肃人民出版社，1995年，第33-34页）；吴祜骧《河西汉塞调查与研究》（文物出版社，2005年第13-16页）。

19) 《汉书》卷28下《地理志》，第1614页。

20) 《汉书》卷73《韦贤传》，第3126页。

21) 《汉书》卷96上《西域传上》，第3873页。

看，汉朝取得河西就设置酒泉郡，稍后发徙民充实之，设置敦煌郡，因此敦煌郡不会推迟到三十年之后才设置。因此我们根据当时的情况更确定是元鼎六年（前111）置敦煌郡比较可靠。敦煌文献多处记载西汉敦煌郡的设置是赵破奴所谓，因此赵破奴在河西的活动就成了敦煌郡设置的关键。《汉书·武帝纪》元鼎六年（前111）记载：

秋，……又遣浮沮将军公孙贺出九原，匈河将军赵破奴出令居，皆二千余里，不见虏而还。乃分武威、酒泉地置张掖、敦煌郡，徙民以实之。<sup>22)</sup>

浮沮井在九原北二千里匈奴境内，匈河水在令居北一千里匈奴境内，匈河水大概指今天蒙古国的拜达里格河，在居延的正北方，赵破奴返还的最佳路线就是沿着李陵的退军路线回到酒泉的居延。《史记·匈奴列传》记载：

乌维单于立三年，汉已灭南越，遣故太仆贺将万五千骑出九原二千余里，至浮苴井

而还，不见匈奴一人。汉又遣故从骠侯赵破奴万余骑出令居数千里，至匈河水而还，亦不见匈奴一人。<sup>23)</sup>

《汉书·匈奴传》记载元鼎三年（前114）乌维单于立，汉武帝出巡郡县，南诛两越，不击匈奴，匈奴亦不入边：

乌维立三年，汉已灭两越，故遣太仆公孙贺将万五千骑出九原二千余里，至浮苴井，

从票侯赵破奴万余骑出令居数千里，至匈奴河水，皆不见匈奴一人而还。<sup>24)</sup>

所记载是同一件事情，根据这些记载，汉先置武威、酒泉二郡，然后从中分出张掖、敦煌郡。而《汉书·西域传》记载先置酒泉郡，而后再置武威、张掖、敦煌郡：

汉兴至于孝武，事征四夷，广威德，而张骞始开西域之迹。其后骠骑将军击破匈奴右地，降浑邪、休屠王，遂空其地，始筑令居以西，初置酒泉郡，后稍发徙民充实之，分置武威，张掖、敦煌，列四郡，据两关焉。自贰师将军伐大宛之后，西域震惧，

多遣使来贡献，汉使西域者益得职。于是自敦煌西至盐泽，往往起亭，而轮台、渠犂皆有田卒数百人，置使者校尉领护，以给使外国者。<sup>25)</sup>

从这个记载中看，汉武帝先置酒泉郡，而后再置武威、张掖、敦煌郡。如果敦煌郡设置于元鼎六年，武威、张掖郡也将设置于元鼎六年。西汉敦煌郡的设置及其设置的时间，敦煌文献虽然没有记载到置敦煌郡的具体时间，但是记载到沙州城筑造时间，应当说修筑敦煌城就是设置敦煌郡。

敦煌文献记载到敦煌郡设置时间是元鼎六年（前111），所见载文献共有：

P.2691《沙州城土境》：

沙州城，案从前汉第六武帝元鼎六年甲子岁，将军赵破奴奉命领甘、肃、瓜三州

22) 《汉书》卷6《武帝纪》，第189页。

23) 《史记》卷110《匈奴列传》，第2912页。

24) 《汉书》卷94下《匈奴传》，第3771页。

25) 《汉书》卷96上《西域传》，第3873页。

人士筑造，至大汉乾祐六年己酉岁，算得一千五十年记。<sup>26)</sup>

这条资料有些错误，汉武帝是前汉第五位皇帝而不是第六位。若算上吕后执政时期，就是第六位。《史记》为吕后列本纪，说明吕后是汉惠帝的实际执政者，而皇帝是惠帝，因此文书将汉武帝排为前汉的第六位皇帝就是基于这个事实。元鼎六年（前111）岁次庚午而不是岁次甲子，岁次甲子是元狩六年（前117）；五代后汉乾祐年号只使用三年，而乾祐六年是后周广顺三年（953），岁次癸丑。而己酉是乾祐二年（949）。从乾祐二年岁次乙酉往前推一千五十年应当是太初四年（前101），一千五十年，应当是一千六十年。剔除这些文献抄写错误，由此得知沙州城的筑造时间应当是元鼎六年（前111），因此敦煌郡的设置时间也是元鼎六年。元鼎六年修筑敦煌城，我们还可以从S.5693《瓜沙两郡史事编年并序》和P.3721《瓜沙两郡史事编年并序》的记载得到印证：

自前高祖姓刘名邦乙未年登极，至武帝元鼎六年庚午岁筑沙州城。<sup>27)</sup>

这两件文献的记载印证了P.2691《沙州图经》筑造敦煌郡城的时间是汉武帝元鼎六年，应当是在赵破奴主持下设置敦煌郡。

筑造敦煌郡城和设置敦煌郡就发生在赵破奴为匈河将军攻打匈奴至匈河水之后到击楼兰虏其王之间，期间赵破奴还修筑塞城、土河等。根据《史记·匈奴列传》元封六年（前105）记载：

乌维单于立十岁而死，子乌师庐为单于。年少，号为儿单于。是岁元封六年也。

自是之后，单于益西北，左方兵直云中，右方直酒泉、敦煌郡。<sup>28)</sup>

这个时期匈奴在汉朝的打击之下西移，右方管辖地域在酒泉、敦煌郡之北，表明元封六年敦煌郡已经设置。匈奴的统治中心在西汉军事打击之下西移，敦煌郡、酒泉郡的北部是匈奴右部领地。

### 三、土河和古塞城的修筑与敦煌郡的管辖范围

根据《汉书·地理志》的记载敦煌郡下辖县有六，即敦煌、冥安、效谷、渊泉、广至、龙勒，户一千二百，口三万八千三百三十五。这是汉平帝元始二年时的规模，也是西汉敦煌郡逐渐发展的结果，并不能说明汉武帝元鼎六年置敦煌郡时，就管辖有西到龙勒、东到渊泉这样大的范围。我们根据《汉书·地理志》颜师古注得知，效谷县应当是元封六年之后才设置的，敦煌郡当时还不包括龙勒、效谷二县在内。

汉武帝元鼎六年置敦煌郡时管辖范围有多大，史籍中没有明确的记载，但是我们可以通过敦煌文献对敦煌古迹的有关记载窥之大概。元鼎六年赵破奴在修筑敦煌城置敦煌郡的同时，还修建敦煌郡周边的军事建置，主要有古塞城、土河。赵破奴除了完成置敦煌郡和修筑敦煌城，修筑敦煌郡城周边的塞城，P.2005《沙州都督府图经》四所古城条记载：

#### 古塞城

右周回州境，东在城东卅五里，西在城西十五里，南在州城南七里，北在州城北五

26) 郑炳林《敦煌地理文书汇辑校注》，甘肃教育出版社，1989年，第39页。

27) 《敦煌地理文书汇辑校注》第80页、第82页。

28) 《史记》卷110《匈奴列传》，第2914页。

里。据《汉书》：武帝元鼎六年将军赵破奴出令居，析酒泉，置敦煌郡。此即辟土疆，立城郭，在汉武帝时。又元帝竟宁[元年]，单于来朝，上书愿保塞和亲，请罢边戍，郎中侯应以为不可，曰：“孝武出军征伐，建塞徼，起亭燧，筑外城，设屯戍以等守之，边境少安，起塞已来，百有余年。”据此词，即元鼎六年筑。至西凉王李暠建初十一年，

又修以备南羌、北虏。其城破坏，基趾见存。<sup>29)</sup>

塞城是敦煌郡的组成部分，南边七里到鸣沙山，西到都乡河，北到北府，东部稍远，将在敦煌东三十里的小古城城也包含进来。西汉时期在敦煌城周边有两个重要机构，一个是中部都尉，根据《汉书·地理志》的记载：“敦煌，中部都尉治步广，候官。”另外就是鱼泽都尉。赵破奴修筑敦煌郡城时所建的塞城是郡城防御体系的重要组成部分，重点是保障郡城的安全，敦煌郡设置初敦煌城周的主要机构就是两个屯田单位即中部都尉和鱼泽都尉，他们很可能都有自己的防卫建置如鱼泽障和步广障等，赵破奴修筑塞城的工作很可能就是将这两个防御体系连接起来，以保障新置的敦煌郡城的安全。

赵破奴划定敦煌郡的管辖范围，主要表现在开凿土河，成为敦煌郡防御匈奴主要屏障。S.788《沙州图经》记载：

土河，周围州境，汉武帝元鼎六年，以为匈奴禁限。<sup>30)</sup>

土河是围绕敦煌周边修筑的防御屏障，主要是为防御匈奴骑兵进犯的壕沟，因没有水流俗称土河。既然是元鼎六年修筑，很可能与敦煌郡的设置有关，或者就是汉代赵破奴筑造敦煌城时为了加强敦煌郡的防御能力而修建的军事建置。P.2005《沙州都督府图经》记载有土河：

一所土河

右周回州境，东至碛口亭，去州五百一十里一百步，西至白山烽，去州卅里，南至

沙山七里，北去神威烽，去州卅七里。汉武帝元鼎六年立，以为匈奴禁限，西凉王李暠

建初十一年又修立以防奸寇，至随(隋)开皇十六年废。<sup>31)</sup>

这个记载将土河范围描述得很详细，通过这个记载我们得知敦煌郡初置时的管辖范围，西部三十里到白山烽，白山烽的位置，就在唐沙州马圈口堰稍西的地方，马圈口堰往东就进入敦煌的水利灌溉的农耕区，宜秋渠就在州西南二十五里，引甘泉水，两岸修堰十里，因此最初汉敦煌郡管辖西部以农业水利灌溉区为限。北部管辖范围到神威烽三十七里，根据这件文书记载四十里泽在州北四十里，又按敦煌文献记载唐代敦煌水渠的位置，最北部的水渠距离沙州城一般不超过四十里，所以汉代敦煌郡北部管辖范围亦以敦煌农业灌溉区为限。而南部到鸣沙山七里，这与其他敦煌文献记载鸣沙山的位置相一致。汉代敦煌郡的郡治在西部，但是敦煌郡的管辖范围主要在东部，东至碛口亭去州五

29) 《敦煌地理文书汇辑校注》第15页。

30) 《敦煌地理文书汇辑校注》第56页。

31) 《敦煌地理文书汇辑校注》第14页。



百一十里一百步，根据《元和郡县图志》卷四十陇右道下记载瓜州“东南至肃州四百八十里。西至沙州三百里。”肃州玉门县“东至州二百二十里。”<sup>32)</sup>就是说汉敦煌郡的管辖范围到达酒泉郡玉门县西五十里的地方。大约是在西汉酒泉郡干齐县的西部。

我们从元鼎六年修筑土河的范围推知，汉武帝置敦煌郡初期，龙勒县还不属于敦煌郡管辖。汉武帝同时期还设置阳关、玉门关，并设置阳关都尉和玉门关都尉，龙勒县当属于这两个关都尉所管辖，是军队屯垦的地方。

赵破奴从元鼎六年开始，到太初二年（前103）离开，用了将近八年时间完成置敦煌郡中的敦煌郡城的修筑和塞城、土河防御体系的修筑。敦煌郡的设置，完成了敦煌地区从军事建置向行政区划的转变。

元鼎六年赵破奴不仅修筑了敦煌城置敦煌郡和敦煌郡的防御体系，还修建敦煌的灌溉系统，开发了敦煌农业耕作区。P.2005《沙州都督府图经》两所堰条记载：

马圈口堰，右在州西南廿五里。汉元鼎六年造，依马圈山造，因山名焉。其山周回五十步，自西凉已后，甘水湍激，无复此山。<sup>33)</sup>

马圈口堤堰是元鼎六年敦煌地区移民的结果，因此我们可以推断敦煌地区水利灌溉工程很可能都是敦煌置郡时期移民的杰作。P.2005《沙州都督府图经》甘泉水条也记载到马圈口堤堰工程修建：

又东北流八十里，百姓造大堰，号为马圈口。其堰南北一百五十步，阔廿步，高二

丈，总开五门，分水以灌田园。荷锄成云，决渠降雨，其腴如泾，其浊如河。加以节气

少雨，山谷多雪，立夏之后，山暖雪消，雪水入河，朝减夕涨。其水又东北流卅里至沙

州城，分派溉灌。北流者，名北府。东流者，名东河。水东南流者二道：一名神农渠，

一名阳开渠。州西北又分一渠，北名都乡渠。又从马圈口分一渠，于州西北流，名宜秋

渠。州城四面水渠侧，流觞曲水，花草果园，豪族士流，家家自足。土不生棘，鸟则无

鹄。五谷皆饶，唯无稻黍。其水溉田即尽，更无流派。<sup>34)</sup>

从记述修建马圈口堰文中使用语言，似乎将敦煌马圈口工程同关中秦代修建的郑国渠作比较，这里透露出来的信息就是最初修筑甘泉水水利灌溉工程的人是来自关中等地的移民，是中原地区移民的杰作。赵破奴奉命建敦煌郡，首先就是如何将大量移民安置下来，安置的主要任务就是如何进行耕作和建立灌溉系统，将敦煌地区的土地开发出来。根据P.3560《敦煌水渠》或者称之为敦煌行水法则，根据内容记载“及无古典可凭，还依当

32) 《元和郡县图志》卷40瓜州、肃州，第1024、1027页。

33) 《敦煌地理文书汇辑校注》第8页。

34) 《敦煌地理文书汇辑校注》第5页。

乡古老相传之语，递代相传，持为节度。”这些水利灌溉规定应当是最初完成水利灌溉工程时留下的用水规则，这些用水法则应当是汉代移民留下来的。P.2507《水部式》中河西地区唯一记载到沙州：“沙州用水浇田，令县官检校。仍置前官四人，三月以后，九月以前行水时，前官各借官马一匹。”西汉时期沿边设置新的郡级政区，同时修建水利灌溉设施。

通过我们的研究得知，敦煌郡的设置和敦煌城的修筑是西汉匈河将军赵破奴主持下进行的工程。赵破奴作为骠骑将军霍去病司马参与进军河西攻击匈奴的战争，浑邪王杀休屠王投降汉朝，很可能赵破奴也参与迎接和安置投降汉朝这些匈奴人的工作，同时率军驻守河西地区；匈奴在汉朝的打击之下远遁，不敢为寇汉边，从此幕南无王庭，元鼎二年汉武帝置酒泉郡以通西域，很可能也是他建议之下完成的。元鼎六年汉武帝命赵破奴为匈河将军率骑万余至匈奴河水寻找匈奴决战，不见匈奴一人而返，回到河西之后主持修筑敦煌郡城并置敦煌郡。为巩固敦煌郡城的防御修筑了塞城，将原来敦煌的广步都尉和效谷的鱼泽都尉连接起来，还沿着敦煌郡的北部沿边修筑防御体系土河，通过土河的记载我们得知元鼎六年敦煌郡初置时的管辖范围。随着大量移民进入敦煌郡，为了安置移民发展经济，他还主持修建了敦煌的水利灌溉系统，马圈口堤堰就是他留下的水利工程项目，而且一直使用唐五代。

**【제1발표】**

**고고학으로 본 유라시아 문명교류사**

**朴天秀(경북대학교)**



## 고고학으로 본 유라시아 문명교류사

朴天秀(경북대학교)

- I. 들어가며
- II. BC 30~BC 9세기 실�크로드 이전 문명교류
- III. BC 8~BC 3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 IV. BC 2~AD 3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 V. AD 4~6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 VI. AD 7~9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 VII. AD 10~13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 VIII. 맺음말

### I. 들어가며

실�크로드는 고대 이래 유라시아 문명을 이어 온 동서 교통로이며, 북방의 草原路, 중앙의 沙漠路, 남방의 海路로 구분된다.

草原路는 북방 유라시아의 초원을 횡단하여 스텝로, 沙漠路는 중앙아시아의 사막에 연한 오아시스를 횡단하여 오아시스로, 海路는 유라시아 남쪽 바다를 왕래하여 남해로라고도 불린다.

20세기 초 열강에 의해 시작된 실�크로드 연구는 일본에서 꽃을 피웠다. 21세기 중국에서는 一帶一路 정책으로 실�크로드가 가장 중요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에 걸친 중국의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과 축적된 인문학적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구현된 것이며 오랜 기간 꾸준히 이를 지원한 중국 정부의 치밀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문학의 입장에 기초한 議題를 설정하고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다(김장구 2019).

중국 학계에서는 실�크로드의 東端은 중국에서 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한반도는 문명의 교통로인 실�크로드와 연결되지 않는 변경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가 중국 문명에 종속적인 위치였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실�크로드가 고대와 중세에 黃河 유역과 長江 유역에서 시작되어 인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거쳐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던, 비단 무역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의 길이라는 인식(林梅春(著), 張敏(譯) 2020:15)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학계에서는 沙漠路가 西安에서 博多, 海路는 寧波에서 博多로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즉 일본이야말로 실�크로드 幹線의 東端이라 주장한다. 이는 중국을 통

해 일본의 문명화를 이루었으며 한반도는 그저 육교에 불과하다는 이른바 한반도 패싱론에 의거한 것이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 국내 학계에서도 실크로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유라시아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노선에 주목하거나 특정한 시대에 주목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를 종합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한국 학계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세계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유라시아를 통시적으로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실크로드 연구는 문명사, 미술사, 문헌사학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미술사와 문헌사학은 자료의 성격상 그 시대와 주제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실크로드상의 유적에서는 발굴을 통해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예를 들면 로마유리기는 로마와 그 속주에서 생산되어 동일한 제품이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영국에 이르는 유라시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唐의 越州窯·長沙窯 陶磁器도 이집트에서 일본까지 이입되었다. 그래서 실크로드 연구의 가장 중요한 소재는 유적과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유라시아 실크로드 유적 출토 유물의 移入經路와 그 歷史的 背景을 통해 文明交流史에 접근하고자 한다. 나아가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草原路, 沙漠路, 海路 전역을 통관하는 유라시아 문명교류사를 조망하는 가운데 한반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물은 유라시아 전역에 유통된 페니키아, 로마, 사산조 페르시아, 이슬람산의 琉璃器와 琉璃珠, 靑金石, 紅玉髓, 貨幣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 가운데 특히 琉璃器는 시기별로 로마, 페르시아, 이슬람 세계에서 생산되어 말, 낙타, 배에 실려 草原路, 沙漠路, 海路를 통하여 유라시아 동부로 이입되었다. 유라시아 동부에서는 琉璃器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수입하였으며, 금공품을 능가하는 귀중품으로 간주하였다.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각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문물 이입의 劃期와 왕조의 교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BC 30~BC 9세기는 인더스강 하구에서 페르시아만을 거쳐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항로가 개척되는 시기부터 스키타이가 발흥하기 이전 시기이며, 靑金石과 紅玉髓의 유통으로 볼 때 沙漠路和 海路를 통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교역이 본격화된다.

BC 8~BC 3세기는 그리스 문명이 성립하고 春秋時代가 개시되며, 紅玉髓와 琉璃珠의 유통으로 볼 때 스키타이(scythai)를 매개로 한 草原路, 沙漠路를 통한 동서 간의 교역이 개시되는 시기이다.

BC 2~AD 3세기는 漢 張騫의 鑿空에 의해 沙漠路를 통한 로마와 漢의 교역이 본격화되며, 로마琉璃器의 유통으로 볼 때 海路를 통한 교역이 성행하고 흉노를 매개로 한 草原路를 통한 교역이 지속되는 시기이다.

4~6세기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대두하는 시기이자 유라시아의 민족이동기인 魏晉南北朝時代로서, 페르시아琉璃器의 유통으로 볼 때 沙漠路와 海路를 통한 교역이 성행하며 훈(Hun)을 매개로 草原路를 통한 교역이 지속되는 시기이다.

7~9세기는 이슬람이 흥기하여 우마이야(Umayya)朝가 성립하고 중국이 통일되는 隋唐時代이며, 이슬람유리기와 중국 도자기의 유통으로 볼 때 海路를 통한 교역이 성행하는 시기이다.

10~12세기는 이슬람 세계가 분열하고 중국도 遼와 宋으로 분리되며, 이슬람유리기와 중국 도자기의 유통으로 볼 때 海路를 통한 교역이 성행하나 草原路를 통한 교역이 병행하는 시기이다.

## II. BC 30~BC 9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파미르(Pamir)의 서쪽에는 靑金石(라피스 라줄리, lapis lazuli)의 길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이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시리아, 아나톨리아 등에 이르는 라피스 라줄리의 교역로였다(加藤九祚 2015).

靑金石(라피스 라줄리, Lapis Lazuli)은 紅玉髓, 瑪瑙, 綠松石(터키석), 石榴石 등과 같은 準寶石이며, 청색의 바탕에 금색의 분말이 포함되어 어두운 밤의 별과 같이 반짝이는 것에서 이름 지어졌다. 청금석은 라틴어로 돌이라는 의미의 ‘라피스’와 페르시아어로 푸른색 돌이라는 의미의 ‘라줄리’가 결합된 명칭이다.

靑金石의 금분처럼 빛나는 부분은 황철광으로 아프가니스탄산의 특징이다. 이 보석의 고대 산지는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힌두쿠시산맥 북쪽에 위치한 바다흐산(Badakhshan)지방의 남쪽 아무다리야(Amu Darya)강의 지류인 콕차(Kokcha)강 상류역 사리상(Sar-i Sang) 계곡의 광산이다. 청금석은 해발 1,800m에서 5,100m의 험준한 산중의 노천 또는 갭에서 불로 달구어진 바위에 냉수를 뿌려 깬 다음 그 틈에서 광맥을 찾아 채굴하였다(圖1).



✂. Afghanistan Sar-i Sang Mine (1. Afghanistan Shortugai 2. Afghanistan Ai Khanoum) 3. Afghanistan Tepe Fullol 4. Turkmenistan Gonur Depe  
 5. Iran Shahr-e Sukkeh 6. Iran Tepe Hissar 7. Iran Persepolis 8. Saudi Arabia Tarut Island 9ab. Iraq Ur 10. Syria Tell Brak  
 11. Syria Mari 12. Syria Tuba (Umm El Marra) 13. Syria Ebla 14. Egypt Hierakonpolis (Nekhen) 15. Egypt Thebae Tutankhamen Tomb

<圖1> BC30-BC9세기 아프카니스탄 사리상(Sa-ri Sang)鑛山の 位置와 靑金石 工藝品の 分布



靑金石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채굴되어 BC 700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인더스 계곡 사이의 고대 무역로를 따라 지중해 세계와 남아시아로 수출되었다. 수많은 청금석 제품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BC 4000년대 유적과 이란 남동부의 샤흐레 수흐테(Shahr-e Sukhteh) 청동기시대 유적(BC 3000년대)에서도 발견되었다.

BC 3000년대부터 수메르 도시국가 우르(Ur)에서는 청금석을 장신구와 왕묘의 부장품으로 사용하였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BC 2550년경에 사망한 왕 파빌사그(Pabilsag)와 관련된 우르의 큰 왕묘 중 하나인 PG779호묘 출토 모자이크장식 상자이다. 발굴자에 의해 '우르의 스탠다드(Standard of Ur 旗章)'로 명명된 이 상자는 폭 21.59cm, 길이 49.53cm의 역제형으로 속이 빈 나무 상자의 側面 전체에 조개와 붉은 석회암 조각으로 인물과 동물을 묘사하고, 靑金石 조각은 그 배경으로 장식하였다. 長側은 각각 전쟁과 일상생활, 短側은 동물을 묘사하였다.

왕묘인 PG789호묘에서 출토된 리라(Lyre, 竖琴)는 수메르 신화의 태양신이자 정의의 신(神)인 우투(Utu)를 상징하는 황소의 머리로 장식하였으며, 그 뿔, 털, 눈, 수염의 일부 표현에 靑金石을 사용하였다. 그 외 측판 문양의 배경에도 靑金石이 사용되었다(Aruz 2003:105).

PG1237호묘에서 출토된 숫양은 조개, 붉은 석회암, 靑金石 조각 모자이크로 장식된 직사각형 판 위에 수목에 기대어 있는 형태로 조각되었다. 나무, 다리, 양의 얼굴과 생식기는 금으로 만들었고, 배와 밑부분에는 은, 조개, 붉은 석회암 조각을 사용하였다. 눈, 뿔, 수염, 털은 청금석으로 장식하였다.

PG800호묘 출토 푸아비(Puabi) 여왕의 頸飾, 頸飾은 金, 銀, 靑金石, 紅玉髓珠로 구성된 화려한 것이다. 靑金石은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印章과 寶石으로 사용되었다.

청금석에 대한 문헌사료는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 중 하나인 길가메시(Gilgamesh) 서사시에서도 나온다.

고대 이집트에서 靑金石은 풍덩이 모양의 부적이나 장식품으로 선호하는 보석이였다. 선왕조시대 나카다(Naqada)유적(BC 3300~BC 3100)에서는 청금석제 히에라콘폴리스(Hierakonpolis)의 여성상이 출토되었다.

靑金石은 18왕조의 파라오인 투탄카멘(Tutankhamen, 재위 BC 1332~BC 1323)의 황금 마스크에도 사용되었다. 이 마스크는 길이 54cm, 무게 10kg이며, 청금석은 착색유리, 수정, 흑요석, 홍옥수, 녹송석 등과 함께 눈 주변과 눈썹 장식에 사용되었다. 파우더 라피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아이새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그리스에서는 BC 1700년경 크레타 말리아(Mallia)의 크리솔락코스(Chrysolakkos) 고분군에서 금제 장신구와 조합된 頸飾이 출토되었다. 여기에는 홍옥수제 管珠, 環珠와 함께 청금석제 環珠가 사용되었다.

카스피해 남동쪽에 위치하는 이란의 테페 히사르(Tepe Hissar)유적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로상에 위치한다. 이 유적에서는 BC 4000년경부터 청금석 제품이 출현하며, BC 2000년경의 頸飾은 金, 紅玉髓, 縞瑪瑙와 함께 청금석제 環珠

로 구성되었다. 이 유적은 청금석의 이입경로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누르 데페(Gonur Depe)유적에서는 靑金石과 紅玉髓의 還珠로 구성된 경식이 다수 출토되었다. 메르브(Merv)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이 유적은 BC 2400년경에 성립된 박트리아 마르기아나(Bactria-Margiana, BMAC) 문명의 중심지이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청금석 교역과 관련된 테페 푸롤(Tepe Fullol)유적이 1966년 사리상(Sar-i Sang) 광산 주변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 유적에서는 金銀器와 함께 청금석 편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金器에 새겨진 턱수염이 있는 수소 문양이 앞에서 언급한 우르(Ur) PG789호 왕묘 출토 리라(Lyre, 豎琴)의 수소 문양과 유사한 점에서 양자 간 교류를 알 수 있다(川又正智 2006:48, 49).

사리상(Sar-i Sang) 광산은 푸롤(Fullol)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진 교통로를 따라 약 20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청금석 교역의 이동로, 즉 사리상(Sar-i Sang) 광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청금석을 운반할 때 이용하였던 길은 서쪽으로 난 좁은 통로를 빼고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이동이 쉽지 않았으며, 그 서쪽에 바로 테페 푸롤(Tepe Fullol)유적이 입지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16:26).

테페 푸롤(Tepe Fullol)유적은 서쪽으로는 해발 약 1,000m, 동쪽으로는 약 3,000m가 넘는 산들 사이의 평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주변의 험준한 산들로 인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로가 계곡처럼 길게 뻗어 있고 넓은 경작지가 펼쳐져 있어 사리상(Sar-i Sang) 광산의 청금석을 채광 유통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靑金石과 동시에 유통된 것은 紅玉髓이다. 紅玉髓는 瑪瑙 가운데 赤色에서 橙色에 포함되는 것을 지칭하나 인위적으로 진홍색으로 가공한 것이 특징이다. 마노는 반투명의 백·회·적·황·차·흑색 등으로 풍부한 색채를 띠며, 단색뿐만 아니라 복수의 색으로 縞狀의 천연 문양을 가진 것이 많다.

홍옥수의 산지는 인더스 문명의 최남부 인도 서부 구자라트(Gujarat)지방이며, 그곳의 캄밭(Khambhat)에서는 지금도 채굴과 공예품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옥수는 가열처리와 부식처리에 의해 가공된다. 가열처리는 홍옥수를 자연 상태의 황·등색에서 진홍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홍옥수는 직접 고열을 가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 파열되기 때문에 토기, 톱밥, 재 등으로 원석을 덮고 간접적으로 수회에 걸쳐 장시간 가공한다. 이는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는 가공 방법이다(圖2). 부식처리는 구슬의 표면에 알칼리성 물질의 부식작용을 이용해 문양을 그리는 것으로, 특정 식물재를 혼합한 용액으로 문양을 그린 다음 가열하여 정착시키는 방법이다(遠藤仁 2013:196). 이를 중국에서는 蝕花肉紅石髓珠(Etched Carnelian Beads)로 부르며, 여기에서는 蝕花肉紅髓珠로 명칭한다.



<圖2> 인도 모헨조 다로(Mohenjo-daro) 出土 紅玉髓 頸飾

인더스 문명기에 다음과 같은 유적에서 紅玉髓珠가 출토되었다. 하라파(Harappa), 모헨조 다로(Mohenjo-daro), 찬후 다로(Chanhu daro), 칸머(Kanmer), 돌라비라(Dholavira), 다탈라나(Datrana), 쉬카르푸르(Shikarpur) 등이다. 모헨조 다로유적에서는 長形管珠가 처음으로 다수 확인되었다.

메소포타미아지방에서도 인더스 문명의 인장이 발굴되어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한 것을 알 수 있다. 페르시아만 연안에서도 같은 인장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BC 3000년경에 이미 인더스강 하구에서 페르시아만을 거쳐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항로가 개척되었다. 인더스인들은 목면과 보석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수출하였으며, 그 루트는 육로뿐만 아니라 아라비아해와 홍해를 航行하는 海路였다(長沢和俊 2002:14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르(Ur)의 왕릉 가운데 PG800호묘 출토 푸아비(Puabi) 여왕의 頭飾과 頸飾은 금, 은, 청금석과 함께 紅玉髓珠로 만든 화려한 것이다.

이집트 투탄카멘(Tutankhamen)왕의 황금 마스크에도 착색유리, 라피스 라줄리, 수정, 흑요석, 터키석과 함께 홍옥수가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리스에서는 BC 1700년경 크레타 말리아(Mallia)의 크리솔락코스(Chrysolakkos)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제 장신구와 조합된 경식에 청금석과 함께 홍옥수제 管珠와 還珠가 사용되었다.

이란의 테페 히사르(Tepe Hissar)유적 출토 BC 2000년경의 경식은 금, 청금석제 환주와 함께 홍옥수제 환주, 호마노가 펜던트로 사용된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무르고프(Murghab)강 유역 메르브(Merv)에서 출토된 경식은 금제 환주·호마노가 펜던트로 사용된 것과 홍옥수제 환주·관주가 사용된 것이 출토되었다. 고대의 마르기아나(Margiana)는 BC 3000년경 이래 형성된 도시로서 서남쪽으로 파르티아(Parthia), 남쪽으로는 아리아(Aria), 동쪽으로는 박트리아(Bactria), 북쪽으로는 소그디아나(Sogdiana)와 접하는 沙漠路의 결절점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누르 데페(Gonur Depe)유적에서는 紅玉髓와 靑金石으로 구성된 경식이 다수 출토되었다.

더욱이 BC 2000년경 인더스 문명의 절정기에 아프가니스탄의 쇼투가이(Shortugai)유적이 출현한다. 쇼투가이유적은 靑金石 광산이 위치한 아무다리야(Amu Darya)강 유역에 설립된 하라파(Harappa)의 최북단 무역 식민지로서 靑金石과 같은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위성도시였다. 이 유적에서는 靑金石, 紅玉髓, 청동 제품, 테라코타 인물상과 함께 코뿔소와 같은 동물 문양과 선각이 있는 사각형 인장, 하라파 의장의 토기가 출토되어 인더스 문명에 속한 유적임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靑金石과 紅玉髓는 사리상(Sar-i Sang)-테페 푸롤(Tepe Fullol)-고누르 데페(Gonur Depe)-테페 히사르(Tepe Hissar)-우르(Ur)로 연결되는 沙漠路를 통하여 주로 이입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쇼투가이(Shortugai)유적의 존재로 볼 때 인더스강 유역으로 이입되어 해로 또는 육로를 통해 서아시아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圖3).

靑金石과 紅玉髓는 후대의 기록이나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볼 때 왕권에 의해 장악 통제된 전략적인 물자였다. 아시리아 왕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Tiglath-Pileser III, BC 745~BC 727)가 관할하는 메디아 동부지역에 9톤이 넘는 靑金石을 공물로 부과했으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Darius I, BC 522~BC 486)의 수사(Susa) 왕궁 조성 비문에도 소그디아나로부터 靑金石과 紅玉髓를 운반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 ✕. India Gujarat Province 1. India Kanmer 2. Pakistan Chanhudaro 3. Pakistan Mohenjodaro 4. Turkmenistan Gonur Tepe
- 5. Turkmenistan Merv 6. Iran Shahr-e Sukhteh 7. Iran Kerman Shahdad 8. Iran Hissar Tepe 9. Bahrain Hamad Town
- 10. Iraq Ur Tombs 11. Iran Susa 12. Iran Chalekuti tombs 13. Syria Tell Brak 14. Egypt Thebae 15. Greece Aegina

<圖3> BC30-BC9世紀 인도 구자라트(Gujarat)鑛山の 位置와 紅玉髓 分布

### Ⅲ. BC 8~BC 3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파미르(Pamir)의 동쪽에는 타림(Tarim) 분지의 和田에서 青海를 거쳐 북부 중국에 이르는 玉의 길이 있었다. 軟玉 제품은 예로부터 王者의 상징이었으며, 殷墟 婦好墓의 玉器가 新疆의 和田산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玉을 禺氏의 玉이라고 불렀다. 이 禺氏는 秦漢시대에 甘肅에서부터 天山南路까지의 문호를 장악한 月氏라고 보았다. 月氏로부터 연옥을 매입했던 상대가 중국인이며, 그 대가로 月氏에게 지불한 대표적인 중국의 산물이 견직물이다. 先秦시대에 이미 중국산 견직물을 西方에서 귀하게 여겼으며, 견직물 무역에서는 동서교통의 요충지를 점했던 月氏가 처음으로 서방과의 중개자, 즉 전매자로 활약하였다(江上波夫 1987).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부터 중국에 이입되는 紅玉髓이다. 紅玉髓는 파미르(Pamir)를 넘어 북방 초원 지대와 타클라마칸 사막에 연한 沙漠路를 경유하여 중국에 이입된다.

紅玉髓 이입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은 新疆 喀什地區 塔什庫爾幹塔吉克自治縣 吉爾贊喀勒古墳群이다. 이 고분군은 塔什庫爾幹河의 서안 해발고도 약 3,000m의 대지상에 위치하는 원형의 적석봉토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고분군의 연대는 BC 7~BC 5세기이며, 조로아스타교에 의한 매장 의례가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고분군에서는 M11·14·16·23·24·32호분에서 蝕花肉紅髓珠와 瑪瑙珠가 51점 출토되었다. M48호분에서는 人面文象嵌琉璃珠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군은 新疆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塔什庫爾幹지역에 위치한 점, 파키스탄 탁실라(Taxila)유적 출토품과 문양·형태가 유사한 점, 조로아스타교에 의한 매장 의례가 행해진 점, 홍옥수가 부장된 점에서 파미르를 넘어 홍옥수주가 이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접한 和田地區 于田縣의 圓沙土城에서도 蝕花肉紅髓珠가 출토된 점에서도 그러하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초원로상의 아르잔(Arzhan)고분군에 蝕花肉紅髓珠가 부장된 것이다(中村大介 2019:5). 이 고분군은 러시아 투바공화국 우육(Uyuk)강 근처 해발 1,000m 고원 지대에 위치한 대표적인 초기 스키토-시베리아 시기 대형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지역에는 4~5기의 대형고분이 위치하는데,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400~500년간 지속적으로 축조되었다. BC 9~BC 8세기의 1호분은 직경 120m, 높이 3~4m에 이르며 BC 7~BC 6세기의 2호분은 직경 80m, 높이 1.5m이다(강인욱 2018).

이 고분군에서는 2호분의 13A호묘에 10점의 蝕花肉紅髓珠가 부장되었다. 1호분의 매장주체부에서는 綠松石으로 장식한 금제 이식이 출토되었다. 또한 인접한 알타이(Altai) 노보트로스크(Novotroitsk)고분군에서도 蝕花肉紅髓珠의 부장이 확인된다. BC 7~BC 6세기 카자흐스탄의 타스몰라(Tasmola)6호분에서도 蝕花肉紅髓珠 3점이 출토되었다.

중국 알타이지구의 전국시대 병행기 庫爾布拉特村古墳에서는 蝕花肉紅髓珠 8점과

17점의 琉璃珠가 출토되었다. 중국 天山山麓의 東塔勒德古墳群은 BC 8세기에서 前漢에 걸친 61기의 고분이 발굴되었으며 그 가운데 2011HDⅡM3호분에서는 紅玉髓珠와 綠松石珠가 조합된 頸飾 및 다수의 금제 동물문장식과 함께 출토되었다.

따라서 草原路상의 아르잔(Arzhan)고분군을 비롯한 紅玉髓珠는 인더스(Indus)강 유역으로부터 파미르(Pamir)를 넘어 塔什庫爾幹지방으로 移入된 후, 天山과 알타이(Altai) 일대로 北上하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紅玉髓珠의 분포를 통하여 인더스(Indus)강 유역의 海路和 타클라마칸(Takla Makan)의 沙漠路, 알타이(Altai) 산지의 草原路가 연결된 것이 확인된다(圖 4).



✕ India Gujarat Province 1. Pakistan Taxira 2. China Quman Tombs 3. China Baocidong Tombs 4. China Yuansha 5. China Le'ililik  
 6. China Chawuhugou Tombs 7. China Shirenzigou 8. China Kuerbulake Village Tombs 9. Altai Novotroisk 2 Tombs 10. Tuva Arzhan No.2 Tombs  
 11. China Qinghai Majiayuan Tombs M13 12. China Shanxi Bao-ji Tomb 13. China Seocheon Shita-ji Tombs  
 14. China Suzhou Zhenshan Dongzhuo Tombs D9M1 15. China Henan Anyang Fuhao Tomb 16. China Naimongo Xigoupan Tombs 17. China Beijing Liulihe

<圖4> BC8-BC3世紀 인도 구자라트(Gujarat)鑛山の 位置와 紅玉髓 分布



紅玉髓珠는 서역 남도를 따라 분포하며 陝西省 寶鷄市 秦 益門2號墓에서 蝕花肉紅髓珠 1점과 함께 4점의 紅玉髓 管珠, 다수의 還珠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다수의 금제품, 綠松石象嵌金柄鐵劍과 녹송석주, 옥기가 부장되어, 그 피장자는 춘추시대 秦의 왕족으로 보고 있다.

山西省 曲沃縣 晉侯墓群의 92호묘를 비롯한 다수의 고분에서 옥기, 청동기 등과 함께 紅玉髓珠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군은 19기의 평면 中字, 亞字형의 대형묘가 남북 3열로 배치되었으며, 그 피장자는 묘의 구조와 부장품에서 9인의 晉의 侯와 부인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河南省 安陽市 殷墟의 婦好墓에서도 紅玉髓 管珠 1점과 많은 양의 還珠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에는 彝器·樂器·武器를 비롯해 ‘婦好’·‘司母辛’ 등의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옥기 등이 부장되어, 그 피장자는 商 23대 왕인 武丁의 부인으로 밝혀졌다. 이 婦好墓 출토 옥기에는 新疆의 和田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어, 홍옥수주는 옥과 함께 서역 남도를 경유하여 이입되었다고 생각된다. 춘추시대 楚의 河南省 淅川市 下寺古墳群 등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확인된다.

춘추시대 인더스 문명에서 유라시아 동부로 이입된 홍옥수제 경식은 스키타이 왕묘, 商 왕묘, 秦 왕족묘, 晉 왕묘 등에 사용된 威信財로서, 인더스강 유역과 알타이 산지, 中原이 유기적인 관계망을 통하여 이미 연결된 것을 상징한다.

BC 5~BC 4세기의 페니키아를 비롯한 동부 지중해에서 제작된 琉璃珠는 그 형태로 인해 中層圓文珠 또는 中層帖眼珠로 불리고 있다. 최근 中層圓文珠에 대해서는 동지중해에서 초원로를 통하여 유라시아 동부에 이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古寺智律子 2019).

페니키아산 중층원문주는 人頭珠와 함께 지중해 일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튀니지 카르타고(Carthage)유적, 이탈리아 사르드니아(Sardigna) 타로스(Tharrus)고분, 스페인 이비자(Ibiza)섬 등에서 출토되었다. 흑해 연안에서는 우크라이나 메리토폴(Melitopol)고분, 조지아 바니(Vani)고분, 카자흐스탄 코소바(Kosova)고분, 러시아 술투코프 로그(Chultukov Log)고분, 러시아 보르탈(Borotal)고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아직 몽골에서는 이 시기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나 漢代의 흉노묘인 골모드(Gol-Mod) II 9호묘에 로마圓文珠가 확인되어 이전 시기에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는 遼寧省 建昌縣 東大杖子古墳群, 新疆의 和田지구 圓沙土城, 且末縣 扎滾魯克古墳, 拜城縣 克孜爾吐爾古墳群, 青海省 馬家塬古墳群, 山西省 太原市 晉國 趙卿墓, 山東省 臨淄市 郎家庄1號墓, 河南省 固始縣 古堆1號墓, 河南省 淅川市 徐家嶺M10號墓, 湖南省 隨縣 曾侯乙墓 등에서 중층원문주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中層圓文珠의 이입경로이다. 먼저 遼寧省 東大杖子古墳群 출토품으로 볼 때 흑해에서 카자흐스탄, 몽골을 거친 초원로를 통하여 유라시아 동부에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喀什지구 塔什庫爾幹塔吉克自治縣 吉爾贊喀勒古墳群의 M48호분에서는 人面文象嵌琉璃珠가 출토되고, 이에 인접한 和田지구의 圓沙土城에서 中層圓文珠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인더스강 유역에서 파미르를 넘는 경

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카스피해 남안의 이란(Iran) 샬레쿠티(chalekuti)고분, 서역 남도의 且末縣 扎滾魯克古墳과 河西回廊의 青海省 馬家塬古墳群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沙漠路를 경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圖5).

그리고 BC 4세기 전후 초원로상의 遼寧省 東大杖子古墳群에서는 페니키아산 中層 圓文珠가 中原의 靑銅鼎과 琵琶形 銅劍, 銅戈가 함께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 古墳群의 축조 세력을 古朝鮮과 관련된 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이 시기 이미 초원로가 한반도와 연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페니키아산 장식 유리구슬의 분포

1. Spain Ibiza island 2. Tunisia Carthage 3. Italia Sardinia Tharus tombs 4. Egypt Alexandria 5. Proenicia 6. Ukraina Melitopol tombs 7. Georgie Vani 8. Kazakhstan Kosova tombs 9. Rusia Chutukov Log tombs 10. Altai Borotal tombs 11. Mongolia Gol-Mod II No6 tombs 12. China Liaoning Dondazhangzi tombs 13. China Xingang Gaga vilige M2 tomb 14. China Xingang Yuan-sha sites 15. China Xingang Bizri M12 tomb 16. China Shanxi Changzhi Fenshuiing tombs 17. China Hebei Zhongshan king tombs 18. China shanxi-taiyuan zhaoping tomb 19. China Henman Gujing vilige 20. China Henman Xujialing M10 tomb 21. China Hubei Zenghou tomb 22. China Anhui Yingpasan tombs 23. China Guangdong Nanze king tomb 24. Chitira Qing-hat-majlayuan tombs M6 25. iran Chalekuti tombs

<圖5> BC5-BC4世紀 中層圓文琉璃珠 分布

#### IV. BC 2~AD 3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로마는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한 후 지중해에 진출해 헬레니즘 세계를 차례로 정복하고 강력한 제정을 수립하였다.

BC 64년에 로마는 헬레니즘 세계의 셀레우코스조를 멸망시키고 이듬해에는 예루살렘을 공략해 팔레스타인을 복속시켰다. BC 31년에는 헬레니즘 세계의 마지막 보루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정복하여 이집트를 로마 제국의 屬州로 만들었다. 이 시기 로마는 동방 국가들과의 원거리 무역을 통해 세리카(Serica, 중국)의 生絲와 絹織物, 인도양 연안의 玳瑁와 珍珠, 寶石, 香料, 아프리카의 象牙, 아라비아반도의 乳香 등 동방의 특산물을 다량 수입하였다.

BC 1세기 중엽에 로마의 항해사 히팔루스(Hippalus)가 아랍인들로부터 인도양 계절풍의 정보를 알아낸 후 아테네에서 홍해를 지나 인도양으로 향하는 직항로를 개척함으로써 로마의 대동방 원거리 무역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였다.

인도양에서는 6월 말부터 9월까지 서남계절풍(Hippalus, south-west monsoon wind)이 부는데, 홍해 입구에서 이 계절풍을 이용해 인도 서해안의 바리가자(Barygaza)항이나 인더스강 하류로 직행할 수 있다.

이 계절풍을 이용해 로마 상인들은 적대관계에 있는 파르티아(Parthia, 安息) 영내를 통과하지 않고 해로로 인도양을 횡단, 인도의 서해안 일대에 도착해 교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에리트라해 안내기(Periplus of the Erythraean Sea)』는 40년에서 70년경에 로마령 이집트, 즉 알렉산드리아 혹은 홍해에 접한 베레니스(Berenice) 출신으로 추정되는 그리스인 항해자에 의해 서술된 것으로, 홍해와 페르시아만, 인도양을 중심으로 진행된 동방 해상 무역의 항로와 항구, 운송, 화물 등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에리트라란 그리스어로 적색이란 뜻으로, 에리트라해란 홍해를 가리키는 말로서 고대에는 홍해, 페르시아만, 오만만, 아라비아해, 인도양, 벵골만을 포함한 바다를 통칭하는 것이었다.

인도양에서는 로마 제국과 남인도의 사타바하나(Satavahanas) 왕조 사이에 계절풍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는 항해의 상황뿐만 아니라 각 항구의 무역품과 각지의 특산품 등에 대한 기술도 자세하다.

로마의 동방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집트에서 유리기와 마노 제품을 구입하고(6절) 인더스강 하구의 바르바리쿰(Barbaricum, 현 파키스탄 카라치)항과 바리가자(Barygaza)항으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중국의 絹織物、寶石、胡椒를 구입한다(39, 49절). 바리가자(Barygaza)항에서 포도주、衣服、琉璃塊、金銀貨 등을, 바르바리쿰(Barbaricum)항에서는 衣服、琉璃器、銀器 등을 내렸다(由水常雄 1992b:134, 村川堅太郎 2011).

인도 연안 항구에서 로마가 수출한 품목은 琉璃、琉璃塊、金銀貨、銀器、黃玉、珊瑚、安息香、乳香、織物、葡萄酒、銅、香油、衣服 등이었으며, 이곳으로부터 수입하

는 품목은 象牙、珍珠、紅玉髓、縞瑪瑙、玳瑁、香料、木綿、生絲、胡椒、肉桂, 그리고 중국산 絹織物、毛皮、綿布 등이었다(蔀勇造 2016-2:279-281).

이 시기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파타남(Pattanam)은 로마와의 최대 무역 거점인 무지리스로 비정되는 서부 해안의 항만유적이다. 이곳에서는 선박에 적재하는 저장용기인 로마산 암포라, 琉璃器, 인도산 琉璃珠, 瑪瑙珠, 紅玉髓, 鏤金 제품이 출토되었다. 로마유리기는 아프가니스탄 베그람(Begram)유적 출토품과 같은 縱稜文盃, 모자이크 유리기, 彩色琉璃器 등 최고급품이 출토되었다. 특히 인도 퍼시픽 유리주가 다량 출토되어 그 제작지로 보인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폰디세리 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리카메두(Arikamedu)유적은 BC 1~AD 2세기의 고대 항만유적으로 로마산 암포라, 유리기, 도기제 램프, 인도산 유리주, 금제품 등이 출토되며, 동부 해안 로마와의 최대 교역항이다.

타밀나두주 에로데지역 카우베리강 지류인 노얄강의 북쪽에 위치하는 코두마날(Kodumanal)은 고대 도시유적이다. 이 유적은 말라바르 해안의 무지리스항과 코로만델 해안의 카베리파트남항을 연결하는 로마 무역로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도-로마 무역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 유적에서는 로마은화, 청동제 사자상, 금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석류석(garnet), 마노(carnelian), 라피스 라줄리(lapis lazuli), 사파이어(sapphire), 수정(quartz)의 반제품이 다량 출토되어 보석을 가공 수출하는 교역 거점임을 알 수 있다.

BC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이 남인도의 칼링가(Kalinga) 왕조를 멸망시키자 많은 칼링가 지배층과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각지로 이주하였으며, 이후 벵골만과 말레이반도에 정착하여 원향인 인도 동남부와 동남아시아의 중계 교역에 종사하게 된다.

扶南國의 건국신화에서도 인도인의 진출을 알 수 있다. 이 신화는 인도 브라만인 카운디냐(Kaundinya, 混填)와 토착 세력인 柳葉의 결합으로 시작한다. 『梁書』는 이들이 혼인하여 1세기경 日南 남쪽, 林邑 서쪽의 풍요로운 메콩강 삼각주에 정착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 전설은 토착 지배 세력과 인도로부터 이주해 온 세력의 결합을 상징하며, 인도가 동남아시아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 준다.

扶南의 巷市였던 베트남 옥 에오(Óc Eo)유적에서는 인도, 로마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문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인도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유리구슬의 제작법, 힌두교 사원과 간다라(Gandhāra) 및 아마라바티(Amarāvati) 양식 조각상, 초기 인도 문자 및 힌두교의 도상들이 새겨진 금판과 인장, 산스크리트어가 새겨진 비문, 인도식 명칭의 사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옥 에오에는 인도의 문물뿐만 아니라 종교사상과 통치방식도 유입되었다. 옥 에오의 지배자들은 교역을 통해 획득한 부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사회를 통합·확장하였으며, 정교한 힌두교 의례에 의해 권위를 정당화하였다. 베트남 남부의 토착 문화는 인도 문화와 결합되어 점차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로마와 중국의 문물이 이곳에 이입되었다. 대표적인 로마의 유물로는 손잡이가 달린 마가라(磨伽羅, Makara) 모양 램프와 황제의 이름과 초상이 새겨진 금화가 있다. 금화 중 하나는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황제의 이름과 초상, 그리고 즉위 15년(152)의 문자가 새겨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Marcus Aurelius Antonius)’ 황제 시기(161~180)의 금화이다. 보석 세공품 중에는 로마식의 인물 흉상을 음각한 것, 로마유리기와 구슬이 있다. 로마유리기의 편은 식민지시대 발굴과 최근 발굴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중국 漢代의 廣西 藏族自治州 合浦유적에서 완형이 다수 출토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그 유구가 분묘와 건축물이라는 차이에 기인하며 앞으로의 조사가 기대된다. 중국의 것으로는 後漢시대의 夔鳳鏡과 六朝시대의 불상 등이 있다.

로마와 한의 첫 공식 교섭도 日南을 통해 이루어졌다. 『後漢書』에 의하면 桓帝 延熹 9년(166)에 大秦 황제 安敦의 사절이 日南으로부터 와서 象牙·犀角·玳瑁를 헌상하였다. 이 시기의 황제는 앞에서 언급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Marcus Aurelius Antonius)이며 安敦은 안토니우스의 音借로 보고 있다.

이 황제의 사절은 공식적인 외교사절이 아니라 당시 동방 무역에 종사하던 로마 상인일 개연성이 크다. 이처럼 로마와 한 사이의 교역이나 접촉은 해로를 통해 日南을 매개로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인도 서해안의 항구들에서 繼走式으로 이루어졌다.

BC 3세기 秦의 시황제는 전국을 통일한 이후 嶺南지역을 공략하였는데 그 목적지는 廣州였다. 이곳이 동남아시아로 나아가는 해양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몇 년간의 공략 끝에 廣州를 점령한 진시황은 이곳에 군현을 설치하고 造船所를 만들었으며, 남방으로 진출하여 남해 무역을 행하였다(김병준 2019).

秦末 BC 203년 趙佗에 의해 南越國이 건국되어 그 영역은 광동성에서 해남도, 베트남 북부에 미쳤다. 南越王陵은 광주시 북방 象崗山에 입지하며 남월국의 도성인 번우성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이 고분은 7개의 실로 구성된 황혈식석실로서 文帝行璽, 趙昧, 左夫人 등의 인장이 출토되어 2대 남월왕인 趙昧과 부인들의 무덤으로 밝혀졌다. 이 고분에는 파르티아산 은기, 아라바이산 유향, 아프리카산 상아, 인도산 산호 등이 부장되어, 南越이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보여 준다. 고분의 구조가 漢 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형 석제를 사용한 황혈식석실이고, 인접한 남월 宮署址의 立柱石과 같은 석조유구에도 인도, 동남아시아의 영향이 보인다(李慶新 2018:60, 61).

南越王陵 출토 銀器는 문양으로 볼 때 파르티아산이다. 그 외에 파르티아산 銀器는 BC 179년에 축조된 山東省 淄博市 前漢 齊王墓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合浦 寮尾 M13b호분 출토 녹유파수부호는 녹색 연유와 파수로 볼 때 이라크 남부 또는 이란 서남부에서 제작된 파르티아 양식으로 판명되었다(黃珊外 2013:90).

BC 111년 漢 武帝가 南越國을 멸망시킨 뒤 역시 廣州에 南海郡의 군치인 番禺縣을 두었다. 그 외에 한 무제는 연안을 따라 合浦郡과 交趾郡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의 해남도에 珠崖郡과 儋耳郡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瓊州 해협을 끼고 海南

島와 마주하고 있는 雷州반도 끝단에는 徐聞縣을 두었다. 이러한 구도는 海南島를 장악하여 이곳의 물산을 장악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番禺에서 출발하여 交趾郡까지 이어지는 연안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김병준 2019).

그 후 인도, 동남아시아와의 최대 교역 중심지는 중국 合浦 일대로 옮겨진다. 合浦는 BC 111년 한 무제에 의해 설치된 9군의 하나로서 남해 무역의 거점항이다. 이 시기의 한묘(漢墓)에서는 20점 이상의 유리기가 출토되었다. 이 유리기는 주조 후 마연하여 제작된 전기 로마 시기의 것이다. 이곳에서는 로마의 유리기와 함께 유리珠, 인도산 홍옥수와 마노제 珠, 鏤金 제품이 부장되었다. 같은 시기 江蘇省 邗江 廣陵王 劉荊墓에서는 로마유리기인 縱稜文罍이 이입된다. 이 종릉문완과 河南省 洛陽市 東郊 後漢墓 출토 縞文瓶도 合浦를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

合浦에 이입된 문물은 인도를 경유한 것이 확인된다. 서부 해안의 최대 무역 거점인 파타남(Pattanam)유적에서 로마유리기, 유리주, 인도산 홍옥수와 마노주, 鏤金 제품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동부 해안의 로마와의 최대 무역 거점인 아리카메두(Arikamedu)유적에서는 로마유리기와 홍옥수 珠가 출토되었으며, 이곳에서는 合浦에서 보이는 동일 형식의 로마유리기가 확인되었다(圖6).



<圖6> BC2-AD5世紀 罗马琉璃器 分布



『漢書』地理志에 따르면 습포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해로는 다음과 같다.

日南의 항구가 막혀 통하지 않은 후부터 습포에서 뱃길로 5개월을 가면 도원국(都元國, Duyuan Kingdom)에 이르렀고, 다시 4개월을 가면 읍로몰국(邑盧沒國, Yilumo Kingdom)에 도달하였다. 여기에서 20일을 항해하면 심리국(諶離國, Chenli Kingdom)에 이른다. 이곳에 상륙하여 10여 일 가면 부감도로국(夫甘都盧國, Fugandulu Kingdom)이 있다. 여기에서 다시 배에 올라 2개월 정도 항해하면 황지국(黃支國, Huangzhi Kingdom)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의 풍습은 珠厓와 비슷하다. 그 州는 땅이 광대하고 인구가 많으며 특이한 물산이 많이 있다. 황지국은 漢武帝 이래 공물을 헌상하고 알현하였다. 黃門에 소속된 역관의 우두머리와 음모자들이 함께 바다에서 들어와 진주, 채색유리, 진기한 돌, 이국적인 물품 등을 팔고 황금과 비단 직물을 가지고 간다.……황지국에서 뱃길로 8개월을 가면 皮宗에 이른다. 그곳에서 배로 2개월을 가면 日南과 象林의 경계에 도달한다고 한다. 황지국의 남쪽에는 已程不國이 있는데 한의 역관과 사신이 이곳에서 돌아왔다(李慶新 2018:62-63).

그런데 『漢書』 지리지에 동남아시아 및 交趾郡으로의 항로를 설명하면서 番禺·습포가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珠崖郡과 儋耳郡이 元帝 시기에 폐지된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交趾郡을 거쳐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경로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즉 기존대로 廣州를 거쳐 내지로 들어가는 대신, 습포로 들어가 郁林郡 그리고 長沙國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동이 있기 전까지 郡治는 徐聞에 있었고 습포는 하나의 縣에 불과했다. 이러한 변동의 원인은 珠崖郡과 儋耳郡이 폐지되면서 이곳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자, 해남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섬의 주민들이 瓊州 해협 항로를 방해함에 따라 새로운 해양 교역의 중심지로서 습포가 선택되고 여기에서 내지로 들어가는 루트가 개척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김병준 2019).

이는 습포의 로마유리기 출토 고분이 대부분 前漢 말기와 後漢에 집중되는 것과는 일치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크다.

인도와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는 태국의 巷市유적인 카오삼케오(Khao Sam Kaeo)에서는 인도산 홍옥수와 마노의 원석 및 공방이 확인되어, 일부는 현지에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낙랑고분 출토 사자형 수식으로 볼 때 이 시기에 한반도가 해로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세계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송란 2005).

특히 이 시기 평양의 정백동138호분에서는 인도의 파타남(Pattanam)유적, 베트남 옥 예오(Óc Eo)유적, 중국 습포의 고분군 부장품과 같은 조합의 홍옥수제 다면옥, 호마노제 관옥, 鏤金小環連接球珠가 출토되어 인도, 베트남, 중국, 한반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교역망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圖7).



인도산 홍옥수인 마노 옥의 분포(2)

1. Afkernistan Tilla Tepe tomb No5 2. India Pattanam site 3. India Kodumenam site 4. India Arkerucedu site 5. Thailand Khao Sam Kaeo site 6. Thailand Ban Non Wat site 8. Vietnam Oc Eo 9. Vietnam Giong Ca Vo site 10. Vietnam Lai Nghi site 11. Vietnam Dong Son Site 12. China Lijashan tombs 13. China Lijashan tombs 14. China Hapu tombs 15. China Yangzhoushi Huchang 14 tomb 16a. Korea Jurngbakri No3 tomb 16b. Korea Seogamri No 9 tomb 16c. Korea Jurngbakri No138 tomb 15d. Korea Seogamri No 219 tomb 17a. Korea Goriham tombs 17b. Korea Suconndong site 17c. Korea Hakkokri No3 tomb 18. Korea Songlungdong site 19. Korea Gimhae Yangdongri No349 20. Japan Hirabaru tomb 21. Japan Tatetyuki tomb

<圖7> BC2-AD3世紀 紅玉髓 分布

평양의 王光墓에서는 玳瑁 등과 함께 方格規矩四神鏡이 2점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1점에는 ‘泰山作’이라는 명문이 있어 山東지역에서 제작된 것이 확인되었다(권오중 2000). 더욱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山東省 淄博市 前漢 齊王墓에서 파르티아산 銀器가 확인되었다. 이는 舍浦에서 山東半島를 경유하여 남해산과 인도, 동남아시아 문물이 이입된 것을 시사한다.

舍浦와 樂浪을 중심으로 한 교역은 중국 황제가 천하 질서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경비를 부담해 가며 주변 소국들의 조공을 재촉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상인들이 변경의 胡市 등지에서 교역함으로써 발전하였다. 즉 使行 교역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따라 扶南 등 동남아시아 여러 소국들이 이 사신단에 동승함으로써 국가 간 교역이 이루어졌다(김병준 2019).

더욱이 인도·동남아시아산 홍옥수주는 연천 삼곶리고분군, 광주 곤지암고분군, 완주 상운리고분군, 동해 송정리유적, 김해 양동리고분군에서 출토되어 낙랑을 통하여 한반도 중부와 남부가 해상 실크로드로 연결되었다(허진아 2018).

나아가 2세기 후엽의 각 지역 왕묘인 福岡縣 平原분구묘와 岡山縣 楯築분구묘에서 홍옥수주가 출토됨으로써 한반도 남부를 통하여 일본열도가 연결되었음이 밝혀졌다. 더욱이 같은 시기 동해에 면한 왕묘인 京都府 大風呂南분구묘 출토 동남아시아산 유리제 釧도 완주 갈동 출토품 등으로 볼 때 한반도를 경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니슈카(Kanishka, 2세기)왕 통치기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의 베그람(Begram)은 쿠산 왕조의 여름 수도로 번영한 곳으로 로마, 인도, 중국의 문물이 출토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의 베그람은 쿠산 왕국 카피샤성의 폐허였던 곳이다. 『漢書』에 기록된 罽賓國으로 西域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長安에서 12,200리 떨어져 있으며 都護에 복속하지 않고 戶口와 병사가 많으며 대국이다. …… 과거에 흉노가 대월지를 격파했을 때 대월지는 서쪽으로 가서 대하를 지배하였는데 이때 塞王이 남쪽으로 가서 罽賓을 지배하였다. 塞 종족은 나뉘어져 여러 나라를 만들었는데 疏勒에서 서북쪽으로 休循, 捐毒 등은 원래 塞種이었다. ……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드는데, 정면에 기마상이 배면에 사람의 얼굴이 있다. 封牛, 水牛, 象, 大狗, 沐猴, 孔爵, 珠璣, 珊瑚, 虎魄, 碧瑠璃 등이 생산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선적된 유리 제품과 이집트의 석제품, 로마의 브론즈와 금은기는 에리트라해를 통해 인도의 바르바리쿰(Barbaricum)과 바리가자(Barygaza)에 내려지고, 카불을 경유하여 이 베그람에 운반되었을 것이다. 베그람유적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브론즈상과 석고조각, 이집트의 석제용기, 인도의 상아세공, 알렉산드리아산 유리기 등이 출토되었다. 여기에서 발굴된 유리그릇 및 그 단편은 278점에 달하며, 그 품질은 매우 높다.

밀레피오리(millefiori)용기, 에나멜채색용기, 디아트레타배(diatreta杯), 절자문용기, 돌핀형용기, 리톤(rhyton)은 1세기부터 2세기 전반에 걸쳐 만들어진 로마유리기 가운데 최고급품이며 그 기술과 방법도 여러 방면의 고도한 숙련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밀레피오리완은 기원전부터 알렉산드리아의 유리공방에서 만들어져 온 전통적 기법의 제품이며, 에나멜채색용기는 당시의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유리원료의 소성에 의한 채화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용기의 표면과 유리의 파우더로 만든 에나멜 원료를 녹여 합쳐서 일체화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색이 바래지 않고 박락되지 않는 획기적인 기법으로 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다. 베그람 출토 예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전투를 그린 大盃, 디오니소스·헤르메스·셀레네의 이야기, 기를 그린 물병과 로마인 병사의 전투도를 그린 대배 등 모두 그리스·로마 세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채용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로마유리기 가운데 최고급의 기술을 구사하여 만든 디아트레타배(diatreta杯)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파로스(Paros)섬에 있었던 등대를 浮彫로 새겼다. 두께가 3cm 정도 두꺼운 동체의 외측을 깎아 만든 것으로, 인물이 타고 있는 1쌍의 범선과 2쌍의 보트가 해상에 떠 있으며 배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는 돌로 쌓은 높은 등대를 조각하였다. 등대 위에는 인물이 양손을 벌리고 서 있으며, 이 상은 파로스 등대 위에 서 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일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로스의 등대를 조각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유리공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릴리프 조각의 디아트레타배(diatreta杯)와는 다른 절자문의 대배나 소호 등도 알렉산드리아 특유의 제품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특이한 유리기 가운데 돌핀형유리기와 리톤(rhyton)이 많다. 그리스인들의 바다 애완동물이었던 돌고래가 쿠산 왕국의 사람들에게 각별하게 사랑받았던 것은 그 문화의 깊은 영향을 엿보게 한다(由水常雄(編) 1992a:174-176).

이 시기 新疆 和田지구 尼雅遺蹟N8遺構 출토 鴨形注子(Anas)는 로마유리기로서, 그 출토 위치뿐만 아니라 베그람(Begram) 출토 注子와의 관련성이 보이는 점에서 파미르를 넘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입된 것이다.

黑海에 면한 우크라이나에는 BC 2~AD 3세기에 걸친 사르마타이(Sarmatai)의 귀족 묘군인 우스트알마(Ust-Alma)고분군이 있으며, 로마유리기와 함께 漢代의 漆箱이 출토되었다.

1세기의 匈奴墓인 몽골의 골모드(Gol-mod)Ⅱ 고분군에서는 로마유리기가 1호분에서 2점, 1호분30호묘 배장묘에서 1점 출토되었다. 3점은 모두 練理文으로 장식되었으며 가운데 2점은 縱稜文盃이다. 같은 형식의 완은 같은 시기 러시아 크라스노다르(Krasnodar)지방의 고르지피아(Gorgippia)쿠르간에서도 출토되었다.

黑海 연안에 로마유리기가 집중 이입되고 漢의 漆器가 이곳에 도달한 것에서 사르마타이(Sarmatai)와 匈奴의 교역에 의해 초원로를 통하여 유리기가 이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4세기 이후 초원로를 통하여 로마유리기가 이입되는 유리의 길이 1세기에 이미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V. 4~6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226년 이란 고원을 지배하였던 파르티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크테시폰(Ctesipon)에 도읍을 정한 사산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의 패자로 새롭게 擡頭한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秦·漢과 隋·唐 사이의 분열의 시대인 위진남북조시대가 도래한다.

이 시기 沙漠路는 사산조 페르시아 지배 영역을 통과해야 했기에 양국 간에 무역과 왕래가 성행하였다. 더욱이 페르시아는 인더스강 유역에 진출하여 종래 로마를 대신하여 인도양의 제해권과 무역을 장악한다.

페르시아는 南朝 梁 武帝 中大通 2년(530)과 大通 元年(535) 사절을 건강에 파견하여 佛牙 등을 전하였다. 梁 職貢圖에도 波斯國使가 보인다. 페르시아로부터의 使節은 해로를 통하여 인도양을 거쳐 중국의 강남에 도달하였다(羅宗眞 2005:222).

페르시아는 중국의 養蠶, 製絲 기술을 입수하기 위해 사절을 北魏의 平城·洛陽, 西魏의 長安에 파견하였으며, 북위도 페르시아로 사절을 보냈다.

당시 페르시아의 활동을 보여 주는 것은 그 화폐인 銀貨이다. 이는 페르시아 은화는 沙漠路를 따라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Karatepe)유적, 新疆 烏恰縣窖藏, 新疆 吐魯番高昌古城, 陝西省 西安市 何家村窖藏, 寧夏回族自治區 固原 隋史勿墓, 河北省 定縣 塔基舍利函 등에서 출토되었다.

해로에서는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를 비롯하여, 태국의 나콘 시탐마랏(Nakhon Si Thammarat)에서 5세기 후반 페로즈 1세(Peroz I, 459~484)의 페르시아 銀貨가 확인(辛島昇 2000:24)되었으며, 廣東省 遂溪縣 南朝窖藏에서 20점, 廣東省 英德縣 浚洸 南朝墓에서 4점, 曲江縣 南華寺 南朝墓에서 6점 이상이 출토되었다.

특히 遂溪縣 南朝窖藏에서는 페르시아 銀貨 20매를 비롯하여 명문이 있는 페르시아계 十二曲臺附銀盃이 출토되었다. 이 명문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교외에서 출토된 은제 용기의 아람어 명문과 일치한다고 한다. 아람 문자는 페르시아에서는 소그디아나와 호라산지방에서 사용되었다(李慶新 2018:70-74).

英德과 曲江은 中原과 江南을 연결하는 수로상에 위치한다. 그리고 遂溪縣은 통킹만에 인접하며 海南島를 통과하는 海路의 요충이다. 遂溪縣 南朝窖藏의 銀盃과 20점의 페르시아 銀貨를 통해 볼 때 이미 漢代 말에 交趾郡에 정착한 소그드인이 嶺南지역에서 페르시아와 남조의 교역에 종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산조 페르시아에서는 유리를 냉각시킨 후 돌과 같은 상태에서 가공하여 유리기를 제작하였다. 특히 표면에 균일한 원 문양을 커트하거나 돌출시킨 장식유리기가 활발히 제작되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유리는 실크로드를 통한 원격지 교역에 의해 유라시아 각지에 전해져 고급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北朝의 경우 新疆 尉犁縣 營盤墓地M9號墓, 寧夏回族自治區 李賢墓 출토품 등으로 볼 때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가 沙漠路를 경유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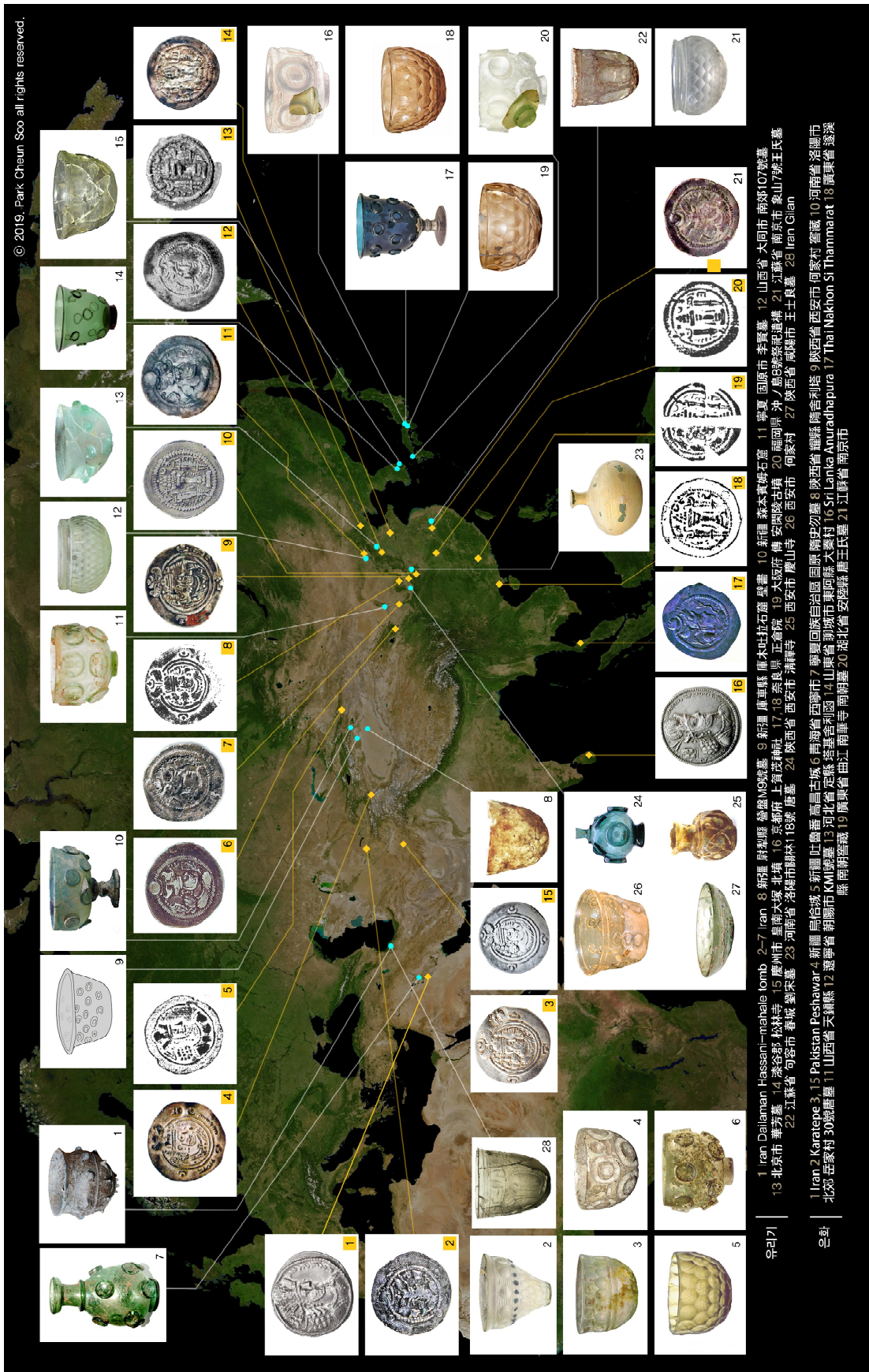
北周의 天和 4年(569) 沒한 寧夏回族自治區 固原縣의 原州刺史 李賢墓에서는 銀鍍

金胡瓶, 靑金石象嵌指輪, 유리기 등의 페르시아 문물이 출토되었다. 銀鍍金胡瓶은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된 그리스 신화의 세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에프탈(Ephtalite)제로 보고 있다(이송란 2016:318-319). 유리기는 동부를 2단으로 나누어 상단 8개, 하단 6개, 저부에 1개의 돌출 원문을 切削하여 시문한 것으로, 커트 기법과 기형으로 볼 때 전형적인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이다.

5세기 전반까지 북위의 수도였던 山西省 平城(大同)의 남쪽에 위치하는 大同南郊北魏古墳群 가운데 M107호묘는 중형묘에 속하며 유리기와 도금인물문은기 등이 출토되었다. 유리기는 동부를 4단으로 나누어 종장타원형문을 구갑상으로 배치하고, 저부는 중앙의 대형 원문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동일한 6개의 원문을 시문한 것으로, 切子 기법, 기형으로 볼 때 전형적인 사산조 페르시아산으로 판명되었다. 이 고분에서도 에프탈제로 보이는 도금은제 인물문배(이송란 2016:320-321)가 공반되었으며, M109호묘에서도 출토되었다. 大同市 북위 封和突墓(504)에서는 전형적인 사산조 은기인 狩獵文盤이 부장되었다.

北魏 太和 5년(481) 建立된 河北省 定縣 華塔址에서는 瑠璃瓶, 瑠璃鉢, 페르시아 銀貨, 珊瑚, 珍珠, 金製垂飾附耳飾 등이 출토되었다. 銀貨는 야즈데게르드 2세(Yazdegerd II, 438~457) 5枚, 야즈데게르드 2세식 에프탈(Ephtalite)貨 1枚, 페로즈 1세(Peroz I, 459~484) 37枚로 構成되어 있다. 7점의 琉璃器는 北魏에서 페르시아의 영향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沙漠路를 통한 사산조 페르시아 문물의 수입 주체가 北魏임을 알 수 있다(圖8).



〈圖8〉 4-6世紀 페르시아琉璃器와 銀貨 分布

한편 江蘇省 南京市 象山7號王氏墓, 句容市 春城 宋墓, 江蘇省 南京市 北個山 출토 사산조 페르시아산 切子文완은 해로상의 사산조 은화 출토 예와 비교해 볼 때, 앞서 언급한 海路를 통하여 南朝로 이입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廣東省 肇慶市 坪石崗東晉墓, 湖北省 鄂城六朝墓, 南京市 富貴山M4號墓 출토품과 같은 로마 유리기가 이입된다.

로마유리기는 東晉 시기까지 이입되며 南朝 시기에는 페르시아유리기가 이입된다. 이는 遂溪縣 南朝窖藏에서 출토된 페르시아 은화의 구성이 샤푸르 3세(Shapur III, 383~388) 3枚, 야즈데게르드 2세(Yazdegerd II, 438~457) 5枚, 페로즈 1세(Peroz I, 459~484)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梁 武帝 天監 2년(503) 中天竺 王 屈多가 파견한 사절이 建康에 도착하여 瑠璃唾壺, 刻香 등을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5세기 신라의 積石木槨墳에는 화려한 금관을 비롯한 황금 장신구와 로마유리기가 다수 부장되었다.

초원로상의 통나무로 목곽을 이중 조립하고 그 위에 적석한 파지리크고분군 등의 積石木槨墳은 경주고분의 구조와 유사하여, 신라 墓制의 기원이 유라시아 초원 지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積石木槨墳과 黃金 文化에 대해서는 騎馬民族의 移住로 보는 견해와 自生的인 發生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신라의 積石木槨墳에 대하여 313년 樂浪 멸망 이후 高句麗를 통하여 유라시아 騎馬民族 文化와 접하게 된 新羅의 選擇的인 受容의 결과로 본다. 황금 제품과 로마유리기도 이와 함께 수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같은 시기 南朝와 교섭한 百濟와는 다른 선택의 결과이다.

新羅의 陵墓域인 大陵苑古墳群에서는 金冠이 6점 출토되었다. 新羅의 金冠은 樹枝형과 鹿角형 입식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서봉총에서는 관 중앙의 나뭇가지 위에 3마리의 새가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이는 聖樹, 聖獸, 聖鳥 신앙이 결합된 것으로 북방 기마민족의 신앙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러시아 알타이 산록에 위치하는 BC 5~BC 4세기에 축조된 파지리크(Pazyryk)고분군의 5호분에서는 4.5×6.5m의 펠트제 벽걸이가 출토되었다. 이 벽걸이에는 의자에 앉은 인물과 말을 탄 인물이 마주 보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의자에 앉은 인물은 긴 드레스를 입고 수염이 없어 여성으로 추측되며, 손에 든 나무에는 튕립형의 꽃과 석류와 같은 과실, 끝이 뾰족한 창 모양의 잎이 붙어 있다. 서아시아 미술에서는 이와 같은 나무는 生命樹 또는 세계수, 宇宙樹이며, 그것을 들고 옥좌에 앉아 있는 인물은 女神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말을 타고 있는 인물은 곱슬머리에 높은 코, 긴 수염을 기른 얼굴에 목에는 물방울 문양의 스카프를 두르고 군복 같은 상의와 폭이 좁은 바지를 입고 있다. 허리띠에는 스키타이형의 활과 화살을 넣은 화살통을 걸치고 있다. 女神의 앞에 선 인물은 지상의 王으로, 이 벽걸이는 여신이 왕에게 권력을 주는 王權神授의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원 기마민족의 聖樹 신앙이 페르시아의 王權神授說과 결합하여 聖樹가 왕권의 상징으로 발전한 것이다. 生命樹를



가진 여신이 지상의 왕에게 왕권을 수여하는 신앙을 가진 세력은 이 고분군을 축조한 흉노가 발흥하기 이전 서역 일대까지 지배하였으며 『史記』에도 보이는 月氏로 보고 있다(林俊雄 2018:49-51).

같은 시기 카자흐스탄의 天山 산록에 위치한 이식(Issyk) 쿠르간에서는 4천여 점의 금제 유물과 인골이 출토되었다. 피장자는 금으로 수놓은 예복과 금제 조각 및 장식 판으로 꾸민 고깔모자를 착용한 채로 발견되었다. 고깔모자는 이란의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궁전 벽화와 비슈툰(Bisotun) 비문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 축조 세력은 천산 산록을 중심으로 거주한 사카(Saka)족이다.

그런데 이 모자 측면에 붙인 금제 장식이 山, 樹, 鳥로서 새가 산의 나무 위에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신라 서봉총 금관의 새가 앉아 있는 장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돈강 하구 노보체르카스크(Novocherkassk)의 호흐라치(Khokhlach) 쿠르간 출토 금제관에는 帶冠 위의 聖樹를 중심으로 鹿이 마주 보는 意匠의 입식이 있다. 이 금관은 帶冠의 정면 중앙에 수정으로 조각한 그리스 여성상을 배치하고 그 조각상의 머리 위와 좌우에는 횡타원형의 석류석을 감입하였으며, 그 주위를 금제 猛禽상과 횡타원형의 각종 색유리판으로 장식하였다. 이 관은 파손되었으나 원래는 여성의 머리 위 가지에 보요가 달린 높은 聖樹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같은 높이의 6개 聖樹를 배치하였으며, 그 사이 관의 정면에는 마주 보는 사슴 4마리를 장식한 것으로 복원된다. 좌우에는 염소 2마리, 새 4마리를 배치하였다. 이 관은 1~2세기 사르마타이(Sarmatai)의 것으로 보고 있다.

內蒙古 包頭市 送茂旗 西河子 출토 慕容鮮卑의 금제 步搖冠은 鹿과 그 角을 형상화한 것으로, 鹿角과 步搖는 신라 금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볼 때 신라 금관의 聖樹, 聖獸, 聖鳥는 초원 기마민족의 王權神授 신앙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신라의 금제 冠을 비롯하여 頸飾, 帶飾, 腕飾, 飾履 등 신체를 황금으로 장식하여 매장하는 葬制는 中原이 아닌 카자흐스탄 사카(Saka)의 이식(Issyk) 쿠르간 등에 보이며, 신체를 황금으로 장식하는 것은 초원 기마민족의 전통적인 습속인 점에서 주목된다.

문무왕비에 신라 왕계를 匈奴 왕자인 金日磾의 후손으로 칭하는 것이 이와 연관되어 흥미롭다. 또 西安에서 발견된 9세기 大唐故金氏夫人墓銘에도 이와 관련한 기사가 보여 오랫동안 신라인들의 시조 전승으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 왕실이 왕계를 신성화하기 위해 기마민족의 후예임을 자칭하고 있는 것으로, 4세기에 도입된 그 문화의 도입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세기에는 로마유리기가 신라에 다수 이입된다. 유리기는 경주시 鷄林路14호묘 출토 黃金寶劍과 신라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網目文杯가 카자흐스탄 북부의 초원 지대인 보로보예(Borovoe) 호수 주변과 카라 아가치(Kara-agachi)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시리아 일대에서 제작되어 黑海 沿岸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黑海 沿岸 케르치(Kerch)지역 등에서 斑點文 琉璃盃, 鳳首瓶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점에서 방증된다.

신라고분에서는 網目文杯가 皇南大塚南墳, 瑞鳳塚에서 출토되었다. 이 網目文杯가 독일 쾰른(Koln), 카자흐스탄 카라 아가치(Kara-agachi)고분 출토품, 키르기스스탄 잘-아릭(Djal-Aryk)고분 출토품, 중국 河北省 景縣의 祖氏墓에서 보이는 점에서 초원로를 경유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遼寧省 北票縣 北燕의 王族인 馮素弗墓에서 로마유리기 5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北燕의 建國者인 馮跋이 柔然과 通婚하고 契丹, 庫莫奚를 복속시키고 交易한 것(堀敏一 2008:194)으로 볼 때, 馮素弗墓의 로마유리기는 몽골을 경유하는 草原路를 통하여 이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라고분 출토 로마유리기는 초원로를 통하여 이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이입경로와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필자는 기원 원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黑海 연안에 로마유리기가 집중 이입되고 사르마타이(Sarmatai)와 흉노의 교섭에 의해 로마유리기가 몽골에 이입된 것으로 볼 때 4~5세기에도 역시 黑海 연안을 경유한 것으로 본다.

『後漢書』 西域傳에는 123년경 北匈奴의 呼衍王이 항상 蒲類(바르쿨), 秦海(흑해) 사이를 전전하며 서역 여러 나라들을 제압하고 약탈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2세기 전반 북흉노 세력은 天山 북방에서 카자흐스탄 초원에 걸쳐 넓게 분포하였다. 북흉노가 최종적으로 일리강 계곡을 떠나 黑海 방면으로 이주한 것은 2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훈(Hun)족은 북흉노에 기원하였으며 375년경부터 알란족과 고트족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5세기에는 아틸라(Attila)의 지휘하에 동로마는 물론 서로마 제국까지 크게 위협했다(金浩東 2016:159). 신라에 로마유리기가 이입되는 4~5세기는 훈족이 黑海 연안의 동서지역을 장악한 시기이다.

후술하는 카자흐스탄의 카라 아가치(Kara-Agachi) 쿠르간에서도 로마유리기와 함께 계림로14호묘 출토 황금보검과 동일한 석류석 嵌入 및 鑲金 기법으로 제작한 은제 首輪장식이 공반된 점이 매우 주목된다.

계림로14호묘 출토 황금보검에는 금, 은, 동을 사용하여 구획하고 그 안에 보석과 유리를 감입하는 클루아조네(cloisonné)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 기법은 이집트에서 발달해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계림로14호묘 출토품에 보이는 석류석과 같은 붉은색 보석을 감입하는 이 기법은 동로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윤상덕 2010:245). 이와 함께 계림로14호묘 출토 보검에는 외연과 문양의 주위를 장식하는 鑲金 기법이 보인다.

필자는 계림로14호묘 출토 보검의 누금 기법이 흑해 연안의 그리스계 공인에 의해 제작된 BC 4~AD 5세기 스키타이 금제품에 보이는 것에서, 계림로14호묘 출토 황금보검을 비롯한 금제품은 훈(Hun)족이 兩者를 결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금제품은 서쪽으로는 헝가리, 루마니아를 비롯한 黑海 연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동쪽으로는 天山산맥 일대를 거쳐 신라에 이입된 것이다.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제 누금 상감 腕輪도 보석을 상감하고 그 주위를 누금으로 두르고, 여백을 삼각형의 누

금으로 장식한 점에서 훈족의 금공 기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본다.

카자흐스탄의 카라 아가치(Kara-Agachi) 쿠르간 출토 유리杯는 皇南大塚 南墳 출토품과 同工品으로 판단된다(圖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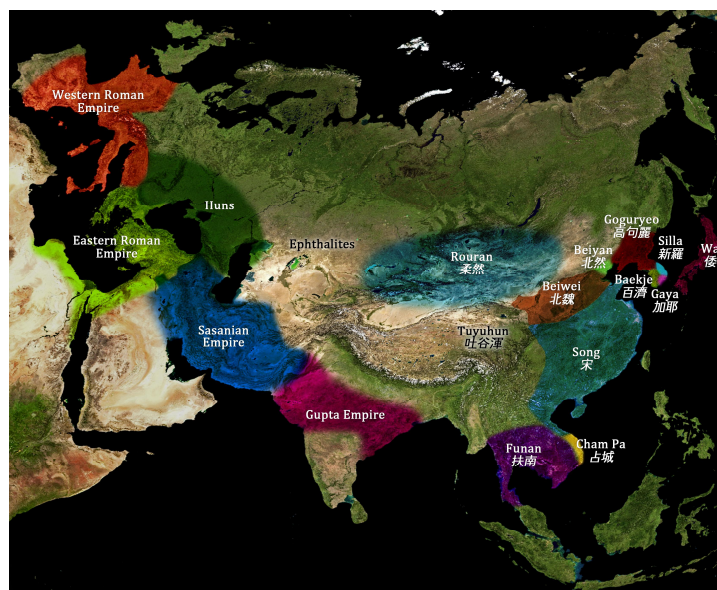
<圖9> 5世紀 前後 草原路上的 匈(Hun)族 金工品와 로마琉璃器의 分布

이 로마유리기는 淡綠色으로 器壁이 얇고, 口脣은 紺色의 琉璃帶를 덧붙였다. 상위에는 口脣과 같은 色調의 굵은 띠 1줄을 波狀으로 붙여 돌렸고, 하위에는 杯身과 同一 色調의 琉璃帶 3줄을 波狀으로 교차하게 돌려 붙여 網目文으로 장식하였으며, 저부는 圓形의 속이 찬 유리봉을 원형으로 말아 붙여 만들었다. 이 고분 출토품은 臺脚이 부착된 점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皇南大塚 南墳 출토품과 흡사하다. 臺脚은 天馬塚, 金冠塚 출토품과 형태가 같다. 게다가 카라 아가치(Kara-Agachi)고분의 북방에 위치하는 보로보에(Borovoe) 호수 주변에서 慶州市 鷄林路14號墓 黃金寶劍과 石榴石 嵌入 및 樓金 技法이 동일한 黃金寶劍이 출토되었다.

이 시기 중원의 皇帝墓와 貴族墓에서도 多數의 유리기를 副葬한 예가 없는데, 馮素弗墓에서 5점이 副葬된 것은 新羅古墳의 副葬樣相과 매우 類似하다. 그래서 新羅古墳의 유리기 부장은 積石木槨墳, 金製裝身具와 같이 北方 游牧民族들의 習俗을 繼承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新羅의 로마유리기는 北燕-高句麗를 통해 이입된 것으로 본다. 이는 김해 大成洞91호묘에서 유리기가 前燕의 馬具와 靑銅容器가 共伴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 이입경로는 黑海를 경유하여 키르기스스탄 잘-아릭(Djal-Aryk)고분 출토품과 河北省 景縣 祖氏墓로 연결되는 天山北路를 통과하는 經路와 함께 黑海-카자흐스탄의 카라 아가치(Kara-Agachi) 훈족묘-몽골 초원-遼寧省 北票縣 馮素弗墓로 연결되는 초원로가 상정된다. 이 가운데 로마유리기가 몽골 골모드(Gol-mod)III 匈奴墓로 볼 때 이미 1세기에 초원로를 경유한 점, 馮素弗墓와 부장 양상이 유사하고 그 출토품이 柔然을 경유한 것으로 볼 때 후자가 더 盛行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魏書』 契丹傳에 479년 고구려와 柔然의 聯合 기사가 보이는 것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신라왕릉에 부장된 로마유리기는 훈(Hun)-柔然-高句麗를 통하여 移入된 것으로 판단된다(圖10)



<圖10> 5世紀 前後 유라시아의 훈(Hun)族과 周邊諸國

다음으로 日本列島 출토 로마유리기의 移入經路와 歷史的 背景에 대해 살펴보겠다. 5세기 중엽에 조영된 奈良縣 新澤126號墳에서는 切子文盃과 紺色皿이 금제 장신구와 함께 출토되었다. 金製 冠飾, 垂飾附耳飾, 指輪은 같은 형식이 慶州의 皇南大塚에서도 출토되었다. 당시 일본열도의 소형묘에서 이러한 화려한 문물이 부장된 예를 찾아 볼 수 없고, 유리기를 2점 부장한 점에서 126호분의 墓主는 신라로부터의 王族級 移住民으로 파악된다.

같은 시기 일본열도의 최대 규모 왕릉인 大阪府 大仙(傳仁德陵)고분 전방부에서는 金裝甲冑와 함께 白色皿, 紺色壺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 출토 유리기도 신라를 경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新羅産 裝身具가 공반된 新澤126號墳과 색조는 다르나 기종 구성이 동일하며, 이 시기 倭와 마찬가지로 南朝에 遣使한 百濟에서는 유리기를 찾아볼 수 없으나, 新羅에서는 4세기 후엽 경주시 월성로가13호묘에서 이미 출현하였고,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경주시 황남대총 남분에는 다수의 유리기가 부장되었기 때문이다.

이 고분 출토 金裝 甲冑도 步搖 등의 제작 기법으로 볼 때 신라공인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유리기가 발견된 전방부는 후원부의 주피장자와 관련된 배총인 점에서 주피장자 공간인 후원부에는 다수의 유리기가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사례로 대릉원고분군에서 왕릉인 황남대총남분에서는 8점이 부장되고 배총에서는 2점이 부장된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 古市古墳群의 安閑陵古墳에서 切子文盃이 출토된 점에서 5세기 日本列島의 王陵인 百舌鳥, 古市古墳群에 다수의 신라를 경유한 유리기가 副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세기 전반 倭가 가장 필요했던 金製品, 鐵製品과 로마유리기를 포함한 서역 문물을 보유한 가장 가까운 國은 신라였다. 『日本書紀』 允恭紀에는 가야, 백제와의 교섭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고 新羅와의 交涉記事만이 보여 매우 주목된다. 즉 그 3년조 新羅로의 遣使, 新羅로부터의 醫師 파견, 42년조 신라로부터 弔問團 파견 기사는 당시 新羅와 倭의 상당히 友好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大阪府 大仙(傳仁德陵)고분의 피장자는 그 연대가 5세기 중엽이며 신라를 경유한 로마유리기가 부장된 점, 문헌사료로 볼 때 仁德으로 볼 수 없고 允恭으로 비정된다. 고고자료와 문헌사료가 일치하는 일본의 왕릉인 大仙고분에서 신라를 경유한 유리기가 출토된 것은 신라와 왜 왕권 간의 직접적인 정치적 교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돌연 경주시 皇南大塚 北墳에 구연부를 마연하여 편평하게 하고 기면과 바닥 전체에 걸쳐 원문을 切削하여 시문한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인 切子文盃 1점이 부장되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 유리기는 柔然을 경유한 로마유리기와 달리 北魏를 통하여 이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高句麗 長壽王은 北魏와 매우 밀접한 관계였으며 北魏의 首都였던 大同에서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가 다수 출토되는 점으로 볼 때 兩者의 교섭으로 이입된 것으로 본다.

이렇듯 皇南大塚 北墳 출토 切子文盃은 5세기 후엽 전후 유라시아 정세를 반영한다. 나아가 신라에 이입된 유리기의 產地와 經路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여 준다.

필자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신라에 로마유리기 대신 페르시아유리기가 이입되는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기 말~6세기 초에도 대릉원고분군에는 로마유리기가 부장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는 것은 5세기 중엽에 축조된 합천군 옥전 M1호분 출토 반점문 유리완이다. 이 고분 출토 완은 5세기 말로 편년되는 경주 금령총 출토 2점과 동일한 형식이다. 그래서 합천군 옥전M1호분의 피장자가 이를 입수한 5세기 전엽에는 반점문완이 이미 신라에 이입되어 이후 5세기 후엽까지 전세된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에 로마유리기가 집중 이입된 것은 5세기 전반이며, 이후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가 이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5세기 후반 돌연 로마유리기의 수입이 단절되고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가 이를 대신하여 이입되는데, 이는 훈(Hun) 제국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453년 훈 제국의 왕 아틸라(Attila)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훈(Hun) 제국이 급속히 붕괴하면서 로마와 連繫된 교역망도 쇠퇴한다. 이후 동로마 제국에서도 로마유리기가 지속적으로 제작되지만 신라에는 이입되지 않는데, 이는 훈(Hun) 제국이 붕괴하고 이를 대신해 사산조 페르시아가 유라시아 실크로드에서 擡頭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6세기 전반 신라고분에서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이 시기 왕묘를 포함한 왕족묘가 발굴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그런데 경주시 식리총, 인왕동C1호분, 쪽샘41호분 등 신라고분에 모자이크로 장식한 琉璃珠가 부장되어 주목된다. 이 琉璃珠는 단면이 동심원 모자이크 문양인 색조가 다른 유리봉을 잘라 바탕에 붙인 것으로, 이란 북부 카스피해 연안 출토품에 보이는 사산조 페르시아 琉璃珠(道明三保子 1985:183-184)의 계통이다.

식리총에는 連珠龜甲文 내에 雙鳥를 배치한 문양을 가진 飾履가 부장되었다. 龜甲文이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의 주된 문양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페르시아 문양으로 보스턴미술관 소장 北魏 석조 棺床의 것과 유사하다. 이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소그드인들에 의해 북위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페르시아 문화가 신라에 도입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필자는 6세기 신라에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가 이입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일본열도 출토품에 주목하여 이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6세기 후반 福岡縣 오키노시마(沖の島)7·8호유구에서는 金銅製 新羅産 馬具가 다수 확인된다. 특히 8호유구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가 출토되었다. 종래 일본 연구자들은 중국과의 직접 교섭에 이입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키노시마는 신라와 倭 간의 항로에 위치하고, 공반된 유물이 이 유리기 외에는 모두 신라산인 점에서 신라를 경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리기가 北周 李賢夫婦墓 출토품과 유사한 점, 이 시기 왜는 중국에 가지 못하였으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新羅가 北朝에 遣使한 점으로 볼 때 新羅와 北朝의 直接交渉에 의해 移入된 것으로 본다.

같은 시기 奈良縣 후지노키(藤ノ木)고분의 금동제 鞍은 그 구조적 특징과 공반 마

구로 볼 때 신라산이다. 이 鞍의 문양은 龜甲文 내에 象, 鳳凰, 龍 등의 문양을 배치하고 있으며, 杏葉에는 連珠文 내에 雙鳥를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양은 식리총 출토 飾履의 문양과 유사하며 그 기원은 페르시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는 아직 신라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5세기 후엽의 皇南大塚 北墳에서 이미 사산조 페르시아 切子文罍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6세기에 이입된 유리기가 慶州에서 출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이 北朝와 南朝에 견사하였다. 『三國史記』 眞興王 25년(564) 北齊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더욱이 진흥왕 26년(565) 北齊의 武成帝가 詔書를 내려, 왕을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으로 삼았다.

『三國史記』 眞興王 26년(565) 陳에서 사신 劉思와 승려 明觀을 통하여 불교 경론 1,700여 권을 보내왔다. 진흥왕 28년(567), 31년(600), 32년(602) 陳에 遣使하였으며, 眞平王 7년(585)에는 陳에 승려를 파견하였다.

이처럼 6세기 후반 일본열도에 신라산, 또는 신라를 경유한 문물이 증가하는 역사적 배경으로는 553년 新羅가 漢江 下流域을 確保함으로써 신라가 대중국 교섭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옛 가야지역에 해당하는 남해안 동반부를 확보함으로써 百濟와 倭의 교통이 어려워진 것을 들 수 있다. 즉, 倭가 百濟로부터 전수받았던 중국의 선진 문물을 신라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다음은 京都府 上賀茂神社 출토품의 이입경로와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上賀茂神社 출토품은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인 점에서 일본열도로의 이입 시기는 福岡縣 오키노시마(沖の島)7·8호유구로 볼 때 6세기 후반 이후로 추정된다. 上賀茂神社는 賀茂氏의 氏神을 제사 지내는 神社로서 문헌에는 文武 2년(698) 이래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賀茂씨와 신라로부터의 이주민으로 추정되는 秦氏가 婚姻관계라는 점이다. 秦氏는 京都府 廣隆寺가 조영된 太秦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였으며, 『日本書紀』 推古 31년(623) 新羅로부터 이입된 불상을 廣隆寺에 안치한 이주민 씨족이다. 불상은 木造 半跏思惟像으로 경북대학교 소장인 慶尙北道 奉化郡 北枝里 출토 石造 半跏思惟像과 유사하므로 新羅 佛像이 분명하다. 그래서 上賀茂神社 출토 페르시아유리기는 7세기 전반 秦氏와 신라의 교섭을 통하여 도입되었으며, 이후 賀茂氏에게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朴天秀 2016).

北枝里佛, 國寶83號佛, 廣隆寺佛은 복식 등으로 볼 때 모두 山東省 靑州市 龍興寺址 출토 北齊佛의 계통으로 같은 양식이다(大西修也 2002:137-154).

그래서 사산조 유리기가 북제로부터 신라에 이입되고 불상과 같이 일본에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7세기 후반 漆谷郡 松林寺 五層塼塔 舍利莊嚴具내에서 페르시아 瑠璃杯가 출토되었다. 이舍利器는 蓮花로 裝飾한 基壇 위에 활짝 핀 蓮峯으로 장식한 金銅製 座臺를 설치하고 舍利가 奉安된 작은 瑠璃瓶을 넣은 圓環文瑠璃杯를 安置한 구조이다. 그 위는 四柱로 받치고 透彫와 垂下式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지붕을 올린 것으로, 須彌座 형태의 基壇部와 四方의 柱, 二重天蓋로 이루어진 寶帳의 형태를 띤 특수한 구

조이다.

松林寺는 新羅 五岳의 하나인 八公山の 西口에 입지하고 寺域, 塼塔의 규모와 舍利函, 瑠璃杯로 볼 때 왕실과 관련된 寺刹로 파악된다.

이 瑠璃杯는 熔着장식에 의한 指輪狀의 圓環文이 시문된 것이 특징이다. 이 圓環文은 陝西省 西安市 何家村窖藏 출토품과 奈良縣 正倉院 소장품에 보인다. 이러한 圓環文杯와 관련된 琉璃器는 新疆 庫木吐拉石窟의 벽화에 묘사되어 있다. 인접한 4세기부터 開鑿이 시작되어 9세기까지 造像 활동이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는 森木賽姆石窟에서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반원형 杯身 중간에 2열로 교차되게 원문으로 장식하였는데, 단추형의 소형 원판을 별도로 제작한 후 부착한 것이다. 이란 출토품 등에 유례가 보인다.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산 圓環文杯는 沙漠路를 통하여 長安에 이입된 후, 新羅를 經由하여 日本으로 이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漆谷郡 松林寺 五層塼塔 金동제 舍利函과 유사한 형식이 中國 敦煌 莫古窟 第148窟의 涅槃經 變相圖에 보이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隋 開皇 9년(589) 建立된 陝西省 西安市 清禪寺塔 地宮에서는 突出切子文瑠璃瓶 1점, 瑠璃·瑪瑙製雙六駒 各 12점과 白瓷 1점, 花形金製裝板 3점이 출토되었다. 瑠璃瓶은 球形의 胴體에 小形 口頸部를 切出하고 口緣을 扁平하게 加工하였다. 胴部の 中央에 突出圓文 4개를, 그 상위에 逆三角形文을 切出하고 같은 圓文으로 低部를 製作하였다. 이 瓶은 제작 기법과 문양으로 볼 때 전형적인 페르시아의 切子文琉璃器로서 舍利瓶으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共伴된 瑠璃, 瑪瑙製雙六駒도 圓錐形으로 그 類例가 페르시아에서 確認되어 琉璃器와 함께 이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隋 仁壽 연간(601~604)에는 전국에 걸쳐 사리탑이 건립되었다. 仁壽 4년에 조영된 陝西省 耀縣 神德寺塔 地宮에서는 瑠璃瓶 1점과 페르시아 은화 3매, 五銖錢 등이 출토되었다. 瑠璃瓶은 기형과 색조로 볼 때 중국제이며, 은화는 페로즈 1세(Peroz I, 457~484), 호스로 1세(Khosroew I, 531~578)의 것이다.

陝西省 藍田縣 蔡拐村 출토 舍利石函에는 측면에 舍利迎賓圖·分舍利圖·舍利奉送圖·舍利神異圖가 浮彫되어 있으며, 隋 文帝가 仁壽 연간에 舍利를 배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分舍利圖에 수 문제로부터 사리를 분배받는 鳥羽冠을 쓴 인물은 고구려 또는 신라인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廣弘明集』 卷17에 高句麗·百濟·新羅에도 사리 1菓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 7세기 이후 隋代 사리장엄구의 양식이 삼국에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周昞美 2003:142-147).

이 시기 沙漠路와 해로를 통하여 사산조 페르시아의 문화가 중국에 이입된다. 한편 4~5세기 전반 신라에는 유라시아 기마민족에 기원하는 적석목곽분과 황금 문화가 이입되는 차이점이 보인다. 이와 함께 초원로를 통하여 로마유리기와 훈족의 금제품이 이입된다.

신라는 5세기 후반 북위를 경유하여 사산조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고구려를 통하여 유라시아 초원로의 기마민족 문화를 수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



라시아의 문명교류가 다원적임을 보여 준다.

## VI. 7~9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618년 동아시아에서는 唐이 건국되며, 서아시아에서는 651년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661년 우마이야(Umayya)朝가 성립하여 이슬람 세계가 형성된다.

新疆 烏恰의 구시가지에서 9km 떨어진 해발 90m의 岩山 인근에서 도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積石하 바위틈에서 918매의 銀貨가 15매의 金錠과 함께 出土되었다.

銀貨는 호스로 2세(Khosroew II, 591~628)의 546매를 비롯한 사산조 은화 565매, 사산조 은화를 모방한 아랍 사산조 은화 141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金錠은 신라의 소형 철정과 같이 좌우 비대칭이며 중량은 100g 전후이다.

매납시기는 銀貨의 연대로 볼 때 7세기 후반이며 그 주체는 소그드인일 가능성이 있다.

사산조 銀貨는 沙漠路를 따라 新疆 吐魯番의 高昌古城, 陝西省 西安市 何家村窖藏, 寧夏回族自治區 固原 隋史勿墓 등에서 보이는 것에서 7세기까지 이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沙漠路를 통해 페르시아와의 교역이 지속된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7세기 이후 사산조 페르시아가 쇠퇴하고 새로이 이슬람 세력이 대두한다. 이 시기에는 이슬람유리기가 유라시아 전역으로 유통된다.

이슬람유리기는 7세기 이래 이집트와 시리아 등 지중해 주변과 이라크, 이란 등 구 페르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로마와 사산조의 유리공예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고도로 발달한 이슬람 화학과 유리 제작 기법과 결합되어 9세기경에 독자적인 양식을 발달시켰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고,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서로마 제국 영내에 있던 유리 가마는 쇠퇴한다. 한편 동방에 있었던 아프리카 북안과 지중해 연안의 유리 산지는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지 않아 의연하게 옛날 그대로의 활동을 계속했다. 또한 이 지방은 당시 서아시아 대부분을 세력권에 포함시킨 사산조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간 적도 없고,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평온한 상업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이 지방에서 만들어진 유리기는 그 기법과 기종, 기형 면에서 다양성을 늘려갔으며, 로마유리기와 페르시아유리기의 전통을 토대로 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由水常雄 1992a:190).

7~8세기는 북쪽의 알레포(Aleppo)부터 남쪽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걸쳐, 로마시대 지중해 연안의 번영한 유리 산지에서 로마유리기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지방 유리기의 산지에서는 원문커트 등을 시문한 페르시아유리기의 커트 기법이 계승되었다.

우마이야(Umayya, 661~750)朝의 유리공예는 다마스쿠스(Damascus)를 중심으로 커트와 틀불기문양의 유리기를 만들어 로마유리기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켰다.

唐代的 杜佑가 저술한 『通典』 193권에 인용된 杜環의 『經行記』에는 “拂菻國에서 서쪽 산을 사이에 두고 수십 리에 苫國이 있으며,…… 유리의 뛰어난 천하에 비할 바 없다.”라는 기록이 있다. 唐과 사라센(Saracen)의 탈라스강에서의 역사적인 大會戰(751년) 때 唐이 크게 패하여 많은 포로가 압바스(Abbasids)朝의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 杜環은 그때의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 『經行記』는 그가 762년에 중국에 귀환한 후 작성한 견문록이다.

그런데 拂菻國은 시리아, 苫國은 다마스쿠스이며, 이 『經行記』는 이슬람유리기의 제작지와 그 상황에 대해서 서술된 세계 최고의 문헌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 교역의 중계지는 三佛齊, 즉 스리위자야(Sriwijaya), 지금의 수마트라였다. 스리위자야는 동양의 베네치아와 같은 존재였다.

『宋史』에는 스리위자야로 비정되는 三佛齊는 南蠻의 별종으로, 占城과 이웃하고, 眞臘과 閩婆 사이에 위치하는데, 15개의 州가 그 하위에 있다고 하였다.

宋 周去非의 『嶺外代答』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三佛齊는 남해의 해중에 있어 諸蕃水道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다. 그 영역은 동쪽으로 자바부터, 서쪽으로 아라비아까지 미쳐, 그 해협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중국에 들어갈 수 없다.…… 蕃舶이 그 나라에 입항하지 않고 통과하지 못하였다.”

9세기 인도네시아 벨리통(Belitung)沈沒船에서는 중국 장사요, 금은기, 이슬람 도기와 함께 이슬람유리기가 출토되었다. 말레이반도 서안의 크다(Kedah)지역 크라(Kra) 지협 입구에 해당하는 캄퐁 송아이 마스(Kampung Sungai Mas)유적과 캄퐁 시레(Kampung Sireh)유적에서 다량의 중국산 도자기, 이슬람도기와 함께 이슬람유리기가 출토되었다(권오영 2019:135).

더욱이 중국의 해양 관문인 廣州市 南漢 皇帝墓인 康陵에서는 도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개체 이상의 이슬람유리기가 출토된 것에서 상당수가 海路로 이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8세기 奈良縣 正倉院 소장 臺附皿, 鳳首瓶, 十二曲長皿은 이슬람유리기이다. 正倉院 소장 유리기는 신라의 墨, 琴, 佐波理, 帳籍, 華嚴經과 함께 신라를 경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正倉院과 관련된 東大寺의 華嚴經 教主인 盧舍那大佛 造佛의 思想的 契機는 天平 2년(740)부터 金鍾寺(東大寺의 前身寺院)에서 개시된 華嚴經講說로 보고 있다. 그 講師인 審祥은 7세기 元曉와 義湘을 배출할 만큼 華嚴敎學이 성행했던 신라에 留學하였으며 다수의 佛典을 가지고 갔다(樋笠逸人 2018). 『續日本記』 752년 東大寺 盧舍那大佛 開眼供養 시 신라에서 왕자 金泰廉 이하 700여 명이 7척의 배로 일본에 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金泰廉이 일본에 가져간 교역물품은 그 품목인 30건의 買新羅物解에서 확인된다. 그 내용은 香藥, 藥材, 色料, 器物, 生活用品, 織物 등으로 正倉院 소장품과 일치한다(朴南守 2011:179-213). 더욱이 乳香, 沈香, 丁香, 烟紫, 犀角 등 동남아시아를 경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래서 正倉院의 이슬람琉璃器를 포함한 외래 문물은 신라를 경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圖11).



<圖11> 7-12世紀 이슬람琉璃器 分布

9세기는 신라와의 교역이 공무역에서 사무역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교역의 장소가 8세기에는 平安京이었으나 이 시기에는 九州의 大宰府로 바뀐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福岡縣 鴻臚館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신라 인화문토기가 이슬람유리기, 도기와 공반되는 것에서 신라인의 활동으로 실크로드를 경유한 문물이 일본열도에 이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경주시 안압지 출토 이슬람유리기이며, 이슬람유리기는 근래 慶州市 四天王寺, 陝川郡 白巖里寺址를 비롯한 출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는 신라 하대에 해당하며 종래 왕권 간의 교섭에 의한 교역이 쇠퇴하던 시기 한·중·일 삼각 무역에 종사한, 장보고로 대표되는 신라 해상 세력을 통해 일본열도에 서역 문물이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

9세기 陝西省 扶風縣에 위치하는 法門寺 地宮에서는 唐 皇室의 舍利容器를 비롯한 金銀器, 瑠璃器, 靑瓷, 絹織物 등 도합 900여 점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슬람유리기는 20점이 출토되었으며, 切子幾何學文과 러스터(luster)石榴文의 皿, 貼附文瓶 등 고급품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이 가운데 幾何學文의 琉璃器는 앞에서 언급한 『宋會要』 第199冊에 보이는 紹興 26년(1156) 2월 25일 三佛齊로부터 온 滲金勸盃連蓋, 滲金盛水瓶 등과 관련된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由水常雄 1992b:153).

더욱이 貼附文瓶은 琥珀色의 素地를 원통형으로, 口緣部는 盤形으로 加工한 후 臺脚을 熔着시킨 것이다. 胴部에는 4列로 熔着한 文樣을 施文하였다. 肩部에 1條의 帶를 돌리고 그 아래에 8개의 靑色 二重圓文, 胴部の 중앙에는 2열로 교차되게 琥珀色 별 문양, 그 아래에는 二重圓文을 6개, 最下位에는 靑色の 플라스크형 文樣을 6개 熔着시켰다.

그런데 法門寺 출토 瓶의 文樣과 유사한 파편이 참파의 항구인 베트남 꾸라오 참(Cu Lao Cham)유적에서 러스터(luster)문유리기 이슬람 도기, 중국산 도자기와 함께 출토되어, 이 유리기는 해상 실크로드를 경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眞道陽子 2000, 2002:160).

이러한 유물들은 873~874년 佛舍利를 供養할 때 懿宗과 僖宗이 法門寺에 奉納한 것들이다. 法門寺는 眞身舍利 중 유일하게 指骨舍利를 奉安하고 있는 곳이며, 唐 皇室의 舍利供養이 이루어진 국가적으로 중대한 寺刹이다.

그런데 9세기 신라인의 무역은 종래 왕경에 거주하였던 소그드인, 위구르인과 같은 서역인의 활동으로부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중국 동해안에 연하여 분포하고 있는 신라방이 마치 소그드인의 무역 중계지에 보이는 집단 거주지를 방불시키기 때문이다.

신라인 거주지인 新羅坊이 登州에서 泉州에 이르는 광역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 것은 신라인의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국제 무역 활동을 배경으로 한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불국사 석가탑 출토 乳香과 『三國史記』 色服, 車騎 조, 買新羅物解이다. 즉 신라에는 紅海 연안에서 동남아시아에 걸친 여러 국가에서 乳香, 瑟瑟, 玳瑁, 孔雀尾, 翡翠毛, 紫檀, 沈香, 蘇芳, 呵莉勒, 薰陸, 丁香, 沈香, 羸撥, 安息

香, 同黃, 龍腦香, 白檀香 등 다양한 물품이 移入되었다. 또한 奈良縣 法隆寺에는 소그드 문자 등이 새겨진 白檀香이 남아있고, 正倉院에는 길이 156cm에 달하는 沈香을 비롯하여 乳香, 白檀香 등이 新羅琴, 新羅墨과 함께 현존하고 있어, 이러한 물품이 新羅를 經由하여 移入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9세기 중후반 唐의 江南, 嶺南道의 사정을 보여 주는 이븐 쿠르다지바(Ibn kuhrdādhībah)의 『諸道路 및 諸王國誌』와 南宋의 趙汝适이 편찬한 『諸蕃誌』에는 신라의 對外交易品으로 馬鞍, 劍, 銅磬, 人蔘, 松子, 麝香, 肉桂, 榛子, 石決明, 宋塔子, 防風, 白附子, 茯苓, 貂皮 등이 보인다. 특히 이븐 쿠르다지바가 기술한 내용은 신라가 동남아시아, 아라비아해 주변 산물을 일방적으로 구입한 것만이 아니고, 신라산 물품 및 주변지역 산물을 이슬람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 VII. 10~13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10세기 후반 遼와 宋이 건국되면서 이슬람 세계와의 교섭이 한층 활발해졌다. 특히 宋은 遼와 金의 위협으로 南遷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해졌고 그 결과 해외 무역을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한편 이슬람 세계는 십자군 원정 등으로 더욱 동방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林梅春(著), 張敏·琴知雅·鄭皓云(譯) 2020:402).

그 상황은 『宋史』와 『宋會要』 같은 正史 외에도 많은 저서에 기술되어 있다. 『宋史』의 大食國, 아라비아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大食國 雍熙 元年(984), 그 나라로부터 花茶가 와서 花錦, 越諾, 揀香, 白龍腦, 白沙糖, 薔薇水, 琉璃器를 바친다. 淳化 4년(993) 希密風에서 象牙 50株, 乳香 1,800斤, 寶鐵 700斤, 紅系吉貝 1段, 五色雜花蕃錦 4段, 白越諾 2段, 都爹 1, 瑠璃瓶, 無名異 1塊, 薔薇水 100瓶을 바친다(「列傳」 권490).

希密風은 아라비아어의 사마다야(Smāhda)를 음寫한 것으로 이곳에서 薔薇水와 함께 琉璃器가 이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의 기술은 더욱 흥미롭다.

至道 元年(995) 蒲押陀黎가 蒲布密表를 가지고 왔으며, 白龍腦 100兩, 膾膾臍 50對, 龍塩 1銀盒, 銀藥 20小瑠璃瓶, 白沙糖 3瑠璃甕, 千年棗, 舶上五味子 各 6瑠璃瓶, 舶上褊桃 1瑠璃瓶, 薔薇水 20瑠璃瓶, 乳香山子 1座, 蕃錦 2段……을 獻上하였다(「列傳」 권490).

蒲押陀黎는 전형적인 아라비아의 인명, 즉 압둘라(Abdullha)이다. 蒲布密表도 아랍어를 음사한 명칭이다. 祥符 4년(1011)에도 다시 압둘라라는 인물이 象牙와 琥珀, 錦, 金錦璧衣와 함께 白琉璃酒器 등을 진상한다.

이처럼 아라비아에서는 유리기에 넣은 향료 등이 중국으로 많이 이입되었다. 공식

기록으로만 봐도 상당한 수량에 달한다. 당시의 활발한 교역활동으로 추정해 보면, 인간의 교역량까지 포함해 아라비아에서 중국으로의 유리기 이입은 막대하였을 것이다.

10세기 인도네시아 치레본(Cirebon)沈沒船은 큰 범주 안에서 오스트로네시아(Austronesian) 타입의 선박으로 베트남 북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가 출항지로 추정되고 있다.

치레본(Cirebon)沈沒船에서는 중국 장사요·월주요 도자와 함께 다수의 장식 이슬람유리기가 출수되어 주목된다. 유리기는 절자문이 시문된 비교적 상품으로 주자, 병, 소형 병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소형 병에는 내용물이 담겨 있어 향료 등을 넣은 채로 이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슬람유리기는 唐과 五代十國時代に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를 중계로 중국에 이입되었으며, 이후 宋과 遼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치레본(Cirebon)沈沒船에 의해 이슬람유리기가 동남아시아를 경유하여 이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宋의 유적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슬람유리기가 출토되었다.

- 浙江省溫州市慧光塔: 切子文瓶 1점
- 寧波市天封塔地宮: 瓶 2
- 海寧市智標塔地宮: 盃 1, 杯 1
- 江蘇省南京市大報恩寺塔基地宮: 切子文瓶 2, 切子文八曲長杯 1
- 漣水縣妙通塔: 小瓶 1
- 義征市許元墓: 切子文瓶 1
- 河南省新密縣法海寺塔基地宮: 瓶 2, 瓠盧瓶 1, 鳥形器, 三足壺形鼎, 寶蓮形器 등
- 安徽省壽縣報恩寺塔石棺: 小瓶 1, 瓠盧瓶 2
- 河北省定州市靜志寺塔基地宮: 切子文瓶 1, 瓶 1, 小瓶 1, 筒形杯 2, 細頸瓶 등 37
- 陝西省周至縣仙遊寺法王塔地宮: 瓶 1
- 西安市鐵塔寺舍利塔: 瓶 1, 盃 1
- 藍田縣呂氏家族墓群: M4호묘 切子文杯, 22호묘 瓶 등

이 시기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교역 중계지는 三佛齊, 즉 스리위자야(Sriwijaya)였다.

紹興 26년(1156) 2월 25일 三佛齊……瑠璃瓶 大食棗 16, 瑠璃瓶薔薇水 168斤을 獻上하였다. 淳熙 5년(1178) 1월 6일, 三佛齊……瑠璃 189事, 觀音水瓶 10, 瑠璃瓶 4, 靑瓶 6, 雙口瓶 大小 5, 環瓶 2, 雙口瓶 2, 淨瓶 4, 雙瓶 42, 淺盤 8, 方盤 3, 圓盤 38, 長盤 1, 又盤 2, 滲金淨瓶 2, 滲金勸盃連蓋 1, 副滲金盛水瓶 1, 屈廬 2, 小屈廬 2, 香爐 1, 大小罐 22, 大小盃 33, 大小櫛 4, 大小蜀葵櫛 2, 小圓櫛 1, 蕃糖 4瑠璃瓶共 15斤 8兩, 蕃棗 3, 瑠璃瓶共 8斤, 梔子花4瑠璃瓶共 180兩……獻上하였다(『宋會要』第199冊, 由水常雄 1992b:153).

이와 관련된 것이 앞에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치레본(Cirebon)沈沒船과 인탄(Intan)沈沒船이다. 인탄침몰선은 스리위자야국의 선박으로 길이 30미터, 폭 10미터이며, 중국 광주에서 교역 후 귀항길에 올랐던 상선 혹은 정부 공식 사절 운송선으로 보고 있다.

출수품은 8,000여 건으로 이슬람산 유리기, 도기, 인도 또는 인도네시아산 금제 목걸이, 금,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반지, 목걸이, 동경, 중국산 은괴, 동경 등이 있다. 이슬람유리기는 절자문이 시문된 비교적 상품으로 병, 소형 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치레본침몰선 출수품과 유사하다.

918년명 동전이 출수되었으며, 그 침몰시기는 918~960년 사이로 보고 있다. 치레본침몰선과 출수품의 내용이 유사하여 10세기 후반에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산지 제품 중 자바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수마트라산만 존재한다. 즉 수마트라에서 자바로 향하던 선박으로 지역 간 및 지역 내 교역의 특성을 모두 보여 준다. 이 침몰선은 고대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 스리위자야국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슬람유리기는 唐과 五代十國時代 이래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를 중계로 중국에 이입되었으며, 이후 宋과 遼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침몰선에서 출수된 유물은 양과 질 모두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으며 그 산지가 중동에서 극동아시아까지 다양하여 교역 범위 역시 추정이 가능하다.

北宋 眞宗 大中祥符 4년인 1011년에 奉獻된 南京市 大報恩寺에서 발견된 塔基地宮에서는 이슬람유리기인 切子文瓶 2점, 切子文瓶八曲長杯 1점, 佛舍利, 七寶阿育王塔과 함께 乳香, 檀香, 沈香, 丁香, 絹織物이 출토되어 송과 이슬람 세계의 교역 내용을 고고자료로써 알 수 있게 되었다(圖12).



<圖12> 南京市 大報恩寺 塔基地宮 출토 이슬람琉璃器와 乳香

이처럼 이전 시기의 아랍선인 벨리통(Belitung)선과 함께 동남아시아선인 치레본

(Cirebon)선, 인탄(Intan)선으로 볼 때 당시 동남아시아 해역은 국제 무역의 장이었다.

당시 沙漠路는 西夏가 장악하고 있어 내몽고를 중심으로 흥기한 초원 기마민족 국가인 遼는 草原路를 이용하게 되었다. 遼는 이전 시기 草原路를 장악하였던 위구르족을 복속시키고 草原路상에는 驛站을 설치하였다. 수도 上京에 同文驛을 설치하고 각국 使節을 머물게 하였으며, 南城에는 위구르 상인을 위한 回鶻營을 설치하였다. 11세기 아라비아의 기록에는 遼의 카라반이 중국의 물품을 가져왔다고 전하고 있다(杭侃·表野和江 2006:229-230). 遼의 왕족과 귀족묘에 부장된 草原 지대에서 생산되지 않는 珍珠, 寶石, 琉璃器 등은 수입된 것이다.

遼의 유적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슬람유리기가 출토되었다.

- 遼寧省朝陽市北塔: 注子 1, 切子文彩色盃 1, 小瓶 1, 圓文瑠璃珠 7
- 朝陽市 新華路 石棺: 小瓶 1
- 朝陽市 姑管子縣 耿延毅墓: 注子 1, 有文盃 1
- 法庫縣 叶茂臺M7號墳: 方形盤 1
- 阜新縣 平原公主墓: 有文盃 2, 盤 2, 杯 1 등 6
- 河北省 天津市 獨樂寺塔: 注子 1
  - 內蒙古自治區赤峰市巴林左旗祖陵 1號陪葬墓: 盃 1
- 通遼市陳國公主墓: 突出文注子 1, 盃 1, 切子文瓶 1, 瓶 1, 注子 1
- 通遼市 科爾沁左翼後旗吐爾基山墓: 高杯 1
- 錫林郭勒盟蕭貴妃墓: 注子 2, 杯 1 등 4
- 阿魯科爾沁旗耶律羽之墓: 琉璃器편 등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슬람유리기가 宋에서는 주로 사원의 사리장엄구를, 遼에서는 부장품으로 사용된 점이다. 遼에서 부장품으로 이슬람유리기를 주로 사용한 것은 오랜 유목민족의 선호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遼의 왕족과 귀족묘에는 絹織物, 金銀器, 金銅製馬具가 다수 출토된다. 특히 金銀器는 당의 공인을 招致하여 제작한 정교하고 화려한 것으로 盛唐期의 金銀器를 방불하게 한다. 金銅製馬具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조형미를 가진 것이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絹織物이다. 陳國公主墓에 부장된 琥珀蠶形品이 상징하듯이 遼에서는 絹織物 생산이 성행하였다. 이는 유목민족인 遼가 中原王朝의 북방경제 중심지인 燕雲十六州를 획득한 것에 기인한다. 遼의 首都인 上京에는 桑田이 있었으며, 都城 내에는 綾錦을 직조하는 작업장이 있었다(杭侃·表野和江 2006:148). 遼의 絹織物 生産은 그 王族과 貴族墓에서는 화려한 絹織物이 출토되고, 壁畫에서도 描寫된 것에도 확인된다.

그래서 遼에서는 絹織物, 金銀器, 金銅製馬具가 特產品으로 수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高麗에서는 東京國立博物館 舊小倉武之助藏 傳 黃海道 延白郡寺址 出土 注子와 斑點文盃, 崇實大學校博物館 所藏 斑點文盃,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傳 開城 出土 注子와 斑點文盃 등이 확인된다(圖13). 1070~1085년에 건립된 原州市 法泉寺址 智光國師玄妙塔에서 圓形突出切子文과 波狀文이 시문된 瑠璃盃이 浮彫되어 있어 상당수의 이슬람유리기가 이입된 것을 알 수 있다.



<圖13> 高麗時代의 이슬람琉璃器 (左: 傳 黃海道 延白郡 寺址 出土品, 右: 傳 開城 出土品)

高麗 憲宗 15년(1018) 大食國의 悅羅慈 등이 와서 特産物을 바쳤으며, 定宗 6년(1040)에는 大食國 상인인 保那盍(Barakah) 등이 水銀, 龍齒, 占城香, 沒藥, 大蘇木 등을 바치자 金과 絹을 下賜하였다고 한다. 占城香은 참파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權五榮 2019: 85). 이는 고려가 직접 아랍 상인들을 통하여 琉璃器를 입수하였음을 보여 주며, 金과 絹을 交易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차후 고려 수도인 開城의 外港인 碧瀾渡가 조사된다면 고려와 유라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교류가 더욱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 VIII. 맺음말

유라시아의 장대한 문명교류가 본격화된 것은 BC 3000년경이다. 이 시기 아프가니스탄의 사리상(Sar-i Sang) 광산에서 채굴된 靑金石과 인더스강 유역산 紅玉髓가 沙漠路와 해로를 통하여 메소포타미아에 이입되어 우르(Ur) 王墓의 장신구로 사용된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사리상(Sar-i Sang) 광산에 인접한 청금석 交易과 관련된 테페 푸롤(Tepe Fullol)유적에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빨 달린 소 문양이 새겨진 금은기

가 확인되어 양자 간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BC 8세기 草原路상의 아르잔(arzhan)고분군을 비롯한 紅玉髓珠는 인더스(Indus)강 유역으로부터 파미르(Pamir)를 넘어 塔什庫爾幹지방으로 移入된 후, 天山과 알타이(Altai) 일대로 北上하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더스(Indus)강 유역의 海路和 타클라마칸(Takla Makan)의 沙漠路, 알타이(Altai) 산지의 草原路가 縱橫으로 연결된 것으로 매우 흥미롭다.

더욱이 춘추전국시대 인더스 문명에서 유라시아 동부로 이입된 홍옥수제 경식은 스키타이 왕묘, 秦 왕족묘, 晉 왕묘 등에 사용된 위신재로서, 인더스강 유역과 알타이 산지, 中原이 유기적인 관계망을 통하여 이미 연결된 것을 상징한다.

BC 5~BC 4세기의 페니키아를 비롯한 동부 지중해에서 제작된 中層圓文瑠璃珠는 초원로를 통하여 이입되었다. 이 시기 遼寧省 東大杖子古墳群에서는 페니키아산 中層圓文珠가 琵琶形銅劍과 함께 출토되어, 초원로가 古朝鮮과 연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BC 1~AD 2세기 로마와 인도의 최대 무역 거점인 무지리스로 비정되는 서부 해안의 항만유적인 파타남(Pattanam)과 인도 동부해안의 최대 교역항인 아리카메두(Arikamedu)유적은 로마와의 교역을 통하여 번성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런데 같은 시기 동남아시아 옥 에오(Óc Eo)유적, 남중국의 습포유적으로 볼 때 양 교역항은 인도 남부의 동서 해안에서 지중해, 홍해, 아라비아해, 벵갈만,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최대 중계지로서 번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 낙랑고분 출토품으로 볼 때 인도, 태국, 베트남, 중국과 한반도가 海路를 통하여 연결된 것이 확인된다. 이로써 한반도 남해안과 일본열도의 중국산 화폐 출토 유적으로 유추되는 관계망이 기존의 인식과 같이 중국과의 교역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해상 실크로드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4~6세기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銀貨와 유리기가 沙漠路和 海路를 통하여 이입된다. 즉 사산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와 인도양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沙漠路和 海路가 중심이 된다.

4세기 전반에 출현하는 신라의 적석목곽분은 유라시아 기마민족의 묘제에 기원하는 것이다. 5세기 신라의 적석목곽분에는 화려한 금관을 비롯한 황금 장신구가 부장된다.

신라 금관의 聖樹, 聖獸, 聖鳥는 초원 기마민족의 王權神授 사상과 관련된 것이다. 더욱이 신라의 금제 冠을 비롯하여 頸飾, 帶飾, 腕飾, 飾履 등 신체를 황금으로 장식하여 매장하는 葬制는 中原이 아닌 카자흐스탄 사카(Saka)의 이식(Issyk) 쿠르간 등에서 보인다. 신체를 황금으로 장식하는 것은 초원 기마민족의 전통적인 습속이다.

신라의 적석목곽분에는 중원의 황제묘를 능가하는 수량의 로마유리기가 부장되는데, 이는 초원 기마민족의 습속과 유사하다. 로마유리기는 훈(Hun)-柔然-高句麗를 통하여 移入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5세기 후반 돌연 로마유리기의 수입이 단절되고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기가

이입되는데, 이는 훈(Hun) 제국이 붕괴하고 사산조 페르시아가 유라시아 실크로드에 擡頭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618년 동아시아에서는 唐이 건국되었고, 서아시아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우마이야(Umayya)朝가 661년 成立하면서 이슬람 세계가 형성된다. 이 시기 유라시아의 교류를 상징하는 것이 이집트까지 유통된 중국 도자기와 일본까지 이입된 이슬람유리기이다.

10세기 후반 遼와 宋이 건국되면서 이슬람 세계의 교류는 한층 활발해졌다. 宋은 南遷하면서 海路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을 추구하였으며, 遼는 草原路를 통하여 이슬람 세계와 교역하였다. 이슬람 세계는 십자군 원정 등으로 더욱 동방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신라는 유라시아의 동단에 위치함에도 시기별로 草原路, 沙漠路, 海路를 통하여 西方과 문물을 교류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일본에 전한 글로벌 국가였다. 신라인의 무역 활동을 계승한 고려의 경우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나, 그 수도인 開城의 外港인 碧瀾渡의 조사를 통하여 고려와 해상 실크로드의 교류 내용이 더욱 밝혀질 것이다.

## [參考文獻]

### 著書

- 岡崎敬, 1973, 『東西交渉の考古學』, 平凡社.
- 由水常雄(編), 1992a, 『世界ガラス美術全集 第1巻 古代・中世』, 求龍堂.
- 由水常雄(編), 1992b, 『世界ガラス美術全集 第4巻 中國・朝鮮』, 求龍堂.
- 李仁淑, 1993, 『한국의 古代유리』, 創文.
- 辛島昇, 2000, 『海のシルクロード』, 集英社.
- 大西修也, 2002, 『日韓古代彫刻史論』, 中國書店.
- 平井聖(編), 2002, 『昭和女子大學國際文化研究所紀記要8ベトナム、ホイアン地域の考古学的研究』, 東京, 昭和女子大學國際文化研究所.
- 周昞美, 2003, 『中國佛舍利莊嚴研究』, 一志社.
- Aruz, Joan, 2003, *Art of the First Cities: The Third Millennium B.C. from the Mediterranean to the Indus*, (Metropolitan Museum of Art Series),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 李松蘭, 2004, 『新羅 金屬 工藝 研究』, 一志社.
- 羅丰, 2004, 『胡漢之間』, 文物出版社.
- 李松蘭, 2004, 『신라 금속 공예 연구』, 일지사.
- 林俊雄, 2005, 『ユーラシアの石人』, (ユーラシア考古学選書), 雄山閣.
- 林俊雄, 2006, 『グリフィンの飛翔—聖獣からみた文化交流』, (ユーラシア考古学選書), 雄山閣.
- 川又正智, 2006, 『漢代以前のシルクロード』, (ユーラシア考古学選書), 雄山閣.
- 杭侃(著), 表野和江(譯), 劉煒(編), 稻畑耕一郎(監修), 2006, 『図説中国文明史8遼西夏金元草原の文明』, 創元社.
- 林俊雄, 2007, 『スキタイと匈奴遊牧の文明』, (興亡の世界史02), 講談社.
- 堀敏一, 2008, 『東アジア世界の歴史』, 講談社.
- 村川堅太郎(譯), 2011, 『エリュトゥラー海案内記』, 中公文庫.
- 朴南守, 2011, 『韓國古代의 동아시아交易史』, 주류성.
- 古寺智津子, 2012, 『ガラスが語る古代東アジア』, 同成社.
- 長田俊樹(編), 2013, 『インダス—南アジアの基層世界を探る』, 京都大学出版会.
- 朴天秀, 2016, 『新羅와 日本』, 진인진.
- 金浩東,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 薮勇造(譯), 2016, 『エリュトゥラー海案内記』 1・2, (東洋文庫), 平凡社.
- 국립중앙박물관, 2016, 『아프카니스탄의 황금문화』, 국립중앙박물관.
- 李慶新(저), 현재열·최낙민(역), 2018, 『동아시아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실크로드의 역사』, (해양도시문화교섭학번역총서15), 도서출판선인.
- 草原考古學研究會(編), 2019, 『ユーラシア大草原を掘る草原考古学への道標』, 勉誠出版.

- 李青會·左駿·劉琦(外), 2019, 『文化交流視野的漢代合浦港』, (合浦縣新報海上絲綢之路世界文化遺產中心編), 廣西科學技術出版社..
- 김장구(편), 2019, 『신북방정책과 초원 실크로드에 대한 인문학적 탐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權五榮, 2019, 『海上 실크로드와 東아시아 古代國家』, 세창출판사.
- 박천수(외), 2019, 『Silk Road 文明交流史』Ⅲ, 경북대학교인문학술원실크로드조사연구센터·경북대학교고고인류학과·중앙아시아학회·우석대학교실크로드영상연구원.
- 林梅春(著), 張敏·琴知雅·鄭皓云(譯), 2020, 『실크로드 고고학 강의』, 소명출판.

## 論文

- 道明三保子, 1985, 「モザイク玉」, 『ペルシアの瑠璃玉』, 淡交社.
- 眞道洋子, 2000, 「9-10世紀におけるガラスの東西交流—ベトナム, クーラオチャム出土イスラーム、ガラス—」, 『考古学ジャーナル—考古学から見た海のシルクロードとベトナム—』 464, ニュ・サイエンス社.
- 權五重, 2000, 「方格規矩四神鏡의 流傳」, 全海宗博士八旬記念論叢刊行委員會(편), 『東아시아 歷史의 還流』, 知識産業社.
- 眞道洋子, 2002, 「ベトナム, クーラオチャム出土ガラス」, 『昭和女子大學國際文化研究所紀要8ベトナム、ホイアン地域の考古学的研究』, 昭和女子大學國際文化研究所.
- 李松蘭, 2005, 「樂浪 貞柏洞3호분과 37호분의 南方系獅子形 垂飾과 商人의 活動」, 『美術史學研究』 245, 韓國美術史學會.
- 小磯学, 2008, 「인더스文明의 腐食加工紅玉髓製비즈와 交易活動」, 『古代文化』 60-2, 古代学協會.
- 윤상덕, 2010, 「鷄林路 寶劍의 製作地와 製作集團」, 『慶州 鷄林路14號墓』, 국립경주박물관.
- 遠藤仁, 2013, 「工芸品からみた인더스文明期の流通」, 長田俊樹(編), 『인더스—南アジアの基層世界を探る』, 京都大学出版会.
- 黃珊·熊昭明·趙春燕, 2013, 「廣西合浦縣寮尾東漢墓出土靑綠油陶壺研究」, 『考古』 8, 考古雜誌社.
- 趙胤宰, 2014, 「신라와 중국 남북조의 교류」, 『신라고고학개론』 상, 진인진.
- 이한상, 2014, 「신라의 장신구」, 『신라고고학개론』 상, 진인진.
- 朴天秀, 2016, 「古代 東北亞細亞 出土 琉璃器의 移入經路와 歷史的背景」, 『韓國考古學報』 101, 韓國考古學會.
- 李松蘭, 2016, 「南北朝時代 北朝 고분 출토 西方系 琉璃器」, 『한국고대사탐구』 2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허진아, 2018, 「마한 원거리 위제품 교역과 사회정치적 의미 -석제 카넬리안 구슬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41, 호서고고학회.
- 강인욱, 2018, 「세계의 유적-러시아투바공화국 아르잔 유적-」, 『韓國考古學報』 106,

韓國考古學會.

朴天秀, 2018, 「琉璃器로 본 실크로드의 변천」, 『李(加藤)九祚의 생애와 실크로드 유리 직물』, 경북대학교 실크로드조사연구센터.

樋笠逸人, 2018, 「東大寺・正倉院と新羅からの將來經典」, 『正倉院寶物と新羅』, 奈良國立博物館.

林俊雄, 2018, 「ユーラシア草原文化と樹木」, 山口博(編), 『ユーラシアのなかの宇宙樹・生命の樹の文化史』, (アジア遊学228), 勉誠出版.

李松蘭, 2019, 「中國 南北朝時代 西方系 金銀器의 輸入과 製作」, 『崇實史學』 43, 崇實史學會.

金秉駿, 2019, 「古代 東아시아의 海洋 네트워크와 使行 交易」, 『韓國上古史學報』 106, 韓國上古史學會.

朴天秀, 2019, 「古代の朝鮮半島と日本列島」, 吉村武彦(編), 『シリーズ古代をひらく渡来系移住民』, 岩波書店.

遠藤仁, 2020, 「インダス文明のカーネリアンロード-古代西南アジアの交易ネットワーク-」, 池谷和信(編), 『ビーズでたどるホモ・サピエンス史美の起源に迫る』, 昭和堂.

**【제2발표】**

**8~10세기 동유라시아의 모피 무역**

**윤재운(대구대학교)**





## 8~10세기 동유라시아의 모피 무역

윤재운(대구대학교)

머리말

I. 모피의 생산

II. 모피의 유통

III. 모피의 소비

맺음말

### 머리말

인간이 처음 만난 옷감은 동물의 털가죽이었다. 동물의 모피는 사냥의 기념품이자 최초의 의복이었다. 기원전 3500년경에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살았던 수메르인들도 모피를 즐겨 착용했다고 한다. 모피는 고대부터 신성하고 종교적인 가치도 지녔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만이 사자 꼬리로 만든 허리띠를 착용할 수 있었다. 또 표범의 모피는 당시 신전 사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sup>1)</sup>

모피 무역은 유라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sup>2)</sup> 스칸디나비아 지방은 고대 로마에 모피와 琥珀·향유고래 상아·노예를 공급했으며, 대가로 금·은·귀중품을 받았다. 9세기 말에는 노르웨이 트롬쇠 근처 협만 출신의 오타르 같은 首長들은 담비·순록·곰·수달 모피를 라프족 수렵민들한테서 공납으로 받아 노르웨이·덴마크·잉글랜드에서 팔았다. 10세기 초에는 지금의 러시아에 해당하는 바이킹인 루스족이 검은담비·흰여우·담비·비버 모피와 함께 노예를 불가강 중류 불가르족에 넘겼는데, 922년 아랍인 아흐마드 이븐 파들란이 생생하게 묘사한 기록에는 루스족 상인들이 이슬람 레반트 지역의 시장들을 보고 불가강을 따라 검은담비 모피와 어린 여자 노예들을 싣고 내려가는 대목이 나온다. 바이킹 이후로는 북독일 한자 동맹이 북구의 모피 무역에 손을 댔다. 이처럼 모피는 아주 초기부터 18세기와 그 이후까지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값어치 있는 무역품이었다.

일반적으로 유라시아 교류의 상징으로 된 것이 비단길인데, 이 비단길의 주인공은 소그드인이었다.<sup>3)</sup> 소그드인들이 실크로드의 중심이 된 것은 6세기에 몽골 지방에서 튀르크계의 돌궐이 흥기하여 이 지역의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돌궐은 군사적 정

1) 홍익희, 2015, 『세상을 바꾼 다섯 가지 상품 이야기』, 행성비, 103쪽.

2) 에릭 R. 울프 지음·박광식 옮김, 2015, 『유럽과 역사 없는 사람들: 인류학과 정치경제학으로 본 세계사 1400~1980』, 뿌리와이파리, 332~333쪽.

3) 주경철, 2015, 『모험과 교류의 문명사』, 산처럼, 162~168쪽. 소그드인의 상업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エチエンヌ・ドゥ・ラ・ヴェツェール 著・影山悦子 譯, 2019, 『ソグド商人の歴史』, 岩波書店 참조.

복을 하고 소그드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식으로 양자가 협업했다. 6~8세기 소그드 상인의 교역망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중국의 사치품 교역로이고, 다른 하나는 돌궐이 지배하는 스텝지역과의 교역로이다. 소그드인이 누리던 상업상의 우월한 지위는 8세기를 지나면서 쇠락해갔다. 여기에는 안사의 난에 의한 소그드 상인들의 상업 기반 붕괴와 이슬람의 팽창이 영향을 끼쳤다.

이슬람 제국의 등장은 새로운 교통로와 새로운 무역로를 만들어냈다. 북쪽의 스텝과 삼림 지대로 통하는 ‘모피의 길’이 만들어진 것은 7~8세기 대의 대규모 정복 이후 수백 년 동안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스텝지역에서 한 해에 50만 장의 모피가 수출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피무역의 최대 수혜 도시는 메르브였다고 한다.<sup>4)</sup>

고대 모피 무역에 대해서는 고조선,<sup>5)</sup> 부여,<sup>6)</sup> 고구려,<sup>7)</sup> 발해<sup>8)</sup> 등의 사례가 검토된 바가 있다. 아래에서는 8~10세기 동유라시아<sup>9)</sup> 무역에서 비단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모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모피의 산지, 즉 생산과 유통 과정, 그리고 소비를 통해 모피 무역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 모피의 생산

현재 모피로 이용되는 동물에는 100여 종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육식류(carnivora) 및 설치류(rodentia)에 속한다. 여우·밍크·담비·오소리 등은 모두 육식류에 속하며 모두 털이 아름답고, 튼튼한 털가죽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설치류에 속하는 친칠라(chinchilla)·다람쥐·토끼 등은 작은 동물로 초식성이며 온순한데, 털은 아름답고 부드러우나 약하고 가죽의 질도 튼튼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육식 동물의 모피는 튼튼하고, 초식 동물의 것은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바다, 호수, 개울가에 사는 바다표범, 물개, 비버 등은 내구성이 우수한 모피를 생산한다.<sup>10)</sup>

4) 피터 프랭크판 지음·이재항 옮김, 2017, 『실�크로드 세계사: 고대 제국에서 G2 시대까지』, 책과함께, 186~187쪽.

5) 강인욱, 2011,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한국고대사연구』64.

6) 이승호, 2019, 「1~3세기 중국 동북지역 정세 변화와 貂皮 교역」 『동국사학』67.

7) 이정빈, 2014, 「5~6세기 고구려의 농목교역과 요서정책」 『역사와 현실』91.

8) 윤재운, 2006, 「8~10세기 발해의 문물교류」 『한국사학보』24; 정석배, 2019, 「발해의 북방-서역루트 ‘담비길’ 연구」 『고구려발해연구』63; 윤재운, 2019b, 「발해의 지방지배와 중개무역」 『한국사학보』75.

9) 동유라시아(East Eurasia)는 上田信이 2005년(『中国の歴史』9-海と帝国, 講談社) 이래 사용하기 시작한 지정학적·지문화적 공간인식의 틀이다. 종래 일본 중국사 연구의 주류였던 ‘동아시아’라는 공간 인식의 틀이 중국의 앞면만 바라본 것이라면 그 뒷면과 옆면인 중앙아시아·시베리아·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인식 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우에다 마코토 지음·임성모 옮김, 2016, 『동유라시아 생태환경사』, 어문학사, 171쪽). 일본학계의 동유라시아 논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鈴木靖民, 2016, 『古代の日本と東アジア交流史』, 勉誠出版, 399~414쪽; 廣瀬憲雄, 2018, 『古代日本と東部ユーラシア國際關係』, 勉誠出版, 1~17쪽 참조.

10) 安啓源·李茂夏·蔡榮錫, 1990, 『皮革과 毛皮의 科學』, 先進文化社, 219쪽.

모피를 생산하는 주요 동물로는 밍크(Mink), 여우(Fox), 카라쿨(Karakul), 토끼(Rabbit), 흰담비(Ermine), 스라소니(Lynx) 등이 있다. 이러한 모피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나, 주산지는 시베리아·북아메리카·북유럽·북극 등의 한랭 지방이다. 일반적으로 모피는 한랭 지방에서 생산된 것일수록 품질이 좋고 가격도 비싸며, 수생 동물이 육상 동물보다 내구성이 크다.<sup>11)</sup>

8~10세기 모피 가운데 貂皮는 발해 이전부터 동북 지역에서 무역품으로 유명하였다. 1~3세기에 貂皮를 생산하거나 혹은 중원 국가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세력인 세 집단이 있었다.<sup>12)</sup> 첫째, 烏桓<sup>13)</sup>·鮮卑<sup>14)</sup> 등 동북방 유목 세력이다. 둘째, 挹婁<sup>15)</sup>로 대변되는 동북방 삼림 수렵 세력이다. 셋째, 정주 세력으로서 부여<sup>16)</sup>와 고구려<sup>17)</sup> 및 遼東 公孫氏<sup>18)</sup> 세력 또한 동북 지역 貂皮 생산과 유통에 관계하고 있었다.

부여의 경우 읍루에서 나오는 특산물 가운데 赤玉과 貂皮가 겹치고 있다는 점, 貂皮는 ‘挹婁貂’가 중원에서 유명했다는 점, 그리고 부여 지역의 위치가 수렵을 통한 대량의 貂皮를 얻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부여의 貂皮는 읍루의 특산물로 이를 부여가 중개하여 중원 지역에 수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9)</sup> 고구려 및 公孫氏의 경우도 貂皮를 朝貢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다.<sup>20)</sup> 이렇게 고구려는 중국에서 선호하는 물품의 조달을 통해 중간에서 막대한 차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무역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sup>21)</sup>

貂皮는 모피 가운데 대표적인 물품으로, 유목·수렵사회에서 수집되었고 가공 내지 유통 단계를 거쳐서 농경사회의 사치품으로 소비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모피의 주 획득 장소나 생산장소가 寒帶 지역의 두메산골이라는 특성상 모피의 획득, 가공, 유통, 소비의 과정은 모두 별도의 공간에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sup>22)</sup> 이로 보아 부여와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교역에 사용된 貂皮도 유목·수

11) 정성일 외, 2007,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 국사편찬위원회, 248~249쪽.

12) 이승호, 2019, 앞의 논문, 44쪽.

13) (建武)二十二年 匈奴國亂 烏桓乘弱擊破之 匈奴轉北徙數千里 漠南地空 帝乃以幣帛賂烏桓 二十五年 遼西烏桓大人郝旦等九百二十二人率衆向化 詣闕朝貢 獻奴婢牛馬及弓虎豹貂皮(『後漢書』卷90, 烏桓鮮卑列傳80, 烏桓).

14) 鮮卑者 亦東胡之支也 …(중략)… 又有貂·豹·鼬子 皮毛柔輭 故天下以爲名裘(『後漢書』卷90, 烏桓鮮卑列傳80, 鮮卑).

15) 出赤玉·好貂 今所謂挹婁貂是也(『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 挹婁); 有五穀·麻布, 出赤玉·好貂.(『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挹婁).

16) 其國善養牲 出名馬·赤玉·貂·玃·美珠 珠大者如酸棗(『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 夫餘).

17) 二十五年 乃使招呼鮮卑 示以財利 其大都護偏何遣使奉獻 願得歸化 彤慰納賞賜 稍復親附 其異種滿離 高句驪之屬 遂駱驛款塞 上貂裘好馬 帝輒倍其賞賜(『後漢書』卷20, 列傳10, 祭彤傳).

18) 其年 宮遣皂衣二十五人送旦等還 奉表稱臣 貢貂皮千枚·鷓雞皮十具 旦等見權 悲喜不能自勝 權義之 皆拜校尉 間一年 遣使者謝宏·中書陳恂拜宮爲單于 加賜衣物珍寶(『三國志』卷47, 吳書 2 吳主 孫權傳 嘉禾 2年).

19) 이승호, 2019, 앞의 논문, 48쪽.

20) 이정빈, 2014, 앞의 논문, 155쪽.

21) 이동훈, 2019, 「고구려와 북조의 조공관계 성격」, 『한국사학보』75, 44~45쪽.

22) 강인욱, 2011, 앞의 논문, 248~250쪽.

렵사회로부터 획득된 다음, 가공이나 유통의 단계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발해 존속 시기(698~926) 모피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생산 과정을 살펴보겠다.

가-1. 개원 7년(719) 8월에 大拂涅靺鞨이 사신을 보내 고래 눈알, 貂鼠皮, 白兔貓皮를 바쳤다.<sup>23)</sup>

가-2. 개원 15년(727) 경신일에 大昌勃價를 襄平縣 開國男으로 봉하고 폐백 50필을 하사하였고 수령 이하에게도 각각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이에 앞서 발해왕 大武藝가 男利行을 보내 내조하여 貂鼠를 바쳤으므로 이에 이르러 무예에게 글을 내려 그를 위로하였으며 綵練 100필을 하사하였다.<sup>24)</sup>

가-3. 개원 18년(730) 5월에 발해말갈이 烏那達利를 사신으로 보내 내조해서 海豹皮 5매, 貂鼠皮 3매, 瑪瑙盃 1개, 말 30필을 바쳤다.<sup>25)</sup>

가-4. 개원 26년(738) 閏8월에 발해말갈이 사신을 보내 貂鼠皮 1천장, 乾文魚 100마리를 바쳤다.<sup>26)</sup>

가-5. 개원 28년(740) 10월에 발해말갈이 貂鼠皮와 다시마를 바쳤다.<sup>27)</sup>

가-6. 개평 3년(910) 3월에 발해왕 大諲譔이 재상인 大誠諤을 보내 조공하고 남녀 노비 및 貂鼠皮, 熊皮 등을 진상하였다.<sup>28)</sup>

가-7. 同光 3년(925) 2월에 渤海國王 大諲譔이 裴璆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인삼, 잣, 다시마, 黃明, 細布, 貂鼠皮 이불 한 채와 요 6입, 머리털, 갓신, 奴子 둘을 바쳤다.<sup>29)</sup>

가-8. 明宗 天成 원년(926) 4월에 渤海國王 大諲譔이 大陣林 등 116명을 사절로 보내 조공하였는데 사내종과 계집종 각각 셋, 인삼, 다시마, 白附子, 및 虎皮 같은 것을 진상하였다.<sup>30)</sup>

위의 가 사료는 발해와 말갈이 중원의 왕조에 보낸 물품 가운데 모피와 관련된 것만 추린 것이다. 발해에서 보낸 모피는 貂鼠皮, 海豹皮, 白兔貓皮, 虎皮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23) 大拂涅靺鞨遣使獻鯨鯢魚睛、貂鼠皮、白兔貓皮(『冊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七年 八月).

24) 封大昌勃價襄平縣開國男 賜帛五十疋 首領已下各有差 先是 渤海王大武藝遣男利行來朝 並獻貂鼠 至是 乃降書與武藝慰勞之 賜綵練一百疋(『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十五年 四月 庚申).

25) 渤海靺鞨遣使烏那達利來朝 獻海豹皮五張 貂鼠皮三張 瑪瑙盃一 馬三十匹(『冊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十八年 五月;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十八年 五月 己酉).

26) 渤海靺鞨遣使獻貂鼠皮一千張、乾文魚一百口(『冊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二十六年 閏八月).

27) 渤海靺鞨遣使獻貂鼠皮、昆布(『冊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二十八年 十月).

28) 渤海王大諲譔差其相大誠諤朝貢 進兒女口及物 貂鼠皮、熊皮等(『冊府元龜』卷972, 朝貢5, 開平三年 三月).

29) 渤海國王大諲譔遣使裴璆 貢人參、松子、昆布、黃明、細布、貂鼠皮被一、褥六、髮靴革、奴子二(『冊府元龜』卷972, 朝貢5, 同光三年 二月).

30) 渤海國王大諲譔遣使大陣林等一百一十六人朝貢 進兒口、女口各三人、人參、昆布、白附子及虎皮等(『冊府元龜』卷972, 朝貢5, 後唐 明宗 天成元年 四月).

나-1. 甲寅 천황이 中宮에 나아갔는데 高齊德 등이 왕의 敎書와 方物을 바쳤다. …(중략)… 아울러 貂皮 300張을 보내어 바칩니다.<sup>31)</sup>

나-2. 12월 戊辰 발해 사신 己珍蒙 등이 조정에 배알했다. 발해 왕의 啓와 方物을 올렸다. …(中略)… 아울러 大蟲皮와 큰 곰가죽 각 7張, 표범 가죽 6張, 인삼 30근, 꿀 3斛을 바치니 그곳에 도착하거든 살펴서 받아주기를 청합니다”라 하였다.<sup>32)</sup>

나-3. 18일 丁亥 칙을 내려 左近衛中將 從4位下 兼 行備中權守源朝臣舒를 보내 鴻臚館에 가서 楊成規 등이 가져온 발해국왕의 啓와 信物을 살피도록 하였다. …(중략)… 그 信物은 大蟲皮 7張, 豹皮 6張, 熊皮 7張과 꿀 5斛이다.<sup>33)</sup>

위의 나 사료는 발해가 일본에 보낸 물품 가운데 모피와 관련된 것을 추린 것으로, 여기서 貂皮, 大蟲皮, 羆皮, 熊皮, 豹皮, 海豹皮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大蟲皮는 호랑이 모피를, 羆皮와 熊皮는 큰곰과 곰 모피를, 豹皮는 표범 가죽을, 海豹皮는 물범 가죽을 가리킨다.

발해가 중국과 일본에 수출한 모피 가운데 공통된 것은 貂皮 또는 貂鼠皮이다. ‘貂鼠’와 ‘貂’는 같은 표현으로 담비를 가리킨다.<sup>34)</sup> 담비는 족제비과의 포유류이다. 35~60cm 길이로, 12~37cm 길이의 꼬리를 가지고 전신은 광택이 있는 부드러운 털로 덮여있다.<sup>35)</sup> 담비는 모피동물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북방 유라시아의 삼림 지대를 주된 분포 지역으로 하는 검은담비 모피는 특히 上質이다. 이 작은 모피동물에의 갈망이 러시아제국의 동방 팽창의 요인이 되었고 아시아에서도 청 왕조의 건국에 이르는 만주족의 성장을 이루었고, 아울러 山丹交易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에도 옛소련 연방의 여러 나라에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재원이라고 한다.<sup>36)</sup>

그렇다면 발해에서 당에 보낸 물품 가운데 貂皮는 어느 지방의 것일까? 앞서 挾婁貂가 중원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말하였다. 옛 읍루지역은 발해 시기에 定理府와 安邊府로 편제되었다. (<표 1>과 <그림 1> 참조) 또한, 사료 가-1에서 719년에 당에 독자적으로 조공하였던 拂涅靺鞨은, 발해 동평부로 편제되었다. 한편 발해 선왕대에 발해 영역으로 편제된 흑수말갈 지역도 貂皮의 산지였다.<sup>37)</sup>

31) 甲寅 天皇御中宮 高齊德等上其王書并方物 …(중략)… 并附貂皮三百張奉送(『續日本紀』권10 神龜5년(728) 봄 正月).

32) 十二月戊辰 渤海使己珍蒙等拜朝 上其王啓并方物 …(중략)… 并附大蟲皮羆皮各七張 豹皮六張 人參三十斤 蜜三斛進上 至彼請檢領(『續日本紀』권13, 天平11년(739) 12월).

33) 十八日丁亥 勅遣左近衛中將從四位下兼行備中權守源朝臣舒 向鴻臚館 檢領楊成規等所齎渤海國王啓及信物 …(중략)… 其信物大蟲皮七張、豹皮六張、熊皮七張、蜜五斛(『日本三代實錄』권21, 貞觀14년(872) 5월 18일).

34) 金毓黻, 『渤海國志長編』卷17, 渤海國志15, 食貨考 4, 貂鼠皮.

35) 국립민속박물관, 2005, 『천연섬유와 모피 식별 아틀라스』, 189쪽.

36) 藁島榮紀, 2015, 『‘もの’と交易の古代北方史-奈良、平安日本と北海道、アイヌ』, 勉誠出版, 136쪽.

37) 土多貂鼠、白兔、白鷹(『新唐書』卷219, 列傳144, 北狄 黑水靺鞨).

貂皮는 발해 이후에도 계속 생산되었다. 清代에 검은담비는 북경의 궁정에서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모피로, ‘貂皮’라고 하면 보통 검은담비를 가리켰다. 그러나 거기에도 등급이 있었다. 17세기 말기에 楊賓에 의해 기록된 『柳邊紀略』에 의하면, 紫黑色으로 털이 가지런하며 뽀뽀한 것이 최상이고 紫黑으로 털이 뽀뽀한 것이 그다음, 紫黑으로 털이 가지런한 것이 그다음, 황색이 그다음, 흰색이 최하등급이라고 한다. 또한 실제 거래에서는 꼬리의 유무도 문제가 되어, 꼬리가 없는 것은 팔 수 없다고 한다. 상질로 유명한 것에 ‘索倫貂’와 ‘挹婁貂’가 있는데, 그 이름으로 보아 전자가 아무르의 비교적 상류 지역 산물이고, 후자는 송화강이나 아무르 하류 지역 산물일 것이라고 한다.<sup>38)</sup> 여기서 索倫은 다한얼족[達翰爾族]·어원커족[鄂溫克族]·어룬춘족[鄂倫春族] 등 중국의 소수민족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명 말에서 淸 초에 서부의 石勒喀河와 外興安嶺 산기슭에서부터 동부 黑龍江의 북쪽 연안 지역인 精奇里江(結雅河) 일대에 걸쳐 거주하였다.<sup>39)</sup> 索倫은 흑수말갈의 후신으로 담비를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였다고 한다.<sup>40)</sup>

<표 1> 발해의 지방행정 조직<sup>41)</sup>

5경	15부	62주	지역
상경	龍泉府	龍、湖、潑 3주	肅愼故地
중경	顯德府	盧、顯、鐵、湯、榮、興 6주	
동경	龍原府	慶、鹽、穆、賀 4주	濊貊故地
남경	南海府	沃、晴、椒 3주	沃沮故地
서경	鴨綠府	神、桓、豐、正 4주	高麗故地
	長領府	瑕、河 2주	
	扶餘府	扶、仙 2주	扶餘故地
	鄭頡府	鄭、高 2주	
	定理府	定、瀋 2주	挹婁故地
	安邊府	安、瓊 2주	
	率賓府	華、益、建 3주	率濱故地
	東平府	伊、蒙、沱、黑、比 5주	拂涅故地
	鐵利府	廣、汾、浦、海、義、歸 6주	鐵利故地
	懷遠府	達、越、懷、紀、富、美、福、耶、芝 9주	越喜故地
安遠府	寧、鄜、慕、常 4주		

<그림 1> 발해의 영역<sup>42)</sup>



담비 사냥에 관해서는 아래의 자료가 참고된다.

다-1. 만약 가을이나 겨울에 죽으면 그 시체를 이용하여 담비를 포획하는데, 담비

38) 佐々木史郎, 1996, 『北方から来た交易民-絹と毛皮とサツタン人』, NHKブックス, 197~198쪽.

39) 두산백과 doopedia 썬문[Suolun, 索倫] 항목.

40) 烏拉諸山林中 多貂 索倫人以捕貂爲恆業(『滿洲源流考』卷19. 國俗4, 物産, 貂).

41)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181쪽.

42)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새롭게 본 발해사』, 62쪽 지도.

가 그 살을 뜯어 먹다가 많이 잡힌다.<sup>43)</sup>

다-2. 9월 27일 계절은 이미 가을로 접어들어, 조선인들은 검은담비 사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두막 근처의 물가에서 검은담비를 사냥할 때 쓰는 모스트(다리)라는 덫을 보았다. 조선인들은 강가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그런 덫을 만들었다. 짐승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닫히도록 설계되어있는 덫은 결국 짐승을 그 안에 가둔 채 물속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짐승은 그 안에서 굶어 죽거나 익사하게 된다. 조선인들은 무엇보다도 항상 정확하게 작동하며, 단순히 검은담비를 잡을 뿐만 아니라 물에 빠뜨리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도 비싼 털가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다. 게다가 사냥한 담비를 새나 다른 맹수들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다. 이 덫에는 검은담비뿐 아니라 다람쥐나 뇌조 같은 새들도 자주 걸려들었다.<sup>44)</sup>

다-1은 勿吉의 풍속에 관한 자료로, 시신을 이용하여 담비를 사냥했음을 보여 준다. 다-2는 러시아 극동 탐험가인 블라디미르 클라우디에비치 아르세니에프가 1923년에 지은 저서인 『데르수 우잘라』의 내용으로, 그가 1907년경에 연해주 지방을 탐사했을 때의 기록이다. 주인공 데르수 우잘라는 당시 아르세니에프 일행의 길 안내를 맡은 나나이족(흑수말갈)의 후신이었다. 이는 연해주 지역에 이주해 살던 조선인들이 고가에 거래되던 검은담비를 사냥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호랑이는 한대에서 열대까지 분포되어 있어서 지역에 따라 형태나 크기가 상당히 다르며 아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가운데 발해와 관련된 것은 시베리아 호랑이다. 북한에서는 조선범, 남한에서는 호랑이, 한국호랑이 또는 백두산 호랑이, 중국에서는 東北虎라 칭하며 영어로는 시베리아(Siberian tiger) 또는 아무르호랑이(Amur tiger)라 한다. 예전엔 한반도와 만주, 러시아 극동지방의 호랑이를 구별했으나 지금은 같은 아종으로 보고 있다. 분포 지역은 러시아 극동지방(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남부), 중국 동북지방(만주), 한반도이다. 현존하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크다.<sup>45)</sup> 호랑이의 모피는 예로부터 깔개나 벽걸이 등 여러 용도로 귀중하게 쓰였다.<sup>46)</sup>

곰은 육상에서 최대의 식육류로 크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털은 긴 편이고 꼬리는 아주 짧다. 북극곰·회색곰을 제외하고는 흑색 또는 흑갈색이다. 이 가운데 발해와 관련된 곰은 불곰(Ursus arctos)과 반달곰(Ursus thibetanus, 아시아 검은 곰·히말라야 곰이라고도 한다)이 해당한다.<sup>47)</sup> 크기로 보아 羆皮는 불곰 가죽, 熊皮는 반달곰 가죽으로 추정된다.

표범은 식육목 고양이과 포유류로 몸길이 95~150cm, 꼬리 길이 58~110cm, 몸무게

43) 若秋冬 以其屍捕貂 貂食其肉 多得之(『魏書』卷100, 列傳88, 勿吉).

44) 블라디미르 클라우디에비치 아르세니에프 지음·김옥 옮김, 2005, 『데르수 우잘라』, 갈라파고스, 183쪽.

45) 국립민속박물관, 2005, 앞의 책, 155쪽.

46) 박순지·이춘규, 1994, 「고대부터 고려까지의 모피물에 관한 고찰」 『服飾』22, 198~199쪽.

47) 국립민속박물관, 2005, 앞의 책, 168쪽.

37~90kg이다. 암컷은 수컷보다 훨씬 작다. 몸 빛깔 · 털 길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담황색에 갈색이고 검은색 얼룩점이 있으며 등의 검은색 무늬는 매화 모양이다. 바탕색은 등 쪽은 노란색, 배 쪽은 흰색이다. 24 아종으로 나뉘며, 발해와 관련된 것은 아무르표범(*Panthera pardus orientalis*)이다. 아무르표범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까지만 해도 만주와 한반도와 러시아 일부 지방에 서식했었는데, 오늘날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국경 사이 타이가 지대에서만 겨우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sup>48)</sup> 濊에 文豹 즉 무늬 있는 표범이 많다는 것<sup>49)</sup>을 통해서도 발해 이전부터 주요 수출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범은 기각목 물범과에 속하는 동물로, 몸의 크기는 분포와 관계가 있는데, 먹이가 풍부한 남극해에 분포하는 종은 대형으로 몸길이 2.8~4.4m, 몸무게 0.6~3.2t에 달한다. 소형종은 몸길이 1.2~1.3m, 몸무게 50~60kg으로, 대형과 소형 사이의 차이가 크다. 종류는 13속 18종이 알려져 있다. 분포는 3개로 크게 나뉘는데, 첫째 북극해의 한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분포되어 있어 북극해로부터 태평양에 걸쳐 서식하는 물범(잔점박이물범, *Phoca largha*) · 턱수염물범(*Erignathus barbatus*) · 고리무늬물범(*Phoca hispida*) · 흰띠 박이 물범(*Phoca fasciata*)과 대서양에 사는 회색물범(*Halic hoerus grypus*) · 두건 물범(*Cystophoracristata*) · 하프물범(*[Phoca(Pagophilus)] groenlandica*) 등이다. 둘째 열대지방에 사는 몽크 물범(*Monachus schaninslandi*), 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의 아열대 지방의 북방코끼리물범(*Mirounga angustirostris*), 남위 30~70°의 섬 사이를 회유하며 사는 남방코끼리물범(*Mirounga leonina*)이 있다. 셋째 남극의 물범 무리로서 게잡이물범(*Lobodon carcinophagus*) · 레오포드 물범(*Hydrurga leptonyx*) · 로스해 물범(*Ommatophoca rossi*) · 웨들해 물범(*Leptonychotes weddelli*)이 있다.<sup>50)</sup>

『柳邊紀略』에는 “바다표범 가죽이 동북쪽 바다에서 나는데, 길이가 3~4척이고 넓이가 2척쯤 되며 털이 짧고 담록색이며 검은 점이 있다. 검게 물을 들여 모자를 만든다”라고 했다.<sup>51)</sup> 발해의 동쪽 변경이 바다에 닿아 있으므로 바다표범 가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猫皮(고양이 모피)는 들고양이 가죽으로 추정된다. 『盛京通志』에는 “들고양이는 산골짜기에 사는데 여우와 비슷하고 입은 각이 져 있다. 색은 푸르고 몸에는 얼룩무늬가 있으며 무리를 잘 이운다. 야생너구리라고도 한다.”라고 했다.<sup>52)</sup>

흰 토끼 가죽(白兔皮)은 『新唐書』 渤海傳에 나오는 태백산의 토끼로 추정된다.

라-1. 여름 4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 果下馬 1匹, 牛黃, 人蔘, 美髯, 朝霞紬, 魚牙紬, 鏤鷹鈴, 海豹皮, 金, 銀 등을 바쳤다.<sup>53)</sup>

48) 국립민속박물관, 2005, 앞의 책, 160쪽.

49)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濊; 『三國志』卷30, 烏桓鮮卑東夷傳30, 濊.

50) 국립민속박물관, 2005, 앞의 책, 116쪽.

51) 金毓黻, 『渤海國志長編』卷17, 渤海國志15, 食貨考 4, 海豹皮.

52) 金毓黻, 『渤海國志長編』卷17, 渤海國志15, 食貨考 4, 猫皮.



라-2. 29년(730년) 봄 2월에 왕족 金志滿을 보내 당에 조회하게 하고, 작은 말 5필과 개 1마리와 금 2천 냡, 두발 80냥, 海豹皮 10장을 바쳤다.<sup>54)</sup>

라-3. 이보다 앞서 왕의 조카 志廉을 보내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말 두필, 개 세 마리, 금 5백 량, 은 2십 량, 베 6십 필, 牛黃 2십 량, 인삼 2백 근, 머리카락 1백 량, 海豹皮 16장을 바쳤는데, 이때 와서 志廉에게 鴻臚少卿員外置의 관작을 주었다.<sup>55)</sup>

라-4. 9년(869) 가을 7월에 왕자 소판 金胤 등을 당나라에 보내 은혜에 감사하였다. 아울러 말 2필과 좋은 금 1백 냡과 은 2백 냡, 우황 15냥, 인삼 1백 근, 큰 꽃무늬 魚牙錦 10필, 작은 꽃무늬 魚牙錦 10필, 朝霞錦 20필, 40세짜리 올 고운 흰 毛織布 40필, 30세짜리 모시 옷감 40필, 4척 5촌의 머리카락 1백 5십 냡, 3척 5촌짜리 머리카락 3백 냡, 금비녀와 머리에 쓰는 오색 綦帶 및 班胸 각 10條, 매 모양 금제 사슬을 돌려 매달아 무늬를 아로새긴 붉은 칼전대 20부, 새로운 양식의 매 모양 금제 사슬을 돌려 매달아 무늬를 아로새긴 오색 칼전대 30부, 매 모양 은제 사슬을 돌려 매달아 무늬를 아로새긴 붉은 칼전대 20부, 새로운 양식의 매 모양 은제 사슬을 돌려 매달아 무늬를 아로새긴 오색 칼전대 30부, 새매 모양 금제 사슬을 돌려 매달아 무늬를 아로새긴 붉은 칼전대 20부, 새로운 양식의 새매 모양 은제 사슬을 돌려 매달아 무늬를 아로새긴 붉은 칼전대 30부, 새매 모양 은제 사슬을 돌려 매달아 무늬를 아로새긴 오색 칼전대 30부, 금꽃 모양 매 방울 2백과, 금꽃 모양 새매 방울 2백과, 금으로 새겨넣은 매 꼬리통 50쌍, 금으로 새겨넣은 새매 꼬리통 50쌍, 은으로 새겨넣은 매 꼬리통 50쌍, 은으로 새겨넣은 새매 꼬리통 50쌍, **매 묶은 붉은 아롱무늬 가죽 1백 쌍, 새매 묶은 붉은 아롱 무늬 가죽 1백 쌍**, 보석을 박아 넣은 금 바늘통 30구, 금 꽃을 새긴 은 바늘통 30구, 바늘 1천 5백 개 등을 받들어 진상하였다.<sup>56)</sup>

라 사료는 신라의 수출품 가운데 모피 관련 자료를 추린 것이다. 한 건을 제외하고

53) 夏四月 遣使入唐 獻果下馬一匹、牛黃、人蔘、美髯、朝霞袖、魚牙袖、鏤鷹鈴、海豹皮、金銀等(『三國史記』卷8, 聖德王 22년 夏4월).

54) 遣王族志滿朝唐 獻小馬五匹、狗一頭、金二千兩、頭髮八十兩、海豹皮十張(『三國史記』卷8, 聖德王 29년 春2월).

55) 先時 遣王姪志廉謝恩 獻小馬兩匹、狗三頭、金五百兩、銀二十兩、布六十匹、牛黃二十兩、人蔘二百斤、頭髮一百兩、海豹皮一十六張 及是授志廉鴻臚少卿員外置(『三國史記』卷8, 聖德王 33년).

56) 遣王子蘇判金胤等 入唐謝恩兼進奉馬二匹、麩金一百兩、銀二百兩、牛黃十五兩、人蔘一百斤、大花魚牙錦一十匹、小花魚牙錦一十匹、朝霞錦二十四匹、四十升白氎布四十匹、三十升紵衫段四十匹、四尺五寸頭髮百五十兩、三尺五寸頭髮三百兩、金釵頭五色綦帶并班胸各一十條、鷹金鏤鏃子并紛鎔紅帽二十副、新樣鷹金鏤鏃子紛鎔五色帽三十副、鷹銀鏤鏃子紛鎔紅帽二十副、新樣鷹銀鏤鏃子紛鎔五色帽三十副、鶴子金鏤鏃子紛鎔紅帽二十副、新樣鶴子金鏤鏃子紛鎔五色帽三十副、鶴子銀鏤鏃子紛鎔紅帽二十副、新樣鶴子銀鏤鏃子紛鎔五色帽三十副、金花鷹鎔鈴子二百顆、金花鶴子鈴子二百顆、金鏤鷹尾筒五十雙、金鏤鶴子尾筒五十雙、銀鏤鷹尾筒五十雙、銀鏤鶴子尾筒五十雙、繫鷹緋纈皮一百雙、繫鶴子緋纈皮一百雙、瑟瑟鈿金針筒三十具、金花銀針筒三十具、針一千五百(『三國史記』卷11, 景文王 9년 秋 7월).

는 海豹皮만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서술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다-3에 나오는 모피는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피물의 가공 기술이 발달했음을 알게 해준다. 신라 궁중 수공업 관청은 공정별, 품목별, 재료별로 세분되어 있었다. 동물 가죽을 가공하기 위해 무두질하는 피전과 그에서 생산된 가죽을 재료로 마구와 북, 신발 등을 만드는 피전, 추전, 피타전, 탐전, 화전은 분업적 관계에 있었다.<sup>57)</sup>

<표 2> 신라의 모피 관련 궁중 수공업 관청

관청명	경덕왕 때의 개칭	혜공왕 보고 이후의 명칭	담당 업무
打典			가죽의 무두질
皮典	鞞人房	皮典	가죽 제품의 생산
鞞典			가죽 마구의 제작
皮打典	鞞工房	皮打典	가죽 북의 제작
鞞典			가죽신의 제조
靴典			가죽 장화의 제조

한편 아랍의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adhibah, 810~912)는 『諸道路 및 諸王國志』에서 신라의 지리적 위치와 황금의 산출 및 그곳 왕래에 관해 서술한 뒤에 신라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실어 내 가는 물품 가운데 담비 가죽을 기록하여<sup>58)</sup> 신라의 담비 가죽이 아랍에까지 알려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담비 가죽은 新羅産이 아니라 발해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질이 좋은 담비 모피는 당시에 발해산이었고, 신라에서 담비 모피를 수출한 사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8~10세기 남북국시대 모피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 자료상에 보이는 모피는 발해의 경우 貂皮, 大蟲皮, 羆皮, 熊皮, 豹皮, 海豹皮이며, 신라는 海豹皮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피는 발해 동부와 북부의 어업 수렵 구역에서 생산되었는데 소흥안령과 삼강평원 지구로 懷遠府, 鐵利府, 安遠府, 率濱府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는 拂涅, 越喜, 虞婁, 鐵利部 등이 살았다. 다른 산지로는 발해 중부 어업 수렵 구역으로 장백산맥 지역이다. 이 지역 외에도 흑수말갈이 거주하던 지금의 연해주 일대에도 모피의 주된 산지가 있었다.<sup>59)</sup>

## II. 모피의 유통

이 장에서는 모피의 유통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1장에서 제시한 자료를 정

57) 서성호, 2016, 「수공업과 제작기술」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10-신라의 산업과 경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94쪽.

58) 무함마드 간수, 1992,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 출판부, 282쪽.

59) 윤재운, 2019b, 앞의 논문, 71쪽.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발해의 모피 수출

연도	기년	품목	상대국	비고
726	武王 8년	貂鼠皮	唐	
728	武王 10년	貂皮 300장	日本	1차 사절단(727)
730	武王 12년	海豹皮 5매, 貂鼠皮 3매	唐	
738	文王 2년	貂鼠皮 1000장		
739	文王 3년	大蟲皮·熊皮 각 7장, 豹皮 6장	日本	2차 사절단(739)
740	文王 4년	貂鼠皮	唐	
872	大玄錫 2년	大蟲皮 7장, 豹皮 6장, 熊皮 7장	日本	28차 사절단(871)
910	大諲譔 10년	貂鼠皮, 熊皮	後梁	
925	大諲譔 25년	貂鼠皮 이불 한 채와 요 6잎	後唐	
926	大諲譔 26년	虎皮		

726년(무왕 8)에 貂皮를 唐에 보낸 것은 발해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이후로 조공 물품이 方物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여서 그 물품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貂皮가 주요한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728년(무왕 10)은 727년에 일본에 처음 파견된 1차 발해사절단이 貂皮 300장을 일왕에게 바친 것이다. 담비는 여러 사료에 보이듯이 ‘貂裘’로의 사용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것에는 다수의 담비 모피가 필요하였다.

마-1. 검은담비 한 마리는 (크기가) 한 척이 되지 않는다. 60여 마리의 검은담비로 1벌의 옷을 만들 수가 있다. 검은담비 옷을 입은 자는 눈바람 가운데 서 있더라도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였다.<sup>60)</sup>

『天工開物』은 1637년 중국에서 편찬된 산업기술에 관한 백과사전이다.<sup>61)</sup> 이에 의하면 1벌의 모피 옷을 만드는데 60여 마리 분량의 검은담비 모피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728년의 사례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검은담비이다. 일본의 경우도 물품명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사례가 별로 없으나, 貂皮를 비롯한 모피가 주요 수출품이었음은 충분히 상정할 수가 있다.

일본 헤이안시대의 궁성인 平城宮터에서 발해와 관련된 목간이 두 점 출토되었다. 하나는 東二坊坊間路 서쪽 배수구에서 1988년에 출토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헤이세이궁 남쪽 담에서 1966년도에 출토된 것이다. 편의상 전자를 ‘渤海使’ 목간이라 하고 후자를 ‘遣高麗使’ 목간이라 한다. 전자는 귀가 그려진 나무판 위에 글씨를 연습한 것이다. 발견된 곳은 나가야노오[長屋王] 저택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여기에서 출토된 220점의 목간은 和銅 8년(715)부터 天平 원년(729) 사이의 것이며 이 중에서

60) 一貂之皮 方不盈尺 積六十餘貂 僅成一裘 服貂裘者 立風雪中 更暖於宇下(『天工開物』乃服卷2, 裘).

61) 菊地眞, 2003, 「古典文學の中の渤海國交易品-‘ふるきの皮衣’」 『アジア遊學』58, 190쪽.

도天平 원년의 목간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발해 사신이 왔던 시기는 발해와 일본 사이에 처음으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던 727년뿐이다. 따라서 ‘渤海使’는 高齊德 일행을 가리킨다. 그리고 목간 내용으로 보아서 이들 일행은 공식적인 외교활동 이외에 교역 활동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후자에서 칭한 고려는 발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遣高麗使’ 즉 遣渤海使는 天平寶子 2년(758) 9월 18일에 발해사신 楊承慶 일행과 함께 귀국한 오노 다모리[小野田守] 일행을 가리킨다.<sup>62)</sup>

다시 말하면 渤海使木簡을 통해서 보았을 때, 발해사절과 일본 귀족과의 사이에 사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1차 발해사는 담비 300장을 헌상했는데, 739년 제2차에서는 담비 모피 이외의 각종 모피를 바쳤다. 또한 739년과 872년 품목을 비교하면, 모피의 종류와 수량이 똑같아서 발해와 일본 사이에 공무역품이 定數화된 내용을 상정할 수 있다. 공무역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도, 대개 이런 내용의 거래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63)</sup>

738년(문왕 2)의 貂鼠皮 1,000장은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많은 양의 검은담비를 보냈다. 이는 발당전쟁 이후 문왕이 당과의 정상적인 당과의 정상적인 외교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sup>64)</sup> 발해의 말갈 수령 재편을 통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65)</sup>

738년의 사례는 728년 일본에 수출한 ‘貂皮 300장’의 배경을 시사한다. 역대 중국 사료는 말갈·실위·거란 등의 북동아시아 諸民族에 대하여 예외 없이 담비의 산출과 조공을 기록하여, 중국왕조의 담비 모피에 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발해는 일본에 처음으로 사절을 보낼 때 예로부터 중국왕조에서 사랑받은 고급 모피로 통용된 검은담비 모피를 다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62) 윤재운, 2015, 『교류의 바다 동해』, 경인문화사, 195~196쪽.

63) 龔島榮紀, 2015, 앞의 책, 143쪽.

64) 龔島榮紀, 2015, 앞의 책, 144쪽.

65) 윤재운, 2019a, 「발해의 동부유라시아정책과 국가전략」 『신라사학보』45, 254쪽.

<표 4> 발해 말갈 부족의 唐 조공 현황<sup>66)</sup>

연도	월	발해의 기년	拂涅	越喜	鐵利	虞婁	黑水
714	2	高王 17년	○	○	○		
	12		○				
716	12	高王 19년	○				
717	3	高王 20년	○				
718	2	高王 21년	○		○		
719	정월	高王 22년	○	○	○		
	2		○				
	8		○				
721	11	武王 仁安 2년	○		○		
722	윤5	武王 仁安 3년					○
	9		○		○		
	10			○	○		
	12						○
723	11	武王 仁安 4년	○	○	○		
724	2	武王 仁安 5년	○	○	○		○
	5				○		
	12			○			
725	1	武王 仁安 6년					○
	3		○	○	○		○
	4						○
	5						○
726		武王 仁安 7년					○
727	2	武王 仁安 8년			○		
	11				○		
730	1	武王 仁安 11년	○				
	5						○
	6						○
735	8	武王 仁安 16년	○	○	○		
736	9	武王 仁安 17년		○			
737	1	武王 仁安 18년	○				
739	2	文王 大興 2년	○				
740	2	文王 大興 3년		○	○		
741	2	文王 大興 4년		○			○
	3		○				
747	1	文王 大興 10년					○
748	1	文王 大興 11년					○
	3						○
750	1	文王 大興 13년					○
752	11	文王 大興 15년					○
802	1	康王 正曆 8년		○		○	
815	2	僖王 朱雀 3년					○
841	2	大彝震 咸和 11년	○		○		
912	11	末王 大諲譔 6년					○
924	9	末王 大諲譔 18년					○
925	5	末王 大諲譔 19년					○
총계			19	12	15	1	20

66) 윤재운, 2006,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179~180쪽의 <표> 참조.

위의 표를 통해 상경으로의 천도가 발해의 북부말갈제족지배의 진전과 관련됨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越喜、鐵利、拂涅의 견당사는 740년대 초에 끊기고, 이후 발해에 완전 복속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746년에는 鐵利人 및 발해인 1,000여 명이 일본의 出羽에 ‘慕化來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sup>67)</sup> 이것도 발해 지배에 저항하는 철리말갈인 등이 일본에 대거 망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68)</sup> 발해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 수령층을 외교·무역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 지배자로서의 사회적 신분과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재편하였다. 발해의 국가구조는 이 영역에 특유한 지리·자연조건과 밀접한 수렵·어로·목축이라고 하는 생산 형태로 규정되어 각자의 수령을 매개로 한 지역지배 혹은 수령의 지방 관리화를 국가형태의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sup>69)</sup>

발해가 흑수말갈을 복속시킨 것은 검은담비의 획득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淸朝에 의한 아무르강 유역의 제민족지배가, 검은담비 모피의 입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보면 아무르강유역에 거주하는 흑수말갈 등 북부말갈 지역이야말로 북동아시아에서도 상질의 검은담비가 가장 풍부하게 서식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sup>70)</sup> 북부말갈이 사는 지역의 복속을 통해, 발해는 검은담비라는 중요한 상품을 수령에 의해 공납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당, 일본, 신라에 수출할 수 있었다.

모피는 설탕이나 담배·면화 같은 농업 플랜테이션 세계시장에서 주요 상품의 선구적인 것으로, 노예제 시스템이나 강제 공납시스템과 연계되어 근대식민지개척을 선도한 가장 주요한 ‘세계상품’이었다는<sup>71)</sup> 지적을 고려하면, 발해산 모피는 ‘세계상품’으로서의 선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상품으로서의 검은담비의 의미는, ‘검은담비가 수출된 길(黑貂의 道, Sable Road)’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담비길은 러시아의 샤부크노프가 1985년에 발해와 여진의 유적들에서 발견되는 소그드-이란 계통의 유물들을 검토하면서 제기한 발해와 중앙아시아지역 간의 교역교통로이다.<sup>72)</sup> 그는 서기 1세기부터 중국에서 인기를 누렸던 ‘挹婁貂’가 7~10세기에도 여전히 수요가 대단하였고, 중앙아시아와 이란의 상인들이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만주와 아무르, 연해주 지역의 종족들에게서 貂皮를 사들이려 하면서 북방지역으로 새로운 교역로인 담비길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위구르에서 활동하였던 소그드 상인들이 이웃하는 室韋와 더 동쪽의 발해에서 貂皮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담비길의 구체적인 노선을 규명하기도 하였다.<sup>73)</sup> 샤부크노프는 담비길이 14세기 말 몽골제국의 붕괴로 인해 기능이 정

67) 『續日本紀』卷16, 天平18年.

68) 윤재운, 2019a, 240쪽.

69)鈴木靖民, 2020, 『古代の日本と東アジア-人とモノの交流史』, 勉誠出版, 358쪽.

70) 蓑島榮紀, 2015, 앞의 책, 146쪽.

71) 下山晃, 2005, 『毛皮と皮革の文明史-世界フロンティアと掠奪のシステム』, ミネルヴァ書房, 4쪽.

72) E. V. シヤフクノフ, 1998, 「北東アジア民族の歴史におけるソグド人の黒貂の道」 『東アジアの古代文化』96.

73) 정석배, 2019, 앞의 논문.

지되었다고 보았으나, 14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아서 14세기 이전은 ‘전기 Sable Road’로, 14~19세기는 ‘후기 Sable Road’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sup>74)</sup>

이와 관련하여 콕샤로프카의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발해와 위구르제국과의 관계가 규명되기도 하였다.<sup>75)</sup> 콕샤로프카는 발해가 동북지역으로 확장하는 가운데에 만든 성지로, 산악 지역의 모피와 인삼 등 여러 산물을 채취하여 1차로 공급받으며, 주변으로 거래하는 거점이었다는 점과 콕샤로프카에서 위구르 관련 유적이 축조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위구르 제국의 전성기와 이어지는 8세기 중후반~9세기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발해의 유물에 보이는 여러 유라시아 초원계의 유물은 소그드인 이 주로 시작되었고, 그 교역은 이후 여진의 교역루트로 이어졌다는 점 등을 규명하였다.

5道로 대표되는 발해 교통로의 특색은 우선 하곡 지대를 따라 수로와 육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즉 하천이 흐르는 방향에 의해 교통노선이 규정되었다. 鴨綠江·輝發河 水系는 당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고, 두만강 수계는 일본으로의 교통로로, 제2송화강 수계는 거란도, 목단강은 흑수말갈로 대표되는 북부말갈로의 교통로이다. 둘째로 육로와 해로와의 결합이 보인다는 점이다. 당과 일본 그리고 신라로 가는 대표적인 길인 조공도, 일본도, 신라도는 모두 육상교통 구간과 해상교통 구간으로 나누어진다. 셋째로 발해의 국가전략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농경 지역에 대한 통치기능과 유목지역에 대한 외교정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해 주변의 모든 세력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설치되었다.<sup>76)</sup> 발해의 5도는 중국측 사서에 나오는 것이고, 담비길은 중국측 사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발해 이전부터 있었던 초원을 동서교역로로 보인다. 발해는 5도와 담비길을 통해 동유라시아 지역에 모피를 수출했던 것이다.

8~10세기 모피는 주요 산지였던 발해 북동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에까지 이어지는 교통로를 통해 유통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貂皮는 이러한 유통망을 통해 거래된 세계상품으로서의 선구적인 의미가 있다.

### Ⅲ. 모피의 소비

모피의 소비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당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피는 고대 중국에서는 어깨에 모피를 걸치는 것이 특별한 위엄을 표시했고, ‘大裘’를 걸치는 일은 천자의 특권이였다.<sup>77)</sup> 貂는 담비, 족제비, 흰담비 등의 호칭인데, 화북에서는 주로

74) 室田武, 2003, 「徽宗‘左井觀天’の地:依蘭冬紀行-黑龍江省にセーブルードの軌跡を求めて(1)」『經濟學論叢』54-2, 同志社大學經濟學會, 216쪽.

75) 강인욱, 2017, 「고고학 자료로 본 발해와 위구르 제국-콕샤로프카-8 유적을 중심으로-」『중앙아시아연구』22-2, 165쪽.

76) 윤재운, 2011, 「발해의 5京과 교통로의 기능」『한국고대사연구』63, 212~213쪽.

흰가슴담비를 가리켰다. 당에 조공으로 바친 고급 담비와 선발된 족제비는 만주나 시베리아 지방이 원산이고, 이는 화북의 고귀한 귀족들의 모자에 무엇보다 아름다운 장식물을 제공해주었다.<sup>78)</sup> 唐代에는 군용으로 담비, 검은담비, 북방족제비 등 작은 가죽옷이 대량으로 수입되었다. 이는 변경의 기병대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 조정에서 가죽과 馬具를 정기적으로 가죽 장인에게 보급한 것이었다.<sup>79)</sup>

표범 가죽은 당대 문인의 일용품에도 사용되었다. 벼루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씌우는 덮개로는 비단 천을 사용했는데 천이 먹에 접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범 가죽 주머니를 사용했다.<sup>80)</sup>

전술했듯이 발해 사절단이 일본에 가져간 물품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담비 가죽을 비롯한 각종 모피였다. 그것도 당시 일본에서는 값이 매우 비싼 담비, 호랑이, 말곰[羆] 따위의 모피를 대량으로 가져와 일본 지배층의 눈을 놀라게 하였다.

발해 사절단은 모두 34차례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방문할 때마다 대량의 모피를 일본에 가지고 갔다. 이렇게 발해 사절이 아무리 많은 모피를 가져왔다고 해도 그것은 당시의 일이다. 몇 년에 한 번씩 사절단이 배에 싣고 오는 모피의 양에는 당연히 한도가 있어 宮廷貴族社會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구하기 어려운 모피를 구해 입는다는 것은 일종의 신분 상징이 되어 귀족들이 갈망하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바-1. 蕃客이 가져오는 물품을 사사로이 교환하는 자는 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러나 이즈음 사람들은 반드시 외국산 물품을 좋아하여 다투어 무역하고 있다. 마땅히 엄하게 금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어야겠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자, 백성은 곤장 100대로 정한다. 王臣家에서 사람을 시켜 매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國司 가운데 아부함을 허용하는 자 또는 스스로 사들이는 것은 특히 중벌로 다스리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sup>81)</sup>

바-1의 기록을 보면 일본 귀족들 사이에서 모피의 인기가 높아 그들이 앞다투어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싶었던 모피를 손에 넣은 귀족들은 그것을 신분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입고 패션을 다투고 있었다.

모피에 대한 패션 경쟁을 말해 주는 에피소드는 919년에 발해 사절단이 일본을 방

77) 司裘 掌爲大裘 以共王祀天之服 中秋獻良裘 王乃行羽物(『周禮』卷1, 天官冢宰).

78) 에드워드 H. 세이퍼 지음·이호영 옮김, 2021, 『사마르칸트의 황금 복숭아: 대당제국의 이국적 수입 문화』, 글항아리, 184쪽.

79) 右尚書令掌供天子十有二閑馬之鞍轡 每歲 京兆河南 制革理材燦金以爲之 送之于署 令工人增飾而進焉 及五品三部之帳 備其材革 而修其制度 丞爲之貳 凡刀劍斧鉞甲冑紙筆茵席 履舄之物 靡不畢供 其用綾絹金鐵毛革等 所出方土以時支送 白馬尾白牦牛尾 出隴右諸州 翟尾孔雀尾白鷺鮮出安南江東 貂皮出諸軍州(『唐六典』卷22, 少府軍器監).

80) 에드워드 H. 세이퍼 지음·이호영 옮김, 2021, 『사마르칸트의 황금 복숭아: 대당제국의 이국적 수입 문화』, 글항아리, 221쪽.

81) 『類聚三代格』卷19, 禁制事.



문했을 때를 들 수 있다. 이듬해 5월 12일에 열린 豊樂殿의 연회석에 사절단의 대표인 大使 裴璆는 가죽옷을 입고 참석했는데, 일본 왕은 검은담비 가죽옷 8벌을 겹쳐 입고 참석하여 배구를 비롯한 발해 사절단을 놀라게 했다는 일화가 있다.<sup>82)</sup>

이 일화가 일어난 5월 12일은 양력 6월 7일에 해당하므로 무더운 계절이었는데, 더위를 참고 가죽옷을 입은 배구를 놀라게 할 만큼 일본 지배층 사이에는 우스울 정도의 모피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 주는 이야기이다.<sup>83)</sup>

그러므로 일본 조정에서도 과도한 모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피 금지령’을 내린 것 같으며, 다음과 같이 모피 사용 기준도 정하여 규제하고 있었다.

사-1. 5위 이상은 호랑이 가죽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 단 표범 가죽은 參議 이상과 참의가 아닌 3위에 허용한다. 이밖에는 허용할 수 없다.

사-2. 담비 가죽옷은 참의 이상에게 착용을 허락한다.

사-3. 말곰 가죽으로 만든 말다래(장니:障泥)<sup>84)</sup>는 5위 이상 착용을 허용한다.<sup>85)</sup>

요컨대 요즘 방식으로 말하자면 5급 혹은 3급 이상의 고위 관리가 아니면 입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해 사절단이 일본의 수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금지된 것이 풀리고, 자유롭게 모피를 착용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모피 등의 귀중품은 신분 표시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어 일찍부터 금물로 착용이 금지되었다. 예컨대 條에는 6位 이하의 관인에 대해 虎·豹·羆 모피를 안장이나 橫刀의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sup>86)</sup>

아-1. 발해의 客을 대접하기 위해 諸司, 관원, 雜人 등 客人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용이 금지된 물품을 몸에 지니는 것을 허용한다.<sup>87)</sup>

아-1은 모피를 운반한 먼 곳에서 온 손님에 대한 일본측의 배려라고 할 만한 조치였는데, 모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앞의 에피소드처럼 패션 경쟁을 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태평성세를 누리며 문화가 성숙하였지만, 도덕이 해이해

82) 昔蕃客參入時 重明親王乘鴨毛車 着黑貂裘八重 見物 此間 蕃客 纔以件裘一領持來爲重物 見八領 大慙云云(『江家次第』卷5, 春日祭使途中次第). 『江家次第』는 12세기 초에 大江匡房에 의해 쓰인 저술이다. (酒寄雅志, 1984, 『毛皮と渤海』 『歴史讀本』11월호, 40쪽). 여기에서 ‘重物’을 ‘겹치는 물건’이 아니라 ‘重寶’·‘귀중품’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蓑島榮紀, 2015, 앞의 책, 141쪽). 이는 黑貂裘의 입수가 매우 어려웠다는 기억이 일본 중앙귀족의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83) 菊地眞, 2004, 「古典文學の中の渤海國交易品—ふるきの皮衣」續編 『アジア遊學』59, 123쪽.

84) 말을 탄 이의 옷에 진흙이 튀지 않도록 가죽 같은 것으로 만들어 안장 양쪽에 달아 늘어뜨리는 물건이다.(윤재운, 2006, 앞의 논문, 324쪽).

85) 『延喜式』卷41, 彈正台.

86) 禁文武百寮六位以下 用虎豹羆皮及金銀 飾鞍具并橫刀帶端 但朝會日用者 許之 婦女依父·夫蔭服用亦聽之 凡橫刀鈇者 以糸纏造 勿用素木令脆焉(『續日本紀』卷6, 靈龜元年(715) 9月 己卯朔).

87) 『日本三代實錄』卷43, 元慶 7년 4월 21일 丁巳.

지고 복식 제도도 상하존비의 구별이 없이 사치에 흐르고 예의에 벗어나는 등 문란해 지자 834년(흥덕왕 9)에 골품 제도의 신분 계급을 유지하고 사치를 금하기 위하여 복식에 대한 禁畵을 내리게 되었다. 이 服飾禁制에는 다섯 계급을 남녀로 나누어 약 22종의 복식에 대한 금제와 착용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관모(冠帽)·포(袍)·바지(袴)·저고리(短衣)·치마(裳과 裙)·목도리(裱)·허리띠(腰帶)·허리끈(褸)·옷끈·버선·버선목·신발(靴와 履)·신발띠(靴帶)는 물론 빗·비녀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따라서 어떠한 재료로 만든 것을 착용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sup>88)</sup> 이 가운데서 모피물에 관한 금제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5> 신라 흥덕왕대의 각종 규제에 나오는 모피물<sup>89)</sup>

종 류	품 목		허용 신분	금지 신분
皮	服飾	履	4두품녀 이상	평 인
	器用	緣	5두품 이상	
	車騎	革鞵(안장 밑에 까는, 가죽으로 만든 깔개)	4두품 이상	
		鞍坐子	6두품 이상	
		靽鞵(가죽 고삐)	6두품 이상	
		障泥	4두품녀 이상	
鞍褥(가죽 요)	4두품 이상			
牛皮	服飾	履	4두품 이상	
	車騎	革鞵	4두품 이상	
馬皮	車騎	革鞵	4두품 이상	
虎皮	車騎	革鞵	6두품녀 이상	5두품녀 4두품녀
		鞍坐子(가죽 방석)	6두품녀 이상	5두품녀 4두품녀
紫皮	服飾	靴		진골 대등
烏麁皺文紫皮	服飾	靴	진골 대등 이상	6두품 이하

신라의 禁制를 통해 볼 때, 신발인 履와 靴는 모두 가죽 제품으로 보인다. 이는 4두품에는 소가죽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골품에는 종류를 알 수 없는 가죽의 사용만을 허락하고 있다. 화는 진골 대등에도 자색 가죽을 금하고 있어 자색 가죽이 고급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6두품 이하에게도 주름진 검은 사슴 가죽과 자색 가죽(烏麁皺文紫皮)을 금하고 있어 신라에서 자주색 가죽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88) 『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

89) 박순지·이춘계, 1994, 앞의 논문, 198쪽.

있다. 그러나 신발에 가죽을 쓰는 것은 귀족에만 해당하며 평민은 신발 재료로 단지 麻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또한 수레와 말에 관한 금제로 6두품·4두품에 호랑이 가죽을 금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랑이 가죽은 진골 대등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레와 말에 관한 금제를 살펴보면 5두품에 緣(각종 장식의 가장자리)으로 가죽을 허용하고 있어, 귀족의 수레와 말의 가장자리 장식에는 가죽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깔개는 6두품과 5두품에 가죽을 허용하고 있으며 4두품에는 소가죽과 말가죽을 허용하고 있고 5두품녀와 4두품녀에게 호랑이 가죽을 금하고 있어, 소가죽과 말가죽은 다른 가죽보다 낮은 등급임을 보여 준다. 여자들은 가죽보다는 모피를 깔개에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호랑이가죽은 6두품 이상에만 사용이 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석 역시 6두품에게 가죽이 허용되었으며 5두품녀와 4두품녀에게 호랑이가죽이 금지되어 깔개와 같은 일면을 보여준다. 6두품은 고삐에 가죽의 사용이 허용되었으며 5두품녀와 4두품녀의 요에 가죽을 허용하여 신라에서 모피물이 복식 및 생활용품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모피물의 가공 기술도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90)</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唐, 日本, 신라 등에서 모피의 사용은 신분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옷은 신분에 의한 사회적 지위의 판별기준만이 아니라 “유행은 인간의 의식에 따라 가장 중요한 주제인 ‘나는 누구인가’와 ‘유희한다’를 표상한다”라고 했듯이, 사람이 ‘그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첫째의 지표였다.<sup>91)</sup> 모피는 신분을 구분하는, 신분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 맺음말

8~10세기 자료상에 보이는 동유라시아 모피는 발해의 경우 貂皮, 大蟲皮, 羆皮, 熊皮, 豹皮, 海豹皮이며, 신라는 海豹皮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피는 발해 동부와 북부의 어업 수렵 구역에서 생산되었는데 소흥안령과 삼강평원 지구로 懷遠府, 鐵利府, 安遠府, 率濱府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는 拂涅, 越喜, 虞婁, 鐵利部 등이 살았다. 다른 산지로는 발해 중부 어업 수렵 구역으로 장백산맥 지역이다. 이 지역 외에도 흑수말갈이 거주하던 지금의 연해주 일대에도 모피의 주된 산지가 있었다.

8~10세기 모피는 주요 산지였던 발해 북동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에까지 이어지는 교통로를 통해 유통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발해는 재지세력인 수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피무역에 힘썼으며, 소그드상인에 의한 모피무역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貂皮는 이러한 유통망을 통해 거래된 세계상품으로서의 선구적인 의미가 있다.

90) 정성일 외, 2007, 앞의 책, 256쪽.

91) 下山晁, 2005, 앞의 책, 4쪽.

마지막으로 당, 일본, 신라의 모피 소비 관련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모피는 신분을 구분하는, 신분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周禮』, 『後漢書』, 『三國志』, 『晉書』, 『南齊書』, 『魏書』, 『北史』, 『唐六典』, 『舊唐書』, 『新唐書』, 『舊五代史』, 『新五代史』, 『唐會要』, 『通典』, 『太平寰宇記』, 『冊府元龜』, 『太平御覽』, 『玉海』, 『翰苑』, 『天工開物』, 『滿洲源流考』, 『渤海國志長編』, 『續日本紀』, 『日本三代實錄』, 『江家次第』, 『類聚三代格』, 『延喜式』, 『三國史記』

### 2. 단행본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새롭게 본 발해사』
- 국립민속박물관, 2005, 『천연섬유와 모피 식별 아틀라스』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 무함마드 간수, 1992,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 출판부
- 블라디미르 클라우디에비치 아르세니에프 지음·김옥 옮김, 2005, 『데르수 우잘라』, 갈라파고스
- 安啓源·李茂夏·蔡榮錫, 1990, 『皮革과 毛皮의 科學』, 先進文化社
- 에드워드 H. 셰이퍼 지음·이호영 옮김, 2021, 『사마르칸트의 황금 복숭아: 대당제국의 이국적 수입 문화』, 글항아리
- 에릭 R. 울프 지음·박광식 옮김, 2015, 『유럽과 역사 없는 사람들: 인류학과 정치경제학으로 본 세계사 1400~1980』, 뿌리와이파이
- 우에다 마코토 지음·임성모 옮김, 2016, 『동유라시아 생태환경사』, 어문학사
- 윤재운, 2006,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 \_\_\_\_\_, 2015, 『교류의 바다 동해』, 경인문화사
- 정성일 외, 2007,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 국사편찬위원회
- 정재훈, 2005, 『위구르 유목제국사』, 문학과지성사
- \_\_\_\_\_, 2016, 『돌궐 유목제국사』, 사계절
- 주경철, 2015, 『모험과 교류의 문명사』, 산처럼
- 피터 프랭코판 지음·이재황 옮김, 2017, 『실�크로드 세계사: 고대 제국에서 G2 시대까지』, 책과함께
- 홍익희, 2015, 『세상을 바꾼 다섯 가지 상품 이야기』, 행성비
- 廣瀬憲雄, 2018, 『古代日本と東部ユーラシア國際關係』, 勉誠出版
- 蓑島榮紀, 2015, 『‘もの’と交易の古代北方史-奈良、平安日本と北海道、アイヌ』, 勉誠出版
- 鈴木靖民, 2016, 『古代の日本と東アジア交流史』, 勉誠出版
- \_\_\_\_\_, 2020, 『古代の日本と東アジア-人とモノの交流史』, 勉誠出版
- 鈴木靖民·荒井秀規 編, 2011, 『古代東アジアの道路と交通』, 勉誠出版

エチエンヌ、ドゥ、ラ、ヴェツエール著、影山悦子 譯, 2019, 『ソグド商人の歴史』, 岩波書店

清水信行・鈴木靖民 編, 2021, 『渤海の古城と国際交流』, 勉誠出版

佐々木史郎, 1996, 『北方から来た交易民-絹と毛皮とサタソ人』, NHKブックス

下山晃, 2005, 『毛皮と皮革の文明史-世界フロンティアと掠奪のシステム』, ミネルヴァ書房

### 3. 논문

강인욱, 2011,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한국고대사연구』64

\_\_\_\_\_, 2017, 「고고학 자료로 본 발해와 위구르 제국-콕사로프카-8 유적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22-2

구난희, 2018, 「渤海 營州道の 行路와 運用」 『고구려발해연구』60

\_\_\_\_\_, 2019, 「渤海 交流에 등장한 소그드인, 그 경위와 의미」 『고구려발해연구』63

권은주, 2009, 「靺鞨7部の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고구려발해연구』35

박순지·이춘규, 1994, 「고대부터 고려까지의 모피물에 관한 고찰」 『服飾』22

서성호, 2016, 「수공업과 제작기술」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10-신라의 산업과 경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윤재운, 2006, 「8~10세기 발해의 문물교류」 『한국사학보』24

\_\_\_\_\_, 2011, 「발해의 5京과 교통로의 기능」, 『한국고대사연구』63

\_\_\_\_\_, 2015, 「발해 도성의 생산과 유통」 『역사문화연구』52

\_\_\_\_\_, 2019a, 「발해의 동부유라시아정책과 국가전략」 『신라사학보』45

\_\_\_\_\_, 2019b, 「발해의 지방지배와 중개무역」 『한국사학보』75

이동훈, 2019, 「고구려와 북조의 조공관계 성격」 『한국사학보』75

이승호, 2019, 「1~3세기 중국 동북지역 정세 변화와 貂皮 교역」 『동국사학』67

이정빈, 2014, 「5~6세기 고구려의 농목교역과 요서정책」 『역사와 현실』91

정석배, 2017, 「유물로 본 발해와 중부 중앙아시아지역 간의 문화교류에 대해」 『고구려발해연구』57

\_\_\_\_\_, 2018, 「발해 거란도 노선 연구」 『고구려발해연구』60

\_\_\_\_\_, 2019, 「발해의 북방-서역루트 ‘담비길’ 연구」 『고구려발해연구』63

한규철, 2009, 「발해와 유목왕조의 교류」 『고구려발해연구』34

菊地眞, 2003, 「古典文學の中の渤海國交易品-‘ふるきの皮衣’」 『アジア遊學』58

\_\_\_\_\_, 2004, 「古典文學の中の渤海國交易品-‘ふるきの皮衣’續編」 『アジア遊學』59

E. V. シャフクノフ, 1998, 「北東アジア民族の歴史におけるソグド人の黒貂の道」 『東アジアの古代文化』96

室田武, 2003, 「徽宗‘左井觀天’の地:依蘭冬紀行-黒龍江省にセーブルードの軌跡を求めて(1)」 『經濟學論叢』54-2, 同志社大學經濟學會

\_\_\_\_\_, 2003, 「徽宗‘左井觀天’の地:依蘭冬紀行-黒龍江省にセーブルードの軌跡を求めて(2)」『經濟學論叢』55-1, 同志社大學經濟學會  
酒寄雅志, 1984, 「毛皮と渤海」『歴史讀本』11월호

여 백



**【제3발표】**

**용의 침방울 : 근세 동아시아 용연학의 박물학**

김문기(부경대학교)



# 龍의 침 덩어리

## 근세 동아시아 龍涎香의 박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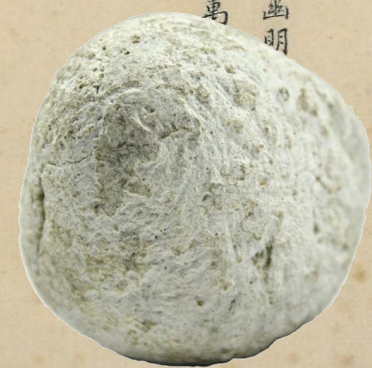
龍說文象形生肖論龍其虧聽故謂之龍梵書名那伽爾雅翼龍有九似頭似駝角似鹿眼似鬼可以項似蛇腹似蜃鱗似鯉爪似鷹掌似虎是也此繪龍者須知之圖中之龍虛懸康熙辛巳德州幸遇名手唐書玉補入蓋宋式也心得九似之意又閩中嘗訪舶人云龍首之髮海上游行親見直豎上指陽剛之質如此今之畫家或作垂髮者謬矣

廣東新語曰南海龍會古人入水採珠者皆繡身而為龍子使龍以為已類不吞噬今日龍與人益習諸龍戶悉視之

大新安有龍穴洲每風雨即有龍起去地不數丈朱鬣金鱗而目燁燁如電其精在浮沫時噴沫承取之稍緩則入地是為龍涎

神龍贊

不得而生雲得而從小大具體幽明  
羽毛鱗介皆祖於龍神化不測萬



## "물고기 대신 로또 낚았다"...태국 어부 4억원 용연향 횡재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1-03-07 15:46 송고

댓글

가



용연향은 수컷 할루 고래의 배설물로 고급 향수의 재료로 사용된다. © 뉴스1

태국 바다에서 또다시 로또가 터졌다.

## '바다의 로또' 100kg 용연향 주운 어부 35억 원 횡재

2020년 12월 08일 07시 00분 댓글 1개



viral press

AD

- 버려진 번호로 로또 당첨금 '씩쓸이', 4번째 당첨금 받는 길에
- "농협 로또페지" 무더기 당첨금 쓸어간 당첨자 3일만에..
- 백만원 주식해 3년만에 "40억" 번 男 알고보니...

태국의 어부가 한화 약 35억 원의 가치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큰 용연향을 발견

## Boy finds a bonanza in whale vomit



— Eight-year-old Charlie Naysmith shows off the piece of ambergris he found on the beach at Hengistbury Head on the coast of southern England. Daily Echo via @NPG.co.uk

# 바다의 로또, 용연향(龍涎香)

# Ambergris

# 용연향(龍涎香)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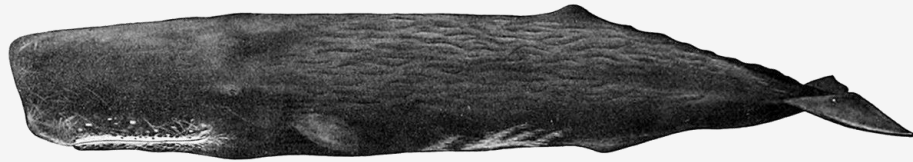


Photo from Ambergris NZ Ltd  
(photographer: Frans Beuse)



FRESH



STANDARD



WHITE

## Ambergris

- 수컷 향유 고래의 소화기관에서 생성된 무채색의 덩어리. 소화불량으로 생긴 일종의 결석
- 주식인 대왕 오징어 등이 번식기에 장의 활동이 약해져 오징어 입의 부리 등을 함유하는 흑갈색의 기름과 분비물이 왁스 같은 덩어리가 배설되어 떠다니다 해안에 밀려와서 발견됨
- 처음에는 똥 냄새 같은 악취 나지만, 햇빛 공기 바닷물에 노출되면서 딱딱해지고 검은 색이 탈색되면서 냄새 빠짐
- 자체로는 향기가 없지만, 보향성(保香性)이 우수해 보향제(保香劑)로 사용됨



# Ambergris

일종의 '고래' 결석(結石)!

왜 '용의 침(龍涎)'?

## I. 머리말: ‘龍涎’의 비밀

## II. 龍涎香, 奇談의 傳承

- 1) 『本草綱目』의 ‘龍’과 ‘鯨’
- 2) 용연향의 전래, 세 개의 별칭
- 3) ‘龍涎’의 스토리텔링

## III. ‘龍涎鱔’와 동서지식의 교류

- 1) 『諸蕃志』와 『島夷志略』

- 2) 鄭和의 남해원정과 ‘龍涎鱔’

- 3) 『職方外紀』, 유럽 지식의 유입

## VI. ‘龍’인가? ‘鯨’인가?: 龍涎香과 捕鯨

- 1) 『海東札記』와 『本草綱目拾遺』

- 2) 『五洲衍文長箋散稿』

- 3) 『多識編』에서 『遠西醫方名物考』로

## V. 맺음말: 物品學과 博物學

# 머리말: '龍涎'의 비밀

---



## 屈大均, 「廣東新語」 卷22 鱗魚, 龍

남해는 용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중략] 신안(新安)에는 용혈주(龍穴洲)가 있는데, 매년 비 바람이 몰아치면 용이 일어난다. 땅에서 몇 장이 떨어져 있지 않다. 붉은 갈기와 금빛 비늘을 가졌고 두 눈은 번쩍번쩍하기가 번개와 같았다. 사람과 용은 오랫동안 서로 지켜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정화(精華)는 떠다니는 거품에 있는데, 때로는 그 뿔어대는 것이 폭포나 샘물 같고 비 같아서, 다투어 그것을 채취하니 조금만 느슨해져도 땅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이것이 '용의 침(龍涎)'이다. 때론 용연이라는 것이 바닷가의 고목에 많이 쌓여 있는데 새의 배설물 같은 모양이다. 그 색은 검푸르며 그 향기는 비릿한데, 백(百)을 뒤섞어 그것을 태우면 비취색 연기가 천(千)으로 응결되는데 굴뚝대며 공중에 도사려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아서 잘라서 향을 가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진짜가 아니다. 외국 선박[番舶]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진(大秦: 사라센)과 파사(波斯: 페르시아)에서 나는 것이다. 비 내릴 때 그것을 태우면 폭발하여 소리가 나면 진짜이다.

- 굴대균(1639-1696)
- 왜 '용연향'은 바다가 아닌 산에서도 나는 것일까?
- 용연향에 대한 인식은 '용'에 대한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

# 본고의 문제 의식

I. 향기의 역사: '용연향'의 브랜드, 스토리텔링

II. 용연향과 '이국(異國)' 취향: 동서 지식의 교류

III. '용'과 '고래'에 대한 동아시아의 동물 인식

# 龍涎香, 奇談의 傳承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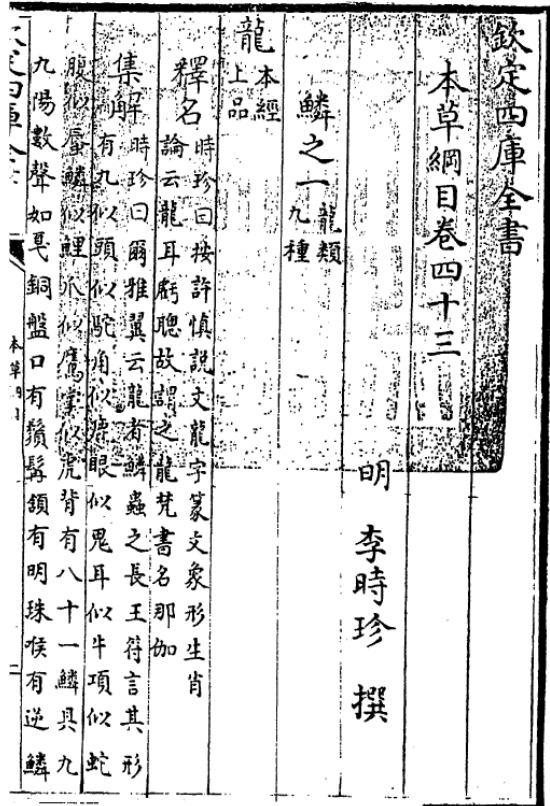
# 1

## 「본초강목」의 ‘龍’과 ‘鯨’



**「본초강목」은 ‘용연향’을  
어떻게 분류했을까?**

# 李時珍, 「本草綱目」卷43 鱗1 龍



龍骨 龍齒 龍角  
龍腦 龍胎 龍涎

- 「본초강목」에서 ‘용(龍)’은 약재로 사용
- 용의 약종(藥種): 龍骨, 龍齒, 龍角, 龍腦, 龍胎, 龍涎
- 「본초강목」에 없지만, 龍鱗香이라는 것도 있음
- 이시진, 용의 실존 의심하지 않음

吊 遺拾	而似 腥浮 石	藥煎 而賦 理久 則紫 黑如 五靈 脂而 光澤 其體 輕飄	得者 其狀 初若 脂膠 黃白 色乾 則成 塊黃 黑色 如百	沫浮 出番 人採 得貨 之每 兩干 錢亦 大有 魚腹 中剖	則翠 烟浮 空出 西南 海 洋中 云是 春間 羣龍 所吐 涎	龍涎 惟人 諸香 云能 收腦 麝數 十年 不散 又言 焚之	俱出 巴蜀 皆主 血疾 蓋一 物也	曾用 世當 有識 者時 珍曰 胞胎	二服 少頃 腹中 轉動 便下 按此 物方 家罕 知而 昔人	不通 同瓦 松景 天各 少許 以水 兩蓋 煎一 盞去 滓分	出蜀 中山 澗大 類乾 魚鱗 煎時 甚腥 臊治 女經 積年	治產 後餘 疾正 當未 服頃 曰許 孝宗 醫中 方言 龍胎	金匱 四庫 全書 卷四 十三

기(機)가 말하기를, “용(龍)이 토해낸 연말(涎沫: 침과 거품)로 향(香)을 만들 수 있다.” 시진(時珍)이 말하기를, “용연은 방약(方藥)으로 드물게 사용하며, 다만 여러 향에 섞어 넣는다. 용뇌향(龍腦香)과 사향(麝香)을 거두어 놓을 수 있어 수십 년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 그것을 태우면 비취색 연기가 공중으로 떠오른다고도 한다. 서남의 바다에서 난다. 봄에 여러 용들이 토해낸 연말이 물에 떠다니는 것이라고 한다. 번방(番邦) 사람들이 채취하여 그것을 파는데, 한 냥(兩)에 1천 전(錢)에 달했다. 또한 큰 물고기의 뱃속을 쪼개서 얻는 것도 있다. 그 모양이 처음에는 지교(脂膠: 기름과 아교)와 같고 황백색(黃白色)이다. 말리면 덩어리져서 황흑색(黃黑色)이 되어 백약(百藥)과 같아서 쪼이면 반들반들해진다. 오래되면 자흑색(紫黑色)이 되는데 오령지(五靈脂)처럼 광택이 난다. 그 몸체는 가벼움이 부석(浮石)과 흡사한데, 비리며 누릿하다.

- 汪機: “龍吐涎沫可制香” [李圭景, 그대로 인용]
- 李時珍: 서남해의 바다에서 생산, 용의 ‘연말(涎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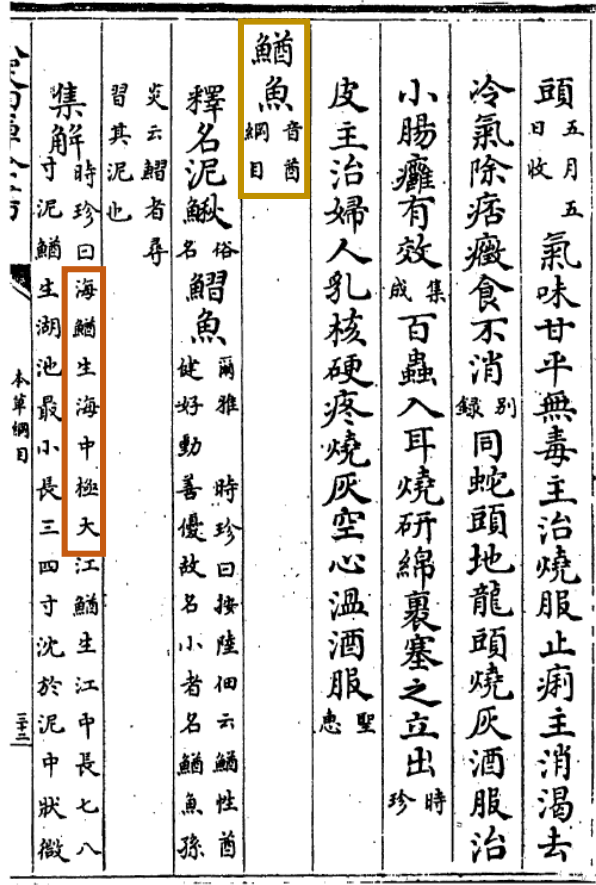
**「본초강목」은 ‘고래(鯨)’는  
어떻게 분류했을까?**



# 李時珍, 「本草綱目」卷44 鱗4 無鱗魚, 鱈

時珍曰, 海鱈, 生海中, 極大. 江鱈, 生江中, 長七八寸. 泥鱈, 生湖池, 最小長三四寸, 沈於泥中.

- 「본초강목」에는 ‘고래(鯨)’ 항목 별도로 없음
- 無鱗魚 미꾸라지(鱈魚) 항목에 ‘바다 미꾸라지(海鱈)’로 있음
- “海鱈, 生海中, 極大.”가 기록의 전부
- 16세기 후반 중국인의 고래에 대한 인식의 한계 보여줌
- 에도시대 일본 학자의 비판 받음
- 고래와 미꾸라지: 근세 동아시아 고래의 박물학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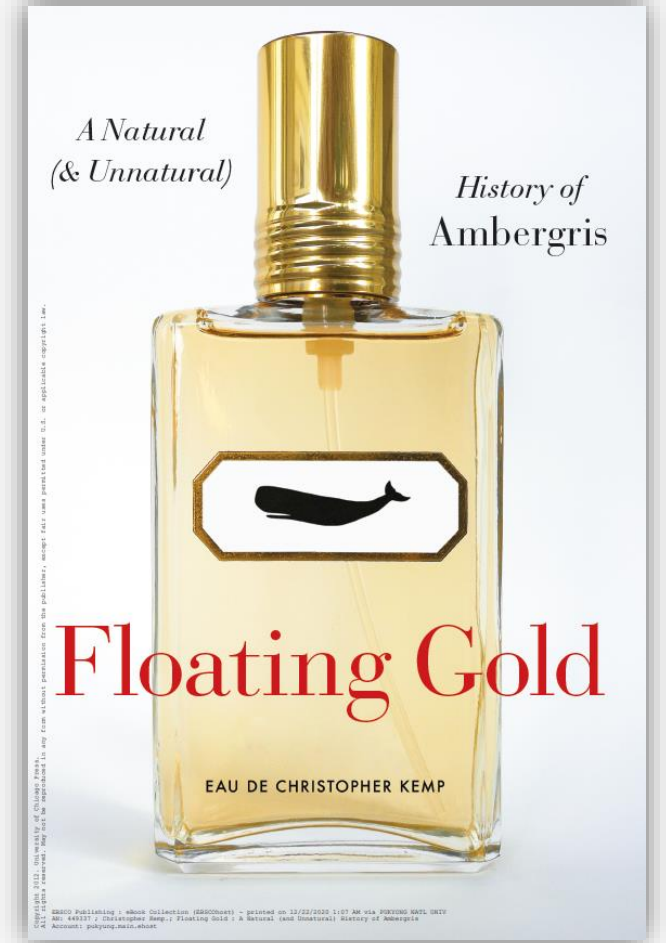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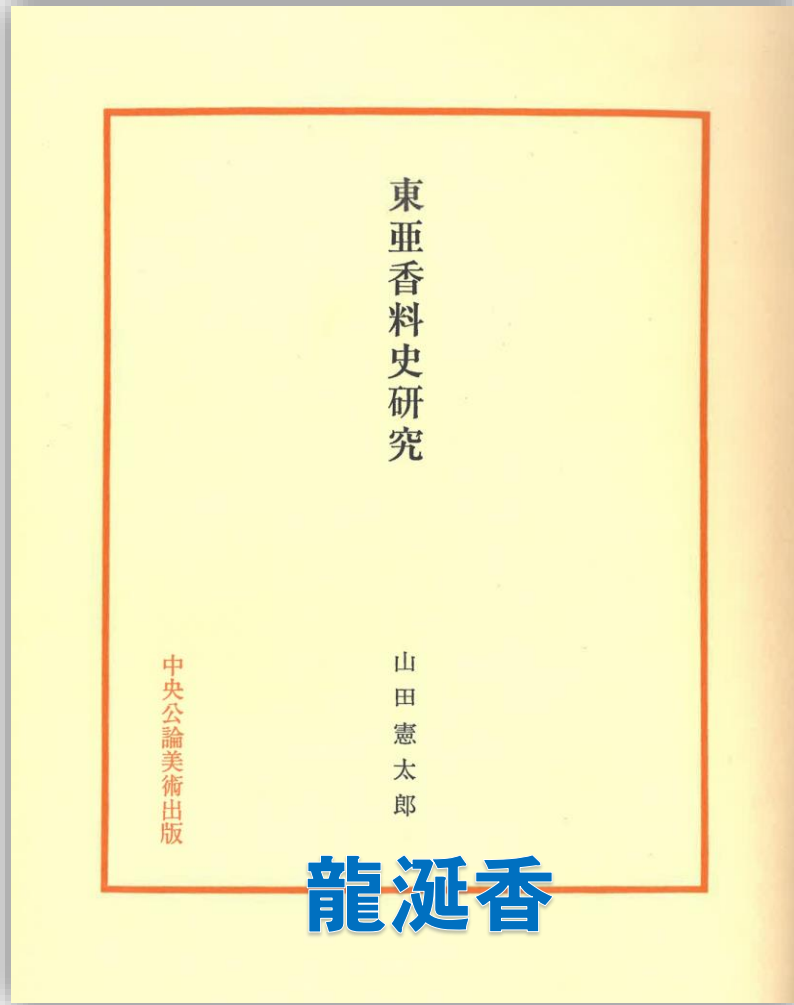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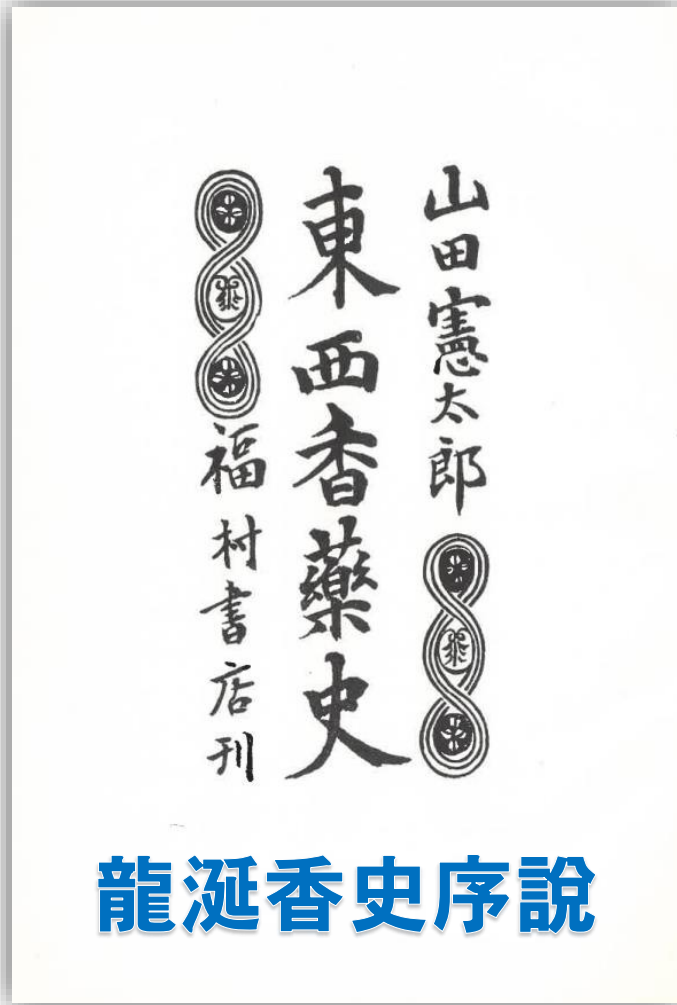
**고래(鯨)에 대한 이런 인식에서  
어떻게 용연향의 정체를?**

# 2

## 용연향의 전래, 세 개의 별칭



山田憲太郎,「東西香藥史」(1956)「東亞香料史研究」(1956)



## ‘용연향(Ambergris)’의 발견



- 7세기 초반 알렉산드리아 파울루스의 책: 당시 약제사 아라비아인에게 용연향 배웠다는 기록 등장
- Ambergris: 호박(Amber, Ambre, Ambra)+회색(Gris)
- 아라비아, 페르시아의 용어: 7세기 초반 그리스 로마, 8세기 이베리아 반도에 전해짐
- 7세기 초반 아라비아의 이슬람의 흥기와 밀접하게 관련

# 용연향(Ambergris)의 중국 전래: 段成式, 「酉陽雜俎」 卷4 境異, 撥拔力國

## 阿末香 龍涎

- 당말 「유양잡조」 撥拔力國의 물산으로 상아와 ‘阿末香’
- ‘阿末(A-mo)’=Amber의 음借
- ‘龍涎’이라는 단어,白居易의 시에 등장(龍涎香 아님)
- 「同昌公主外傳」(868), ‘龍涎’ 등장(=龍涎香)
- 蔡條, 「鐵圍山叢談」: 송 궁중에서 용연향 사용
- 송대, 원대 용연향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

婆彌爛國去京師二萬五千五百五十里。此國西有山巖巖峻。上多猿。猿形絕長大。常暴田種。每年有  
 二三十萬國中起春以後。屯集甲兵與猿戰。雖殺數萬。不能盡其巢穴。  
 撥拔力國在西南海中。不識五穀。食肉而已。常針牛畜豚。取血和乳生飲。無衣服。唯腰下用羊皮掩之。其  
 婦人潔白端正。國人自掠賣與外國商人。其價數倍。土地唯有象牙及阿末香。波斯商人欲入此國。團  
 集數千人。齎縑布沒老幼共刺血立誓。乃市其物。自古不屬外國。戰用象牙排野牛角爲稍。衣甲弓矢  
 之器。步兵二十萬。大食頻討襲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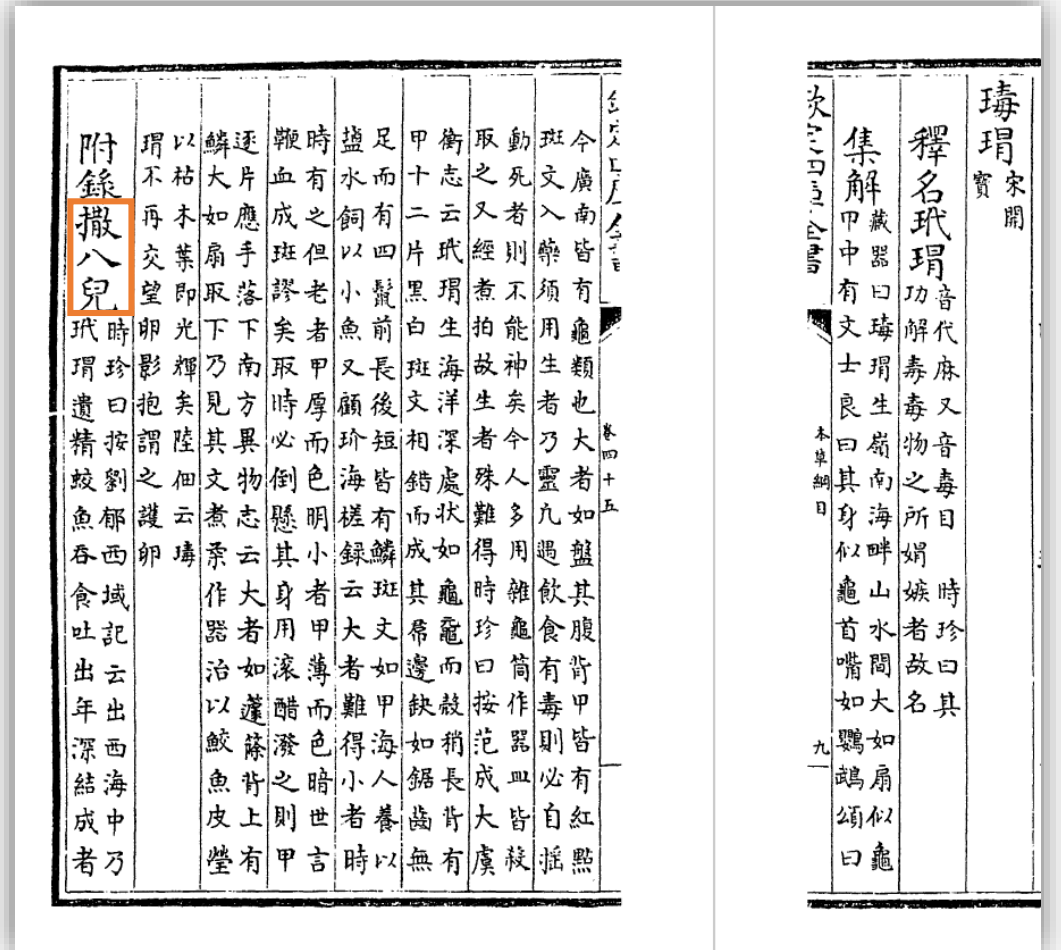
昆吾國累壘爲邱。案浮屠有三層。屍乾居上。屍濕居下。以近葬爲至孝。集大氈。居中懸衣服。綵繒。哭祀之。  
 龜茲國。元日鬪牛。馬驢爲戲。七日觀勝負。以占一年羊馬減耗蕃息也。婆羅遮。並服狗頭猴面。男  
 女無晝夜歌舞。八月十五日行像及透案爲戲。焉耆國。元日二月八日。婆摩遮。三日野祀。四月十  
 五日遊林。五月五日彌勒下生。七月七日祀先祖。九月九日牀撒。十月十日土爲獸法。王出  
 首領家。首領騎王馬。一日一夜處分王事。十月十四日作樂至歲窮。  
 拔汗那。十二月十九日王及首領分爲兩朋。各出一人着甲。衆人執瓦石東西擗擊。中人先死  
 卽止。以古管年豐儉。

蘇都識匿國有夜叉城。城舊有野叉。其窟見在人近窟住者五百餘家。窟口作舍。設關籬。一年再祭。人有  
 通窟口。煙氣出。先觸者死。因以尸擲窟口。其窟不知深淺。

# 세 개의 별칭: 阿末香, 俺八兒, 撒八兒(撒巴爾)

撒八兒, 出西海中. 蓋瑋瑁之遺精, 蛟魚食之吐出, 年深結成. 價如金. 其假者, 卽犀牛糞爲之也. [劉郁, 「西使記」]

- 당말 「유양잡조」: ‘阿末(A-mo)’=Amber의 音借
- 원대 유욱 「서사기」: 撒八兒=Sahabiri의 음차 (撒巴爾)
- 마환 「영애승람」: ‘祖法兒(Zufar)’, ‘天方(Mekka)’의 俺八兒
- 「本草綱目」卷45 介1 瑋瑁, ‘撒八兒’ 있지만, 이시진은 용연향의 다른 이름임을 몰랐음



# 3

## ‘용연’의 스토리텔링





# 중국 역대 '용연향' 기록과 박물학

왕조	문헌자료			출전	비고
	서명	저자	연대		
당대	※古今說海	陸 揖	16C	同昌公主外傳	868년 龍涎
	酉陽雜俎	段成式	9C	卷4 境異 撥拔力國	撥拔力(Pa-pa-li)國 阿末香, 段成式 803-863
북송	張氏可書	張知甫	12C	-	張知甫(?-1226)
	鐵圍山叢談	蔡 條	12C	卷6	蔡京의 子
	墨莊漫錄	張邦基	12C	卷2	
남송	類說	曾 慥	1136	卷59 文房四譜 香譜 龍涎香	
	香錄	葉庭珪	1151	-	
	能改齋漫錄	吳 曾	1154-57	卷15 方物	
	陳氏香譜	陳 敬	12C	卷1 香品 龍涎香	1322년 熊朋來 序
	嶺外代答	周去非	1178	卷7 寶貨門 龍涎	
	錦繡萬花谷後集	佚名	1188	卷35 香 龍涎香	曾慥『類說』
	游宦紀聞	張世南	13C	卷7	
	四朝聞見錄	葉紹翁	13C	卷2 乙集 宣政宮燭	1194-1269
	諸蕃志	趙汝适	1225	卷下 志物, 龍涎	
	古今事文類聚續集	祝 穆	13C	卷12 香茶部 香 香譜	祝穆(?-1255)
古今合璧事類備要外集	謝維新	1257	卷41 香 葉庭珪香譜		
원대	西使記	劉 郁	1263	-	劉郁(1259-1260)
	島夷志略	汪大淵	1349	龍涎鱗	
	說郛	陶宗儀	1361	卷30上 遊宦紀聞	
	居家必用	未 詳	元代	戊集 寶貨辨疑 龍涎香	
	異域志	周致中	元末	卷上 大食勿拔國, 卷下 麻離拔國	

왕조	문헌자료			출전	비고
	서명	저자	연대		
명대	格古要論	曹 昭	1388	卷中 珍奇論 龍涎	
	瀛涯勝覽	馬 歡	1416	溜山	1416年 草稿, 1451年 完成
	西洋番國志	鞏 珍	1434	溜山國 · 祖法兒國 · 天方國	
	星槎勝覽	費 信	1436	卷3 龍涎鱗	古今說海
	西洋朝貢典錄	黃省曾	1520	卷中, 卷下	
	古今說海	陸 楫	16C	卷19 說選19 星槎勝覽	陸楫(1515-1552)
	皇明四夷考	鄭 曉	1564	卷下 溜山	
	殊域周咨錄	嚴從簡	1574	卷9 蘇門答刺	
	彙苑詳註	王世貞	1575	卷35 鱗介部 龍 龍涎	
	本草綱目	李時珍	1578	卷43 鱗1 龍	
	嶺海續聞	蔡汝賢	1586	龍涎香	
	諸夷考	游 朴	1592	卷1 龍涎鱗	
	稗史彙編	王 圻	1607	卷154 香類 龍涎香品 · 龍涎諸說	
	疑揮	張 萱	1608	卷6 龍涎香	
	說略	顧起元	1613	卷30 蟲法下	『玉芝堂談薈』
	圖書編	章 潢	1613	卷51 龍涎鱗	1565-1628
	五雜俎	謝肇淛	1616	卷10 物部2 龍涎	謝肇淛(1567~1624)
	東西洋考	張 燮	1617	卷4 西洋列國考 啞齊	
	山堂肆考	彭大翼	萬曆	卷183 器用 龍涎	1595/ 1618增補
	玉芝堂談薈	徐應秋	萬曆	卷27 龍涎香	『說略』
	嶠南瑣記	魏 濬	萬曆	卷下 龍涎香	魏濬(~1625)
	長物志	文震亨	1621	卷12 龍涎香	
	武備志	茅元儀	1621	卷236-237 海外諸國考, 卷240 航海	
	職方外紀	艾儒畧	1623	卷3 利未亞總說, 卷5 海產	
皇明大政記	朱國禎	1632	卷32 存疑 龍涎香附見		
香乘	周嘉胄	1641	卷5 香品 龍涎香		
物理小識	方以智	1643	卷8 器用類 香類		

왕조	문헌자료			출전	비고
	서명	저자	연대		
청대	類書纂要	周 魯	1664	卷30 器用類 香 龍涎	1711 刊
	通雅	方以智	1666	卷43 植物 木	
	因樹屋書影	周亮工	1667	卷4 龍涎香	
	宋稗類鈔	潘永因	1669	卷32 古玩55	
	坤輿圖說	南懷仁	1674	卷下 海產	
	粵閩巡視紀略	杜 臻	1684	卷2 暹羅	1683-1684年 廣東·福建 巡視
	廣東新語	屈大均	康熙	卷22 鱗魚 龍	屈大均(1630~1696)
	天下郡國利病書	顧炎武	康熙初	卷119 海外諸蕃 蘇門答刺	顧炎武(1613-1682)
	八絃譯史	陸次雲	康熙初	卷2, 卷3	
	嶺南雜記	吳震方	康熙	卷下 龍涎	
	人海記	查慎行	康熙	卷上 龍涎香	查慎行(1650-1727)
	欽定淵鑑類函	張英 等	康熙	卷234 邊塞部5 海南諸小國	張英(1638~1708)
	欽定駢字類編	張廷玉	18C	卷218 蟲魚門1 龍 龍涎	張廷玉(1672~1755)
	格致鏡原	陳元龍	18C	卷57 燕賞器物類1 香 龍涎香	陳元龍(1652~1736)
	臺海使槎錄	黃叔瓚	1722	卷3 物產	海翁魚 … 龍涎 … 眞價亦莫辨也.
	雍正 四川通志	黃廷桂	1729	卷46 藝文 詩話 舊志器物譜	濂溪石
	雍正 廣東通志	郝玉麟	1731	卷52 物產志 香 龍涎香	1734 閩浙總督
	乾隆 重修臺灣府志	范 咸	1746	卷18 物產2 蟲魚, 卷19 叢談	
	澳門紀略	張汝霖	1751	卷下 澳蕃編 諸蕃附	
	海東札記	朱景英	1772	卷3 記土物	海翁魚 … 卽龍涎香也.
	欽定續文獻通考	乾隆官撰	1747-84	卷246 四裔考 西南夷 龍涎鱗	
	南越筆記	李調元	18C	卷10 龍涎	李調元(1734~1802). 『廣東新語』
	瀛環志略	徐繼畬	1848	卷2 亞細亞南洋各島 蘇門答臘	
	本草綱目拾遺	趙學敏	1864	鱗部 龍涎香	趙學敏(1719-1805). 草稿 1765, 1864 刊行
光緒 重修廣州府志	戴肇辰	1879	卷16 輿地略8 風俗 鱗類 龍		
海錯百一錄	郭柏蒼	1886	卷1 記魚 海鱈	郭柏蒼(1815~1890)	

# 曾慥「類說」卷59 文房四譜, 香譜, 龍涎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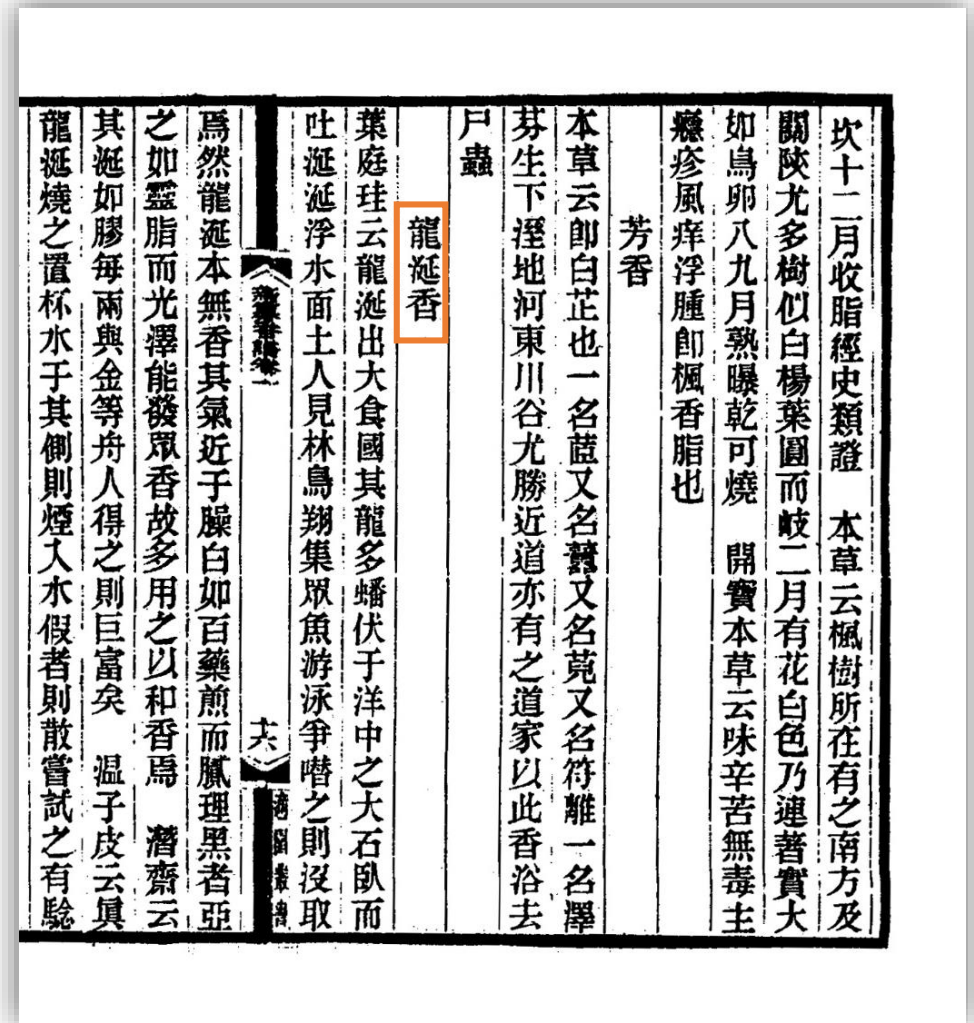
왕조	문헌자료		
	서명	저자	연대
당대	*古今說海	陸 揖	16C
	酉陽雜俎	段成式	9C
북송	張氏可書	張知甫	12C
	鐵圍山叢談	蔡 條	12C
	墨莊漫錄	張邦基	12C
남송	類說	曾 慥	1136
	香錄	葉庭珪	1151
	能改齋漫錄	吳 曾	1154-57
	陳氏香譜	陳 敬	12C
	嶺外代答	周去非	1178
	錦繡萬花谷後集	佚名	1188
	游宦紀聞	張世南	13C
	四朝聞見錄	葉紹翁	13C
	諸蕃志	趙汝适	1225
	古今事文類聚續集	祝 穆	13C
	古今合璧事類備要外集	謝維新	1257
	원대	西使記	劉 郁
島夷志略		汪大淵	1349
說郛		陶宗儀	1361
居家必用		未 詳	元代
異域志		周致中	元末

용연향(龍涎香)은 문석국(文石國)에서 난다. 국인(國人)이 새가 있는 숲을 살피는데, 위로는 이상한 새가 날아와 모이고 아래로는 물고기 떼가 헤엄치면, 옆드렸던 용이 물 위에 침을 토한다. 뱃사람이 흑시라도 그것을 찾아 얻게 되면 거부(巨富)가 된다. 그 침은 아교 같아서 전말(纏末)이라고 한다.

- 송대 용연향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출현
- 증조 「유설」, 섭정계 「향록」, 주거비 「영외대답」
- 장세남 「유환기문」: 당시까지의 용연향 관련 여러 설 종합 정리. 자신 포함 6개의 설(說)
-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인도양과 동남아의 'Ambergris' 이야기 중국적 요소로 轉化

# 陳敬, 「陳氏香譜」 卷1 香品, 龍涎香 [葉廷桂, 「香錄」]

섭정계(葉廷桂)가 말하기를, “용연(龍涎)은 대식국(大食國)에서 난다. 그 용은 대양(大洋) 가운데의 큰 돌에 많이 도사려서 엮드려 있으면서 누워서 침을 토해내면 침이 수면에 떠다닌다. 사람이 새가 있는 숲에서 이상한 새가 날아와 모이고 물고기 떼가 헤엄치면서 다투어 깨물어 대면 자맥질하여 그것을 채취한다. 용연은 본래 향이 없다. 그 냄새(氣)는 누린내에 가깝다. 흰 것은 백약(百藥)처럼 달이면 반들반들해진다. 검은 것은 그것에 버금가는 데, 오령지(五靈脂)와 비슷하여서 광택이 나며 여러 향기를 발하게 한다. 그 때문에 향(香)을 섞는 데 그것을 많이 사용한다.” 잠재(潛齋: 何夢桂)가 말하기를, “용연은 아교와 비슷한데, 한 냥(兩)이 금(金)과 등가(等價)이다. 뱃사람이 그것을 얻으면 거부(巨富)가 된다.” 온자피(溫子皮)가 말하기를, “진짜 용연을 불에 살라 술잔에 뚝에 물이 곁에 있으면 연기가 물에 빨려 들고, 가짜는 곧 흩어진다. 일찍이 그것을 시험해보니 징험이 있었다.”



# 周去非, 「嶺外代答」 卷7 寶貨門, 龍涎

대식국(大食國)의 서해에는 용이 많다. 돌을 베고 깊이 잠들면 연말(涎沫)이 물에 떠다니다 쌓여서 단단해진다. 교인(鮫人)이 그것을 캐내서 지극히 귀중한 보물로 삼는다. 새로운 것은 색깔이 흰색이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랏빛이 되며, 매우 오래되면 검게된다. 이로 인하여 번우(番禺: 廣州)에서 일찍부터 그것을 보았다. 향기도 나지 않고 누린내도 나지 않으며 부석(浮石)과 비슷하여서 가볍다. 사람들은 “용연은 특이한 향기가 있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용연은 냄새가 비릿하고 여러 향기를 발할 수 있다.”라고 했다. 모두 틀린 말이다. 용연은 향기에 대하여 본래 들어냄과 보탬이 없다. 다만 연기를 모을 수 있을 뿐이니, 향을 섞는 데 사용한다. 진짜 용연은 그것을 태우면 극소량[一銖]의 비취색 연기가 공중으로 떠올라 뭉쳐져서 흩어지지 않는다. 자리에 앉은 손님이 가위로 잘라 연기 가닥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까닭은 신기루(蜃氣樓)의 남은 열렬함 덕분이다.

切礎其厚, 可以爲杯, 甚大, 雖以爲瓶可也. 其小者, 猶可以爲環佩花采之屬. 其不盈尺者, 如其形而琢磨之以爲杯, 名曰激澗. 則無足尙矣. 佛書所謂煉礪者, 玉也. 南海所產, 得非竊取其名耶.

龍涎

大食西海多龍. 枕石一睡, 涎沫浮水, 積而能堅. 鮫人採之, 以爲至寶. 新者色白, 稍久則紫, 甚久則黑. 因至番禺嘗見之, 不薰, 不猶似浮石而輕也. 人云, 龍涎有異香, 或云, 龍涎氣腥, 能發衆香, 皆非也. 龍涎於香本無損益, 但能聚煙耳. 和香而用, 真龍涎, 焚之一銖, 翠煙浮空, 結而不散. 座客可用一翦分煙縷. 此其所以然者, 蜃氣樓臺之餘烈也.

大貝

海南有大貝, 圓背而紫斑, 平面深縫, 縫之兩旁, 有橫細縷, 陷生縫中. 本草謂之紫貝, 亦有小者, 大如指面. 其背微青, 大理國以爲甲冑之飾, 且古以貝子爲通貨, 又以爲寶器. 陳之廟朝, 今南方視之與蚌蛤等, 古今所尙固不同耶.

金石門

生金

廣西所在產生金, 融宜昭藤江濱, 與夫山谷皆有之. 邕州溪峒, 及安南境, 皆有金坑, 其所產多於諸郡. 邕管永安州, 與交趾, 一水之隔, 鸚鵡之屬, 至交趾水濱遊食而歸者, 遺糞類得金, 在吾境水濱, 則無矣. 凡

# 張世南, 「游宦紀聞」 卷7

[1] [游] 여러 향(香) 가운데서 용연(龍涎)이 가장 귀중하다. 광주(廣州)에서는 팔리는 가격이 한 냥(兩) 10만[百千] 전(錢)에 내려가지 않고, 다음 등급도 5~6만[五六十千] 전에 달한다. 번방(番邦)에서 금지하여 전매하는[禁榷] 물품이다. [2] 대식국(大食國) 근해의 곁에서 난다. 항상 구름의 기운이 산간(山間)에 끼어 있으면 용이 그 아래에서 잠들어 있음을 안다. 혹은 반년, 혹은 2~3년에 토착민이 서로 번갈아 가며 지켜본다. 구름이 흩어지기를 기다리면, 용이 이미 떠났음을 알고서 가서 살피면 반드시 혹은 50~60량(兩), 혹은 10여 량의 용연을 얻을 수 있다. 감시하며 지켜본 사람들은 많고 적음에 따라 균등하게 그것을 나눈다. 어떤 경우에는 불평을 품고서 서로 원수처럼 죽이는 일도 있다. [3] [葉][陳]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용이 대양(大洋) 가운데의 큰 돌에 많이 도사려 있으면서 누워서 침을 토해내면 물고기가 모여들어 깨물어댄다. 토착민이 보고서는 자맥질하여 얻어낸다.” [4] 또 일설에는 “대양의 바다 가운데 소용돌이 이는 곳에는 용이 밑에 있으면서 그 침을 뱉어 올린다. 태양에 뜨거워지면 조각 조각이 되어 바람에 휩쓸려 해안에 도달한다. 사람들은 곧 그것을 채취하여 관(官)에 바친다.”라고 했다. [1] [游] 내가 일찍이 천주(泉州)·광주(廣州)에서 향을 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용연은 향(香)에 넣으면 용뇌향(龍腦香)과 사향(麝香)의 내음[氣]을 거둬들일 수 있어, 수십 년이 지나도 향과 맛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했다.

諸香中,「龍涎」最貴重,廣州市直,每兩不下百千,次等亦五、六十千,係番中禁榷之物,出大食國。近海傍常有雲氣罩山間,即知有龍睡其下。或半載,或二、三載,土人更相守視。俟雲散,則知龍已去,往觀必得「龍涎」,或五、七兩,或十餘兩,視所守人多寡均給之,或不平,更相讎殺。或云:「龍多蟠於洋中大石,卧而吐涎,魚聚而嗜之,土人見則沒而取焉。」

又一說,大洋海中有渦旋處,龍在下。湧出其涎,爲太陽所燥則成片,爲風飄至岸,人則取之納官。予嘗叩泉廣合香人,云:「龍涎」入香,能收斂腦麝氣,雖經數十年,香味仍在。嶺外雜記所載,「龍涎」出大食。西海多龍,枕石一睡,涎沫浮水,積而能堅,鮫人採之,以爲至寶。新者色白,稍久則紫,甚久則黑。

又一說云:「白者如百藥,煎而膩理,黑者亞之,如五靈脂而光澤。其氣近於臊,似浮石

[5] [嶺] 「영외잡기(嶺外雜記)」에는 龍涎이 실려 있는 바, “대식국(大食國)의 서해에는 용이 많다. 돌을 베고 깊이 잠들면 연말(涎沫)이 물에 떠다니다 쌓여서 단단해진다. 교인(鮫人)이 그것을 캐내서 지극히 귀중한 보물로 삼는다. 새로운 것은 색깔이 흰색이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랏빛이 되며, 매우 오래되면 검어진다.” [3] [葉][陳] 또 일설에 말하기를, “흰 것은 백약(百藥)처럼 달이면 반들반들해진다. 검은 것은 그것에 버금가는데, 오령지(五靈脂)와 비슷하여서 광택이 난다. 그 냄새[氣]는 누린내에 가깝다. [5] [嶺] 부석(浮石)과 비슷하여서 가볍다. 어떤 사람은 “특이한 향기가 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냄새가 비릿하고 여러 향기를 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모두 틀린 말이다. 향기에 대하여 본래 들어냄과 보탬이 없다. 다만 연기를 모을 수 있을 뿐이니, 향을 섞는 데 사용한다. 진짜 용연은 그것을 태우면 비취색 연기가 공중으로 떠올라 뭉쳐져서 흩어지지 않는다. 자리에 앉은 손님이 가위로 잘라 연기 가닥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까닭은 신기루(蜃氣樓)의 남은 열렬함 덕분이다. [6] 또 일설에 말하기를, “용이 바닷가에 출몰하면서 토해내는 연말(涎沫)에는 3등급[品]이 있다. 첫째는 범수(汎水), 둘째는 삼사(滲沙), 셋째는 어식(魚食)이다. ‘범수’는 수면에 가볍게 떠다니는 것을 물질을 잘 하는 자가 용의 출몰을 엿보다가 때맞추어서 채취한 것이다. ‘삼사’는 곧 파도에 떠돌다 모래톱과 섬에 밀려왔다가 여러 해 동안 엉기고 쌓여 비바람에 잠기고 배어 냄새와 맛이 다하여 모래와 흙 속으로 스며든 것이다. ‘어식’은 곧 용이 침을 토해내면 물고기가 그것을 다투어 먹고 다시 똥이 되어 모래나 서덜에 흩어져서 그 냄새가 비리고 더러워진 것이다. 다만 ‘범수’만이 향에 섞어 쓸 수 있고, 나머지 둘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다. [1] [游] … 여러 학자[諸家]의 의론이 같지 않다. 누가 합당한지 알 수가 없다. 나의 견해[愚見]로는 첫 번째 설이 조금 가까운 듯하다.

[1] [游] = 장세남 「유환기문」

[3] [葉][陳] = 섭정계 「향록」(진경 「진씨향보」)

[5] [嶺] = 주거비 「영외대답」



王圻, 「稗史類編」  
卷154, 香品類, 龍涎諸說

平原製閔古堂香氣味不減雲頭番禺有吳監視  
菱角香乃不假印脫手捏而成當盛夏烈日中一  
日而乾亦一時之絕品今好事之家有之泉南香  
不及廣香之為妙都城肆有詹家香頗類廣香  
今日多用全類辛辣之氣無復有清芬韵度也雖  
御前宣揚號曰官香而香味亦淺薄非舊香之比  
不可入品題矣

龍涎諸說

諸香中龍涎最貴重廣州市值每兩不下百千次等  
亦五六十千係番中禁權之物出大食國近海旁

稗史彙編 卷之百五

三 三六七

常有雲氣罩住山間即知有龍睡其下或半年或  
二三年土人更相守候視雲氣散則知龍已去矣  
往觀之必得龍涎或五七兩或十餘兩視所守人  
之多寡均給之或不平更相仇殺或云龍多於  
洋中大石卧而吐涎亦有魚聚而潛食之  
見沒處取焉又一說大洋海中有渦旋處  
湧出其涎為太陽所爍則成片為風飄至  
取之納於官府子嘗扣泉廣合香人云龍  
能收斂腦射氣雖經數十年香味仍在嶺  
所載龍涎出大食國西海多龍枕石一卧

「유환기문」의 '제설(諸說)',  
이후에 거의 그대로 답습

# ‘龍涎嶼’와 동서지식의 교류

---

# 1

## 「諸蕃誌」와 「島夷志略」



# 송대 이후의 ‘이역(異域)’ 지리서와 ‘용연향’

왕조	문헌자료			출전	비고
	서명	저자	연대		
남송	諸蕃志	趙汝适	1225	卷下 志物, 龍涎	
원대	西使記	劉 郁	1263	-	劉郁(1259-1260)
	島夷志略	汪大淵	1349	龍涎鱔	
	異域志	周致中	元末	卷上 大食勿拔國, 卷下 麻離拔國	
명대	瀛涯勝覽	馬 歡	1416	溜山	1416年 草稿, 1451年 完成
	西洋番國志	鞏 珍	1434	溜山國 · 祖法兒國 · 天方國	
	星槎勝覽	費 信	1436	卷3 龍涎鱔	古今說海
	西洋朝貢典錄	黃省曾	1520	卷中, 卷下	
	皇明四夷考	鄭 曉	1564	卷下 溜山	
	殊域周咨錄	嚴從簡	1574	卷9 蘇門答刺	
	諸夷考	游 朴	1592	卷1 龍涎鱔	
	東西洋考	張 燮	1617	卷4 西洋列國考 啞齊	
청대	職方外紀	艾儒畧	1623	卷3 利未亞總說, 卷5 海產	
	坤輿圖說	南懷仁	1674	卷下 海產	
	瀛環志略	徐繼畬	1848	卷2 亞細亞南洋各島 蘇門答臘	

## 趙汝适, 「諸蕃志」 卷上 志國, 中理國

매년 항상 큰 물고기가 죽어서 가까운 해안으로 밀려오는데, 몸의 길이는 10여 장이며 지름은 높이 2장 남짓이다. 나라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 다만 뇌수와 눈동자를 도려내어 기름을 만드는데, 많은 것은 3백 여 등(燈)에 이른다. 재[灰]와 섞어 선박을 수리하거나, 등불을 켜는 데 사용한다. 가난한 백성은 그 갈비뼈를 가져와 지붕의 도리[屋桁]를 만들고, 등뼈로는 문을 만들며, 그 뼈마디는 끊어서 절구로 만든다.

나라에는 산이 있어 필파라국(彌琶囉國: 베르베라)와 사이를 두고 경계를 이루는데, 주위는 4천 리이며 절반 이상에 인적이 없다. 산에는 혈갈(血竭)·노회(蘆薈)가 나며, 물에는 대모(蚌瑁)·용연(龍涎)이 난다. 그 용연은 나는 곳을 알 수 없는데, 홀연히 덩어리가 되어 나타난다. 어떤 것은 3-5근, 어떤 것은 10근이나 된다. 해안가에 떠돌다 밀려들면 토착민들이 다투어 그것을 나눠 가진다. 때로는 배를 타다가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발견하고는 캐내어 얻는다.

大食國

層拔國

彌琶囉國

中理國

# 趙汝适, 「諸蕃志」卷下 志物, 龍涎: 「嶺外代答」 답습

대식국(大食國)의 서해에는 용이 많다. 돌을 베고 깊이 잠들면 연말(涎沫)이 물에 떠다니다 쌓여서 단단 해진다. 교인(鮫人)이 그것을 캐내서 지극히 귀중한 보물로 삼는다. 새로운 것은 색깔이 흰색이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랏빛이 되며, 매우 오래되면 검게 된다. 향기도 나지 않고 누린내도 나지 않으며 부석(浮石)과 비슷하여서 가볍다. 사람들은 “용연은 특이한 향기가 있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용연은 냄새가 비릿하고 여러 향기를 발할 수 있다.”라고 했다. 모두 틀린 말이다. 용연은 향기에 대하여 본래 들어냄과 보탬이 없다. 다만 연기를 모을 수 있을 뿐이니, 향을 섞는 데 사용한다. 진짜 용연은 그것을 태우면 극소량[一銖]의 비취색 연기가 공중으로 떠올라 멍쳐져서 흩어지지 않는다. 자리에 앉은 손님이 가위로 잘라 연기가 닥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까닭은 신기루(蜃氣樓)의 남은 열렬함 덕분이다.

而漬以油名臘肭臍。番惟渤泥最多。

翠毛

翠毛眞臘最多。產於深山澤間。巢於水次。一擊之水。止一雌雄。外有一焉。必出而死。鬪人用其機。飼媒擊諸左手。以行巢中者見之。就手格鬪。不復知有人也。右手即以羅掩之。無能脫者。邕州古江亦產一種。其背毛悉是翠茸。窮侈者多以撚絨如毛段然。比年官雖厲禁。貴人家服用不廢。故番商冒法販鬻多。眞布襦袴中。

鸚鵡

鸚鵡產占城。有五色。唐太宗時。環王所獻是也。案傳謂能訴寒。有詔還之。環王國即占城也。欽州有白鸚鵡。紅鸚鵡。大如小娥。羽毛有粉如蝴蝶翅。謂之白鸚鵡。其色正紅。尾如烏鶯之尾。謂之紅鸚鵡。

龍涎

龍涎。大食西海多龍。枕石一睡。涎沫浮水。積而能堅。鮫人探之以爲至寶。新者色白。稍久則紫。甚久則黑。不薰不猶似浮石而輕也。人云龍涎有異香。或云龍涎氣腥。能發衆香。皆非也。龍涎於香本無損益。但能聚烟耳。和香而眞用龍涎焚之。一縷翠烟浮空。結而不散。座客可用一剪分烟縷。此其所以然者。蜃氣樓臺之餘烈也。

瑤瑁

瑤瑁。形似龜。背甲十三片。黑白斑紋間錯。邊欄缺齧如鋸。無尾而有四鬣。前長後短。以鬣掉水而行。鬣

諸蕃志 卷下

三九

# 「도이지락」의 새로운 스토리

龍涎嶼

# 汪大淵, 「島夷志略」 龍涎嶼

섬은 네모지고 평평하며 황야가 펼쳐져 있다. 위쪽은 운무에 가려진 마을[雲塢]의 돈대와 닮았으며, 전산(田産)의 이로움은 전혀 없다. 매번 하늘은 맑고 날씨가 온화하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고 떼거리 용들이 유희하며 해변에 출몰할 때에는 그 섬 위에 연말을 토해내니, 이것으로써 이름을 얻었다. 용연의 색깔은 흑은 오향(烏香)보다도 검고, 흑은 부석(浮石)과도 유사하다. 조금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 들었지만, 여러 향과 섞어서 쓰며 맛이 더욱 맑고 멀리까지 퍼진다. 비록 가람목(茄藍木)·매화(梅花)·용뇌향(龍腦香)·단향(檀香)·사향(麝香)·귀자화(机子貨)·침향(沈香)·속향(速香)·말향(末香)·장미수(薔薇水) 등의 여러 향일 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섞은 다음에야 향기를 내뿜는다. 이 땅에는 이전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다른 번방(番邦)의 사람들이 통나무로 깎은 배에 태워 보내서 그것을 줍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 옮겨 다니면서 팔았는데 금은(金銀) 같은 것으로 거래했다.

無枝拔 一云乃星言三陸里故神位同司見錄利什文也錄此  
 在闐麻羅華之東南石山對峙時民墾闢山爲田多種  
 薯氣候常熱獨春有微寒俗直男女編髮纏頭紫紅布  
 極以婚姻爲重往往指腹成親通國守義如有者罰  
 金一兩重以納其主民黃海爲鹽釀椰漿蔗粉爲酒有曾  
 長產花斗錫鉛綠毛狗貿易之貨用西洋布青白處州甕  
 器瓦壘鐵鼎之屬

龍涎嶼  
 嶼方而平延袤荒野上如雲塢之盤絕無田産之利存值  
 天清氣和風作浪湧羣龍游戲出沒海濱時吐涎沫于其  
 嶼之上故以得名涎之色或黑于烏香或數于浮石間之  
 微有腥氣然用之合諸香則味尤清遠雖茄藍木梅花腦

層搖羅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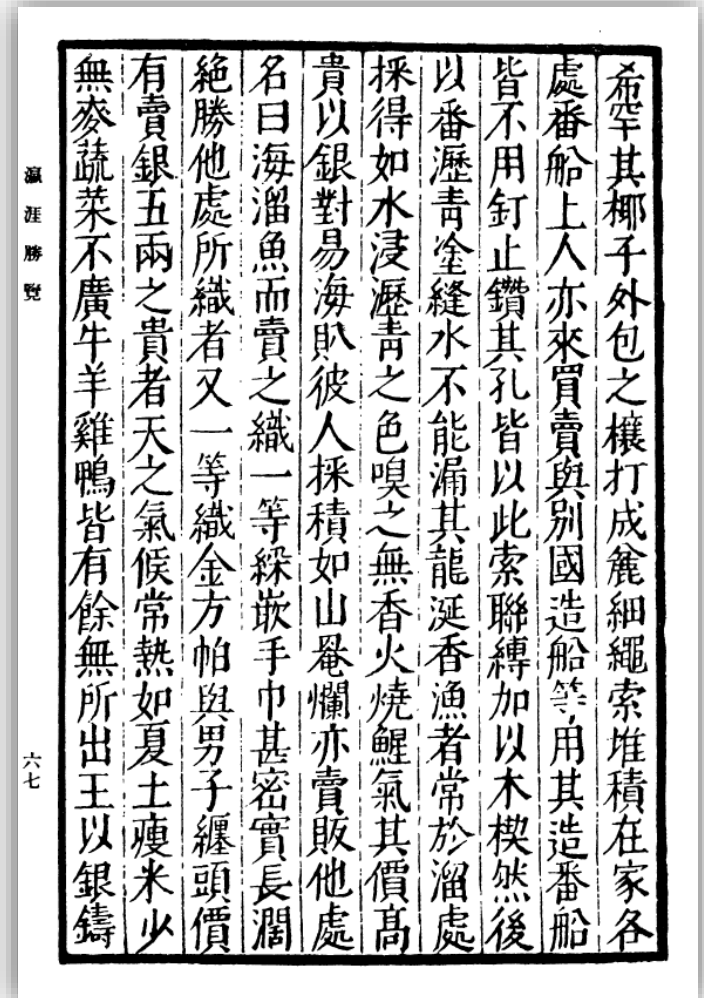
‘龍涎嶼’는 어디인가?



## 馬歡,「瀛涯勝覽」(1416-1451) 溜山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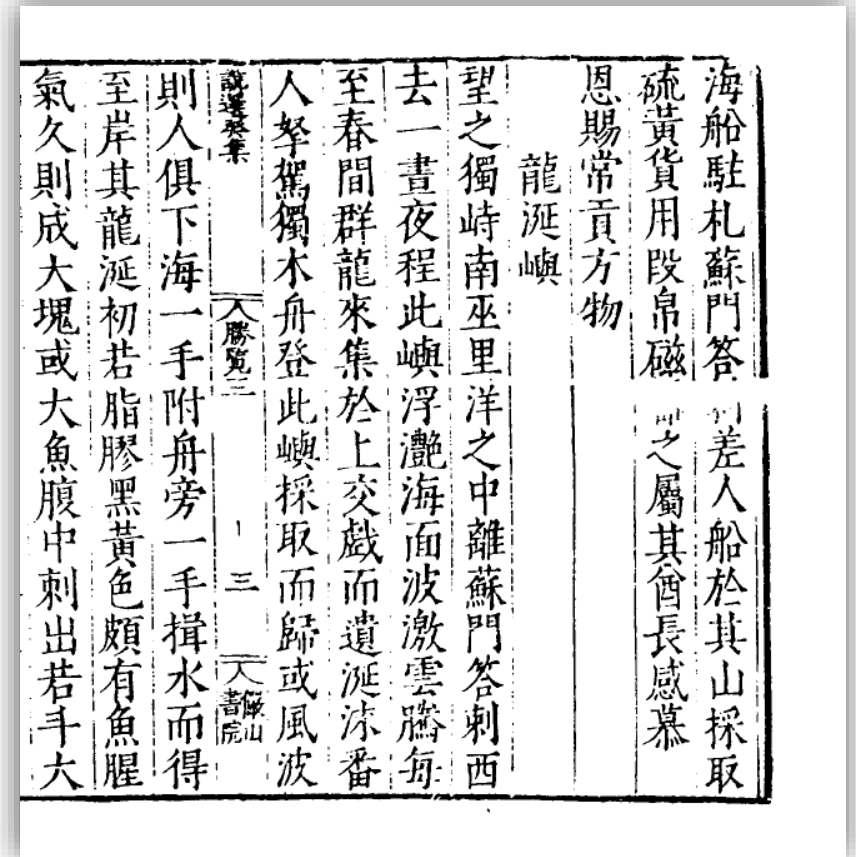
其龍涎香，漁者常於溜處採得，如水浸瀝青之色。嗅之無香，火燒鯉氣。其價高貴，以銀對易。… 中國寶船一二隻，亦彼處收買龍涎香椰子等物，乃一小邦也。

- 마환(1400-?): 제3차(1413), 제4차(1421), 제7차(1431) 鄭和 사행 수행
- 祖法兒國, 天方國: 俺八兒 생산
- 玠珍「西洋番國志」(1434), 내용 동일



# 費信, 「星槎勝覽」(1436) 龍涎嶼

멀리서 보면 남무리(南巫里: Lamuri)의 바다 가운데 홀로 치솟아 있는데, 소문답차(蘇門答刺: Sumatra)에서 서쪽으로 1주야 노정으로 떨어져 있다. 이 섬은 물결이 출렁거리며 해면에는 파도가 부딪치고 구름이 피어 오른다. 매년 봄에 되면 떼거지의 용들이 섬 위에 모여들어 서로 희롱하면서 연말(涎沫)을 남겨 놓는다. 번방(番邦) 사람들이 통나무배를 붙잡아 타고 이 섬에 올라 채취하고서 돌아간다. 어쩌다 세찬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 한 손으로는 배의 결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물을 저어서 해안에 다다를 수 있다. 그 용연은 처음에는 지교(脂膠)처럼 흑황색(黑黃色)이며 자못 물고기 비린내가 난다. 오래되면 큰 덩어리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큰 물고기의 배 속을 쪼개서 꺼내는데 말(斗)만큼 크다. 또 물고기 비린내를 깨닫고 그것을 태우면 맑은 향기가 사랑스럽다. 소문답차(蘇門答刺)의 시장에서 거래함에 관칭(官稱)으로 1냥(兩)이면 그 나라 금전 12개이며, 1근은 금전 192개에 해당하여 중국 동전 9천 개에 비기니, 가격 또한 가볍지 않다.



# 용연항 산지

龍涎嶼 錫蘭山國 溜山洋國 卜刺哇國 竹步國  
木骨都束國 刺撒國 佐法兒國 忽魯謨斯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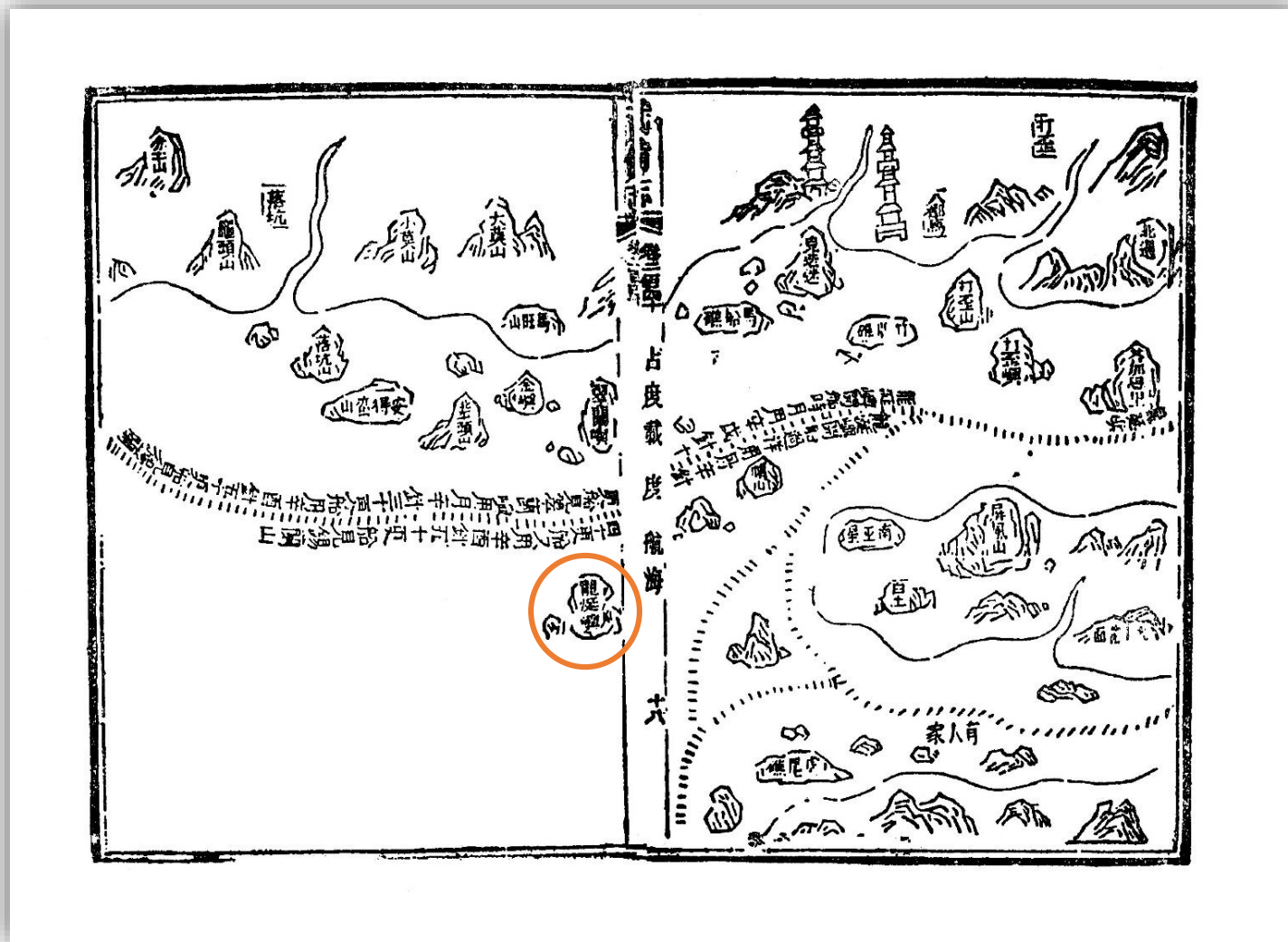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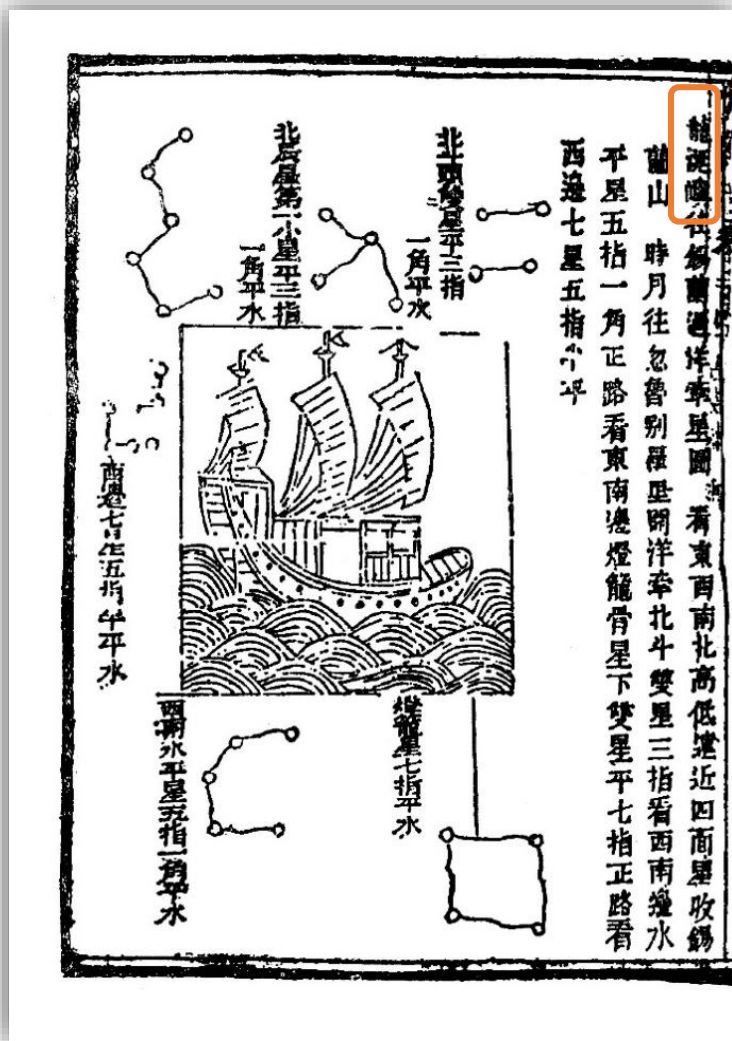
費信

1409년  
1412년  
1415년  
1431년



16-17世紀之“東西洋”略圖

# 「鄭和航海圖」(茅元儀,「武備志」,卷240 航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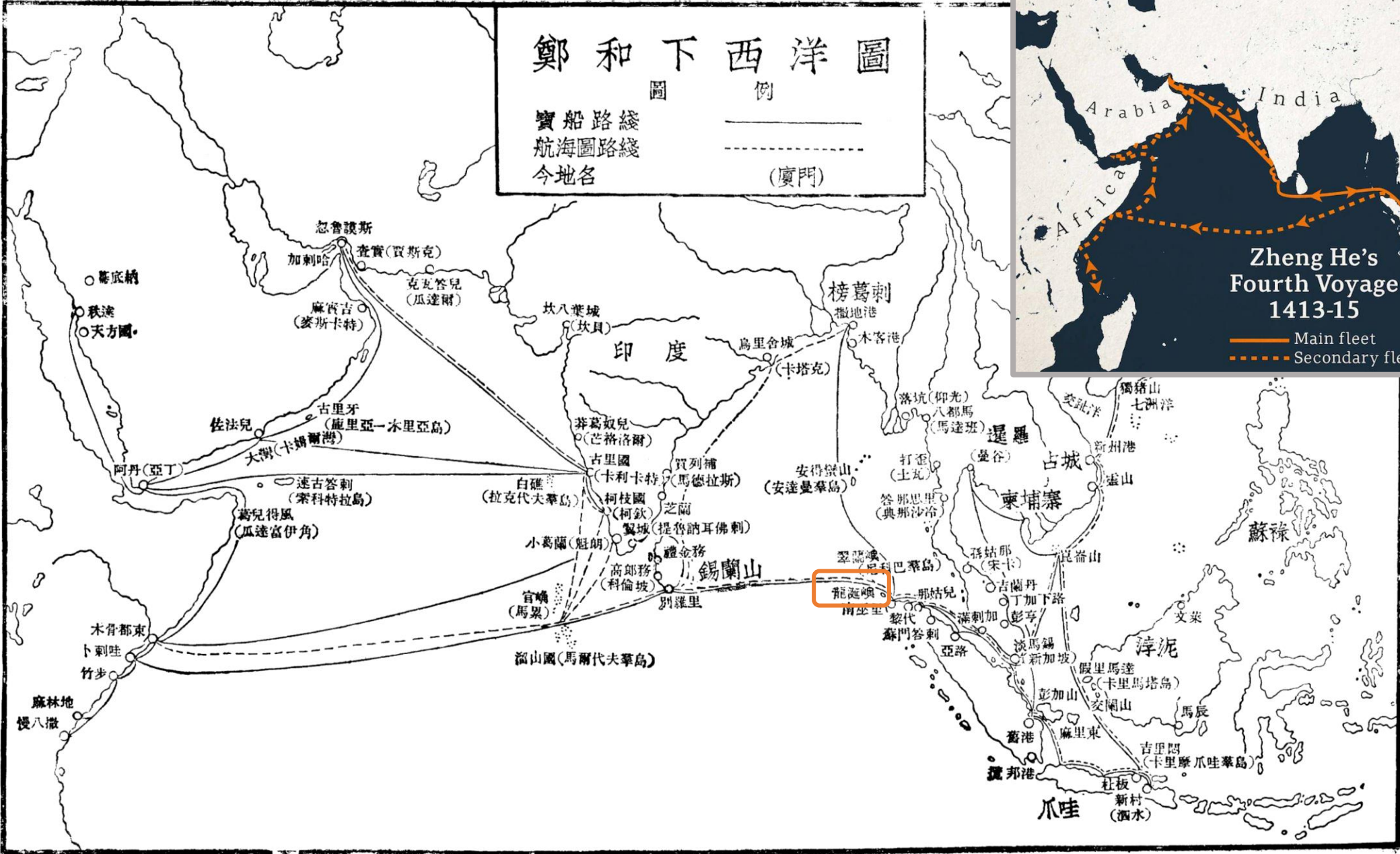


# 鄭和下西洋圖

圖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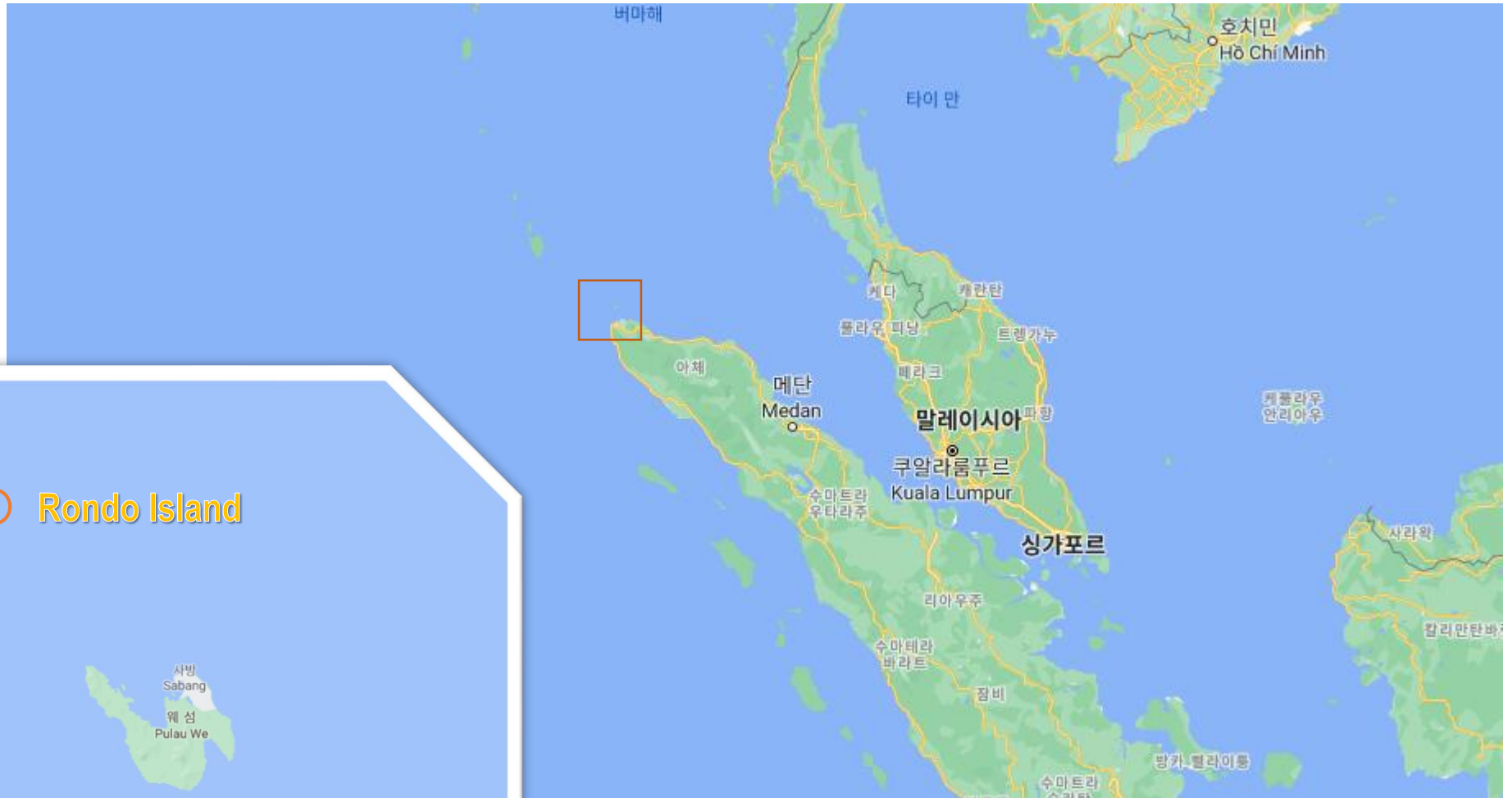
寶船路綫  
航海圖路綫  
今地名

(廈門)



(鄭和航海圖索引後插圖)

# 龍涎嶼 Rondo?





# 3

## 「職方外紀」, 유럽 지식의 유입



# 줄리오 엘레니, 「職方外記」(1623) 卷3 利未亞總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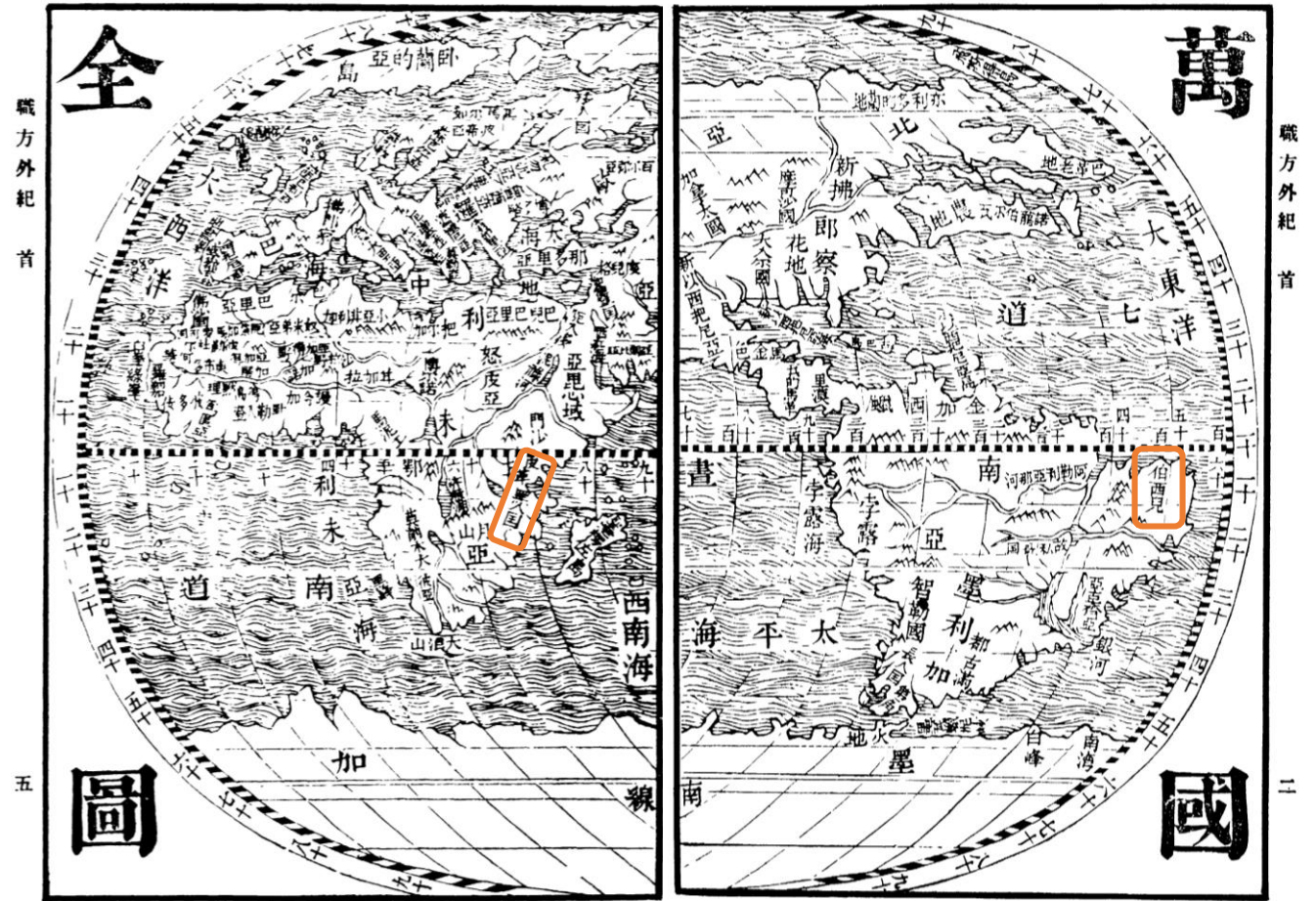
職方外記 卷三

八〇

또 한 짐승이 있으니, 몸집이 매우 크고 생김새가 매우 기이하다. 그 길이는 5장 남짓이며 입으로는 침을 토해내니 곧 용연향이다. 어떤 이들은 “용연은 흙 속에서 나는 것으로, 처음 흘러나올 때는 기름 같다가 바다에 이르면 점차로 엉겨서 덩어리가 되는데, 큰 놈은 천 여 근에 달하는 것도 있다. 바닷물고기가 어찌다 그것을 먹는다. 또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것을 쪼개서 꺼낸다. 이 짐승이 토해내는 바가 아니다.”라고도 한다.

# 줄리오 엘레니, 「職方外記」(1623) 卷5 海産

용연향은 흑인국(黑人國: 탄자니아)과 백서아(伯西兒: 브라질) 두 바다에서 가장 많이 난다. 일찍이 큰 덩어리는 무게가 천 여 근에 달하는 것도 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 섬과 같다. 그렇지만 늘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연안에 몰려들면, 여러 벌레와 물고기·짐승이 함께 그것을 즐겨 먹는다. 그 형상은 앞에서 이미 논의를 갖추었다.



「직방외기」에 등장하는

특이한 물고기?

把勒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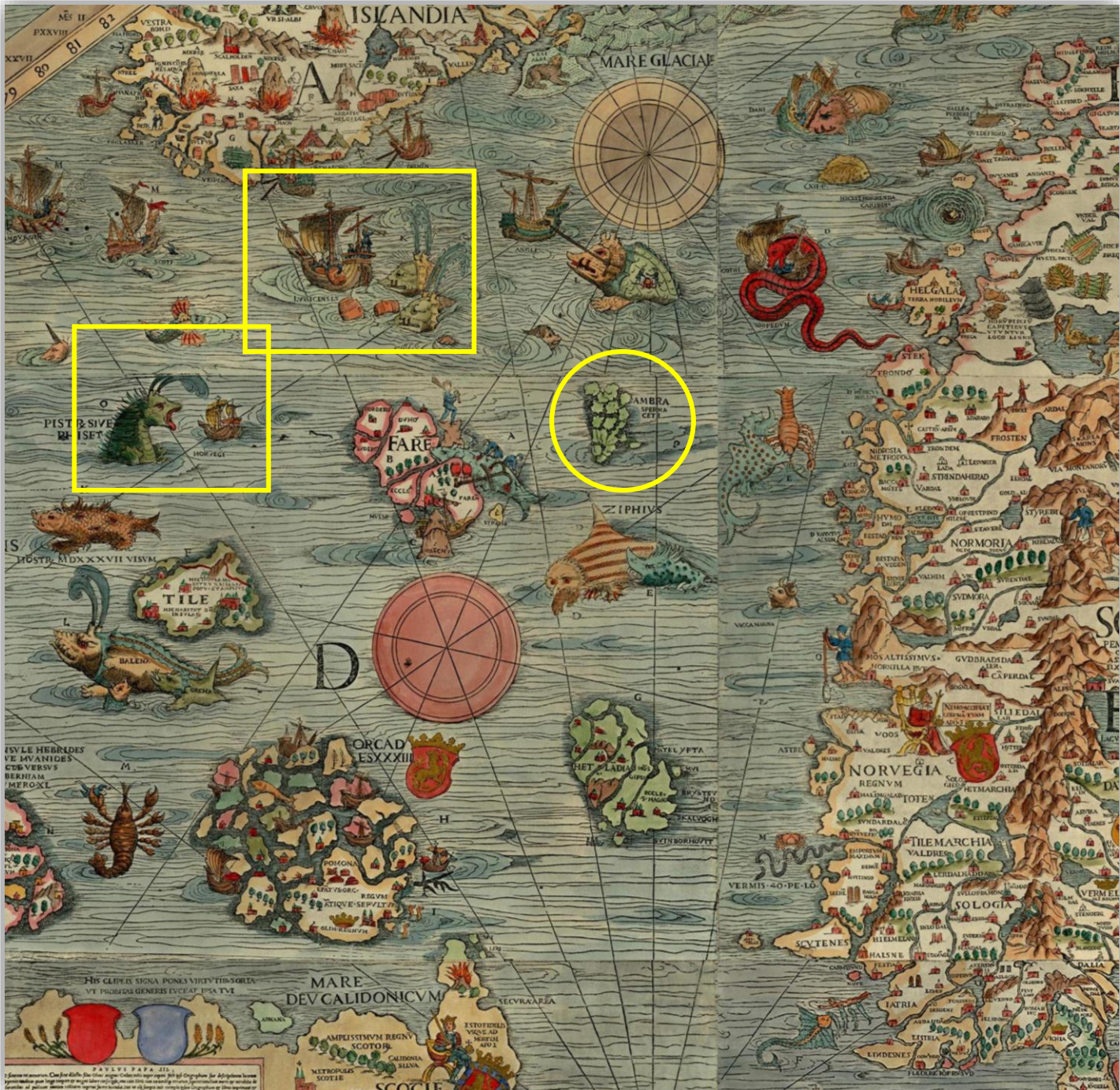
물고기 무리에 일명 파룩아(把勒兒)가 있다. 몸의 길이는 수십 장에 달하고, 머리에는 두 개의 큰 구멍이 있어 물을 위쪽으로 뿜어 대는데 기세가 마치 강을 매달아 놓은 듯하다. 매번 바닷배를 마주치게 되면 머리를 올려 배 안에 물을 쏟아붓는데,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아 버린다. 파룩아를 만나는 사람은 커다란 나무 술통에 술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던져주면, 여러 개의 술통을 잇달아 삼키고는 머리를 숙이고 가버린다. 얇은 곳에서 그것을 얻게 되면 등잔 기름 수천 근을 만들 수 있다.

[艾儒畧, 「職方外紀」 卷5 海産]



페르비스트(南懷仁),  
「坤輿圖說」 卷下 海産]

**이 그림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중국은 ‘파퓌아’의 정체를  
알았을까?**



# ‘龍’인가? ‘鯨’인가?: 龍涎香과 捕鯨

---

# 1

## 「海東札記」와 「本草綱目拾遺」



**명말청초 새롭게 등장한**

**용연향의 스토리텔링?**

## 謝肇淛, 「五雜俎」(1616) 卷10 物部2

내가 영남(嶺南)의 여러 식자(識者)에게 물어보니, “[기존의 여러 설은] 용연이 아니다. 암수가 서로 교합하여 그 정액이 물 위에 떠다니다가 뭉쳐서 만들어질 뿐이다.”라고 했다. 과연 그러하니, 비리고 더러운 물질이 어찌 맑고 깨끗한 곳에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으랴? 지금 용연은 냄새도 과연 비릿하다. 다만 여러 향을 수렴할 수 있어 냄새가 흩어지지 않게 한다. 비록 10년이 지나도 향과 맛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보배라고 할 만하다.

- 전통적인 「游宦紀聞」인용한 뒤에, 嶺南의 식자를 통해 기존의 설 부정
- 용의 ‘침’이 아닌 교합한 후의 ‘정액’으로 규정
- ‘정액’설: 유옥 「서사기」에서 ‘모대’의 정액 출현

## 精液說

嶺南人有云非龍涎也。乃雌雄交合，  
其精液浮水上，結而成之。

[周嘉胄, 「香乘」(1641) 卷5 香品 龍涎香]

## 「四川通志」卷46 藝文 詩話 舊志器物譜 濂溪石

宋周濂溪，判合州時，嘗與人對奕。有一老人傍觀，口吐涎，香氣襲人。公驚曰，汝龍也。何故來此。老人曰，何以知之。公曰，吾聞龍涎極香。汝口中所落者，是也。須臾大雨雷電，老人化龍，從溪而去。公取方石二十四片，鎮溪口。今通曉橋，是也。

- 合州: 현재 重慶 合川
- 명말청초 이후 '용연향'이 산중에도 생산
- 굴대균 「광동신어」, 바다 아닌 육지에서 생산
- 중국적인 용의 속성 더욱 강화



**‘용연향=고래 배설물’이라는  
관점 없었는가?**

# 청대 '용연향-고래 배설물' 학설

왕조	문헌자료			출전	비고
	서명	저자	연대		
청대	臺海使槎錄	黃叔璥	1722	卷3 物産	海翁魚 … 龍涎 … 眞贗亦莫辨也.
	乾隆 重修臺灣府志	范 咸	1746	卷18 物産2 蟲魚, 卷19 叢談	
	海東札記	朱景英	1772	卷3 記土物	海翁魚 … 卽龍涎香也.
	本草綱目拾遺	趙學敏	1864	鱗部 龍涎香	趙學敏(1719-1805). 草稿 1765, 1864 刊行
	海錯百一錄	郭柏蒼	1886	卷1 記魚 海鱈	郭柏蒼(1815~1890)

# 黃叔璥,「臺海使槎錄」卷3 物產,海翁魚

海翁魚，有言，如小山，草木生之。樵者，誤登其背，須臾轉徙，不知所之。此無可攷。志云，後壠番社，有脊骨，一節高可五六尺，兩人合抱，未滿其圍。漁人云，大者約三四千觔，小者亦千餘觔。皮生沙石，刀箭不入。有自僵者，人從口中入，割取其油，以代膏火。肉粗不可食，口中噴涎。常自爲吞吐，有遺於海邊者，黑色淺黃色不等。或云即龍涎。番每取之，以賈利。眞贗亦莫辨也

- 「대해사사록」: 강희 말년(1722) 황숙경, 臺灣巡使로 임명되어 대만을 순찰하면서 그 풍속 기록
- ‘해옹어’: 고래(鯨)의 별칭
- ‘용연’ 언급하지만, ‘진위를 알 수 없다’고 확신 못함

微短而輒。鄉間亦有捕蟬，紙裹煨熟以下酒者。  
『魚二種，志所未錄：一曰新婦啼；狀本鮮肥，熟則拳縮，意取新婦蹣跚也。一曰飛藉魚，疑是沙燕所化，兩翼尙存；漁人伺夜深時懸燈以待，乃結陣飛入舟中，甚至舟力不勝滅燈以避』。鯨魚，胎生。市得一魚，可四、五觔，用佐午炊；庖人剖腹，一小魚從中躍出，更得五六頭，投水中，皆遊去』（亦畝集）。  
鯨類不一，龍文鯨、雙髻鯨，志言之矣。外此有烏翅鯨，身圓，翅尾黑色；鋸仔鯨，齒長似鋸；烏鯨，口闊。大者類百觔，能食人；虎鯨，頭斑如虎，齒迅利，噬人手足立斷；圓頭鯨，亦食人；鼠蟬鯨，皮白，齒如梳；蛤鯨，口闊，尾尖；油鯨，身圓而長，尾似蝦尾；泥鯨，口尖；青鯨，身青色；扁鯨，身扁尾小；乞食鯨，皮可飾刀鞘；狗繩鯨，身長尾尖；狗鯨，頭大，上有烏赤點，離水終日不死。  
魴有錦魴，身圓，有花點，大者三、四百觔，皮生沙石，尾長數尺，骨弱肉粗；黃魴，身圓，黃色；泥魴，皮黑；掃帚魴，尾如帚；烏燕魴，頭、身、翅俱似燕，肉黑；四開魴，頭似燕，肉赤；鬼角燕魴，頭有輒角；水沉魴，澹紅色，身扁頭尖。  
海翁魚，有言如小山，草木生之，樵者誤登其背，須臾轉徙，不知所之；此無可考。志云：「後壠番社有脊骨一節，高可五、六尺，兩人合抱未滿其圍」。漁人云，大者約三、四千觔，小者亦千餘觔，皮生沙石，刀箭不入。有自僵者，人從口中入，割取其油



## 乾隆「重修臺灣府志」卷19 叢談



**龍涎香**，傳為**鰵魚精液**泡水面凝為涎。能止心痛助精氣。以淡黃色，嚼而不化者為佳。番子浮水取之，價十倍。不可多得。

- 건륭 「중수대만부지」(1746) 권18 물산2 총어, 海翁魚 항목에서 앞의 황숙경의 기록 그대로 인용
- 용연향=고래의 정액이 수면에 응결된 것
- 「대만풍토기」 인용하고 있어, 대만에서는 ‘용연향=고래의 분비물’이라는 정보 정착됨

# 朱景英,「海東札記」卷3 記土物

海翁魚，即海鰓也。大者三・四千斤，小亦千餘斤，皮生沙石，刀箭不入。鹿耳門沙岸有自殭者，肉粗不可食，人割取其膏，資然釭焉。或言口中噴涎，常自爲吞吐，有遺於海濱者，黑色淺黃色不一，即龍涎香也。聞上淡水有之，云可止心痛，助精氣，欲辨真贗，研入水攪之，浮水面如膏，以口沫撚成丸，擲案有聲，噙之通宵，不耗分毫者爲真。

- 「해동찰기」: 주경영, 건륭 34년(1769) 臺灣海防同知
- 고래(海鰓)의 ‘침(涎)’이 ‘용연향’이라고 규정
- 「대해사사록」 70여 년 뒤 ‘용연=고래의 분비물’

、以代膏火。肉粗，不可食。口中噴涎，常自爲吞吐；有遺於海邊者，黑色、淺黃色不等，或云即龍涎。番每取之以買利，真贗亦莫辨也。

志載諸魚已詳。又有金精魚，花點細鱗；三牙魚，或赤或白，有三齒；田鴿魚，體圓，兩鬚極長；梳齒魚，黑色，花點，齒如梳，魚吐食之立死；泥鰌魚，黑色，口潤，大者五、六十觔；珠鱗魚，黑色，身有紅白點；小鱸魚，黑色；小波浪魚，青身小尾；歸秉魚，身扁肉澁；赤海魚，紅色；剖額魚，金鱗，頭內有石子一枚；鯪魚，口邊有兩大刺；牛尾魚，狀似牛尾；泥龍魚，身長有暗刺；青箭魚，色青口尖，行如箭；交網魚，色烏、赤兩種；牛牯缺，頭潤，皮青；金梭魚，金鱗，身硬；竹梭魚，口尖，身長；飛鳥魚，色青，有翅能飛；咬網狗，黑色，歪口無分左右；海鱗魚，頭大，皮黑；舍西魚，身扁，色白，有刺；圭梭魚，色黑，唇厚；偏身苦魚，身有花點；安米魚，細鱗，有赤有白；旗魚，色黑，大者六、七百觔，小者百餘觔，背翅如旗，鼻頭一刺長二、三尺，極堅利，水面毆魚如飛，船爲所刺，即不能脫，身一轉動，船立沈；蜈魚，俗呼海豎，頭似豬，大則千餘觔，小亦五、六百觔，常於水面躍起，高丈餘，噴水如雪，漁人見之即避。又海和尚，色赤，頭身似人形，四翅無鱗；海狗，頭似狗，尾尖，四翅；海馬，狀似馬，頸有鬚，亦四翅；漁人網獲，均爲不詳。

土人呼蠟房爲蠟，呼車螯爲蟻。

# 趙學敏, 「本草綱目拾遺」(1765/1864) 鱗部, 龍涎香

## 海東札記 重修臺灣府志

- 「通雅」, 「澳門記略」, 「嶠南瑣記」, 「廣志」, 「坤輿圖記」, 「汪機本草」, 「星槎勝覽」, 「稗史彙編」, 「廣東通志」, 「皇明大政記」, 「嶺南雜記」, 「嶺外雜記」 등 인용
- ‘용연=고래(海鰵) 부산물’이라는 「海東札記」 「重修臺灣府志」도 함께 인용

如龍形而小身純烏其行也百草沾之立斷人見  
斷草輒跡得之故蛇每離地丈許使身如矢直以  
入穴使不沾草人莫得而跡之此亦烏蛇中一種  
綱目烏稍蛇不載龍頭者一種故錄其遺

治大麻風煮酒服

龍涎香 龍涎

通雅龍涎有嶼在花面國傍獨立南海中彼人言  
於樹收之最收香氣今大內甜香用之○澳門記  
畧大食國產龍涎香爲上西洋產於伯西兒海焚  
之則翠烟浮空結而不散坐客可用一翫以分烟

風浪飄泊舟嶼積年氣盡於沙土中魚食涎作糞散沙噴氣腥穢進貢亦不過四兩

按龍涎論色則瑣記言有白與紫黑之分而札記

又有淺黃色廣志有青鰲色辨真偽亦諸說互異大抵不必論其色總以含之不耗投水不沒雨中焚之能爆者良東壁綱目鱗部龍下龍腦龍胎俱有主治而於龍涎獨遺之惟附其名云龍涎方藥鮮用惟入諸香云能收腦麝數十年不散出西南海洋春間羣龍所吐涎沫浮出者番人採貨之亦有從大魚腹中剖得者其狀初若脂膠黃白色乾

東壁綱目鱗部龍下，龍腦龍胎俱有主治，而於龍涎獨有之惟附其名云，“龍涎方藥鮮用 … 似浮石而腥臊。” 其說亦未確核。蓋所云魚腹中得者，即札記所云海鰲魚之精也，亦名龍涎。出臺灣不若大洋中產者佳。夫龍腦龍胎，世上所無。龍涎則閩奧貨售者多。東壁，何得於罕見者載之，於所有者，反略之也。則甚矣該博之難也。

- 조학민, 「본초강목」의 “從魚腹中剖得者”는 「해동찰기」에서 말하는 “고래(海鰲)의 정액”이라고 함
- ‘용의 연말’ 및 ‘고래의 정액’이라는 설 모두 인정
- 「본초강목」에서 ‘龍腦, 龍胎’는 主治가 있는 반면, ‘용연’은 主治가 없는 부분 비판
- 왜 ‘용연향=용의 침’이라는 관점 버리지 못할까?

涎乃陽中之陽，故其氣絕香。龍屬木，木之氣得太陽多者必香。故諸香以龍爲最。得盂水徑撲其中，不落空外。龍以水爲用，見水則精入焉。入藥所以能利水道分陰陽，能殺精魅鬼邪者，亦以至陰之物，見真陽而立解也。

蓋龍本純陽之精，故其氣絕香。又龍屬木，木之氣得太陽多者必香。故諸香以龍涎爲最。得盂水徑撲其中，不落空外。龍以水爲用，見水則精入焉。蓋龍用精則爲雨，用氣則爲雲。[屈大均，「廣東新語」]

- 조학민, 용이 실존한다고 확신함
- 용을 음양오행의 원리로 이해, 藥性和 연결
- 끝에는 결론에서 살펴볼 「광동신어」의 용에 대한 인식 (純陽之精)을 약학적으로 해석

驗  
 制死則入腹便化否則入腹絲毫不損蓋極難尅  
 化者方書云焚之其烟能入水孟子嘗試之多不  
 按龍乃東方之神其體純陽能噓氣成雲陽之質  
 輕浮故雲上升其骨反入手足少陰厥陰經者蓋  
 凡知覺運動之物皆肖陰陽以立體孤陽則不生  
 龍秉純陽而骨反屬陰入藥能收陽中之陰治心  
 腎諸病所謂一陰一陽之謂道也其實靈其齒能  
 治魂遊不定鎮驚癇凡病在肝而龍主肝木治之  
 最神涎乃陽中之陽故其氣絕香龍屬木木之氣

本草綱目拾遺 卷之十一 龍涎香 龍泄

# 郭佰蒼, 「海錯百一錄」(1886) 卷1 記魚, 海鰐

## 海鰐 海東札記

- 「해착백일록」: 「水經注」, 「嶺海異聞」, 「南部新書」, 「周亮工書影」, 「嶺海續聞」, 「閩中海錯疏」 인용
- 「해동찰기」의 '龍涎香' 비중 있게 다룸
- '용연향' 을 고래(海鰐) 항목으로 분류

記魚  
海鰐俗字 海魚之最大而性惡者有鱈得小海鰐者已黑極健鱈中  
水經注海鰐魚長數千里穴居海底入穴則海水為潮出穴則潮退嶺海異聞海鰐長者亘百餘里牡蠣聚族其背曠歲之積崇十許丈鰐負以游鰐背平水  
海錯百一錄 卷一 三  
即牡蠣崱岬如水面山矣舶猝遇之如當其首輒震以銃砲鰐驚徐徐而沒猶漩渦數里船顛頓久之乃定人始有更生之賀蓋觀甚奇而災甚切也南部新書載廣州有魚行海面經歲始竟首尾當亦鰐屬海東札記海翁魚即海鰐也大者三四千斤皮生沙石刀箭不入鹿耳門沙岸有自殭者肉粗不可食人割取其膏資燃釭馬或言口中噴涎常自為吞吐有遺於海濱者黑色淺黃色不一即龍涎香也聞上淡水有之云可止心痛助真氣欲辨真贗研入水攪之浮

**용에 대한 인식 변화?**

**NO**

# 郭佰蒼, 「海錯百一錄」 卷3 記介, 龍

龍 種類不同已見諸書者不載咸豐壬子黃肖巖往  
 臺陽聞壁間漶泐有聲一蟲扁薄似蜥蜴而尾特長  
 忽霹靂如雷飛出雲表尾猶勾曲文餘神龍變化信  
 矣 蒼在延平明翠閣適雷雨閣前三巨舟皆滿載  
 為龍所拏片刻舟從黯淡灘墜入江中人物蕩然  
 建甯府城每年皆有風雹傳為禿尾龍省母蒼以其  
 說不經不之信一日甫登輿天昏如墨僕人曰禿龍  
 至矣蒼叱之至府前一亭飛上空際急閃入破屋雲  
 表熠熠有光行者與者俱墜河中 福州西門質庫  
 海錯百一錄 卷三 三

雷雨中有鯉魚墜入缸中畜之池蒼所目見蓋隨龍  
 水也 畫龍皆圓鱗山中死龍有方鱗 養魚經曰  
 魚滿三百六十則龍為之長而引飛出水內有鼈則  
 魚不復去故鼈名神守 或云龍生九子無一同類  
 凡海族一類同異者皆九種不獨龍也 閩在亂山  
 中時有蛟變蓋蛟神則入海俗云蛟水入海龍不受  
 故龍扶風雷而與蛟鬪然九龍不敵一蛟蛟卒入海  
 瑋瑋 狀如龜背有甲十二片黑白斑文相錯以成其  
 邊欄闊嚙如鋸齒無足有四鬣前長後短其上皆有

- 「해착백일록」: 여전히 '龍'을 실존한다고 인식
- 곽백창, 자신의 목격담 함께 실음
- 19세기 후반, 중국인들 용의 존재 믿음



중국은 끝내 '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

「五洲衍文長箋散稿」

卷二十二

五洲衍文長箋散稿

鯨鯨辨證說

鯨鯨并為海中大魚也古人所記者闕有臆說不可備信事苑云鯨常以五月就岸生殺數萬之子至八月引子還海鼓浪成雷噴水成雨故聞聲曰鯨波耳談海舟凌琉球夜見山起接雲兩日並出山接雲者鯨魚翅也兩日兩目也本華海賦巨鱗刺也以此見之中原人記事一何誇語也此不知鯨之為何許物而言也日本人善捕鯨故其所記

甚該備洵為可徵者也我東申青

宮八日本著海游錄其言曰余

鯨可致終身富辱云果然否曰

世公疾黃家以鯨贈鯨鯨為第

魚而孫入其中經一晝夜味

良方鯨鯨鯨鯨必用此方也

燈燭皆用鯨膏而鯨肉一尋

之利五致萬金齒骨髻鬣皆

以海浦居民有曰捕鯨者

圖會鯨大約十六丈有六種



# 조선시대의 '용연향' 기록과 박물학

세기	문헌자료			권명	비고
	서명	저자	연대		
18C	松南雜識	趙在三	1855	花藥類 龍涎	趙在三(1808-1866)
	五洲衍文長箋散稿	李圭景	-	龍涎香辨證說, 賽葡萄釀 · 龍涎香辨證說, 龍辨證說, 南懷仁紀海產辨證說	李圭景(1788-1856?)

# 조재삼, 「송남잡지」 (1855) 花藥類, 龍涎

「향보(香譜)」에서 말하기를, “대석국(大石國)에서 난다. 그곳의 용은 바다 가운데의 큰 돌에 많이 도사려 있는데, 옆드려서 침을 토해내면 수많은 물고기가 모여들어 그것을 씹어 뱉는다. 그곳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물속에 들어가 캐내 온다. 그렇지만 침에는 향내가 없고, 그 내음이 비린내에 가깝다. 능히 여러 향기를 발산시킬 수 있기에 향과 섞어 사용한다.”

- 조선 시문집: ‘용연향’ 기록 있지만, 실제 사용 사례 거의 없음
- 북경에 갔던 사행단, ‘용연향’ 사용 목격
- 서영수(徐滢修)의 시 「冬夜」에 별주로 섭정계 기록 인용
- 조재삼 「송남잡지」: 「진씨향보」의 섭정계의 기록 인용
- 이 외에 용연향에 대한 ‘탐구’ 찾기 어려움

龍涎  
香譜曰出大石國其龍多蟠於洋中之大石卧而吐涎衆魚聚而嗜之土人見則沒而取焉涎無香其氣近於膠能發衆香故用以和香焉又金顏香出大食國今龍涎教香佩帶者用之

龍涎

外傳云交趾進龍腦香如蟬蛻老龍擲節方有之楊妃私驗明馳使持三枚遺孫山明馳者眼下有毛夜明日行五百里云今龍木其香甚酷又龍腦香出婆利國云

沉香

南越志曰交州有栴香樹斫取先斷其根經年後外皮朽爛木心與節堅黑沉水者為沉香浮水面平者為鷄骨最厚者為棧

#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龍涎香辨證說’

龍涎香. 龍之所吐涎沫可製香者也. 東璧李時珍曰. 龍涎. 方藥鮮用. 惟入諸香. 能收腦. 麝數十年不散. 又言焚之則翠煙浮空. 出西南洋中. 云是春間群龍所吐涎沫浮出. 番人採得貨之. 每兩千錢. 亦有大魚腹中剖得者.

- 「龍涎香辨證說」: 조선시대 유일한 ‘용연향’ 분석
- “龍之所吐涎沫可製香者.”: 명대 왕기(汪機)의 말
- 「本草綱目」, 「大清會典」, 「坤輿外記」, 「嶺南雜記」, 「一統志」, 「嶺外雜記」, 및 出典 밝히지 않았지만 「游宦紀略」 인용한 다음 자신의 견해 피력
- 「居家必用」 인용으로 마무리

龍涎香辨證說

龍涎香龍之所吐涎沫可製香者也東璧李時珍曰  
 龍涎方藥鮮用唯諸香能收腦麝數十年不散又言  
 焚之則翠煙浮空出西南洋中云是春間群龍所吐  
 涎沫浮出番人採得貨之每兩千錢亦有大魚腹中  
 剖得者其狀若脂膠黃白色朝則成塊黃黑色如百  
 葉煎而膩理久則紫黑如五靈脂而光澤其體輕飄  
 似浮石而腥臊近者暹羅國進貢大清會典康熙三  
 年暹羅國進貢  
 有龍涎香乾隆甲辰我使姜新苞世英別單有進貢中  
 國進貢中是進貢外一兩內八兩則其貴可知也

나는 아직 진짜 용연(龍涎)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바를 이처럼 서술했다. 지금 해외에서 내부(內府: 황궁 창고)에 진공하는데 4냥(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물건은 중국에서도 매우 희귀하다. 중국에서도 보기 쉽지 않으니,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이야 어떠하겠는가? 용연은 나 또한 다만 그 이름만 들었을 뿐으로 아직 그 모양을 보지 못했다. 그러하니 용연이 비록 곁에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변증하겠는가? 그 형색(形色)과 공용(功用)을 대략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문자[楮穎]에 한정될 뿐이다.

龍涎. 予亦但聞其名. 未見其形.

則龍涎雖在旁. 何以辨之.

例也余未見真龍涎姑述所聞如此今海外進貢內

府不過四兩云此物於中甸亦甚稀貴中士亦難易  
 賭則而况我人乎龍涎予亦但聞其名未見其形則  
 竟涎難在旁何以辨之畧識其形色功用者唯楮  
 穎間而已矣嘗聞湖西海西人所傳則湖海兩海中  
 有土名海玻璃者形似水泡浮游波濤上海西則登  
 萊人潛取以去母乃龍涎者否或云使人潛取渣子  
 白紫則雜碎久不消  
 用於糊其言為糊錦云者安知非說說誰人耶若使  
 博物者見之必有辨矣然世无茂先何

居家必用龍涎香名有多般此物暗昧仔細者伏  
 古雲頭并清燕三朝脩合最直錢伏古雲頭清燕

龍涎. 予亦但聞其名. 未見其形.  
則龍涎雖在旁. 何以辨之.

그는 용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했을까?

# 栗本丹洲

1756-1834

일찍이 호서(湖西)·해서(海西) 사람들이 전해준 바를 들으니, 호서·해서의 바다에는 토착명으로 **해파리(海玻璃)**라는 것이 있다. 형태는 물거품과 비슷하고 파도 위에 떠다닌다. 해서에는 곧 등주(登州)·내주(萊州)의 사람이 자맥질로 채취하고 가져간다고 하니, **바로 ‘용연’이라는 것이 아닐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들이 자맥질로 채취하여 백반(白礬)에 담그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사라지지 않으니 비단을 풀칠하는 데에 쓴다고 한다.”] 비단을 풀칠하는 데 쓴다고 말함이 어찌 속임의 말이며 거짓말쟁이가 아님을 알 수 있겠는가? 만약 사물에 해박한 사람[博物者]에게 그것을 보게 한다면, 반드시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무선(茂先: 張華)이 없음은 무엇 때문인가?

- 이규경, ‘해파리’를 ‘용연’으로 추정
- 「鮐海玻璃辨證說」, 「海鏡水母辨證說」 두었지만, 중국의 ‘水母’가 해파리라는 사실 전혀 모름



# 이규경의 용과 고래에 대한 인식

中原人記事, 一何浮誇也. 此不知鯨之爲何許物而言也. 日本人善捕鯨, 故其所記者甚該備. 洵爲可徵者也

龍者, 鱗蟲之長, 四靈之首. 其名狀詳於諸書, 今何必辨證. 但取異說罕聞稀見者, 使初學取考焉.

- 고래(鯨)에 대한 중국 기록 의심하는 반면, 「和漢三才圖會」의 일본 기록 깊이 신뢰
- 용에 대해서는 「龍辨證說」, 「龍生九子辨證說」, 「龍卵虎胎辨證說」 등 그 존재 의심하지 않음
- 용의 실재에 대한 인식, ‘龍涎香=고래 분비물’이라는 사실 전혀 알 수 없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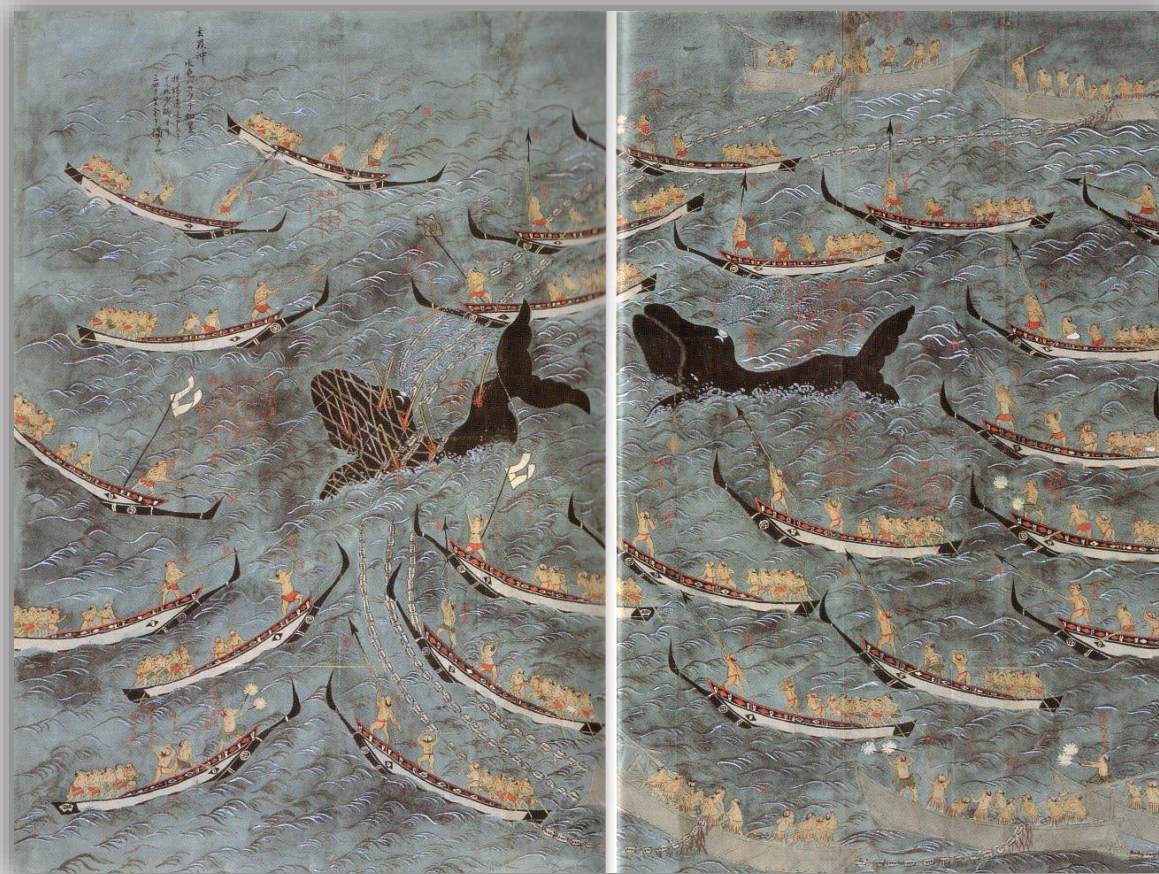
龍辨證說  
 龍者鱗蟲之長四靈之首其名狀詳於諸書今何必辨證但取異說罕聞稀見者使初學取考焉  
 在晉上即九陽教也經有金木水火土五  
 陰教也或以經化或以毒一有金木水火土五  
 以五色辨之其中蛟龍最毒一有金木水火土五  
 龍又有龍者即蛟龍最毒一有金木水火土五  
 龍志有龍者即蛟龍最毒一有金木水火土五  
 也博龍志不見石故耳無耳也龍珠在

五洲衍文長箋散稿  
 鯨鯨辨證說  
 鯨鯨并爲海中大魚也古人所記者闕有臆說不可備信事苑云鯨常以五月就岸生穀數萬之子至八月引子還海鼓浪成雷噴水成雨故開聲曰鯨波耳誤海舟泛琉球夜見山起接雲兩日並出山接雲者鯨魚翅也兩日兩目也木華海賦巨鱗刺也以此見之中原人記事一何浮誇也此不知鯨之爲何許物而言也日本人善捕鯨故其所記者

**일본은 어땠을까?**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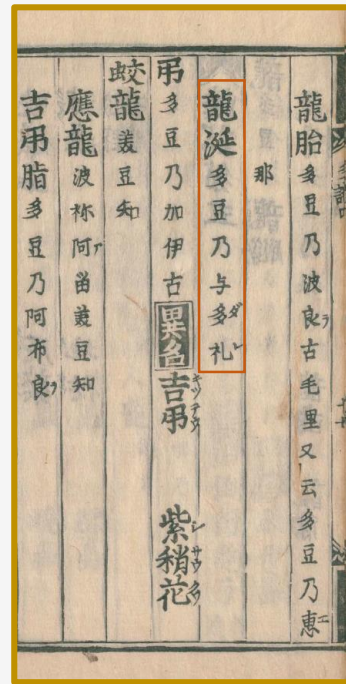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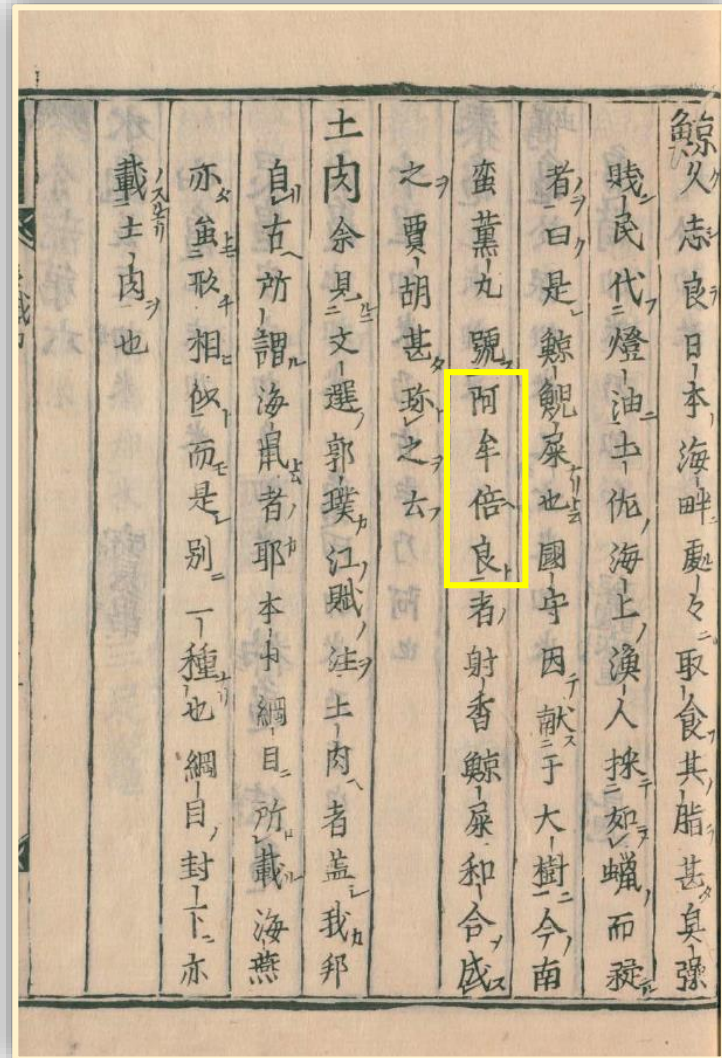
## 「多識編」에서 「遠西醫方名物考」로



# 에도시대의 '용연향' 기록과 박물학

세기	문헌자료			출전	비고
	서명	저자	연대		
17C	多識編	林羅山	1612	卷4 鱗部 龍·鯨	鯨糞
	本朝食鑑	人見必大	1697	卷9 鱗部3 江海無鱗魚類 鯨魚 眞甲鯨	鯨糞
18C	大和本草	貝原益軒	1709	卷13 魚下 海魚 龍涎	鯨糞
	和漢三才圖會	寺島良安	1713	卷51 魚類 江海中無鱗魚 鯨魚	
	結鬣居別集	稻若水	1714	卷4 龍涎香	
	西海鯨鯢記	谷村又三	1720	眞甲鯨	
	採藥使記	後藤梨春	1758	卷下 紀州之部	鯨腦
	鯨志	梶取屋次右衛門	1760	糞	
	本草記聞	小野蘭山 口述	1791	卷14 鱗1 龍 龍涎	源九龍 寫
本草綱目記聞	小野蘭山 口述	1798-1800	卷29 鱗1 龍 龍涎香	木内政章 寫	
19C	本草綱目啓蒙	小野蘭山 口述	1803-1805	卷39 鱗1 龍 龍涎	小野蘭山(1729-1810), 鯨糞
	大和本草批正	小野蘭山 口述	-	卷13 魚下 海魚 海鱈·龍涎	井岡列 寫
	大和本草會識	小野蘭山 口述	1820	卷4 海魚類 海鱈·龍涎	中村清方 寫
	鯨史稿	大槻清準	1808	卷2 釋種 眞甲鯨, 卷3 釋體 糞門	
	遠西醫方名物考	宇田川玄眞	1822	卷25 麝香·龍涎香	鯨腦
	海鱈圖說	曲亭馬琴	1832	採捕鯨鯢總說	
	桃洞遺筆	小原良貴	1833	卷2 龍涎香	
20C	島夷志略校注	藤田豊八	-	龍涎鱗	藤田豊八(1869-1929)

# 林羅山, 「多識編」(1612) 卷4 鱗部 龍・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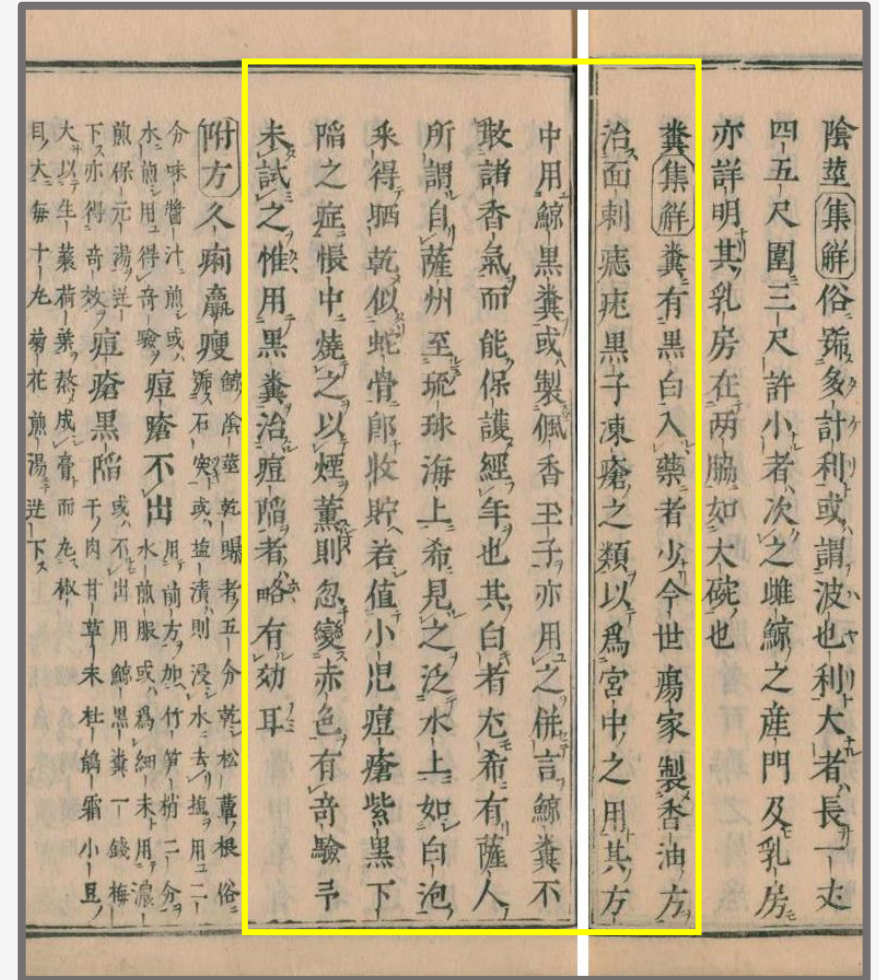
## 阿牟倍良

- 하야시 라잔(1583-1657), 경(鯨) 항목에서 일본에서 행해지는 용연향 이용 현황 서술
- 남만(南蠻)에서는 '阿牟倍良', 곧 'Ambergris'라고 함을 지적
- 다만 '용' 항목에서 '龍涎=용의 침'이라고 하여, 일본에서 생산되는 그것이 중국의 '龍涎香'이라는 사실 아직 모르는 듯함

# 人見必大, 「本朝食鑑」(1677), 鱗部3 江海無鱗魚類 鯨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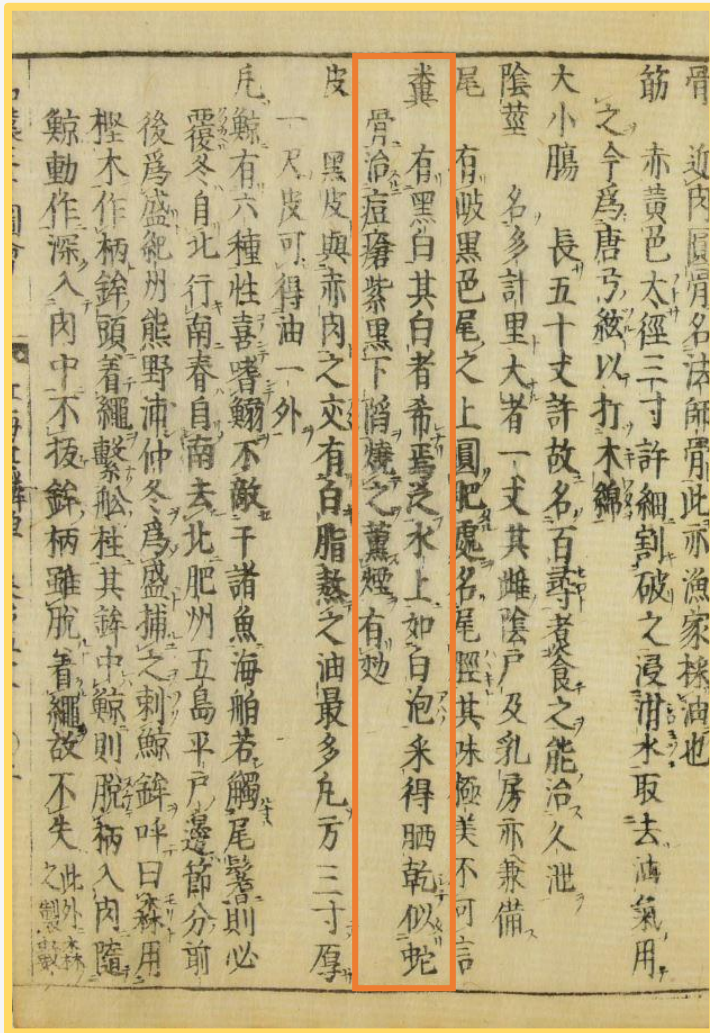
## 鯨糞

- 히토미 히츠다이(1642?-1701): 일본 최초로 6鯨 분류: 세미(背美: 북방 긴수염), 자토(座頭: 흑등), 고쿠지라(小鯨: 귀신), 나가스(長須: 참), 이와시(弱: 보리), 맛코우(眞甲=抹香: 향유)
- 총론: 釋名, 鯨總論, 分類(6鯨論), 포경기술론 및 포경사 기술
- 각부위론: 肉 脂 腸 牙 骨 尾 陰莖 糞
- 똥(糞) 항목에서 ‘용연향’을 묘사. 다만 ‘용연향’이라는 이름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것이 중국의 ‘龍涎香’임은 아직 모르는 듯함



#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1713), 卷51 江海無鱗漁 鯨魚

## 鯨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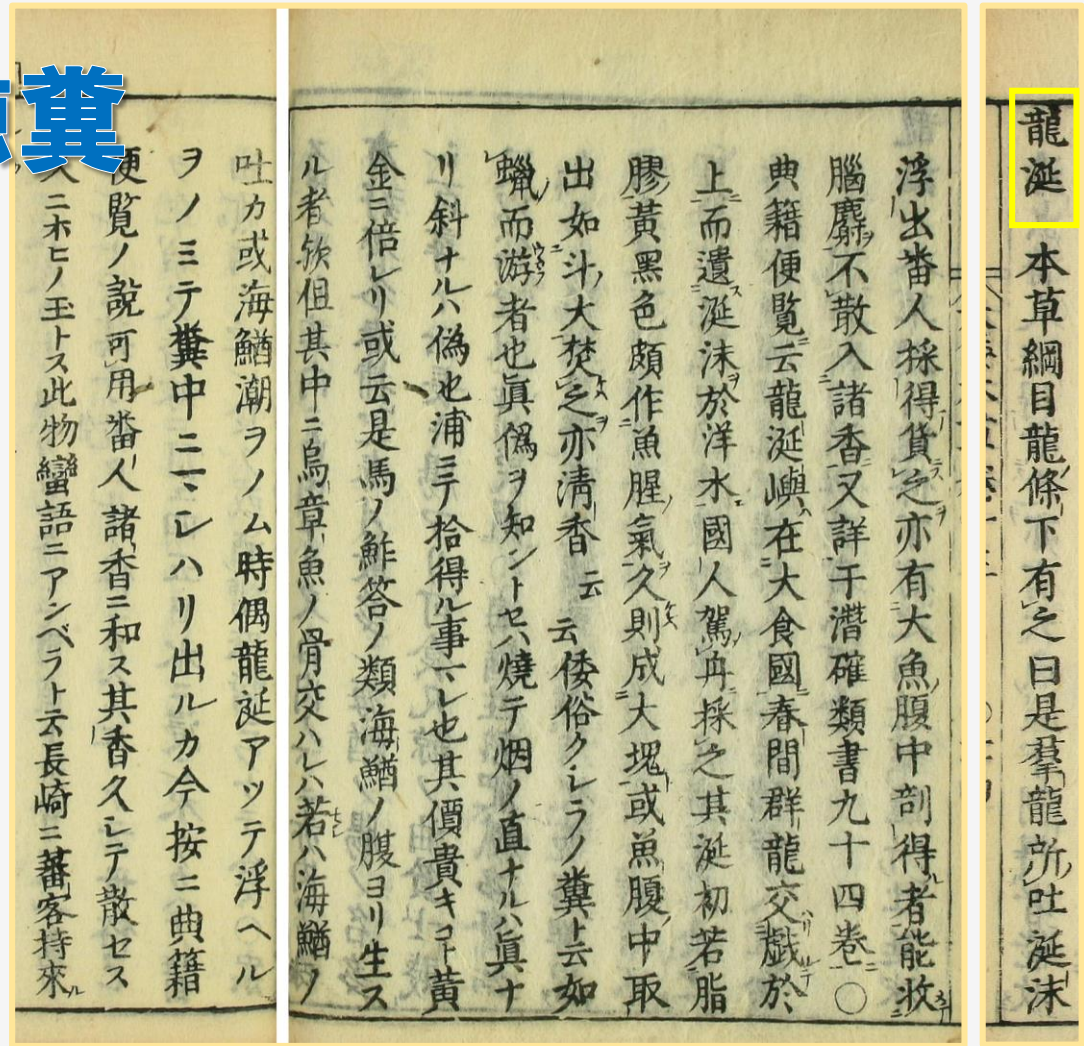
- 데라지마 료안(1654-?), 「화한삼재도회」의 고래(鯨) 항목: 「본조식감」의 ‘鯨魚’ 내용 거의 그대로 축약
- ‘똥(糞)’ 항목에서 용연향 설명. 마찬가지로 ‘龍涎香’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음
- 통신사를 통해 조선에 전해져 지대한 영향을 끼침

# 貝原益軒, 「大和本草」(1709), 卷13 魚下 海魚 海鱈 龍涎

## Amber=龍涎香

- 가이바라 에키켄(1630-1714), 「대화본초」에서 ‘고래(海鱈)’ 항목 다음에 ‘龍涎’을 독립적 항목으로 설정
- 「본초강목」에서 ‘龍’ 조에 ‘龍涎’ 설정한 것 비판
- 「潛確類書」「典籍便覽」 등 중국 서적 본격 인용
- 일본에서는 ‘용연향=고래의 똥’이라고 함
- 蠻語로 ‘암베라’ 곧 ‘Amber’라고 함 지적
- 稻生若水「結髦居別集」: 고래(海鱈) 항목 다음 ‘龍涎香’ 설정, 「유환기문」「성사승람」 등 중국 서적 광범하게 인용

### 鯨糞





# 谷村又三, 「西海鯨鯢記」(1720), 眞甲鯨

## 향유고래 眞甲鯨 糞

### 眞甲鯨

眞甲鯨南海有之北海不來  
土佐紀伊國取之油牙  
如鯨牙有如牛角長一尺二寸  
圍七八寸是ヲ老人ノ入齒作  
腹內有異有之形如鐘重千事  
百三拾斤赤白黑三色有之赤ハ  
腹中ニ有リ黒ハ海上ニ浮ク樹集

干乾也而千八四五年ヲ經命乾也  
唐人ハ菴菴ト云藥種ト云濕ヲ除キ香ノ白ヲ  
不散阿蘭陀人アソト云白玉ニ調合ス百百年  
経テモ散失ハズ又ナシ暹羅國ノ王求得之糞  
トスト云能拂濕價五六双倍眞甲鯨鳥賊  
ヲ食ス者異ニ鳥賊ノ頭骨多シ  
此鯨不見之故交々不記重 而可尋

- 현존 일본 최초의 고래 전문서
- 다니무라 유우산(1647~1722): 실증적으로 고래와 포경을 묘사. 鯨組의 경영자로 직접적 관찰한 정보
- 용연향: ‘향유고래(眞甲鯨)’의 똥에서 생산
- 향유고래, 오징어 먹어 똥에 오징어의頭骨이 많음
- 네덜란드 사람은 ‘안베루투(Amber)’라고 함

# 梶取屋次右衛門, 「鯨志」(1760) 糞

## 鯨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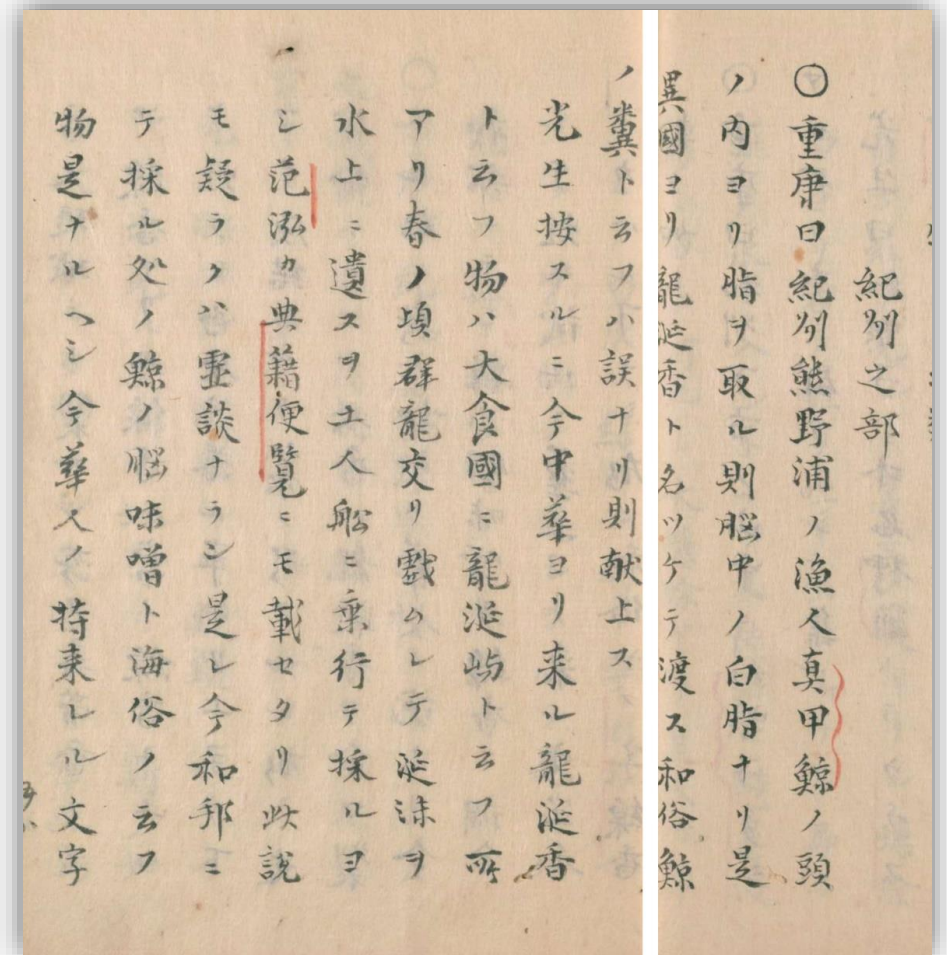
- 칸토리야 지에몬: 紀州 和歌山の 藥店主
- 「서해경예기」의 치졸한 그림에 비해 생생하고 정치
- 북방긴수염고래(世比古矢刺) 등 12종 그림
- ‘용연향=고래의 똥’

比呂又魚龍領旁小鱗皆謂之鬣方言  
 比呂鄉語打子罷  
 筋 煮食脆美可口又工人用為作唐弓弦  
 國俗謂彈化草綿之器為唐弓是也  
 陰 莖 國俗呼為鯨勢是也勢吾方言 氣味甘温  
 治婦人帶下及一切冷氣  
 糞 往往泛濫水面漁人撈採之晒乾用燒  
 烟熏痘瘡黑陷即効大抵有黑白二種効  
 用並同奸人或用其黑者偽雜麝香互辨  
 認焉  
 大小腸 長數十丈國俗呼為百尋是也者  
 食乃止久泄

# 後藤梨春, 「採藥使記」(1758), 卷下 紀州之部

## 鯨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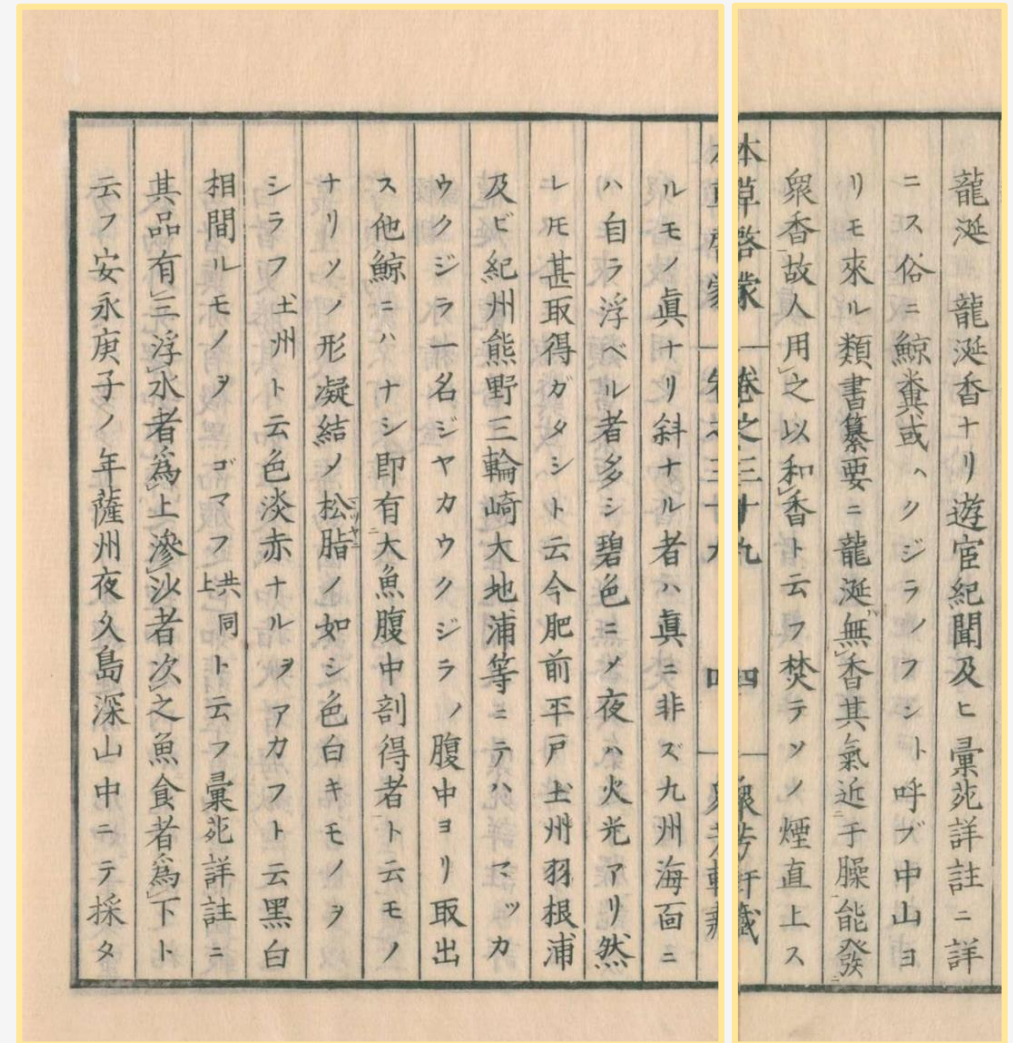
- 마츠이 시게야스(松井重康): 향유고래의 腦髓에서 용연향 만들어짐. '龍涎香=鯨糞'은 오류
- 고토 리순(後藤梨春:光生): 중국의 '龍涎'설은 虛談. 일본에서 채취하는 고래의 腦髓임 다시 강조



# 小野蘭山, 「本草綱目啓蒙」(1803-05), 卷39 鱗1 龍 龍涎

## 향유고래 眞甲鯨 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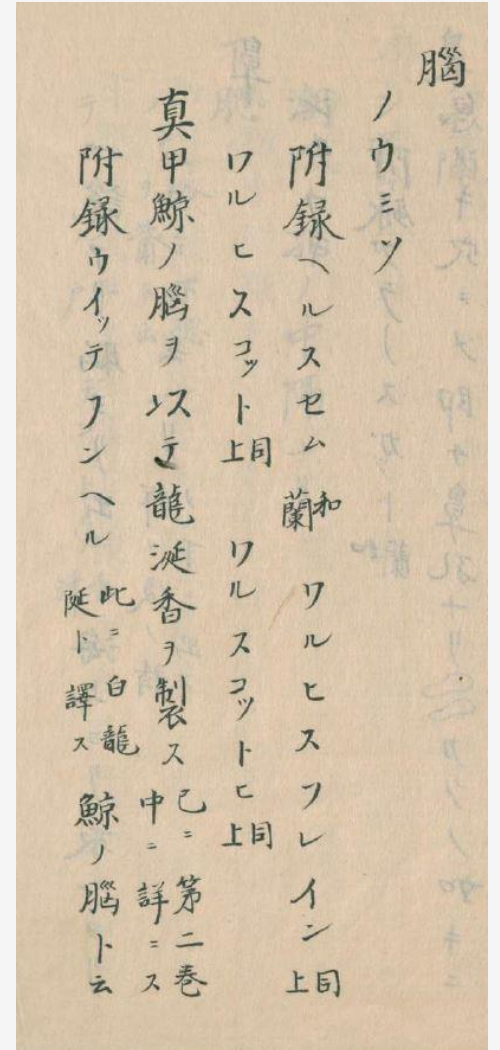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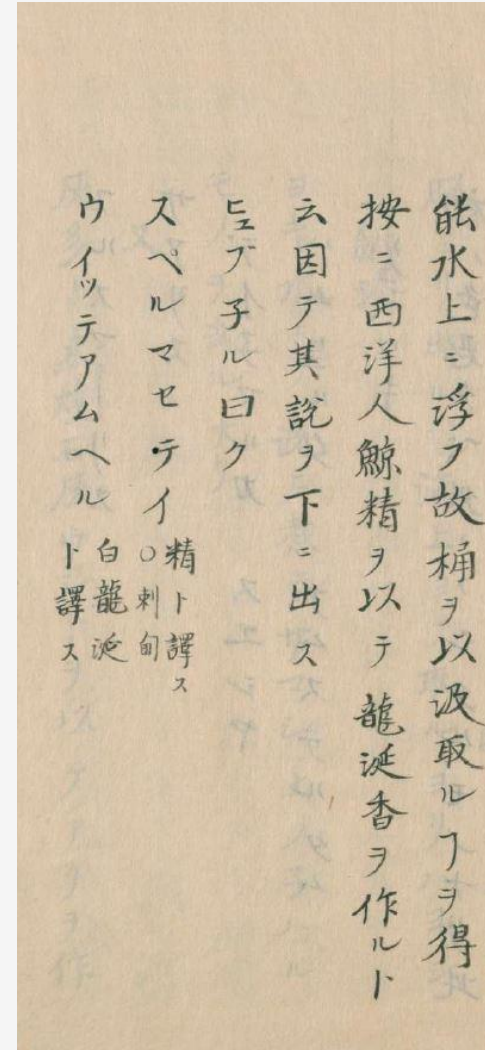
- 오노 란잔(1729-1810), 「본초강목계몽」: 일본 본초학의 완성으로 평가
- 「본초강목」의 체제에 따라 '용' 항목 안에 '龍涎' 설정
- 일본의 히젠 히라토(平戸), 도사 무네우라(羽根浦), 기슈 구마노(熊野), 타이지(太地) 등에 생산
- 오로지 '향유고래'에서만 나옴



# 大槻清準, 「鯨史稿」(1808), 卷2 釋種 眞甲鯨, 卷3 釋體 糞門

## 향유고래 腦(鯨蠟), 精, 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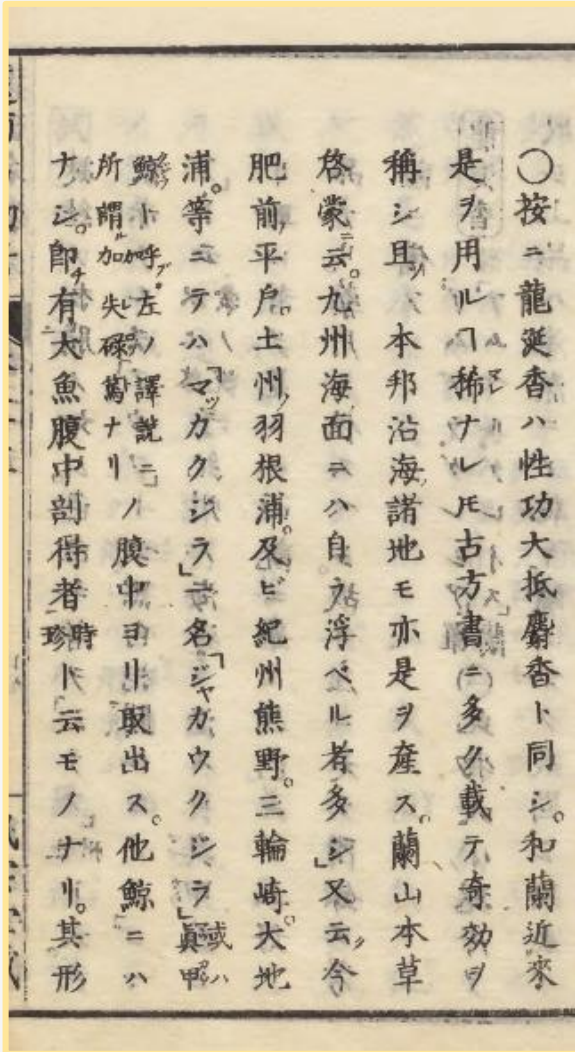
- 오오츠키 세이준(1772-1850), 「경사고」: 18세기 당시 일본 포경지식의 집대성. 종합적인 포경 연구서
- 고래의 백과전서: 획기적인 일대 명저로 평가
- 권2 釋種: 향유고래(眞甲鯨) 항목에서 「採藥使記」 「日東魚譜」 「鯨記」 인용하면서 용연향 설명
- 권3 釋體: 腦, 精, 糞門에서 용연향 설명
- 유럽의 ‘鯨臘(鯨腦)=Sperma ceri(Sperm: 정액, Ceti: 고래)’ 통해 고래의 ‘精’이 곧 ‘鯨蠟’ 밝힘



# 宇田川玄眞, 「遠西醫方名物考」(1822), 卷25 龍涎香

## Ambergris Sperma c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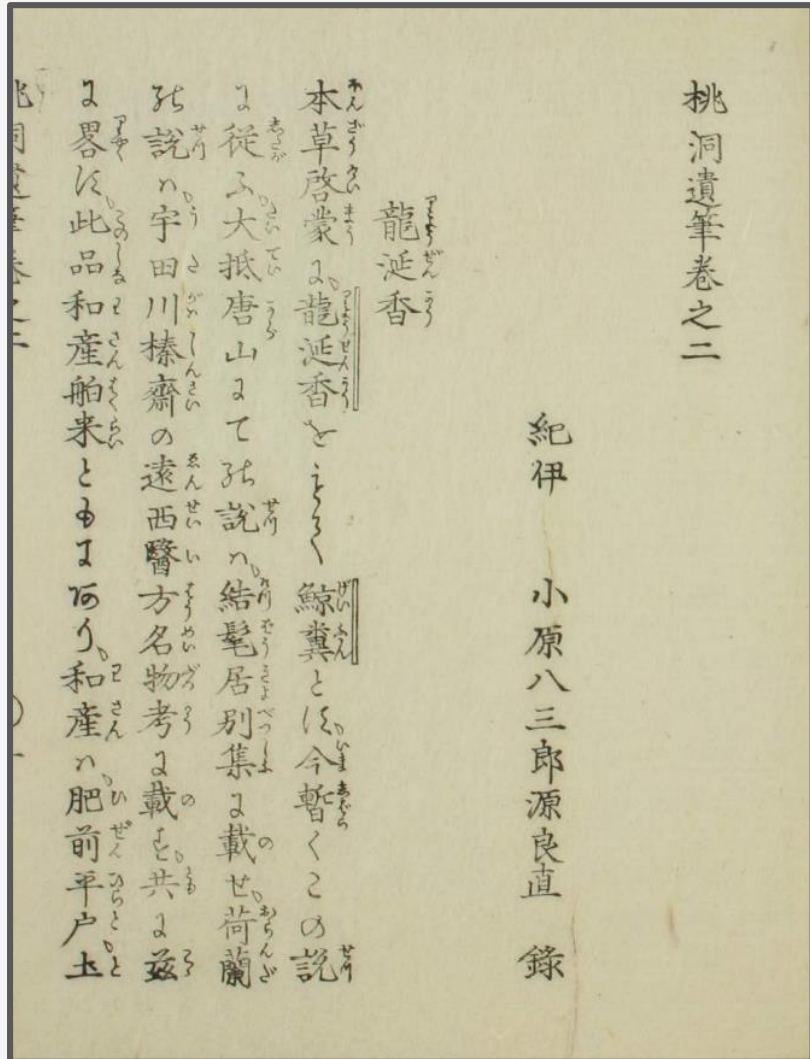
- 우다카와 겐신(1770-1835), 용연향에 대해 방대한 분량으로 종합
- 중국, 일본, 유럽의 광범위한 용연향 학설 과학적인 검증 통해 정리
- 라틴어: ‘암브라게레시아’, 네덜란드어: ‘암베루 게레이즈’ 곧 ‘Ambergris’
- 현미경으로 용연향 직접 관찰. 鯨蠟 로션 만드는 방법 상세히 설명
- 용연향의 ‘始原’에 대해 8가지 학설 소개
- 진짜와 가짜 구별 등 종합적인 분석



# 小原良貴, 「桃洞遺筆」(1833) 卷2 龍涎香

## 향유고래의 장에서 형성된 結石

- 오하라 요시타카(1746-1825), 용연향 정확하게 변증
- 민간에서 고래의 ‘똥’이라는 말해지지만, 장내에 형성된 ‘자태(鮫苔)’, 곧 일종의 결석(結石)으로 파악
- 고래 가운데서도 향유고래에서만 발견
- 덩어리에 오징어의 부리(嘴) 발견되어, ‘똥’으로 오해
- 덩어리의 처리방법, 종류 및 향유고래의 뇌(腦)로 제조한 가짜 등 상세하게 기술



일본에서 용연향 정확하게 변증한 이유?



# 일본의 변증 성공 이유?

I. 교역: 실물(상품)의 확인

II. 포경: 고래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III. 박물학: '물(物)'에 대한 '지식' 탐구와 조직화

# 맺음말: 물품학과 박물학

---

## 屈大均, 「廣東新語」 卷22 鱗魚, 龍

---

대개 용은 본래 순양(純陽)의 정수[精]이기 때문에 그 기(氣)는 매우 뛰어난 향이 난다. 또 용은 목(木)에 속하니, 나무의 기(氣)는 태양을 많이 얻으면 반드시 향이 난다. 이 때문에 여러 향 가운데서 용연을 최고로 삼는다. 사발의 물을 얻어서 그 가운데를 재빠르게 내리치면 공기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용은 물[水]로써 용(用)을 삼으니, 물을 만나면 정(精)이 들어간다. 대개 용이 정(精)을 쓰면 비가 되고, 기(氣)를 쓰면 구름이 된다.

- 굴대균, 왜 용연향이 최고인가를 용에 대한 전통 인식에서 해석
- 「본초강목습유」의 결론: 「광동신어」의 이 관점 따름
-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중국인, 용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벗어나지 못함
- ‘용’은 동아시아의 자연과학 발전을 저해한 중요한 요소

# 용연향의 박물학

I. 교역: 실물(상품)의 확인

II. 포경: 고래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III. 박물학: '물(物)'에 대한 '지식' 탐구와 조직화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tion



여 백

**【제4발표】**

**고대 동아시아 불교 물품의 교류**

**강희정(서강대학교)**





# 고대 동아시아 불교 물품의 교류

강희정(서강대학교)

## I. 서언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고 나서 단지 사상과 신앙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함께 전해졌다. 불교를 통해, 혹은 불교와 함께 전래된 물질문화 관련 연구의 문을 열었던 키쉬닉은 새로 유입된 불교 물품과 용구, 물질 등이 중국인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sup>1)</sup> 불교로 촉발되고 널리 확산된 동서 교류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쉽게 접할 수 없어서 좀처럼 널리 쓰이지 않았던 물품들이 중국과 일본, 한국에 소개되었다. 여기에는 비단 예배대상으로서의 진용(眞容), 불상과 불화, 혹은 사리, 사리장엄구 뿐만이 아니라 의식에 쓰이는 불교용품과 의식구가 포함된다. 그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법승, 구법승과 함께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문화와 일상생활 관련 물품들도 전해졌는데 인도 및 서역, 동남아의 특산품, 차와 설탕이 들어간다. 21세기 현재는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물품들이 불교와 더불어 동아시아에 소개되고, 일상생활, 혹은 종교적인 의례에 사용됨으로써 이제는 아시아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는 물질문화 연구라는 범주에서 고고학과 미술사, 인류학 영역에서 일찍이 진행된 바 있으나 한국에서는 상당히 그 연구대상이 제한적이며, 대부분 고고학과 민속학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한국의 연구 현황에 비추어 오늘 이와 같은 유라시아 역내 물품의 유통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 개최는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필자에게도 고무적이지만 관련학문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주 전공분야인 불교 관련 물품의 유입과 유통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물품, 물질문화 연구는 단순히 물품이 발견된 지역을 확인하고, 원래의 출처를 밝힘으로서 특정 지역과 시대의 교역사나 교역 네트워크를 조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품과 함께 어떤 사상과 문화가 전해졌는가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문자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며, 문헌만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문자 기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물품을 통해 추측하고, 해석함으로써 좀 더 인류의 과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른다.

이를 좁혀서 불교를 주제로 여러 물질문화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발표의 목적이다. 불교와 함께 전해진 다양한 물품과 물질들을 단순히 소비되고 소모되는 물질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전해진 불교 신앙의 양태와 의례의 연속성

1) John Kieschnick, *The Impact of Buddhism on Chinese Material Cultur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물품이 물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불교적 상징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사용하고 활용하여 불교문화를 체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본 발표자가 처음 만든 가설은 아니며, 기존 물질문화 연구자들이 제시한 담론을 발표자가 불교 사상과 문화라는 측면에 적용하여 구체적, 실질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여기에는 물질과 물질을 이용해 만든 물품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불교물품은 현지에서 처음 생산되었을 때는 불교와 관계 없는 일상 용품이었지만 동아시아에 전래되면서 특정한 불교용품이 되기도 했다.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했지만 전래되는 과정에서 먼 거리를 지나야 했으므로 이때의 불교용품과 물질은 반드시 인도 원산은 아닐 수도 있음을 먼저 밝혀둔다.

## II. 불교와 물질의 전래

일반적으로 물질문화 연구는 특정한 개별 ‘물질’에 내재된 고유의 역사성, 가치, 의미, 상징 등의 ‘비물질적’ 요소를 드러내는 것이다. 물질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물질적인 성격, 즉 물성은 인문학에서는 자연과학의 영역이라고 미뤄두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인류학, 민족지학,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비로소 물질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이들 분과학문은 물품과 물질 자체의 특이성에 주목했을 뿐 물질문화 연구는 크게 진척이 없었다가 1960년대 레비 스트로스 등에 의해 재조명되었다.<sup>2)</sup> 물질문화 연구는 2차대전이 끝나고 공장제 생산이 번창해지면서 물질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연구는 물건이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물질은 상징으로 이뤄진 큰 기호 체계에 속하는데 이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문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자로 이뤄진 텍스트와 다를 바 없이 물질도 구조화된 기호체계에 속하며 여기에는 문자와는 다른 ‘물건의 문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sup>3)</sup>

물질문화에 대한 경시는 물질보다 정신이 우월하며, 그에 따라 비물질이 지니는 가치가 더 숭고하다는 암묵적인 전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세계를 물질적 존재와 비물질적 가치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었던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물질문화 연구는 오랜 세월 인류 문명에 체화되어 전해진 선형적인 가치 판단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sup>4)</sup> 인류학자 다니엘 밀러는 기독교, 힌두교 등의 종교는 ‘비물질적 세계의 내재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sup>5)</sup> 굳이 종교가 아

2) Victor Buchli, ed., *The Material Culture Reader* (Oxford: BERG, 2002), pp. 1-22.

3) Victor Buchli, ed., pp. 23-26.

4) 우정아, 「물질의 소멸과 예술의 탄생: 마르셀 뒤샹의 <분수>와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러버보이>」, 『미술사와 시각문화』7호(2008), p. 137. 여기서는 ‘상징의 체계에서 기의로서의 비물질은 기표로서의 물질에 선행하는 선형적 객체이자 그 상위의 존재’로 간주된다고 지적한다.

5) Daniel Miller. “Materiality: An Introduction”, *Materiality*, ed. Daniel Miller(Durham: The

니어도 정신적인 것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고방식과 관념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지적 세계를 좌우해왔다. 쉽게 말해 인류의 사고방식은 물질과 비물질, 물성과 정신성이 구축한 상호대립적인 체계에서 이뤄졌고 대부분의 학문도 이를 토대로 이뤄졌다. 인간의 정신세계, 관념, 사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이념과 체계 중의 하나를 종교라고 할 때, 종교에서 가장 낮게 취급하는 것이 물질일 것이다. 특히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하거나 소유에 대한 집착을 금기시하는 금욕적인 종교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크고 화려한 건축과 모뉴먼트, 불상을 조성했고, 대부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보호받는다. 불교만이 아니라 인류 모든 종교의 특징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의 틀에서 물질을 보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과 물질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는 전제를 버려야 한다. 더욱이 불교에서 불교 관련 물질, 혹은 물품의 유통, 전래는 어떤 물질적 속성을 가진 것들의 이동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불교관련 물품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신적, 관념적인 성격을 우위에 두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같다. 하지만 종교의 성전을 건립하거나 종교적 지도자를 숭상하기 위한 추모의 공간과 물건을 마련하거나, 의례용 도구들은 물질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을 우선시한다. 종교적인 공간과 물품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나 물품이 종교적인 물품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불교에서 깨끗한 물을 담은 정병은 인도에서 원래 단순한 물병이었지만 초기 보살상의 지물로 표현되는 과정과 실물이 아시아로 전래되면서 불교의례에 없어서는 안되는 의식용구가 되었다. 어느 문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물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종교적 실천을 통한 그 용도 변화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셋째, 단순한 물질이 종교적 의미를 지닌 성물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교 의례를 통해 신성성을 획득하는 물질도 있고, 처음부터 신성성이 내재된 경우도 있다.<sup>6)</sup> 신성성을 인정하는 절차와 방식은 철저히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가능하고, 한 번 신성성을 획득하면 고유의 물성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가치를 인정 받는다. 기독교의 성배나 불교의 사리가 이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의례를 통해 신성성을 획득한 물질, 혹은 물품은 신성성을 뛰어넘어 중요한 성물이 되기도 하며, 이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욕망과 정신이 더해져 또 다른 물질성을 획득하기도 한다.<sup>7)</sup> 달리 말해서 인간의 특정한 행위로 물질에 신성이 부여되고, 그 신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물성을 뛰어넘는 물질적 가치가 요구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질에 신성성이 부과되는 과정에 종교적인 의례가 필요하지만 꼭 거창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고 성수(聖水)나 성적(聖蹟)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의 신성성은 물질 자체의 본질적·물적 특성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불교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전해진 것은 후한 명제 때인 기원 67년이고, 한반도에

Duke University Press, 2005), p. 16.

6) 주경미, 「불교미술과 물질문화: 물질성, 신성성, 의례」, 『미술사와 시각문화』제7호(2008), pp. 38-63.

7) 주경미, 위의 글, p. 43.

전해진 것은 소수림왕 때인 372년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불교 발생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는 공식적인 기록일 뿐이고 아마도 이보다 이른 시기에 불교가 알려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불교학, 고대사, 불교사에서 전념 해온 불교 연구는 불교 신앙과 사상, 문화를 재구성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헌자료는 부족하고, 발굴과 조사 역시 충분하지는 않다. 물질을 추구하고 욕망하거나 그에 집착하는 것은 금기시한 불교지만 인도라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불교가 전해질 때, 신앙 의례와 그에 필요한 물품들이 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로 인해 접하게 된 새로운 특정 물질에 대한 가치 역시 새로 부여될 수밖에 없었다. 불교와 그 물질문화에 주목하고, 본격적 연구대상으로 삼은 키쉬닉은 불교와 함께 다양한 물건과 물질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인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sup>8)</sup> 신앙 공간이자 모뉴먼트로서의 탑과 사원에 대한 아이디어만이 아니다. 이들을 세우는데 필요한 불타의 사리, 사리장엄구, 범패용 악기, 향로와 불교의식구, 신앙에 필요한 물품들이 포함된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인도 및 서역, 동남아에서 나는 각종 물품, 향, 향신료, 설탕이 동아시아로 전해졌다. 육로든 해로든 오늘날 우리가 실크로드라 부르는 통로를 통해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물품이 불교와 함께 동아시아에 소개되었다. 불교와 함께 전해진 물품들은 단순한 의례용 소모품도 있지만 신성이 부여되거나 신성을 보장하는 물질도 있다. 사리나 뼈, 佛鉢 등의 예배대상이 된 물질의 경우에 종교적인 신앙, 의례, 특정한 행위를 통해 종교적 의미를 지닌 성물로 변화되기도 한다.<sup>9)</sup> 때로는 신성이 처음부터 물질에 내재된 경우도 있고, 후대에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이다. 인도에서 가능했을 수도 있고,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혹은 중국이나 한국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신성을 획득하는 방법의 정당성은 인도와의 관련에 두었다. 인도에서 온 물건이라든가, 인도에서 인연이 닿아 현지에 도달했다든가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는 불교의 종교적인 ‘신성’의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허황옥의 배라든가. 아육왕이 보낸 금속을 싣고 온 배가 인연 있는 신라땅에 닿아 마침내 황룡사 장육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 III. 신에 도달하는 물질로서의 향, 신성의 담보 침향

법흥왕 15년(528) 중국 남조 양나라에서는 승려 원표(元表)를 보내 의복과 명단향(溟檀香)을 신라 왕실에 주었다.<sup>10)</sup> 불교가 전해지기 전까지 삼국시대 사람들이 생전 접하지도 못했고, 무엇인지도 몰랐던 낯선 물건들이 새로 소개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

8) John Kieschnick, *The Impact of Buddhism on Chinese Material Cultur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물론 이 책은 다양한 물품들을 나열하여 소개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물질문화의 관점에서 불교 용품들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9) 주경미, 앞의 글, pp. 38-63.

10) 『三國史記』卷第4 「新羅本紀」제4 법흥왕 15년.

도 명단향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몰랐다. 마침 신라에 와있던 목호자가 “이것을 사르면 향기가 나는데, 神聖에게 정성을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성한 것으로는 三寶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첫째는 佛陀이고, 둘째는 達摩이고, 셋째는 僧伽입니다. 만약 이것을 사르면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향을 샀다. 그러자 마침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중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공주의 병이 나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목호자가 신성에 도달하는 향이라는 새로운 물품을 알려주는 것이 흥미롭다. 이때의 신성은 영험이 불타와 달마와 승가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므로 불교의 신성이다. 신성에 이르게 하는 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르는 것인지를 알려준 사람도 승려이다.

사실 신라와 달리 백제에서 금동대향로가 발굴된 것으로 보면 늦어도 6세기에는 백제에서는 향을 피우는 풍습이 전해져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그 후의 소략한 기록에는 무왕(武王) 35년(634)에 왕이 부여에 왕흥사를 짓고 매년 행차하여 향을 피웠다는 내용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실려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한나라 때 향을 피웠고, 향을 피움으로써 신선도에 이르고자 했으니 중국에서의 향의 소개와 소비는 한반도에 서와는 경우가 달랐다고 볼 수 있다. 한 대까지 흙이나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도제향로, 동제향로를 만들었던 것에 비하면 한 이래로는 향로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일 수 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향과 관련한 기록을 찾아보면 528년의 기록 이후로는 약 90년이 지난 612년 일이 나온다. 김유신이 산에 가서 향을 피우며 하늘에 고했다는 기록, 624년에는 사불산(四佛山)에서 향이 끊이지 않게 공양했다는 기록 등이 있다.<sup>11)</sup>

향에 관한 기사는 60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나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해진 향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불에 태워 향을 사른다는 이야기만 나올 뿐이고, 삼국 통일 이후 계속된 당과의 무역품 목록에도 향은 나오지 않는다. 신라에서 보낸 금, 은, 개, 인삼, 우황에 대해 당나라에서 보답으로 보내준 回賜품은 다른 여느 나라와 다를 바 없이 비단과 도자기였다(권덕영, 2008). 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향은 동북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김유신이 사른 향이 어떤 향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향은 명확하지 않고, 향목 실물만 알려졌다. 탑이나 기타 유적에서 발견된 향목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형체도 나무조각처럼 부스러졌고, 인공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간 눈여겨 보지 않았다.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이른 예는 1959년 칠곡 송림사 전탑을 해체, 수리하던 중에 전탑 사리장치에서 발견된 7개의 향목과 보리수 열매 1개이다. 성분 분석 결과, 송림사에서 발견된 향목은 정향과 침향 두 종류이다.<sup>12)</sup> 실제로 이들을 향으로 태웠는 지는 알 수 없다. 정향의 경우는 일찍부터 음식이나 약 재료로 쓰였기 때문에 향으로 사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침향은 향으로 태우기에는 지나치게 고가의 물품이다. 이들 모두 7세기 후반

11) 왕흥사는 『삼국사기』卷第二十七 「百濟本紀」第五, 김유신은 『삼국사기』卷第四十一 「列傳」第一에 있으며 열전에는 김암의 향화 이야기도 있다. 사불산의 기록은 『삼국유사』卷第三 塔像第四 <四佛山掘佛山万佛山>조.

12) 보물 328-8호로 지정되었다.

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시기는 김유신이 향을 태웠다는 시기이다.

불국사 석적탑 수리 당시에도 통일신라기에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향목이 발견되어 국보 126-16으로 지정되었다.<sup>13)</sup> 석적탑, 즉 석가탑에서는 향목 외에도 유향(乳香, Olibanum), 골향(骨香) 등의 향 4포가 함께 발견되었다.<sup>14)</sup> 한지로 곱게 싸고 곁에 이름을 써넣은 이 향들은 당시에 매우 값진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리기와 함께 납입했을 것이다. 원래 중동, 아프리카가 원산인 유향은 감람나무과의 유향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수지를 말린 것으로 한약재로 쓰거나 향으로 태우기도 한다. 품질이 낮은 침향의 일종인 골향은 향의 생김새가 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골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석가탑을 수리하고 발견물들을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종을 분석한 결과, 향목 가운데 일부는 소나무과,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목재의 파편으로 알려졌고, 침향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sup>15)</sup> 석적탑의 사리기는 고려시대 1038년에 석가탑을 중수, 수리할 때 재납입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들 향과 향목은 처음 건설할 당시에 봉헌했던 것을 재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늦어도 건립시기인 8세기 중엽에는 향과 향목이 신라에 유입됐을 것이다. 석굴암 창건에 관한 『삼국유사』 기록 중에 완성 단계에 이르러 석굴암 천정이 자꾸 떨어져 깨지자 천신이 와서 이를 올려주어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sup>16)</sup> 천신의 도움을 받은 김대성이 감사한 마음에 남쪽 고개로 따라가서 향목을 살라 천신에게 바쳤다는 기사가 이어진다. 향을 살라 공양했기 때문에 그 고개를 향령(香嶺)이라 이름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석가탑에서 발견된 향목과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만 목호자 이래 향의 용도가 알려지고, 신라에서 이를 구해 신령에게 사르는 의식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향은 아무 가공도 하지 않은 단순한 물질이지만 신성에 통하는 정성으로 간주됐고, 이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알려진 것이다.

유향의 경우, 페르시아의 산물이라고 『周書』에 소개된 것으로 미루어 페르시아의 산물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소개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시기에 페르시아 물건이라는 뜻으로 ‘파사’라는 이름의 몰약, 유향, 소합향이 거래됐을 것이다.<sup>17)</sup> 육로 실크로드의 거듭된 부침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페르시아, 인도의 물건들이 동남아시아를 거쳐 동북아시아로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sup>18)</sup> 5세기부터 인도네시아는 장뇌, 후추, 소합향 등 다양한 향과 향목을 중국과 거래했다(O. W. Wolters, 1967). 중

13) 1966년 발견된 불국사 향목은 불교중앙박물관, 불국사 편,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불교중앙박물관, 2010), pp. 63-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토 상황에 대해서는 박경은, 「향류」, 『불국사 석가탑舍利器·供養品』(국립중앙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편, 2009), pp. 84-87.

14) 허준, 한의학에서 편집실편, 『국역 동의보감4 - 탕액 침구편』(한의학에서, 2014), p. 95.

15) 김수철·이광희·박상진, 「침향 수종 분석」, 『불국사 석가탑 유물 保存處理·分析』(국립중앙박물관·불교중앙박물관 편, 2009), pp. 218-225.

16) 『삼국유사』 卷第五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17) O. W. Wolters, *Early Indonesian Commerce: A Study of the Origins of Srivijaya*(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IX. Persian Trade.

18) 사서에는 양나라에 페르시아 사절단이 530, 533, 535년에 왔다고 했지만 7세기 이전까지 페르시아와 중국이 바다를 통해 직접 접촉한 흔적은 없다고도 한다. Wang Gungwu, 앞의 책, p. 53.

국과의 향, 향목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것은 베트남 중부의 占城(참파)과 캄보디아였다. 『宋史』, 『梁書』는 참파의 특산물이 침향이라고 했다.<sup>19)</sup> 『양서』 「諸夷傳」에는 참파에서 침목향이 나는데 ‘그 나무를 베어 수년간 썰어 썩혀서 속 마디만 남게 하면 이를 물에 넣어도 뜨지 않고 가라앉기 때문에 침향이라 부르고 그 중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는 (낮은 품질의) 향을 棧香이라 부른다’고 했다.<sup>20)</sup> 그러므로 침향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베트남 중부의 특산물이고, 기사로 보면 중국에 유입된 침향 대부분은 아마 베트남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1)</sup>

신라에 유입된 침향 역시 참파나 캄보디아산이었을 것이다. 『삼국유사』 탑상편 「前後所藏舍利」 중에는 부처의 어금니 사리가 들어있는 가장 안쪽의 합이 침향합이고, 그것을 다시 금합과 은합이 감싸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금, 은보다 값진 재료가 가장 안쪽의 침향임을 시사한다. 과연 불교와 불교 물품의 전래 이전에 한낱 나무조각인 침향이 금, 은보다 비싼고 귀중한 물질로 취급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질과 물품의 수요, 공급은 분명 그 물품의 가치와 관계가 있다. 침향과 향목 등의 가치를 매기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불교와 함께 한국에도 전해졌음이 명확하다. 베트남 중부에 있던 나라들에서 중국에 침향을 공급했고, 이것이 하사품의 형태로 우리나라, 일본에도 전해졌을 것이다. 6세기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향과 향목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 예는 일본 쇼소인의 향목에서 볼 수 있다. 일본 천황이 도다이지(東大寺)에 헌납한 보물을 보관한 쇼소인(正倉院) 소장 향목이 동남아산임이 판명된 바 있다. <전천향>이라고 불린 침향목을 포함하여 정창원 소장 침향은 거의 모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sup>22)</sup> 이 소장품은 쇼무 천황의 물품을 그의 사후인 756년에 헌납했으므로 그 이전에 동남아시아 향목이 일본 땅에 들어온 것이다. 텐지(天智) 천황 9년(671)에는 천황이 강고지(法興寺)에 가사와 금발(金鉢), 상아, 전단향을 하사했다는 기록도 있다.<sup>23)</sup> 7-8세기 한국과 일본에 전해진 향과 향목 모두 동남아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인도, 서아시아 간의 교역 상황을 살펴보면 사절단들이 중국에 갈 때 불상과 불화, 불교 관련 물품을 가져간 경우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들 물질들은 불교

19) 『송사』 「외국전」 역주1, p. 291.

20) 『양서』 「제이전」 pp. 141-142. 동일한 내용이 『남사(南史)』에도 실려 있다. 침향을 만드는 나무는 학명이 *Aquilaria agallocha*로 팔꽃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이 나무의 수지를 이용하여 만든 향이 침향이다. 침향에서는 용안의 향기가 난다고 하여 蜜香으로 불리기도 했다. 인도와 동남아에 자생하는 일부 나무에서만 침향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山林經濟』에는 진랍산 침향을 상품으로, 점성산을 중품, 슈리비자야산을 하품으로 쳤다. 박남수,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한국고대사연구』55(2009), p. 351에서 재인용.

21) 이 추정은 중국 정사 중에서 침향에 관한 기록이 베트남에 집중되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2) 米田該典, 「정창원 보물, 향, 향목류의 과학조사와 그 의의」, 『한국전통복식연구소 학술심포지움』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2008), pp. 57-60. 최하 9000점 이상의 유물이 있으며 그 가운데 향과 약의 원료인 침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시료분석을 통해 산지를 확인한 것이다.

23) 연민수 등 엮음, 『역주 일본서기3』(동북아역사재단, 2013), pp. 374-375. 전단향이 값비싼 물품으로 쉽게 구할 수 없는 귀중품이기에 왕실에서 사원에 내려줄만한 물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라는 종교와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전해졌을 것이다.<sup>24)</sup>

백제지역에서는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와 미륵사지 석탑 두 곳에서 향목이 발견되었다. 왕궁리 오층석탑에서는 옥개석 상면 사리공에서 청동방울과 함께 향목이 나왔고, 2009년 미륵사지 석탑 조사 때 사리장치와 향목이 발견되었다. 아마도 향목의 특성상, 주로 사원지, 석탑, 부도에 많이 납입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특별한 가치가 없는 나무 부스러기로 간주되고, 버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 형체가 없고, 금·은공예품처럼 원재료 자체가 값진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별 가치 없는 잔존유물로 한꺼번에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커서 향목과 향이 보고된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7세기 중엽 이전에 불전에서 향을 피우거나 탑에 봉헌하는 문화가 있었음을 알려주기에는 충분하다. 10세기 이후의 사례로는 안성 장명사 오층석탑 사리구(997년 추정)에서 발견된 향목, 월정사 팔각구층탑 1층 탑신에서 나온 향목이 있다.

향을 손에 들고 피울 수는 없다. 향로 역시 향이 전해지기 전에는 필요 없었던 물건이므로 향과 함께 전해진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향을 태우는 용도에 맞는 새로운 물건이 전해지고 이를 본떠서 한반도에서도 향로를 만들었다. 부여에서 발굴된 금동대향로를 제외하면 삼국시대의 향로는 전하는 것이 없고 통일신라의 향로는 3-4점 정도가 있을 뿐이지만 성덕대왕신종을 비롯한 각종 미술에 병향로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향과 향로는 통일신라에서 상당히 잘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전술했듯이 중국은 한 대부터 향로에 향을 피웠기 때문에 박산로와 같은 독립향로들이 만들어졌고, 이는 불교보다는 도교적인 신선술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라는 처음부터 향을 불교 문화 중 하나로 받아들였고, 향로는 불전에 향을 사르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른 시기의 예는 주로 긴 손잡이가 달린 병향로들이며, 드물게 익산 미륵사지에서 금동수각향로가 발견되기도 했다.<sup>25)</sup> 중국에서는 난주 병령사 169굴 벽화, 막고굴 벽화 등에 보이는 병향로를 보면 5세기에는 유사한 기물이 만들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26)</sup> 당대의 은합에 코끼리를 타고 가는 사람을 인도하는 시자가 머리에 향로를 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향로가 만들어졌고, 향은 종교적인 공간을 정화하고 중요한 의례가 행해진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불교의 전래와 함께 행향이 관례적으로 진행되면서 병향로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신라의 불화는 남아있지 않으므로 실상을 알 수 없으나 고려와 조선의 불화에도 향로는 자주 그려졌다. 실물이 전해지는 것과 불화 속의 향로까지 대략 다섯 종류의 병향로가 있었다. 까치꼬리 형태 손잡이가 달린 鶴尾形 병향로, 사자 손잡이가 달린 獅子鎚 병향로, 瓶鎚 병향로, 진자가 생략된 병향로, 연꽃이 달린 연화형 병향로이다.<sup>27)</sup> 향로의 모양이나 장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물질문화 연구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

24) Kang, Heejung, "Kunlun and Kunlun Slaves as Buddhists in the Eyes of the Tang Chinese", *KEMANUSIAAN* 22/1, pp. 27-52.

25) 최응천, 「미륵사지 출토 금동수각향로의 조형과 특성」, 『동악미술사학』9, 2008, pp. 173-195.

26) 이용진, 「통일신라시대 사자진병향로 연구」, 『신라사학보』19, 2010, pp. 33-81. 여기서는 『고승전』 일부를 인용하여 승니의 귀범으로 行香을 들었다.



지만 대개 불교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동물과 식물을 모티프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로의 장식이나 높은 기술성, 미적 가치는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기서는 향을 통한 인간과 신성의 소통을 위한 도구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徐兢의 『高麗圖經』에는 한국에서 향을 피우는 풍습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서공은 고려에서 만들고 썼던 짐승형 향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sup>28)</sup> 그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향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는 “오직 會慶殿과 乾德殿에서 공식 회합이 있을 때면 양 기둥 사이에 (향로를) 놓아둔다. 조서를 맞이할 때는 麝香을 피우고, 다른 공식 회합에서는 篤耨·龍腦·旃檀·沈水 등을 피우는데, 이것은 모두 송나라 조정에서 하사한 향들”이라고 썼다. 처음 소개되었을 때, 신성과 소통하게 해주는 신령한 물질로 알려졌고, 곧 불교의 의례공간을 정확하고 부처님께 바치는 제일 가는 공영으로 쓰였지만 고려시대가 되면 이같은 종교적인 용도만이 아니라 조정에서 공적인 모임을 위해 여러 종류의 향을 선택적으로 피웠던 것이다. 향의 기능과 용도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침향을 비롯한 전단향, 첨당향 등의 향목들은 단순히 향기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수입된 것이 아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대로 부처님에게 올리는 정성이자 신령과 感通하기 위한 중요한 물질 재료였다. 그러므로 이를 사르기 위한 도구로서 향로 역시 당시로서는 창의적이고 공교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종교적인, 신앙의 목적에서 신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수요가 시작되었다. 신령과의 소통은 한반도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향목의 물질적 성격에 추상적, 관념적 가치가 더해져 소개된 것이다.

#### IV. 맺음말

불교가 처음 낯선 땅에 전해질 때, 이국의 다양한 물질과 물품들이 함께 전해졌다. 크게 보면 사원 공간과 탑, 사리장치는 물론이고, 향합과 정병, 각종 의례용 도구들은 모두 불교와 함께 전혀 새로운 기물로 소개된 것이다. 여기에는 사용법도 알지 못했던 향과 영험이 있는 전단목도 포함된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됐으나 불교가 멀리 전해질 때는 단순한 경율론만이 아니고 물질이 개입되어 있었다. 불교 신앙과 문화의 확산에는 원래 인도에서 전해지는 물품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물질들은 불교 의식은 물론이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거나 개인의 공덕을 쌓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불교 의례와 풍습, 문화는 발생지의 관습과 문화가 필연적으로 포함되기 마련이다. 동아시아와는 자연환경과 생활방식이 전혀 다른 인도에서 전해지는 것들이기에 열대, 아열대의 동식물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전래된 물품과 물질은 모두 불교 의례의 신성함과 종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다. 한반도로의 불교의 전

27) 이용진, 「고려시대 연화형병향로」, 『불교미술사학』8, 2009, pp. 8-9.

28)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0 <생활용기>1 獸爐

래와 대중화에는 신앙을 배가시키거나 증폭시키는 물질이 일정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은 신성의 담보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있던 나라에서 중국에 바친 침향을 포함한 각종 향과 향목이 중국 정사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향과 향목, 사원지나 석탑지에서 발견된 각종 향과 향목편들은 ‘신령과의 소통’을 하는 도구이자 불전에 공양하는 용도로 쓰인 예들이다. 향의 유입과 수요의 증대는 불교 신앙의 대중화, 의례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 의식을 거행하고, 신앙을 고조하기 위해서는 인도식 물품이 필요했고, 인도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까지 이르는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향과 향목, 전단목 등은 동남아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불교 의식구와 물품은 다양한 변화를 겪었고, 현지의 취향을 반영하여 장식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방법과 양식의 문제였고, 본질적인 상징과 의미망은 철저하게 불교적인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실크로드를 통해 한반도로 전해진 불교물품과 물질은 때로는 나무 조각이나 껍질처럼 사소해 보여도 당대에는 매우 중요한 불교의 상징과 인식체계를 전달하는 매개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제5발표】**

**옛 이야기에 나타난 인도네시아 상인들의 교역활동과 문화**

**권혁래(용인대학교)**



# 설화에 나타난 인도네시아 상인들의 교역활동과 문화

권혁래(용인대학교)

- 1. 설화에 그려진 수마트라 상인과 말라카 해협
- 2. 인도네시아 상인 설화의 양상과 해석
  - (1) 말라카 반도에 정착한 수마트라 상인들의 스토리: <말린쿤당> 유형
  - (2) 해외교역을 활성화한 수마트라 섬 왕국들의 스토리 : <로칸왕국> 유형
- 3. 말라카 해협의 역동적 교역활동과 므란타우 문화
- 4. 맺음말

## 1. 설화에 그려진 수마트라 상인과 말라카 해협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설화 분석을 통해 말라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말레이반도 간에 일어난 교역활동과 상인형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5세기 이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는 오래 전부터 금과 보석, 주석 등이 많이 채굴되었다. 채굴한 금과 각종 광물 등을 바탕으로 수마트라인들은 옛날부터 무역 활동을 활발히 했는데, 그 활동의 중심에는 미낭카바우인들이 있었다. 미낭카바우족을 포함해, 수마트라 섬의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면 더 좋은 일을 찾기 위해서 말라카 해협을 건너 말레이반도의 대도시로 이주(merantau)하였다. 전 근대시기 수마트라 섬의 미낭카바우족 사람들이 이주한 도시는 주로 말라카와 싱가포르, 페낭 섬 등으로 파악된다. 15~16세기 초까지 말라카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미낭카바우족을 비롯해, 자바족, 반자르족 등의 인도네시아인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이 곳으로 이주하고, 벵골·인도·유럽·중국·태국·말레이 군도 등의 무역상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sup>1)</sup>

1511년 포르투갈 원정대가 말라카를 점령한 뒤로는 싱가포르가 상업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향료무역의 요충지가 되었다. 해외로 이주한 미낭카바우인들은 보통 3~4년 동안 머물면서 돈을 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설화에 의하면, 일부 사람들은 말라카, 싱가포르 등의 도시에 정착해 상인, 또는 상선을 소유한 무역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말레이해협에 인접한 왕국이나 개인상인들은 광물이나 농산물을 품목으로 해서 해외 상인들과 활발히 무역활동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문헌기록을 통해 전 근대시기 인도네시아 상인들의 구체적 생활과 교역활동에 관한 내용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설화이다. 발표자는 근래 출판된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366 Cerita Rakyat

1) 소병국, '말라카', 『동남아시아사』, 책과함께, 2020, 230-241쪽.

Nusantara)』<sup>2)</sup>을 강독·세미나를 하면서 일련의 인도네시아 상인 관련 설화를 발견하였다.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은 Novi Siti Kussuji Indrastuti 등이 인도네시아 34주 각지에서 채록된 설화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뽑아 월별로 12개장으로 구성하고, 각 장마다 30편 안팎으로 배치해 총 366편을 수록했다. 수록 작품들은 장르 면에서는 전설의 비중이 높고, 민담과 신화가 그 다음 순서가 된다. 이 자료집은 학생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전 군도의 다양성 체험을 위해 전 군도에서 구전되어 오는 설화를 수록하였다.

이 설화집에는 인도네시아 상인 및 왕국의 교역활동에 관해 총9편의 관련 설화가 실려 있는데, 그중 여섯 편은 수마트라 섬의 가난한 과부의 아들들이 말레이반도로 이주해 상인으로 정착한 스토리를 그린 내용의 설화이고<sup>3)</sup>, 한 편은 칼리만탄 출신 청년의 이주 및 상인활동에 관한 스토리를 보여준다. 각 편 설화에서 주인공은 말라카와 싱가포르, 페낭 섬 등의 도시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교역하면서 성장한 미낭카바우족 출신의 대상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두 편은 해적을 퇴치하고 해외교역을 일으킨 수마트라 섬 왕국의 스토리를 보여준다. 작품의 목록과 채록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수록번호	제목	내용	채록지역
4-5	말린쿤당(Malin Kundang)	선원활동과 이주로 성공한 상인이 고향에서 모친의 저주를 받음	서부 수마트라
1-28	아맛 랑 마냥(Amat Rhang Manyang)	선원활동과 이주[페낭섬]로 성공한 상인이 고향에서 모친의 저주를 받음	아체
3-3	란짱(Si Lancang)	선원활동과 이주로 성공한 상인이 고향에서 모친의 저주를 받음	리아우
3-7	발라이 바위(Batu Balai)	선원활동과 이주로 성공한 상인이 고향에서 모친의 저주를 받음	방카 블리통
12-7	칸탄(Si Kantan)	선원활동과 이주[싱가폴]로 성공한 상인이 고향에서 모친의 저주를 받음	방카 블리통
4-17	신부바위 신랑바위(Batu Bi ni Batu Laki)	선원활동과 이주로 성공한 상인이 고향에서 모친의 저주를 받음	남부 칼리만탄
6-3	바탕 투아카 전설 (Legend a Batang Tuaka)	뱀에게 얻은 보석을 도시[싱가포르]에서 팔아 상인으로 성공한 주인공이 고향에서 모친의 저주를 받음	리아우
11-3	카왈 장군과 장오이(Panglima Kawal dan Si Jangoi)	리아우의 카왈 장군이 해적과 싸워 수많은 상인들을 보호함	리아우
6-26	로칸왕국이 프카이탄으로 옮김(Kerajaan Rokan Pindah ke Pekaitan)	로칸왕국이 해외상인과 교역하기 위해 수도를 말라카해협에 인접한 프카이탄으로 이전하고 발전함	리아우

표1.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에 수록된 상인 제재 설화 목록

2) Novi Siti Kussuji Indrastuti etc., *366 Cerita Rakyat Nusantara*, Yogyakarta: Adicita Karya Nusa, 2015. 인도네시아에서는 설화를 각 주 단위나 종족에 따라 조사·출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렇게 전국적 단위에서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수록한 설화집은 이례적이며 자료적 가치가 크다.

3) 이상 여섯 작품에 대해서는 마가렛 테레시아·권혁래, 「인도네시아 <말린 쿤당> 설화의 상인 형상과 Merantau(이주) 문화」(『동아시아고대학』 59,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에 기술된 내용을 참조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밝힌다.



그림 1. <말린 쿤당> 설화 채록지역. 바탕지도 출처: [https://www.nationsonline.org/oneworld/map/indonesia\\_admin\\_map.htm](https://www.nationsonline.org/oneworld/map/indonesia_admin_map.htm)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설화가 채록된 지역은 <신부바위 신랑바위>(남부 칼리만탄주)를 제외하면, 모두 수마트라 섬 지역(아체주 1편, 서부 수마트라주 1편, 리아우주 4편, 방카 블리툽주 2편, 총 8편)이다. 인도네시아 상인 제재 설화 아홉 편 가운데 여덟 편이 수마트라 섬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수마트라에서 상업·교역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전체 아홉 편이라는 숫자가 충분치는 않지만, 88.9%라는 통계치는 일정한 대표성을 띠며, 질적 연구를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파악된다. 이상 아홉 편의 작품들을 텍스트로 하여 2장에서는 위 인도네시아 상인 설화의 양상을 살피고 해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설화의 배경공간인 말라카, 싱가포르, 페낭 섬의 지정학적 특성 및 교역활동의 내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 2. 인도네시아 상인 설화의 양상과 해석

인도네시아 상인 제재 설화는 크게, 첫째, 말라카 반도로 이주한 상인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작품, 둘째, 해외교역을 활성화한 수마트라 섬 왕국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작

품, 두 유형으로 파악된다. 각 유형 설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말라카 반도에 정착한 수마트라 상인들의 스토리: <말린쿤당> 유형

<표 1>과 같이,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에 실린 상인 관련 설화는 대부분 말라카반도로 이주해 성공한 상인 스토리로, 표제 작품 <말린 쿤당>을 비롯해, <아맛 랑 마냥>, <란짱>, <발라이 바위>, <칸탄>, <신부바위 신랑바위>, <바탕 투아카 전설> 등, 총 일곱 편이다.<sup>4)</sup> <말린 쿤당>의 주인공 ‘말린 쿤당’은 미낭카바우어로 ‘종교를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당연히 미낭카바우인일 것이다. 채록지역 중 서부 수마트라주와 리아우주<sup>5)</sup>는 미낭카바우족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며, <신부바위 신랑바위>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편은 모두 수마트라섬에서 채록되었다. 이로 볼 때 <말린 쿤당> 유형 설화들은 수마트라섬에 거주하는 미낭카바우족의 설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말린 쿤당>(4-5)의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수마트라 섬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말린 쿤당, 세 명의 어부 가족이 살았다. 이들은 작은 오두막집에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오겠다고 바다를 건넜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말린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 말린은 똑똑한 아이이지만 조금 버릇이 없어서, 닭이 있으면 빗자루를 들고 때리곤 했다. 어느 날 닭을 쫓아가다가 길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에 큰 흉터가 남았다.

청년이 된 말린 쿤당은 하루도 쉴 틈 없이 일하는 어머니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외국에 나가 돈을 많이 번 선장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다고 결심을 했다. 말린은 어머니에 가서 그 결심을 전달했다. 처음에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말린이 계속 가야 한다고만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다. 짐을 다 꾸리고 도시락을 싸 뒤 말린은 어머니와 함께 항구로 갔다. “말린아, 부자가 되더라도 어머니와 고향을 잊지 마.”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말린이 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어머니는 항구를 떠나지 않았다.

항해를 하면서 말린은 배에 관련된 일을 많이 배웠다. 어느 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적이 나타나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다 빼앗고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말린은 급히 몸을 숨겨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며칠 동안 배 안에 숨어 있던 그는 육지가 보이자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헤엄쳐 갔다. 육지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말린 쿤당을 반겨주었다.

4) 이 작품들의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 수록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말린 쿤당> 267~268쪽, <아맛 랑 마냥> 75~76쪽, <란짱> 176~178쪽, <발라이 바위> 187~188쪽, <칸탄> 928~929쪽, <신부바위 신랑 바위> 209~301쪽 등이다. 수록번호는 각 장별 번호를 표시한 것이다.

5) 201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 미낭카바우족 인구는 약 650만 명이며, 65%가 서부 수마트라주에 살며, 나머지는 수마트라섬 인근 지역인 리아우주(약 10%), 북부 수마트라주(약 5%), 리아우 군도주(약 4%) 등에 살고 있다. Aris Ananta, Evi Nurvidya Arifin, M Sairi Hasbullah, Nur Budi Handayani, Agus Pramono, *Demography of Indonesia's Ethnicit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5, pp.167-175.



말린이 도착한 도시는 살기에 아주 좋았다. 말린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벌었다. 말린 쿤당은 이제 멋진 상선도 소유하였고, 회사의 직원도 100명이 넘었다. 부자가 된 말린 쿤당은 도시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다.

말린 쿤당이 성공하고 결혼한 소식은 말린 쿤당의 고향까지 들렸다.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는 많이 감사하고 기뻐다. 어머니는 매일 항구에 가서 아들을 기다렸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말린 쿤당은 부인은 함께 크고 아름다운 배에 탔다. 그 배 안에 부하와 경호원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항구에 크고 아름다운 배가 들어왔다. 어머니는 배 위에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말린 쿤당이 배에서 내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가가, “말린 쿤당, 내 아들, 왜 그 동안 소식이 없었니?”라고 말하며 안으려 하였다. 그러자 말린 쿤당은 “당신은 누구시요?” 하며 어머니의 손길을 뿌리치며 밀어냈다. 어머니는 바닥에 넘어졌다. “버릇없는 여자로군! 당신이 누구기에 내 어머니라고 하는 거지?” 말린 쿤당은 구멍 많은 옷을 입은 늙은 어머니를 보고 창피해서 모르는 척 했다. “여보, 당신의 어머니이신가요?” 옆에 있던 말린의 아내가 묻자, 말린은 “아니, 내 재산을 탐내는 거지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어머니인 척 하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화가 났다. 그녀는 아들이 저렇게 불효자가 될 줄 몰랐다. 어머니가 손을 열고 하느님께 기도했다. “오, 하느님, 저 녀석이 진짜 제 아들이라면 바위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 말린 쿤당이 탄 배를 파괴했다. 말린 쿤당의 몸은 조금씩 조금씩 바위로 굳어 갔다. 지금까지 서쪽 수마트라에서는 말린 쿤당 바위를 볼 수 있다.<sup>6)</sup>

위 작품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사는 가난한 어부 가족의 생활을 그렸다. 이 이야기의 서두에는 아버지가 돈을 벌러 바다로 나가지만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기 에, 과부가 일을 하며 생계를 잇는 장면이 그려진다. 어린 아들 말린 쿤당은 청년으로 성장하자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배를 타고 선원생활을 하다가 해적을 만난 뒤, 외국의 도시에 정착해 열심히 일해 상인으로 성공한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뒤, 아들은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누추한 옷을 입고 찾아온 어머니를 모른 채한다. 분노한 어머니가 신에게 아들을 벌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아들이 탄 배는 침몰하고, 아들은 바위가 되는 것으로 결말지어진다. 이상의 이야기를 서사단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 - 부친이 일찍 죽어 과부와 아들이 가난하게 삶
- 2) 아들의 이주 - 돈을 벌기 위해 아들이 해외로 이주함(merantau)
- 3) 아들의 성공 - 아들이 상인으로 성공, 상선을 소유한 부자 상인이 됨
- 4) 아들 부부의 귀향 - 아들 부부가 멋진 상선을 타고 고향을 방문해 모친을 모른 채함
- 5) 아들이 바위로 변함 - 어머니의 저주로 배가 파선하고 아들은 바위[또는 새]가 됨

이중 <바탕 투아카 전설(Legenda Batang Tuaka)>은 후반부에 ‘아들이 고향에 돌아왔다가 어머니를 모욕하고 바위가 되는 장면’은 다른 <말린 쿤당> 유형과 유사하

6) 이 작품 및 논문에 실린 설화들의 번역은 필자와 마가렛 테레시아(경희대 국문과 박사수료) 선생의 공동작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직역을 바탕으로 윗문작업을 하였다.

다. 하지만, 전반부에 가난으로 인한 이주와 노동 장면은 없고, 우연한 행운으로 인한 도시이주 장면만 있다는 점에서 다른 <말린 쿤당> 유형과 구별된다. 이상 다섯 개의 서사단락에 따라 발표자가 분석한 이주 상인 <말린 쿤당> 유형 각 텍스트의 내용 및 변이양상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	아들의 이주	아들의 성공	아들의 귀향	아들이 바위로 변함
말린 쿤당	해외에서 미귀환	선원 (공통)	해적의 습격. 상인으로 성공. 상선 소유. 결혼 (기본)	아내와 멋진 상선 타고 귀향. 어머니 부정 (공통)	파선. 아들이 바위 됨. 바위전설 (기본)
아맛 랑 마냥	아들이 다섯 살 때 사망	선원	페낭섬에서 옷감상인으로 성공. 결혼(구체화·개별화)	아내와 멋진 상선 타고 귀향. 어머니 부정	파선. 아들·상선이 바위 됨. 바위전설
란짱	오래전 사망	선원	무역으로 성공. 상선 소유. 결혼	아내와 멋진 상선 타고 귀향. 어머니 부정	아들·상선 침몰. 지명전설
발라이 바위	부친 없음	선원	무역으로 성공. 상선 소유. 결혼	아내와 멋진 상선 타고 귀향. 어머니 부정	아들·상선이 바위로. 아내는 흰 원숭이로 변함. 바위전설
칸탄	부친 오래전 사망	선원	무역으로 성공. 상선 소유. 결혼	아내와 멋진 상선 타고 귀향. 어머니 부정	파선. 아들·상선이 바위 됨. 바위전설
신부바위 신랑바위	부친 없음 아들이 과 교역	선원	상선교역으로 인정받아 상인의 딸과 결혼. 재산 물려받아 사업 성공 (개별화)	아내와 멋진 상선 타고 귀향. 어머니 부정	아들·아내는 바위로. 어머니는 독수리로 변함. 바위전설+독수리전설 (변이)
바탕 투아가 전설	부친 없음	보석 팔기 해둥이	트마식(싱가포르)에서 보석 팔아 부자상인 되고 정착 (개별화)	아내와 멋진 상선 타고 귀향. 어머니 부정	아들이 독수리로 변함. 투아가 강+독수리 전설 (변이)

표 2. <말린 쿤당> 유형 설화의 서사단락과 변이양상

이상의 이주 상인 <말린 쿤당> 유형 설화 일곱 편은 <표2>처럼 구성과 대략적인 내용이 유사한 것 같지만, 주인공의 이름과 출생지, 주인공이 처한 환경과 해외상황, 결말을 포함해 세부적인 내용이 크고 작게 달라진다. 이는 일정한 환경 속에서 미낭 카바우족의 해외이주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성공했지만 귀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원망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말린 쿤당> 유형은 수마트라 섬 일대에서 여섯 편, 칼리만탄 섬에서 한 편이 채록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수마트라 섬과 칼리만탄 섬은 가장 가까운 지역의 거리도 1,000km가 넘는 먼 지역인데, 독립된 두 지역에서 유사한 내용의 전설이 채록된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채록지역의 특성은 12·3세기경 이래 이 지역에서 이뤄진 무역 및 도시상업 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한다. 수마트라 섬의 미낭카바우족, 바탁족 및 말레이족 등에게는 므란타우 문화가 있는데, 이것이 설화에 서술된 므란타우 및 선원·상인활동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마트라인들이 대규모로 므란타우를 하고 선원·상인활동을 하려면 대규모의 해상무역활동 및 발달한 상업도시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시대적으로는 말라카 왕국이 건설되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며 향료무역으로 각축을 벌이던 15~19

세기경이 주목된다. 수마트라 섬에서 말라카 해협이나 인근 바다를 건너 일하러 갈 만한 큰 상업도시는 현 말레이 반도의 해항도시 말라카(Malacca, Melaka)와 싱가포르, 페낭(Penang) 섬 정도가 있을 것이다. 남부 칼리만탄은 11세기부터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 말라카 왕국이나 수마트라 지역에 있는 왕국과 교역을 하였고, 1511년 포르투갈에 의해 말라카 왕국이 무너지면서 일부 말레이족 사람들이 남부 칼리만탄으로 이주했다.<sup>7)</sup> 말레이족의 이주 당시, 본거지의 문화와 <말린 쿤당> 유형의 구비전승도 남부 칼리만탄 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위 설화 중 일부 작품에는 당시 상인들이 교역했던 일부 물품의 내역과 함께, 설화의 주인공 청년들이 이주했던 도시 이름 및 성공 스토리가 기술되어 있다. 남부 칼리만탄주에서 채록된 <신부바위 신랑바위> 앞부분에는 트라투스 산맥 서쪽의 어느 마을을 방문한 상선의 선장이 마을사람들과 사고판 품목이 기술되어 있어 흥미롭다.

상선의 상인들은 설탕, 쌀, 천, 부엌가구 등을 팔고, 마을에서 담마르(dammar), 초, 라탄, 그리고 공예품들을 사고 싶어했다. 앙우이는 며칠 전 구한 라탄을 가지고 가 상인에게 팔고 설탕과 쌀을 사기 위해 줄을 썼다. 그때 선장이 앙우이를 보고 불렀다. “어이, 젊은이. 이리로 와 보게.” “네, 선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자네가 파는 라탄(rattan)<sup>8)</sup>은 품질이 좋고 잘 말랐어. 매듭도 잘 되어 있고. 부지런한 청년이구만. 나랑 같이 일하지 않겠나?”(<신부 바위 신랑 바위>)

위 설화에서 상선의 선장은 트라투스 산맥 서쪽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탕, 쌀, 천, 부엌가구 등을 팔았고, 마을 사람들은 담마르(dammar), 양초, 라탄, 그리고 등 공예품을 내다팔았다고 했다. 청년이 된 주인공들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라투스, 곧 바다를 건너가 돈을 벌어오는 생활양식을 결심한다. <말린 쿤당> 유형 설화 여섯 편에는 이러한 인식이 공통적이며, 전형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바다를 건너간 아들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에 몰두하여 외지에서 선원으로, 무역상인으로 성공한다. <말린 쿤당>과 <아맛 랑 마냥>의 해당 장면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말린이 도착한 도시는 살기에 아주 좋았다. 말린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벌었다. 말린 쿤당은 이제 멋진 상선도 소유하였고, 회사의 직원도 100명이 넘었다. 부자가 된 말린 쿤당은 도시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다. (<말린 쿤당>)

②아맛은 드디어 화려한 상선에서 선원으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상선은 여러 항구를 출입했는데, 페낭섬에 정박했을 때 아맛은 페낭에 정착하고 싶어 선장에게 요청하였다. 선장이 허락해주어 아맛은 페낭에서 살게 되었다. 이때부터 아맛의 삶은 변했다. 그는 다양한 천과 옷감을 판매하는 상인이 되어 열심히 일했고, 어느덧 부자가 되었다. 아맛은 늘 순수하고 다른 사람들

7) “No one is an island: The history of human genetic ancestry in Madagascar.” <https://phys.org/news/2016-7-island-history-human-genetic-ancestry.html>. 2020년 06월 09일 검색.

8) 라탄은 종려과에 속하는 칼라마스라는 동양 식물의 나무줄기에서 채취한 가볍고 매우 거친 섬유로, 의자, 바구니, 두꺼운 밧줄 따위에 사용되었다. 여기서의 라탄은 라탄 줄기와 껍질로 만든 수공예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와주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 페낭의 귀족 중 한 명도 그를 좋아해 자신의 딸과 아맛을 결혼시켰다. (중략) 20년 동안 페낭섬에 이주해 살고 있던 아맛은 고향이 늘 그리웠고, 누구보다 늙은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아맛 랑 마냥>)

①<말린 쿤당>에서 아들 말린은 선원으로 몇 년 동안 일을 배우고 선장에게 인정을 받는다. 선원의 삶은 험난해서 갑작스레 해적의 공격을 받아 배와 모든 물품, 선원들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 말린은 배 한 편에 숨어 있다가 홀로 목숨을 구한다. 나중에 육지를 발견하고 헤엄쳐 가서 어느 도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곳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는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상선과 회사를 소유한 대 상인으로 성공하고 아름다운 부인과 결혼한다. <말린 쿤당>은 미낭카바우 출신의 주인공이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어느 대도시에서 유력한 상인으로 성장한 스토리를 보여준다.

②<아맛 랑 마냥>에서는 상선의 선원으로 일하던 아맛이 ‘페낭 섬’에 정착해 옷감 상인으로 성공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점이 흥미롭다. 페낭은 1786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식민지가 되었고, 1867년 이후까지 인도-중국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의 기항지로 번성하면서 중국인·인도인·수마트라인·미얀마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곳이다. 피낭 또는 페낭 섬(Pinang, Penang Island)은 현 말레이시아 피낭주의 일부로, 말레이반도의 북서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말라카 해협 건너편에 수마트라 섬 최북단인 아체주와 북부 수마트라주와 마주하고 있다. 페낭의 역사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프란시스 라이트 선장이 케다의 술탄과 계약을 맺은 1786년에 시작된다. 그는 술탄으로부터 동인도 회사를 대신하여 페낭을 인수해 영국 식민지를 건설했다. 1800년까지 라이트 선장은 섬 전체로 영토를 확장하고, 이후 “Prince of Wales”로 섬 이름을 변경했다. 1832년 페낭은 말라카와 싱가포르 해협의 일부가 되었다. 페낭은 말레이 인, 태국 남부의 유라시아 인, 중국인, 버마인, 남부 인도인 등이 유입되어 정착하면서 인구는 19세기 말에 10,000 명으로 증가했다. 페낭은 차, 향신료(현지 농장의 정향과 육두구), 중국, 수마트라섬 아체의 검은 후추 및 인도의 직물의 교역소가 되면서 말레이시아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이 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페낭은 유통 중심지이며, 본토에서 생산되는 주석과 고무의 교역장소가 되었다. 1957년 말라야 연맹에서 독립할 때까지 영국 식민 통치 아래 있었다.<sup>9)</sup>

<아맛 랑 마냥>에 그려진 페낭 섬에서의 옷감 상인 성공담은 이러한 페낭 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응하기에 흥미롭다. 주인공 아맛은 중국의 비단과 인도 등지에서 온 옷감을 교역한 상인이 아니었을까 추정한다. 아맛은 페낭섬에 정착해 옷감상인을 하면서 2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을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귀향한 것이 ‘20년’ 만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 텍스트가 처음이고 유일하다. 왜 20년 만일까? 그것은 그가 고향을 떠날 때 마음먹은 것처럼 부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긴 노동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이에 그에겐 고향과 어머니를 돌아볼 여유란 없었을 것

9) “페낭섬의 역사”. <http://sps.penang.gov.my/index.php/en/penang-s-history>. 2020년 8월 20일 검색.

이다. 그는 너무 일에 몰두한 나머지 2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고, 연락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배에 타는 순간부터 고향과 어머니는 까맣게 잊고, 오로지 현지 정착과 사업의 성공만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전체적으로 <말린 쿤당> 유형 설화에는 각각의 주인공이 몇 년 동안 무역에 몰두해 상인으로 성공해 큰돈을 벌고 상선을 소유하며, 현지의 유력 여성과 결혼하는 과정이 매우 짧고 개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말린 쿤당> 유형 설화에 등장하는 이주자들은 처음에 상선의 선원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선원 활동을 통해 인정받아 성공하거나, 상인으로 전환해 교역활동을 열심히 해 재산을 모아 상선을 소유하고 수십 명에서 백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부자가 되며,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하여 상류층이 된다. 결국 <말린 쿤당> 유형 설화에 그려진 성공한 ‘아들’의 정체성은 ‘수마트라 출신의 성공한 무역상인’이다. 화려한 상선들과 대형 상인조직의 소유, 현지 상류층 여성과의 결혼은 성공한 수마트라 출신 상인들의 상징이다.

## (2) 해외교역을 활성화한 수마트라 섬 왕국들의 스토리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에는 해외교역을 활성화하여 왕국의 재정수입을 늘리려 했던 왕국 이야기가 두 편 전한다. <카왈 장군과 장오이>, <로칸 왕국이 프카이탄으로 옮김>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그것이다. <카왈 장군과 장오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리아우(Riau) 왕국의 왕과 지배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인들을 보호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 해적을 물리쳤다. 덕분에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상선을 이끌고 항구에 방문하였다. 당시 최고의 장군 중 하나인 카왈 장군(Panglima Kawal)은 리아우를 침범하는 해적들에 항상 맞서 싸우며 상인들을 보호하였다. 어느 날 장오이(Jangoi)라는 해적이 리아우를 침범하자 카왈 장군이 훌륭한 전술로 싸워 승리하고 장오이를 체포하였다. 장오이는 리아우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후 풀려났다. 뒤에 카왈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장오이가 맹세를 깨고 리아우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하지만 풍랑이 일어 처음 맹세했던 곳에서 익사하니, 사람들이 그 섬을 장오이 섬이라고 불렀다.

위 설화는 말라카 해협에 해안선을 맞댄 리아우 왕국이 해외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적을 물리치고 외국 상선들을 보호한 역사적 사건을 보여준다. 화자는 당시 리아우에 수많은 상인들이 방문하여 상품을 사고팔고 있었으며, 카왈 장군이 상인들을 위협하는 해적 장오이와 싸워 승리한 공적을 기술하였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풀려난 장오이가 카왈 장군이 죽은 소식을 듣고 리아우로 돌아오려 했다가 풍랑이 일어 익사하였으며, 사람들이 이 섬을 장오이섬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 설화가 언제, 어떤 왕국의 사건을 말한 것인지, 장오이 섬이 어디에 있는 섬인지 현재에는 알 수 없지만, 이 설화를 통해 리아우 왕국이 해외무역을 통해 부를 쌓았음을 알 수 있다.

<로칸 왕국이 프카이탄으로 옮김> 설화는 수마트라 섬 리아우주 내륙지방에 위치했던 로칸왕국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15세기에 수도를 코탈라마에서 말라카 해협의 바다와 로칸 강이 만나는 프카이탄 지역으로 옮긴 사실, 수도 이전으로 인해 무역이 활발해지고, 리아우 주 내륙지방의 물산과 해외상인들의 상품이 교역이 활발해져 경제가 성장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작품의 시작 부분과 무역활동에 대한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15세기에 로칸(Rokan) 왕국<sup>10)</sup>은 코탈라마(Kotalama. 그림 2)<sup>11)</sup>를 수도로 삼아 양 디프르투안 브사르 숭아이 아궁(Yang Dipertuan Besar Tuan Agung) 왕<sup>12)</sup>이 여러 훌륭한 장관들과 함께 왕국을 통치했다.

당시 수도 코탈라마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왕과 장관들은 왕국의 수도를 프카이탄(Pekaitan. 그림 3)<sup>13)</sup>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프카이탄은 지리적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말라카 바로 맞은 편 해안에 위치해 있었고, 로칸(Rokan)강<sup>14)</sup> 하구 가장자리에 있는 바간시아피아피Bagansiapiapi<sup>15)</sup>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다. 로칸 강과 말라카 해협이 만나는 지역에 자리잡은 프카이탄은 강과 바다로 상선이 다니기에 매우 편리했으므로 무역이 발달하여 경제가 발전하였다.

왕국은 계속 번영하였고,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살고, 농산물도 풍부하였다. 왕은 왕국을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훌륭한 사람들을 왕국의 지도자로 등용하였다. (중략) 이러한 사람들 덕분에 국방이 튼튼하고 무역이 잘 이뤄졌기 때문에 로칸 왕국은 점점 안전하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했다. 집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거리는 깨끗하고 넓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상선이 항구를 왕래하면서 주변에서 생산된 풍부한 곡식과 해산물을 사고팔았다. (후략)

10) 로칸 왕국은 수마트라섬 리아우주에 위치하며, 1340년부터 1945년까지 존속하였다.

출처: [https://id.wikipedia.org/wiki/Kerajaan\\_Rokan\\_IV\\_Koto](https://id.wikipedia.org/wiki/Kerajaan_Rokan_IV_Koto)

11) <https://www.google.com/maps/place/Kota+Lama,+Kunto+Darussalam,+Rokan+Hulu+Regency,+Riau,+Indonesia/@0.8980228,100.5971592,12z/data=!3m1!4b1!4m5!3m4!1s0x31d4b582e13168e1:0xb0141cb630af043a!8m2!3d0.8712072!4d100.6872457>

12) 파라마운트 통치자, 최고 수장 또는 왕으로도 알려진 Yang di-Pertuan Agong은 입헌 군주이자 말레이시아 국가의 수장이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Yang\\_di-Pertuan\\_Agong](https://en.wikipedia.org/wiki/Yang_di-Pertuan_Agong) constitutional monarch and head of state of Malaysia. [https://en.wikipedia.org/wiki/Yang\\_di-Pertuan\\_Agong](https://en.wikipedia.org/wiki/Yang_di-Pertuan_Agong).

13) <https://www.google.com/maps/place/Pekaitan,+Rokan+Hilir+Regency,+Riau,+Indonesia/@1.9994095,100.6462814,11z/data=!3m1!4b1!4m5!3m4!1s0x31d2cf704e38d97d:0x768634cfddec828d!8m2!3d2.0108393!4d100.7774424>

14) <https://www.google.com/maps/place/Rokan+River/@1.7625883,100.649926,10z/data=!3m1!4b1!4m5!3m4!1s0x31d2b60e0c9f4b43:0xfb5afd3de2b4277f!8m2!3d1.7626094!4d100.9301256>

15) <https://www.google.com/maps/place/Bagansiapiapi,+Bagan+Timur,+Bangko,+Rokan+Hilir+Regency,+Riau,+Indonesia/@2.1577129,100.8074452,15z/data=!3m1!4b1!4m5!3m4!1s0x31d2b9cc06eacd1d:0x9152d94fca71fdb4!8m2!3d2.157713!4d100.8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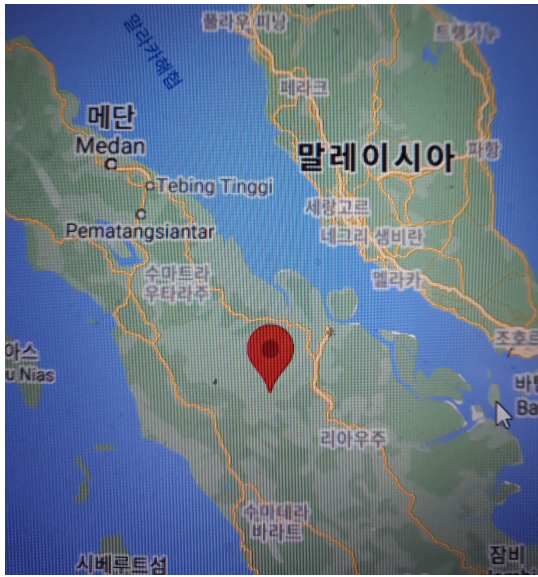


그림 2. 로칸왕국의 초기 수도 '코탈라마'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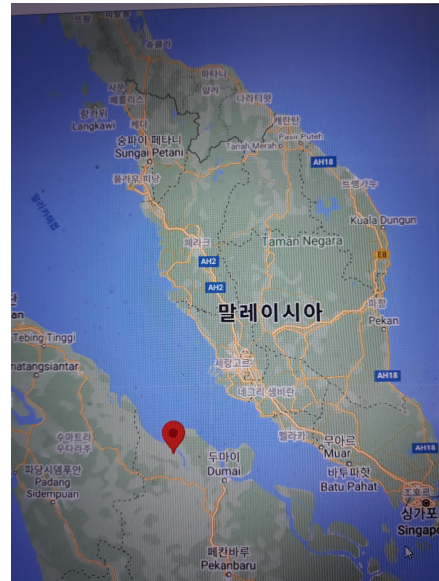


그림 3. 로칸왕국이 이전한 수도 '프카이탄'의 위치

위 설화는 시대와 지역이 파악된다. <로칸왕국>은 15세기에 수마트라 섬 리아우주에 위치한 나라이며, 초기에는 내륙지방에 수도가 있었다. <그림2>, <그림3>의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왕국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지자 왕은 15세기에 해외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를 리아우주 내륙지방에서 말레이해협과 로칸 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항구에 많은 상선이 왕래하면서 농산물과 해산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졌다고 하였다.

### 3. 말라카 해협의 역동적 교역활동과 므란타우 문화

<말린 쿤당> 유형 설화에 등장하는 도시는 수마트라섬 일대와 말라카와 싱가포르, 페낭 섬이다. 말라카(馬六甲, Malacca, Melaka)는 국가를 초월한 지역적인 교섭의 확대 속에서 문화의 다양한 측면이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곳이다.<sup>16)</sup> 오스트렐리아 국립대 교수이자 인도네시아 역사학자 M. C. Ricklefs(1943-2019)의 저서 『근대 인도네시아의 역사: 1200년 이후』에 의하면, 말라카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sup>17)</sup>

16) 류교열, 「말라카, 아시아가 융합되고 동서양이 만난 해항도시」,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지음, 『세계의 해항도시 I』, 선인, 2014, 211쪽.

17) M.C. Ricklefs,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since c.1200* (third edition), Basingstoke : Palgrave, 2001, 23-24. 초판: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since c.1300*, Basingstoke : Macmillan, 1993.

팔렘방(Palembang, 1344-1414) 술탄왕국의 왕자 파라메스와라(Parameswara)는 1377년 마자파힛 왕국의 공격을 받고 도망쳤고, 1389년부터 1398년까지 싱가포르의 국왕을 지냈으며, 1400년경부터 1414년까지 말라카왕국(1400-1511)의 술탄을 지냈다. 말라카왕국이 형성되기 전 말라카는 20-30명의 해협인(orang laut)이 거주하는 습지대에 지나지 않았다. 파라메스와라는 해협인들과 동맹을 맺은 뒤, 말라카를 통과하는 선박을 강제하고 창고 및 무역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여 말라카가 주요 국제 항구가 되는 기초를 다졌다.

15세기 중반에 말라카는 식량, 주석, 금, 후추를 생산하는 해협 양쪽 지역을 정복하여 부와 전략적 위상을 증가시켰다. 1470년대와 1480년대에 제국은 남부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의 중앙 동부 해안에 걸쳐 주요 인구 밀집 중심지를 통제했다. 말라카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 형성된 광대한 무역 네트워크이다. 포르투갈의 작가 토메 피레스(Tomé Pires, 1465?-1524 or 1540)<sup>18)</sup>의 설명에 의하면, 말라카의 주요한 교역상품은 다음과 같다.

- 수마트라 - 말라카 동부 해안: 금, 장뇌(樟腦, Camphor)<sup>19)</sup>, 후추, 실크, 안식향(benzoin) 및 기타 목재 고삐, 꿀, 왁스, pitch(콜타르), 유황(sulphur), 철, 목화, 등나무(rattan), 쌀 및 기타 식품, 노예; 인도 직물을 사기 위해 기본적으로 교환됨, 일부 지역에서 온 상인들은 말라카에서 무역 정크(trading junks) 구입.
- 말라카 - 순다(Sunda), 서부 자바: 후추, 타마린드, 노예, 금, 쌀 및 기타 식료품; 인도의 직물, 아레카, 로즈 워터 등과 교환됨
- 말라카 - 중부 및 동부 자바: 쌀 및 기타 식료품, 후추, 타마린드, 준 보석, 금, 노예 및 직물은 동부 자바와의 무역품으로 사용됨; 양질의 인도 직물과 중국의 상품으로 교환됨.
- 서부 자바 - 수마트라의 서부 해안: 수마트라의 동부 해안에서 생산된 것과 같은 상품들과 말이 서부 자바로 가는 배에 선적됨; 직물을 가져온 인도 구자라트(Gujarat) 화주와 직거래 됨.
- 중부 및 동부 자바 - 남부 수마트라: 면화, 꿀, 왁스, 피치, 라탄, 후추, 금 등; 자바로 배송됨.
- 자바 - 발리, 롬복(Lombok), 숨바와(Sumbawa): 식료품, 거친 직물, 노예, 말; 자바의 직물들과 교환됨.
- 발리, 롬복, 숨바와 - 티모르, 숨바(Sumba): sandalwood from latter areas; 인도의 거친 직물, 자바의 직물로 교환됨.

18) Tomé Pires (1465?-1524 or 1540) was a Portuguese apothecary from Lisbon who spent 1512 to 1515 in Malacca immediately after the Portuguese conquest, at a time when Europeans were only first arriving in Southeast Asia.

19) 장뇌는 아시아(특히 보르네오나 타이완 등지)에서 발견되는 상록수인 장뇌수, 또는 보르네오 삼림의 용뇌수의 목재에서 얻어낸다. 그외에도 말린 로즈마리 이파리 등 박하류도 최대 20%의 장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트레빈 기름을 이용해 합성해 낼 수도 있다. 장뇌는 그 향을 이용해 요리 재료로 쓰거나(주로 인도에서) 방부제, 의약품, 그리고 종교 의식에서 사용된다.



- 티모르, 쉰바 - 말루쿠: 말루쿠(Spice 섬)에서 생산된 육두구, 정향 및 메이스(mace): 쉰바와의 거친 직물, 자바의 현금 및 인도의 장신구로 교환
- 자바 및 말라카 - 남부 칼리만탄: 식료품, 다이아몬드, 금, 장뇌; 인도 직물로 교환
- 남부 슬라웨시 - 말라카, 자바, 브루나이, 시암, 말레이 반도: 마카사르에서 온 노예, 쌀, 금은 부기스(Bugis)에서 인도 직물, 벤조인 등으로 직거래됨.

위와 같이 말라카에서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무역 시스템은 서쪽으로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 시리아, 동아프리카, 지중해, 북쪽으로 시암과 페구(Pegu)<sup>20)</sup>, 동쪽으로는 중국과 아마도 일본으로 연결되는 경로와 연결되었다. 이것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 시스템이었고, 두 개의 중요한 교환 지점은 인도 북서부의 구제라트와 말라카였다. 인도네시아의 향신료는 이 시스템의 상품 중 하나였지만,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 제품은 보다 평범한 자연의 대량 품목, 특히 인도 직물과 자바의 쌀이었다. 말라카는 통치자의 정책과 좋은 항구를 활용해 국제 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1511년 8월 포르투갈 원정대가 이 지역을 점령하자 말라카왕국은 남쪽의 조호르로 피난하였고, 이때부터 말라카의 무역량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1641년 네덜란드동인도회사가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말라카는 말레이반도에서 생산되는 주석 등을 수출하는 지방항 정도로 취급되었다.<sup>21)</sup> 말라카가 담당하던 국제교역 기능은 대부분 싱가포르로 넘어갔다.

싱가포르의 초기 지명은 트마식(Temasek, or Temasik)이다. 12~13세기 중국 송나라와 동남아시아 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14세기에 트마식은 이미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당시 트마식에서는 향기로운 목재와 같은 상품을 수출하였다. 1833년 싱가포르의 항구 인근에는 중국인, 말레이인, 부기스인, 자바인, 발리인, 벵골과 마드라스 원주민, 파시인, 아랍인, 아프리카인 등이 모여들었다. 싱가포르는 이 이민자들에게 기회와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다. 이민자들은 힘들게 번 임금의 대부분을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지만, 일부는 섬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었다. 싱가포르는 1830년대에 이르러 이미 바타비아를 제치고 중국 정크무역과 영국의 동남아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sup>22)</sup>

<그림 4>는 15~16세기에 말라카 해협, 수마트라, 자바 등지에서 운항하였던 자바 상선(Jung Jawa)의 모습으로, <말린 쿤당> 유형 설화에 등장하는 상인들도 이 상선을 소유했을 것이다. 1500년대 초 동남아시아 해역에 도착한 포르투갈 선원들은 이 지역

20) 미얀마 남부 페구 주, 페구 강 연안의 항구도시. 미얀마어로 Bago.

21) 류교열, 앞의 글, 220-223쪽.

22) "Looking back at 700 years of Singapore", *Biblioasia*, National Library of Singapore, <http://www.nlb.gov.sg/biblioasia/2019/01/23/looking-back-at-700-years-of-singapore>. 2020년 8월 23일 검색; 노영순, 「글로벌 시티의 비밀을 간직한 싱가포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지음, 『세계의 해항도시 I-아시아 편』, 선인, 2014, 263-2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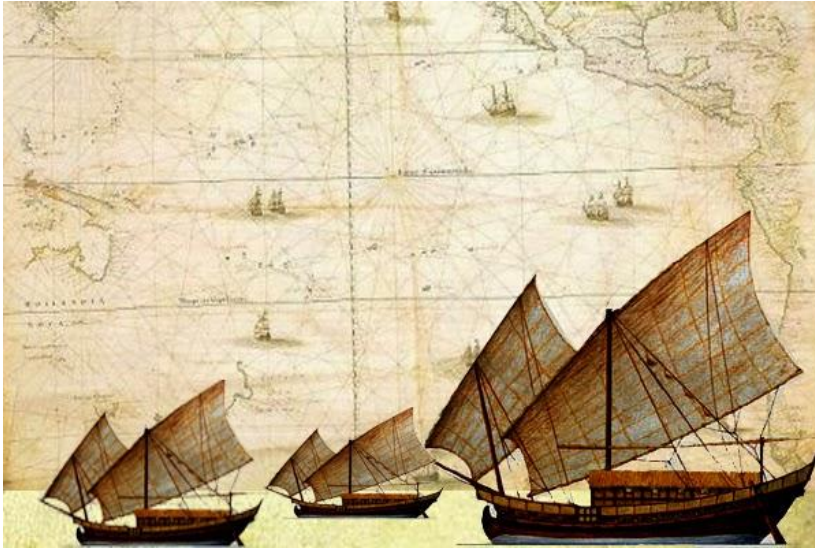


그림 4. 15~16세기에 말라카 해협, 수마트라, 자바 등지에서 많이 사용되  
었던 자바 상선의 모습. 출처: <https://www.goodnewsfromindonesia.id/2018/08/17/kapal-jung-jawa-kapal-besar-nusantara-jauh-sebelum-cheng-ho-dan-columbus>

을 자바 상선이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자바 상선은 말루쿠, 자바 및 말라카 해협 사이의 중요한 향료 무역 경로를 누볐으며, 말라카에 있는 많은 자바 상인들과 자바 상선의 선장들이 당시 국제무역을 담당하고 통제했다고 하였다.<sup>23)</sup>

‘이주’를 뜻하는 ‘므란타우’라는 단어는 미낭카바우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뜻은 미낭카바우인들

이 거주하던 서부 수마트라 지역을 벗어나 외부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미낭카바우인들이 거주지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문화적 이유로, 모계 사회인 미낭카바우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므로 돈을 벌려면 므란타우를 해야 했다. 둘째, 경제적 이유이다. 가난한 미낭카바우인들은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 성공한 미낭카바우인 밑에서 일을 배우며 상인생활을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로 므란타우를 가야 했다. 이 므란타우 문화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sup>24)</sup>

미낭카바우인들은 서부 수마트라와 리아우를 비롯한 수마트라 섬이 본거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말라카 해협을 건너 말라카, 싱가포르, 페낭 섬, 브루나이, 필리핀 등지로 이주해 해외무역활동을 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며 몇 년 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얼마간의 사람들은 그 곳에 정착해 도시 건설의 주역이 되었다. 한편으로 수마트라 섬 리아우 왕국의 통치자들은 외국상선의 입출항을 자유롭게 하고 역내 상품교역과 해외무역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1511년 포르투갈을 비롯해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 등을 점령하고 무역을 장악하면서 수마트라 상인들의 역동적 교역활동은 위축되었다.

23) “자바 상선”. <https://www.goodnewsfromindonesia.id/2018/08/17/kapal-jung-jawa-kapal-besar-nusantara-jauh-sebelum-cheng-ho-dan-columbus>. 2020년 6월 15일 검색.

24) Abdul Razak Saleh etc., *Diaspora: Adat dan Kekerabatan Alam Minangkabau*, Jakarta: Kemala Indonesia, 2015, pp.78-80.

#### 4. 맺음말

이상에서 인도네시아 설화 분석을 통해 말라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말레이반도 간에 일어난 교역활동과 상인형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문헌기록을 통해 전 근대시기 인도네시아 상인들의 구체적 생활과 교역활동에 관한 내용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 필자는 설화자료를 통해 말라카 반도에 이주·정착한 수마트라 상인들의 스토리와 해외교역을 활성화한 수마트라 섬 왕국의 스토리를 살피고 의미를 해석하였다.

인도네시아 34주 각지의 설화를 수록한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에는 총9편의 인도네시아 상인 제재 설화가 발견된다. 이주 상인 <말린 쿤당> 유형 설화 일곱 편은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말레이반도로 이주해 상인으로 정착한 스토리를 보여준다. 이 유형의 작품들은 미낭카바우족의 해외이주와 상인으로서의 성공을 주로 그렸다. 일부 작품에서는 싱가포르와 페낭 섬이라는 이주도시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설탕, 쌀, 담마르, 라탄, 옷감 등의 교역상품 명이 파악된다. <말린 쿤당> 유형의 일곱 작품은 구성과 대략적인 내용이 유사한 것 같지만, 주인공의 이름과 출생지, 주인공이 처한 환경과 해외상황, 결말을 포함해 세부적인 내용이 크고 작게 달라진다. 이는 일정한 환경 속에서 미낭카바우족의 해외이주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성공했지만 귀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원망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카왈 장군과 장오이>, <로칸왕국이 프카이탄으로 옮김>은 장군이 해적을 퇴치하고 왕과 지도자들이 해외교역을 일으킨 수마트라 섬 왕국의 스토리를 보여준다.

<말린 쿤당> 유형 설화에 등장하는 도시는 수마트라섬 일대와 말라카와 싱가포르, 페낭 섬이다. 16세기 포르투갈 작가 토메 피레스의 기록을 통해서는 말라카와 인도네시아 각지와 교역상품을 살필 수 있었다. 16-17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말라이 왕국을 점령하면서 말라카의 국제교역 기능은 급속히 쇠퇴하고, 싱가포르가 그 역할을 맡게 되며 1830년대가 되면 바타비아를 넘어서며 동남아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주’를 뜻하는 ‘므란타우’라는 단어는 미낭카바우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뜻은 미낭카바우인들이 거주하던 서부 수마트라 지역을 벗어나 외부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미낭카바우인들은 서부 수마트라와 리아우를 비롯한 수마트라 섬이 본거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말라카 해협을 건너 말라카, 싱가포르, 페낭 섬, 브루나이, 필리핀 등지로 이주해 해외무역활동을 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어 몇 년 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얼마간의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해 도시 건설의 주역이 되었다.

수마트라 섬 리아우 왕국의 통치자들은 외국상선의 입출항을 자유롭게 하고 역내 상품교역과 해외무역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1511년 포르투갈을 비롯해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 등을 점령하고 무역을 장악하면서 수마트라 상인들의 역동적 교역활동은 위축되었다.

## <참고문헌>

- 마가렛 테레시아·권혁래, 「인도네시아 <말린 쿤당> 설화의 상인 형상과 Merantau (이주) 문화」, 『동아시아고대학』 59,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
- 노영순, 「글로벌 시티의 비밀을 간직한 싱가포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지음, 『세계의 해항도시 I -아시아 편』, 선인, 2014, 263-278쪽.
- 류교열, 「말라카, 아시아가 융합되고 동서양이 만난 해항도시」,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지음, 『세계의 해항도시 I』, 선인, 2014, 211-223쪽.
- 소병국, 「말라카」, 『동남아시아사』, 책과함께, 2020, 230-241쪽.
- Abdul Razak Saleh etc., *Diaspora: Adat dan Kekerabatan Alam Minangkabau*, Jakarta: Kemala Indonesia, 2015, pp.78-80.
- Aris Ananta, Evi Nurvidya Arifin, M Sairi Hasbullah, Nur Budi Handayani, Agus Pramono, *Demography of Indonesia's Ethnicit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5, pp.167-175.
- “Looking back at 700 years of Singapore”, *Biblioasia*, National Library of Singapore.  
<http://www.nlb.gov.sg/biblioasia/2019/01/23/looking-back-at-700-years-of-singapore>. 2020년 8월 23일 검색.
- M.C. Ricklefs,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since c.1200* (third edition), Basingstoke : Palgrave, 2001, 23-24. 초판: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since c.1300*, Basingstoke : Macmillan, 1993.
- Novi Siti Kussuji Indrastuti etc., *366 Cerita Rakyat Nusantara*, Yogyakarta: Adicita Karya Nusa, 2015.
- “No one is an island: The history of human genetic ancestry in Madagascar.” <https://phys.org/news/2016-7-island-history-human-genetic-ancestry.html>. 2020년 06월 09일 검색.
- “로칸 왕국”, [https://id.wikipedia.org/wiki/Kerajaan\\_Rokan\\_IV\\_Koto](https://id.wikipedia.org/wiki/Kerajaan_Rokan_IV_Koto), 2021년 5월 20일 검색.
- “자바상선”. <https://www.goodnewsfromindonesia.id/2018/08/17/kapal-jung-jawa-kapal-besar-nusantara-jauh-sebelum-cheng-ho-dan-columbus>. 2020년 6월 15일 검색.
- “페낭섬의 역사”. <http://sps.penang.gov.my/index.php/en/penang-s-history>. 2020년 8월 20일 검색.

# 종합토론

## 토론문

- 2일차 -

### ■ 좌장

서인범(동국대학교 HK+사업단 단장)

### ■ 토론

제1발표 토론자: 안덕임(한서대학교)

제2발표 토론자: 이승호(동국대학교)

제3발표 토론자: 김현선(동국대학교)

제4발표 토론자: 박재복(경동대학교)

제5발표 토론자: 김예겸(부산외국어대학교)



**【제1토론】**

**“고고학으로 본 유라시아 문명교류사”에 대한 토론문**

**안덕임(한서대학교)**





## “고고학으로 본 유라시아 문명교류사”에 대한 토론문

안덕임(한서대학교)

발표자는 초원로, 사막로, 해로의 실크로드를 통한 기원전 30세기~기원후 12세기의 유라시아 지역의 문명교류사에 대하여 교류된 문물이 이입된 획기와 왕조의 교체를 중심으로 6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발표문에서는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4~6세기 실크로드 문명교류 시기의 신라의 대외교류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신라의 적석목곽분에 대하여 기마민족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한 결과 발생하였으며 이 적석목곽분과 함께 로만글라스와 황금 제품이 같이 수용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라의 적석목곽분의 기원에 대하여는 크게 앞선 시기의 묘제에서 진화, 발전하여 발생하였다는 자생설과 북방기원설(기마민족 이동설)이 있고 아직까지 학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 발표자의 견해대로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을 중앙아시아 기마민족의 쿠르간에서 찾는다면 쿠르간과 적석목곽분 사이에 크게 존재하는 시간적인 갭과 공간적인 갭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쿠르간과 적석목곽분 두 고분 양식은 목곽, 적석, 봉토의 형태, 봉토의 호석 등에서 유사성이 보이나 세부적인 축조 방식상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유물에서 연관성을 찾는 견해에도 해당된다. 쿠르간 무덤에서 발견되는 금제 유물에서 보이는 사슴, 새, 나무 등의 형태적 모티브와 소재의 동질성 등을 근거로 신라의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금관, 금제 허리띠, 팔찌 등 금제품과 이를 부장하는 장제를 기마민족 구르간의 유물과 장제에서 기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형태가 전혀 다른 유물을 단지 소재의 동질성과 몇 가지 형태적 모티브의 유사성을 근거로 연결짓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라 적석목곽분에 유리 용기를 부장하는 것이 유목민의 습속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데 유리 용기를 무덤에 부장하는 것이 기마민족의 습속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보충 설명을 구한다. 일례로 기마민족과 거리가 있는 중국 남조의 무덤에서도 유리 용기가 다수 부장된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2. 발표자는 계림로 14호분 출토 장식보검과 황남대총 출토 금제 누금 상감 팔찌의 경우 보석감입 기법과 누금기법으로 제작한 점에서 훈족의 금공기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누금기법과 감옥기법이 함께 사용된 사례는 이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우루왕조의 유물에서 보이고 이러한 금공기법은 헬레니즘 금속공예의 특징을 이루며 알렉산더대왕의 동방원정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일찍이 우리나라의 낙랑유물에서도 보이고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법은 훈족 이전부터 이미 유라시아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이러한 유물이 훈족의 금공기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형태나 문양, 소재, 성분 등 양식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발표문에 제시하지 않은 훈족 제작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다.

3. 발표자는 5세기 후반에는 신라에 로마 유리 용기의 수입이 단절되고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 용기가 이를 대신하여 이입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은 훈제국이 붕괴하고 이를 대신해 사산조 페르시아가 유라시아 실크로드에서 대두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5세기 후반~6세기 초의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천마총 등에서 출토되는 다수의 로만글라스는 모두 5세기 전반부에 수입되어 전세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5세기 후반에 페르시아 유리 용기가 신라로 이입되었다는 견해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황남대총 북분 출토 커트글라스에 대해서는 로마 유리 용기로 보는 설도 있는데 사산조 페르시아 유리 용기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한다. 또한 발표자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이러한 유리 용기는 육로를 통해 신라에 이입된 것으로 보는데 해로를 통한 이입 가능성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다.

**【제2토론】**

**「8~10세기 동유라시아의 모피 무역」에 대한 토론문**

**이승호(동국대학교)**



# 「8~10세기 동유라시아의 모피 무역」에 대한 토론문

이승호(동국대학교)

본 발표는 8세기부터 10세기 무렵까지 동유라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모피 무역에 대해 폭넓게 조망한 연구로서, 방대한 자료와 관련 연구를 망라하여 해당 지역의 모피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뿐만 아니라 모피 동물의 생태학적 특성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한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이신 윤재운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 동아시아 무역사 연구를 개척해 오신 이 분야의 권위자이시며 저 또한 후학으로서 그동안 선생님의 연구에 많이 의지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역시 관련 주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향후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해당 주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토론자는 선생님과 함께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 글의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기에도 버거움을 느낍니다. 다만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토론자의 궁금한 부분을 묻고 또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선생님께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 우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합니다.

## 1. ‘동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모피 생산지에 대하여

발표문에서는 8~10세기 동유라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모피 무역을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걸쳐 폭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모피의 ‘생산’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고대 중국 동북지역에서 산출된 貂皮를 비롯한 여러 모피 자원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즉 8~10세기 동유라시아 지역 주요 모피 생산지로서 중국 동북지역 및 연해주 일대를 지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고대 동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특히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 일대에서 모피 생산이 활발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동유라시아의 광활한 공간적 범위(파미르 고원 以東?)를 고려할 때 발표문에서 주목한 지역 외에도 모피가 산출되는 지역은 여러 곳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 일대 외에도 동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모피 산출지로 주목되는 지역은 없으셨는지요.

## 2. 신라의 모피 가공 관청에 대하여

발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 신라의 모피 관련 궁중 수공업 관청은 상당히 체계적인 인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동시기 당이나 발해 및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모피 수공업

관련 관청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혹 신라에서만 유독 이와 같은 관청이 체계적으로 분업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나 의의를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한편, 이븐 쿠르다지바의 『諸道路 및 諸王國志』(『Kitab al-Masalik wa'l-Mamalik』)에서 신라의 수출품 가운데 담비가죽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라와 발해 간의 교류 흔적을 워낙 찾기 어렵다보니 오히려 이 사료가 소중한다고 느껴지는데,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보이는 신라산 담비가죽이 실은 신라가 아닌 발해산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혹 신라가 발해로부터 담비가죽을 들여와 가공하여 다시 외부 수출한 것일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3. 발해 5도와 담비길의 접점

발표문에서는 발해와 중앙아시아 지역 간에 펼쳐진 이른바 ‘담비길’을 언급하며 발해산 모피가 ‘세계상품’으로서 선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행 연구(정석배)를 통해 검토된 바 있지만, 발해 5도로부터 담비길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를 여기서 대략이나마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4. 모피 원자재의 입수 방식

발표문에서는 발해가 定理府·安邊府로 편제된 옛 挹婁 지역, 東平府 일대에 거주한 拂涅靺鞨, 그리고 黑水靺鞨 등으로부터 모피 원자재를 획득하였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발해는 이들 말갈부족으로부터 어떤 명분과 방식으로 모피를 입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의 내부 상업·유통망을 중심으로 말갈제족과의 교역 과정을 통해 입수하였는지, 아니면 (토론자는 발해의 수취제도에 대해 무지한 형편이지만) 혹 이것이 이들 모피 원자재가 수령 및 그 예하 말갈부족에 대한 공납 수취와 연동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몇 가지 우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두고 혹 발표문의 논의를 곡해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토론】**

<용의 침 덩어리: 근세 동아시아 龍涎香의 박물학>에 대한 토론문

김현선(동국대학교)





## <용의 침 덩어리: 근세 동아시아 龍涎香의 박물학>에 대한 토론문

김현선(동국대학교)

김문기 선생님의 발표는 용연향의 奇談의 傳承, 동서지식의 교류, 그리고 ‘용’과 ‘고래’에 대한 동아시아의 동물 인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하여 중국의 경우 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었으며, 끝내 용연향을 인식하는데 있어 ‘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변증에 성공하였으며, 그 이유로 교역과 직접 관찰, 物에 대한 지식 탐구와 조직화를 지적하시고 계신 듯 합니다.

용연향이라는 물품을 처음 접할 정도로 생소한 주제였으나, 어디선가 용연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읽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 영역을 확장하시는 선생님의 노력은 저를 비롯한 많은 후배 연구자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용연향’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깊은 혜안과 방대한 자료 수집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현재 물품이라는 아젠다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 시점에서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된 논문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또한 연구의 경험과 깊이에서 비할 바가 되지 못하여 단지 개인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1. <本草綱目>에는 고래(鯨)항목 별도로 없음에 대하여

<ppt15>에 <本草綱目>에 고래 항목이 별도로 없음을 지적하며, 16세기 후반 중국인의 고래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古今注>를 보면, “鯨魚者, 海魚也。大者長千里, 小者數十丈。其雌曰鯨, 大者亦長千里, 眼如明月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鯨魚(고래)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암컷을 鯨으로 구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本草綱目>에 고래 항목이 별도로 없으나 鯨魚에 “俗云魚上竿, 乃此也。與海中鯨, 同名異物”이라고 하여 鯨魚가 고래의 다른 명칭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古今注>가 완성되기 이전부터 고래(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本草綱目>에서는 그 서적이 실용을 목적으로 했기에 구하기 힘든 고래 항목을 별도로 두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2. 중국의 용연향 인식에 대하여

<ppt 71>에서 중국은 끝내 ‘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陳氏香譜>를 살펴보면 “龍涎本無香…白者如百藥, 煎而膩理, 黑者亞之. 如五靈脂, 而光澤能發衆香, 故多用之以和香焉”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향을 합성하는 수많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sup>25)</sup> 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향을 합성하여 인공의 향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또한 황궁 전용 물품으로 사용되었던 용연향이 송대 광범위하게 사용되자 황궁과 황제를 상징하는 ‘龍’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sup>26)</sup>

더하여 선생님의 자료 <ppt 63>을 보면, 건륭 연간에 용연향을 고래의 정액이 수면에 응결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경영의 『海東札記』에서는 고래(海鰐)의 ‘침(涎)’이 ‘용연향’이라고 규정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ppt 64) 조학민, 『本草綱目』에서는 ‘용의 연말’ 및 ‘고래의 정액’이라는 설 모두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ppt 66)

즉 용연향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아닌 귀하고 값비싼 향료에 신성함을 부여하고자 한 당대인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3. 일본의 용연향 인식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중국, 한국, 일본의 용연향에 대한 인식은 제가 최근 관심을 가진 콜레라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1820년대 콜레라가 처음 동아시아에 유입된 후 중국은 콜레라를 기존에 있던 전염병으로 인식하여 ‘霍亂’으로 불렀고, 한국은 이름도 알지 못해 ‘怪疾’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Korori (コロリ: 콜레라의 음역)’ 혹은 ‘Korera(虎列刺: 네덜란드 상인에게 ‘콜레라’란 별명을 듣고 Korera로 읽기 시작)’라하여 콜레라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과 의료의 측면에서 중국, 한국, 일본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려고 시도할 때 중국, 한국, 일본의 인식이 매번 유사한 패턴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物’에 대한 ‘지식’ 탐구와 조직화는 다른 과학 및 의료 분야를 탐구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래에 대한 직접 관찰을 위해 포경 등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민하는 문

25) 張赫, 「小叙宋代龍涎香」, 『魅力中國』5期, 2010, pp.84-85.

26) 張錦鵬, 「聞香識人: 宋人對進口香藥的利用與他者想象」, 『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2020, pp.142-145.

제에 직면하였을 때 선생님의 조언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논문이 많은 기대가 되며,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 백

**【제4토론】**

**‘고대 동아시아 불교 물품의 교류’에 대한 토론문**

**박재복(경동대학교)**



## ‘고대 동아시아 불교 물품의 교류’에 대한 토론문

박재복(경동대학교)

서강대 강희정선생님의 논문은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서언’에서는 불교의 전래와 동시에 동아시아에 전래된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셨고, (2) ‘불교와 물질의 전래’에서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 물품에 대해 다양성과 상징성을 기술하셨고, (3) ‘신에 도달하는 물질로서의 향, 신성의담보 침향’에서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향목과 향로를 토대로 인간과 신성의 소통에 사용된 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셨고, (4) ‘맺음말’에서는 불교 물품의 전래에 대해 정리하고 침향 등의 불교 물품이 인도가 아닌 동남아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강희정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은 사실 저의 주 전공 분야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는 가운데도 토론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되지 않는 말이나 질문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듯합니다. 따라서 제가 본 발표문을 읽고 모르거나 궁금한 점, 또는 다소 달리 생각하는 점 등을 조심스럽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교 물품 중에 본래 불교와 관계없는 일상 용품이었는데, 동아시아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불교용품이 된 용례의 다양한 유형과 변화양상을 시차와 지역의 구분을 통해 구체적인 고찰이 가능한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례로, 현재 인도, 중국, 한국에서 확인되는 출토 유물 중에서 ‘정병’의 기형과 용도가 지역적, 시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단순한 물질이 종교적 의미를 지닌 성물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처님의 사리 일부가 한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리’가 어떻게 불교에서 신성성을 획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출토된 사리와 사리함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불교 용품과 물질은 반드시 인도 원산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한반도에 유입된 향목(혹은 침향)이 참파나 캄보디아에서 생산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 한반도에 유입되었는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유통 경로가 같았는지 등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논문 구성에서 필자와 다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먼저, 본고에서 인용한 삼국유사와 같은 내용은 실존 역사기록이라기 보다는 고사나 전설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보이는 불교 물품이 당시의 것인지 후대 사람들에 의해 추가된 내용인지에 대해, 그 역사성을 치밀하게 먼저 고증한 뒤에 고고학 자료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둘째, 논문 제목은 너무 크고 본문 내용은 산발적으로 일부만 논의한 느낌이 강해 차후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구분과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논문 제목에 연대구분과 연구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재 본고에서는 (1)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언급하고 있어 제목의 '고대'와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2)본고의 핵심내용은 향과 향로에 치중되기 때문에 제목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논문 제목에 동아시아로 한다면 최소 한·중·일 삼국의 내용을 대등하게 다루어야 할 듯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는 소논문의 제목으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3장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고찰해 소논문으로 발표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셋째, 논문 서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물질문화의 전래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상황을 주로 다루었고, 3장에서는 향과 향로를 주로 언급하며 한국의 상황을 주로 다루고 있어 논문 전개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2장의 내용도 한국을 위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 좋은 원고를 만들어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자의 얇은 안목으로 두서없이 드린 말이 논자에게 누가 되었으면 용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토론】**

**「설화에 나타난 인도네시아 상인들의 교역활동과 문화」 토론문**

**김예겸(부산외국어대학교)**



# 「설화에 나타난 인도네시아 상인들의 교역활동과 문화」 토론문

김예겸(부산외국어대학교)

본고는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366 Cerita Rakyat Nusantara)』에 나오는 9개 설화(말라카 반도로 이주한 상인 이야기 7편, 해외교역을 활성화한 수마트라 섬 왕국 설화 2편)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설화의 배경지역(수마트라, 말라카, 싱가포르, 뼈낭)의 역사적 교역활동과 역사문화를 고찰하고 있다.

본고는 다양한 지역(수마트라 8 지역, 남부 깔리만탄 1 지역)의 총 9편의 설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대 인도네시아 상인 및 고대 인도네시아 왕국들의 교역활동을 고찰하면서, 산재되고 분절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 세계의 총체성을 규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본고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판단된다.

본고에 대한 토론문은 문제제기 보다는 타 전공분야와의 학제간 소통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인류학적 시각에서 향후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 참고 될 만한 2가지의 내용상의 이슈와 2가지의 방법론적 이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1. [내용상의 이슈] Oral Tradition (설화, 신화) 연구 유형에 관하여

Oral Tradition은 다양한 층위에서 연구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 주제, 전개과정 및 서사적 내용에 대한 비교문헌분석 (이은구, 임근동)
- 도구주의 관점에서 내용을 해석하려는 시도 (미르치아 엘리아데)
- 신화의 상징적 논리체계 및 논리적 규칙을 탐구 (나카자와 신이치)
- 신화의 내용보다는 보편적 구조와 의미에 초점 (Lévi-Strauss의 구조주의적 분석)

따라서 본고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는 상기된 Oral Tradition 연구 유형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본고가 지향하는 유형을 밝힐 필요가 있다.

## 2. [내용상의 이슈] Merantau(이주) 교역에 대한 관점

본고에서는 미낭까바우인들의 Merantau 교역의 배경에 대하여 ‘모계사회의 특징’ 및 ‘경제적 이유’ 등의 원인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는 하기된 교역에 대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견해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고의 주 관심사인 미낭까바우인들의 Merantau 교역을 설

명하면 어떨까 싶다.

- H. T. Oshima (계절적 변수와 고용 가설)
- A. G. Dewey / C. Geertz (인구성장과 농촌인력 고용 가설)
- U. Mai and H. Buchholt (영세 농업 가설)
- G. Marshall (문화적 표현 가설)

### 3. [방법론적 이슈] 구성주의적 난제

본고가 다루고 있는 설화들은 세월동안 창안(invention), 변경(alteration) 그리고 혼종화(hybridization)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 왔기 때문에 “순수한(authentic)” 문화와 전통을 규명하는 데에는 방법론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따른다. 이러한 방법론적 어려움은 Joel Kahn 등의 학자들이 이미 지적한 바이다. 따라서 본고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는 상기된 구성주의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연 또는 주변 학자들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제한’이 필요하다.

### 4. [방법론적 이슈] 자료의 선택성과 상호의존성의 난제

본고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는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366 Cerita Rakyat Nusantara)』이 왜 주요한 자료이며 또한 해당 9개의 설화가 왜 주요한 분석 대상이어야 하는지 부연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미 분석 자료(9편의 설화)의 타당성이 다른 내부적 또는 외부적 자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는 방법론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선택성과 상호의존성의 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검토가 포함되면 좋을 듯 싶다.

-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366 Cerita Rakyat Nusantara)』의 편집자인 BKPBM (Balai Kaljian dan Pengembangan Budaya Melayu)의 편집 아젠다 (참고로, BKPBM은 Melayu 문화의 규명을 아젠다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관이어서, 예를 들어 이슬람 중심의 Malayu 문화를 규명하고자 한다면 비이슬람 요소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선택된 분석자료 이외 자료들의 내용이 간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Jan Vansina가 “Oral Tradition as History”에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34개주에서 수집된 『366편 인도네시아 설화집(366 Cerita Rakyat Nusantara)』에 내포된 전통문화 경합성 (참고로 34개 인도네시아 주들은 문화적으로 독립적인 문화권들이 아니라서 서로 경합적으로 대표성을 주장하면서 문화와 전통을 의도적으로 창안, 변경 그리고 혼종화할 개연성이 있음)

여 백

2021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공동학술대회  
『동유라시아 문명 · 문화 교류의 역동성』

- ◎ 일시: 2021년 5월 28일(금) ~ 29일(토) 13:00~17:00
- ◎ 장소: ZOOM(ID: 869 0545 2131 / 암호: 784048)
-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 ◎ 후원: 한국연구재단  
당진시(유네스코선정 올해의 인물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 ◎ 이 행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NRF-2018S1A6A6062488)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1054082)